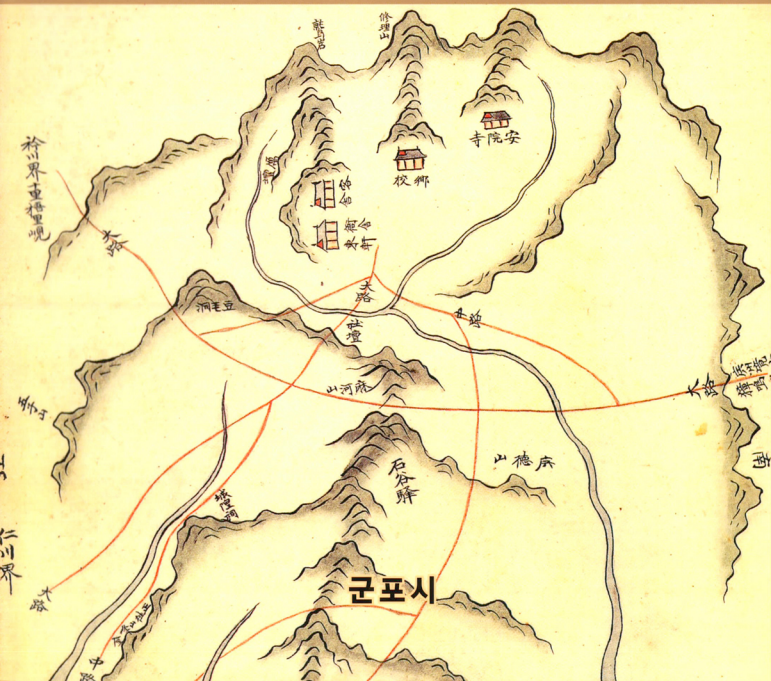


군포시 지명유래 및 씨족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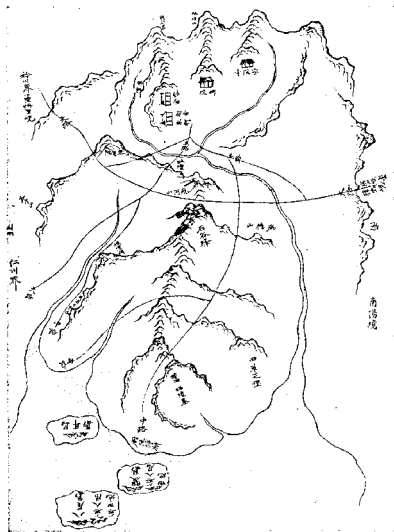
경기대학교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향토사로 학습조사용역 보고서

군포시 지명유래 및 씨족역사

경기대학교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군 포 시

군포시 지명유래 및 씨족역사



대동여지도의 군포 일대

일러두기

1. 킴필대상 지역은 현 행정구역상 군포시를 원칙으로 하였다. 단, 군포시와 인접한 지역이라도 서술상 필요한 경우 이것을 포함하였다.
2. 전체 서술대상 시기는 선사시대로부터 2003년 12월말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3. 이 책에는 군포지역의 행정동과 법정동, 자연마을, 산과 봉우리, 고개와 골짜기, 하천과 저수지, 역과 터널 교량 등의 교통시설, 옛 터, 기타 지표명을 대상으로 약 400 개의 지명을 수록하였다.
4. 이 책에 수록된 행정동사무소는 군포시의 조례에 의거한 동별 배열 순서이며, 각 동의 관내 지명 등은 가, 나, 다 순서에 의하였으며, 동일지역이 중복된 이름(복합호칭)을 갖고 있을 때에는 : 로 표시하고 모두 수록하였다.
5. 지명은 현지에서 부르는 명칭, 자료에 수록된 명칭 등을 그대로 수록하였으며, 맞춤법이 틀린 경우에도 토박이말에 의하였다.
6. 여기에 수록된 지명은 현지조사와 문헌 및 고지도 등을 참고하였으며, 특히 다음의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 군포시, 『군포시사(지명유래분야)』, 1999.
 - 류지호, 『군포시 지명유래집』, 군포시, 1999.
 - 경기도, 『지명유래집』, 1987.
 - 국토지리정보원 1 : 5, 000지형도(군포지역에 해당되는 1979년판과 2002년판 각 도엽)
7. 2003년 말경 군포시에서 새주소 제도 정착을 위하여 추진 중이던 ‘가로 명칭 제정(부여)사업’에 의한 도로명칭은 수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8. 먼저 ‘군포’라는 이름의 연원과 논란이 있었던 ‘산본’, 그리고 지도에서 사라진 ‘군포천’과 ‘안양천’의 문제, ‘수리산’ 등에 관하여 검토하고 이를 정리해 보았다.
9. 산과 봉우리의 명칭은 따로 일괄 수록한 후, 각 행정동 사무소별로 관내 지명에서 다시 설명하였으며, 동과 동의 경계에 있는 지명은 관련되는 동에서 다시 설명하였다.

10. 안양시, 시흥군 등에서 부여한 기존의 '홍안로', '호계로' 등의 도로명칭은 수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1. 하천명칭은 군포시 발행 『행정지도』(2001년 9월)에 수록된 하천의 명칭을 수록하였다.
12. 터널, 교량, 고가차도, 지하차도 등의 교통시설 중에서 시설이 낡고 노후되었거나 지명으로서의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제외하였다.
13. 이 책은 현지에서 면담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 분 이외에도 군포시 의회의원, 군포시 지명위원회 각 위원, 군포시 문화공보과, 군포문화원, 그리고 여러 군포시 관내 문중의 증친회 회장님 등 많은 분들이 지원하여 주신 자료를 참고로 하였다.
14. 조사된 자료는 신도시 개발지역내 토박이 주민의 집단 이주, 지면의 변경, 행정구역의 변경, 지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명의 위치 표시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보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유래도 다를 수 있다.
15. 군포의 성씨는 군포지역의 관직, 세거성씨와 친족 등을 서술하였다.
16. 군포의 인물은 이곳에서 출생, 우거, 활동, 사거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17. 수록인물과 성씨는 군포시 발행 『군포시사』(1999년 10월 발행)를 기본으로 하고, 조사기간중 새로이 추가 혹은 보완하였다.
18. 수록인물은 각 분야에서의 활동과 업적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1990년 군포시 승격 이전까지 생존한 인물을 대상으로 삼았다.
19. 문장은 한글 전용으로 하되, 현행 교육부 규정 한글맞춤법과 국정교과서의 표기 원칙을 따랐다.
20. 가능한 한 외래어나 외국어는 피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교육부 편수자료에 따랐다.
21. 한자나 영문자를 병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은 한글을 먼저 쓰고 괄호안에 표기하였다.
22. 본문 중 인용되는 저서나 인명 등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 『 』 모든 문헌·저서의 제목.
- 「 」 현대(한글체)의 논문·각품의 제목.
- () 한글과 음이 같은 한자·외래어.
- [] 한글과 음이 다른 한자·외래어.
- “ ” 인용.
- ’ 재인용·강조·속담 등.
- 동일한 사항의 나열.
- ~ --- 부터 --- 까지
- 쪽 페이지 표시

발간사

『군포시 지명유래 및 씨족역사』 조사보고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귀중한 사료가 나오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송윤석 군포문화원장님을 위시한 경기대학교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의 연구진 여러분께 27만 군포시민과 더불어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리잡고 살고있는 터전의 유래를 아는 일은 가족의 역사를 아는 일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동안 여러 가지 문명이 혼합되면서 발전해 온 고장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원래의 모습을 밝혀려는 노력은 그 자체로 지고지순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옹 선생께서도 천발유광(天發幽光)이라 하여 고강에 숨어있는 빛나는 행적을 세상에 밝혀 백성들의 가르침으로 삼는 일을 목민관의 커다란 임무라 하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옳고 바른 행적을 드러내는 일도 참 중요하지만, 과거의 사실(史實)을 밝혀 오늘의 교훈으로 삼는 일도 참으로 값어치있는 일입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우리 군포의 지명 유래와 씨족의 역사 속에는 당시 같은 땅을 밟고 살고 계시던 조상들의 정서와 추구했던 가치가 그대로 녹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을 들여 만든 이 사료는 앞으로 시간이 흐를 수록 더욱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를 통해 역사를 배우면서 또다시 새롭고 정직한 군포의 역사를 써나갈 것입니다.

다시한번 이 귀중한 보고서를 세상에 내놓으신 연구진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군포시를 위해 더욱 구체화되고 전문적인 제2, 제3의 보고서가 나오길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4. 2.

군포시

축 사

새로움과 전통이 조화된 살기좋은 문화도시 군포에서 이번에 『군포시 지명유래 및 씨족역사』 연구 보고서를 펴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도권 교통의 요지로서 맑은 물과 수려한 산을 자랑하는 군포시는 신도시 개발 이후 더욱 활기찬 도시의 면모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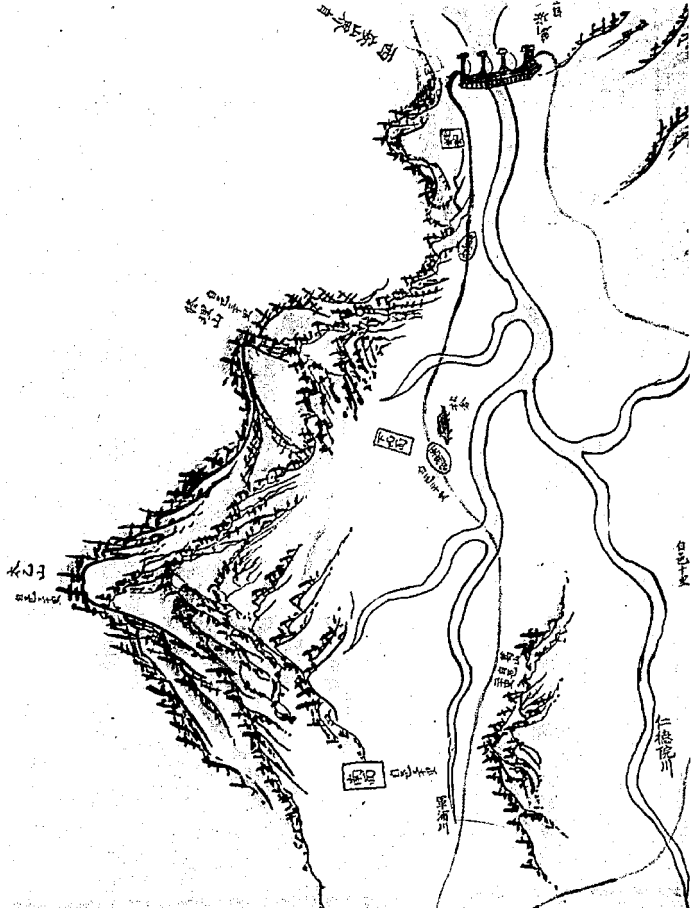
금번에 군포시 전역의 고유 지명 및 새로운 지명을 종합하여 조사하고 군포시에 대대로 터를 잡고 살며 임기를 이룬 씨족들의 역사를 발굴하여 보고서를 펴내게 된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있는 지역의 모습과 그 근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군포시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가 앞으로 더욱 정확한 내용과 풍부한 자료를 담은 군포시 지명 및 씨족 조사 연구의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여기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고서 출간을 위한 조사 연구에 애쓰신 경기대학교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연구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자료와 정보를 주시고 초고 검토에도 일부 참여해주신 군포시내 여러 씨족어른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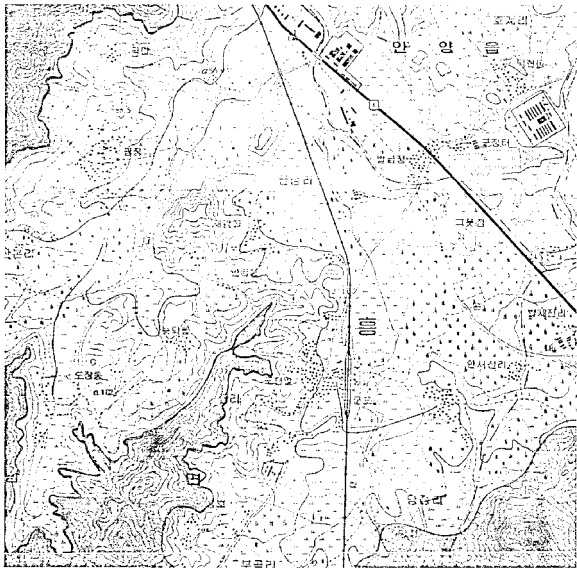
2004. 2.

군포문화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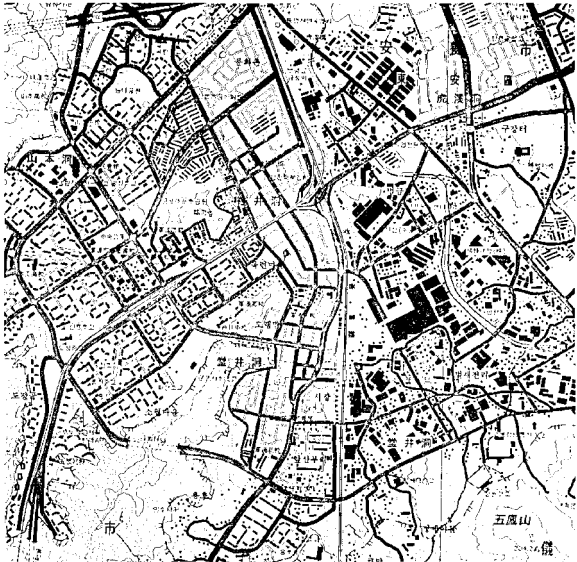
송유석



<지도 > 과천현지도(1871) 중 관표지역(서울대 규장각 소장)



<지도 2> 1972년 시흥군 남면 지도(국립지리원 1 : 25,000)



<지도 3> 2001년 군포지역 지도 (국립지리원 1 : 25,000)

차 례

일러두기	5
발간사	7
축사	9
머리말	19
제1장 군포시의 역사 개요	21
1. 고대와 중세의 군포	21
1) 선사시대의 군포	21
2) 삼국시대의 군포	23
3) 남북국시대의 군포	24
4) 후삼국과 고려시대의 군포	26
2. 조선시대의 군포	29
3. 근현대의 군포	33
1) 근대의 군포	33
2) 현대의 군포, 군포시의 발전	36
제2장 군포시의 지명	39
1. 지역사, 향토사와 지명	39
1) 지명은 향토를 가꾸는 문화계	39
2) 지명은 지역사 연구의 요람	40
2. 군포시의 연혁과 지명변천	41
1) 고려시대 이전까지	41
2) 고려·조선시대	42
3. 군포의 지명유래	45
1) 군포지역 주요 지명의 이해	45

2) 군포의 산	51
4. 각 행정동의 지명	62
1) 군포1동(軍浦一洞)	62
2) 군포2동(軍浦二洞)	77
3) 산본1동(山本一洞)	92
4) 산본2동(山本二洞)	96
5) 금정동(金井洞)	101
6) 제궁동(濟宮洞)	109
7) 오금동(五禁洞)	116
8) 수리동(修理洞)	124
9) 궁내동(宮內洞)	135
10) 광정동(光亭洞)	141
11) 대야동(大夜洞)	149
제3장 씨족의 역사	177
1. 성씨 개요	177
1) 삼국이전의 성씨	177
2) 삼국의 성씨	178
3) 남북국시대의 성씨	181
4) 고려의 성씨	184
5) 조선시대의 성씨	185
6) 일제시대의 성씨	187
7) 현재의 성씨	187
2. 군포의 주요 씨족	188
1) 원풍 곽씨(玄風 郭氏)	190
2) 능성 구씨(綾城 具氏)	191
3) 경주 김씨(慶州 金氏)	192
4) 광산 김씨(光山 金氏)	192
5) 남평 문씨(南平 文氏)	194

6) 여산 송씨(礪山 宋氏)	195
7) 청송 심씨(靑松 沈氏)	197
8) 순흥 안씨(順興 安氏)	198
9) 남원 양씨(南原 梁氏)	199
10) 진주 이씨(鎭州 李氏)	200
11) 환산 이씨(韓山 李氏)	201
12) 평택 임씨(平澤 林氏)	202
13) 동래 정씨(東萊 鄭氏)	203
14) 신안 주씨(新安 朱氏)	207
15) 경주 최씨(慶州 崔氏)	209
16) 청주 한씨(淸州 韓氏)	209
17) 남양 홍씨(南陽 洪氏)	211

제4장 군포의 인물 213

1. 조선시대의 인물 213

1) 락 광(郭 院)	213
2) 김동헌(金東獻)	213
3) 김만기(金萬基)	215
4) 김명연(金命淵)	217
5) 김진구(金鎭龜)	217
6) 김춘택(金春澤)	218
7) 송 결(宋 謙)	219
8) 송복산(宋福山)	219
9) 송숙기(宋叔球)	220
10) 송 찬(宋 瑛)	221
11) 안양군 이항(安陽君 李恒)	221
12) 안우삼(安友參)	223
13) 안우하(安友夏)	224
14) 안 의(安 誼)	224

15) 양 숙(梁 瑒)	225
16) 양운의(梁允義)	226
17) 양 권(梁 瓚)	226
18) 이기조(李基祚)	227
19) 이응희(李應禧)	229
20) 경광필(鄭光弼)	230
21) 정난종(鄭蘭宗)	232
22) 정재륜(鄭載濬)	235
23) 한치의(韓致義)	235
24) 홍원동(洪遠童)	237
2. 근대의 인물	238
1) 안상호(安商浩)	238
2) 이병익(李範益)	239
3) 조중완(趙重完)	240
3. 현대의 인물	240
1) 오형탁(吳亨鐸)	240
2) 윤영춘(尹迎春)	241
3) 이무영(李無影)	242
4) 이재준(李載濬)	244
5) 이재형(李載溚)	244
6) 현흥리(韓興履)	245
참 고 문 헌	247
찾아보기	253

머리말

이 책은 군포시 학술연구용역 표준계약서(2003.11.20)에 의거하여 진행된 군포시 향토사료 학술조사용역 사업의 결과물인 『군포시 지방유래 및 씨족역사』 보고서이다. 군포는 일찍이 대야동에서 구석기유물이 출토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아왔다. 오늘날의 군포시 지역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면 마한, 백제한성 시대를 거쳐 고구려 남하정책에 의해 안산의 장항구현(鎭項口縣), 시흥의 양번노현(仍伐奴縣) 그리고 과천의 울목군(栗木郡)이 설치되었으나, 그후 통일신라 시기에는 장구현(鎭口縣), 곡양현(穀壤縣), 읍진군(栗津郡)으로 개편되었다. 한편 고려시대에 이르러 안산현(安山縣), 금주(衿州), 과주(果州)의 일부에 속했으며, 조선시대 초기에 이르러 안산군(安山郡), 금천현(衿川縣; 후에 始興縣), 과천현(果川縣)의 관할지역이었다. 그후 조선후기에는 과천현(果川縣) 남면의 7개 리에 속하였다.

김오개척이후 종래의 부(府)·목(牧)·군(郡)·현(縣)이 군(郡)으로 통합되어 13도제(道制)의 실시로 안산군, 시흥군, 과천군 관할이 되었다. 일제하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과천군 남면(10개리)과 안산군 북방면(9개리)을 아우르는 지역이었다가 1914년 조선총독부령에 따라 다시 시흥군 남면(5개리)과 수원군 반월면(4개리)으로 개편되었으며 1979년 대통령령에 의거 시흥군 남면이 군포읍으로 승격되었다. 그리하여 최근의 산업화와 수도권 개발에 따라 주변의 의왕시, 시흥시와 병행, 1989년 군포시로 독립되어 오늘의 군포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지명은 인명과 더불어 인간의 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지역향토사 연구의 중요부분이다. 사람들이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살면서 의·식·주를 영위하고 자연 및 우주속에서 형이상학적 세계관과 사고방식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공간이 곧 지역이다. 따라서 지역은 인간의 삶의 공동체의 핵이며 그속에서 잉태된 지명과 씨족들의 역사상을

재조명하는 것은 그만큼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본다.

이번에 군포시의 지원을 받아 유서깊은 군포시의 지명과 세거성씨들의 역사를 조사, 연구한 결과는 지역문화 연구를 위한 자료 축적과 일반시민 및 관련 연구자들에게 제공됨으로써 군포시 역사연구 및 시민들의 내 고장 문화를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와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 연구소에서는 학술조사단을 구성하여 역사적 사실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지명의 형성 유래와 변천 그리고 마을 단위의 세거성씨들의 씨족의 역사와 인물을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의 형성을 조사, 분석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기초 문헌사료의 조사, 수집 그리고 수 차례에 걸친 현장답사와 중요성씨 문중 대표자들과의 면담을 거쳐 1차적으로 원고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조사기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조사 및 서술상의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 해서 문화원 관계자 및 각 씨족문중 대표자들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완성된 원고에 대해 마지막으로 각 문중대표 및 검토위원들의 지적사항과 수정 의견을 취합하여 수정, 보완함으로써 이와 같은 최종보고서를 간행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한계나 구전(口傳)에 의하여 서술된 부분의 객관성 부족 등이 우려되는 면도 없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것은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사료의 발굴, 인터뷰 대상자의 확대 및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지원해 준 군포시에 감사를 드리며, 관계자료의 제보와 열담 그리고 현장조사시 면접에 흔쾌히 응해주신 각 씨족 종친회 대표님, 마지막으로 서술상의 오류를 지적해 주신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검토위원과 집필해 주신 임상선, 김기빈, 조성운, 이왕무, 김찬수 연구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 2

경기도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장 조병로

제1장 군포시의 역사 개요

1. 고대와 중세의 군포¹⁾

1) 선사시대의 군포

최근 행정구역이 개편되기 이전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대야미리 62-5번지 일대에 위치한 대야동유적은 지금까지 경기도 지역에서 조사된 20여 곳의 구석기유물 출토지 가운데 전곡리 유적에 이어 두 번째로 정식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곳이다. 발굴조사는 충북대학교 박물관탐에 의해 1988년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되었다. 이 일대는 해발 70m 내외의 야산 구릉지대로서 발굴은 야산 구릉(정상높이 해발 85.73m)의 서남쪽면 아래쪽을 중심으로 177㎡에 걸쳐 이루어졌다. 출토된 석기는 규암 자갈들로 만든 끈은 오목날 긁개, 편마암 판자돌로 만든 오목날 긁개, 편마암 모난 돌로 만든 볼록날 긁개·세기개, 편마암 판자돌로 만든 오목날 밀개, 편마암 모난 돌로 만든 홈날, 편마암 판자돌, 백운모·편마암 판자돌로 만든 주먹대패, 규암 자갈들로 만든 망치, 규암 판자돌로 만든 망치 등이 있다.

이 곳 문화의 성격은 석기의 구성면에서 볼품 석기가 많은 수를 차지하며, 바탕돌로 거의 편마암 계통이 쓰여서 이곳에 발달된 암층 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석기의 기능은 긁개·밀개 등 부야조 리용이라는 특징이 있다. 석기의 크기가 비교적 작고 가벼워 이곳에 생활하였던 구석기인들은 큰 짐승보다는 작은 짐승의 가죽 벗기기, 조리 등 가벼운 일이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석기 날의 사용 정도로 보아 약간씩 쓰인 흔적이 관찰되며, 문화층의 두께와 연관지어 보면 이곳에서 잠깐 살다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석기의 제작은 르브루아 수법이고, 전반적인 간접폐기로 쓰인 흔적이 없고, 임부리 세기개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후기 구석기시대의 이른 시기에 해당된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1) 『군포시사』, 94~133쪽 참조.

군포지역내 신석기시대 유적은 확인된 것이 없고, 발굴된 고인돌은 골안마을 2기, 광정마을 5기, 문화촌 4기 등 총 11기가 명지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 조사되었다. 골안마을 소재 고인돌은 군포시에서 당성사(堂成寺)로 들어가는 골안(谷內) 마을 입구의 논에 있으며, 행정구역으로는 산본2동 179번지이다. 산본천의 지류인 작은내에 인접하여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었다. 제1호 고인돌은 해발 45m인 계곡의 계단식 논에 있었다. 덮개돌은 옆에 흐르는 산본천의 지류와 같은 방향으로 장축이 남북에서 서쪽으로 30도 기울어져 있다. 덮개돌의 규모는 길이 205cm, 폭 140cm로 길쭉한 타원형이며, 두께는 50cm 내외이고 화강암이다. 제2호 고인돌은 제1호 고인돌에서 남쪽으로 4m 떨어진 논두렁 밑에 위치하였다. 덮개돌은 길이 180cm, 폭 85cm, 두께 30~50cm의 규모로 부정형이며, 장축은 동서 방향이었다. 골안 고인돌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었다.

광정마을 소재 고인돌은 수리산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린 큰 줄기 능선 하단부의 계곡 삼각지에 위치한 해발 75m이고, 행정구역은 산본2동 345번지의 밑이었고, 출토유물은 없었다. 제1호 고인돌은 광정마을 고인돌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큰 것으로 유적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다. 덮개돌은 길이 265cm, 폭 140cm, 두께 50~55cm이다. 전체적으로 타원형을 이루고 장축방향은 남북으로 약 40도 가량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제2호 고인돌은 제1호 고인돌의 동북쪽으로 40m 떨어져 위치한다. 길이 100~200cm, 폭 50~100cm 내외의 돌덩이 5개가 모여있다. 덮개돌을 이동시키고 하부층 조사한 결과 2개의 석곽이 발견되었다. 제3호 고인돌은 제2호 고인돌의 남쪽으로 3m 떨어져 있다. 두개의 큰 돌이 마주 끼이고 있는데, 큰 것은 210×151cm, 작은 것은 148×90cm였다. 두개의 괴석 사이에는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 불에 그을린 흔적이 있다. 출토유물은 없었다. 제4호 고인돌은 제3호 고인돌에서 남쪽으로 5m 떨어져 있었다. 덮개돌은 화강암으로 4개로 쪼개졌으며, 주 덮개돌의 크기는 길이 154cm와 폭 100cm로 장축방향은 남북으로 20도 가량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허부구조는 없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출토유물은 없었다. 제5호 고인돌은 제4호 고인돌에서 동쪽으로 19m 떨어져 있다. 덮개돌은 화강암으로 크기는 166×145cm의 타원형이며, 두께는 20~25cm의 판석형으로 남단은 돌글개 다듬고, 북쪽은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문화촌 소재 고인돌은 수리산의 동쪽지맥에서 남으로 흘러내린 중간지맥의 해발 55m 높이의 기슭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은 산본동 산 1-2번지이며 출토유물은 없었다. 제1호 고인돌은 구릉 사면의 동남부에 위치하였다. 덮개돌은 편마암이고 크기는 길이 200cm, 폭 180cm, 두께 20cm 정도이다. 장축방향은 북서-남동방향이며 형태는 타원형이다. 제2호 고인돌은 제1호 고인돌에서 7m 떨어져 있다. 편마암 덮개돌은 290×263cm의 크기로 거의 원형을 이루며 두께는 64cm이다. 제3호 고인돌은 제2호 고인돌에서 북쪽으로 5~10m 떨어져 위치한다. 4호 고인돌은 3호에서 1.5m 떨어져 있는데

하부구조는 교란되어 확인할 수 없었다.

2) 삼국시대의 군포

백제가 한강유역 일대의 여러 성읍(城邑)을 거느리는 연맹왕국으로 성장한 것은 3세기부터였다. 백제의 영토가 북쪽으로 예성강, 동쪽으로 춘천, 남으로 안성권 일대까지 이른 시기를 학계에서는 대체로 고이왕대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군포지역이 백제의 영역이 되는 시기는 늦어도 이때까지는 이루어졌다고 짐작된다. 군포지역은 한성 백제기의 수도가 있던 오늘날의 송파구 일대와 멀지 않기 때문에 선진 문물을 접하기가 쉬웠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이와 관련된 유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고구려의 광개토왕은 396년에 수군을 이끌고 백제를 친정하였다. 고구려군은 관미성(關彌城)과 아차성(阿且城) 등 58개의 성과 700개의 촌을 쳐무순 뒤에 한강을 건너 백제의 수도인 한성(漢城)에 유배하였다. 백제의 아신왕이 항복하므로 백제왕이 인질로 보낸 왕의 동생과 대신 10명을 끌고 돌아갔다. 장수왕은 부왕의 사업을 계승하여 고구려의 전성기를 열었다. 427년(광개토왕 15)에는 수도를 평양 동북방 대성산쪽으로 옮겨 남진정책을 추진하였다.

고구려의 평양천도는 백제와 신라에 큰 위협이 되었다. 신라도 고구려의 남진정책에 위협을 느끼고 433년 백제와 동맹을 맺었다. 장수왕은 475년 9월에 3만 병력을 동원하여 백제를 공격하였다. 고구려군은 도성인 한성을 침략한 뒤 성밖으로 탈출한 개로왕을 붙잡아 목을 베었다.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일시적으로 점령하는데 그치지 않고 계속 남하하자 백제는 한성지방을 포기하고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다. 그리하여 고구려의 영토는 죽령, 조령일대로부터 남양만을 연결하는 선까지 뻗치게 되었다. 이처럼 장수왕 말년에 고구려는 만주와 한반도에 걸친 광대한 영토를 소유하고 대제국을 건설하여 중국과 자웅을 겨루게 되었다. 이때 군포지역도 자연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고 대체로 잉벌노성(仍伐奴城)의 관할하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백제의 성왕은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538년 사비로 천도하여 국력을 배양하면서 고구려가 점유한 한강유역의 옛 땅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신라의 진흥왕과 동맹하여 고구려의 내분을 틈타 551년 복벌을 감행하였다. 백제는 한강 하류지역의 6군을 점령하였고 신라는 거칠부 등 8명의 장군으로 하여금 한강 상류지역인 죽령 이북, 철령 이남의 10군을 점령하였다. 이어 신라는 2년 뒤인 553년에 백제가 점령한 한강 하류지역을 기습공격하여 한강유역 전부를 차지하게 되었다. 신라의 점유기에도 군포지역은 잉벌노성의 관할하에 있었다고 짐작된다. 이 지역은 한산주(漢山州) 소속이었다. 한산주의 치소가 오늘날 하남시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군포지역과는 그다지 멀지 않았다.

3) 남북국시대의 군포

삼국간의 치열한 전쟁은 7세기 중엽에 이르러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및 신라의 한반도 통일 나아가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만주를 차지하는 형세로 변화했다. 신라는 671년부터 676년 사이에 백제와 고구려의 고토에 대한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치열한 나당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이때 군포와 일정한 관련이 있는 호암산성(虎岩山城)이 나당전쟁 시기에 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호암산성은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산 93번지 일대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호암산성은 평면형태가 북동~남서 방향으로 길쭉한 마름모꼴인데 표고 325m의 능선을 따라 축조한 전형적인 테피식 산성이다. 자연지형을 잘 이용하여 축성한 것으로 성벽의 총 길이는 1,250m 가량 된다. 산성은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관계로 지금은 약 300m 가량의 석성(石城)만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남아있을 뿐이다. 산성의 축성 목적과 시기를 알려주는 직접적인 문헌자료는 없지만 산성 발굴 조사과정에서 출토된 유물·유적과 산성이 위치한 입지조건과 지형을 근거로 하여 관련문헌 자료와 비교한 결과 축성시기는 통일신라시대 672년(문무왕 12) 경으로 신라가 나당전쟁시 항강을 넘어 수원으로 넘어가는 옥로와 남양만으로 침입하는 해로를 효과적으로 방어·공격하기 위하여 세워진 요새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호암산성과 남양만의 경유지인 오늘날의 군포지역도 호암산성과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고 또한 나당전쟁시 주요한 전투지역의 하나였을 가능성도 있다.

성안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건물지 4개소와 연못 2개소가 확인되었다. 한우물(天井)은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연못이 현재의 연못 밑에 묻혀 있었으며 그 위에 어긋나게 축성한 연못이 다시 조선 초기에 만들어졌음이 밝혀졌다. 한우물의 조선시대 석축지는 동서 22m, 남북 12m, 깊이 1.2m의 장방형이고 그 아래에서 동서 17.8m, 남북 13.6m, 깊이 2.5m의 통일신라시대의 석축지가 확인되었다. 우물은 지표 밑 30cm까지는 백자편을 비롯한 조선시대 유물이 출토되며 그 아래에는 유물이 거의 없는 굽은 모래층이 있고 이 모래층 아래에서 교란되지 않은 흙층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발굴된 유물의 중심연대는 7~8세기로 추정되고 있다.

1990년 3월부터 5월까지 서울대학교 박물관이 실시한 한우물 및 주변 산성지에 대한 학술발굴 조사시 한우물과 제2 우물지에서 12개 기종의 1,313개체의 토기자료가 출토되었다. 이는 통일신라시대 유적으로 경주의 안압지 다음으로 많은 양이다. 제2 우물지 최하층에서 출토된 2점의 청동제 숟갈은 길이가 25cm로서 손잡이 뒷면이 그 시기를 8세기 중엽으로 볼 수 있는 ‘양발내력지내말(仍伐內力只內末□□□)’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었다. 또한 시기와 규모를 달리하는 3기 이상의 건물지 겹쳐져 있는 건물터가 확인되었고 이곳에서도 6,556개체분의 기와류가 출토되었는데 주로 사용문양

은 선조문(線條文), 어골문(漁骨文), 격자문(格子文) 등이며 여기에서도 잉대내(仍大內)라 새겨진 기와가 출토되어 이 전부터 역시 그 시기를 8세기 중엽에 세워진 것으로 볼 수 있어 평와류(平瓦類)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한주 읍진군에 속해 있던 현이 둘 있는데 그 중에서 곡양현은 본시 고구려의 잉별노현으로 왕이 이름을 바꾼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읍진군은 오늘날의 과천지역이며 잉별노현은 시흥을 중심으로 관악구 봉천동 지역을 포함하였고 군포지역도 대체로 여기에 속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즉 이 지역은 고구려가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잉별노현이라 하였고 신라가 점유했 후에도 그대로 사용하다가 757년(경덕왕 16)에 곡양현으로 변경하였다.²⁾

호암산성은 이 잉별노현의 중심성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672년 이후 나당전쟁이 임진강과 한강을 경계로 전개될 때 경기도 광주의 주장성과 남양만의 해안지대를 이어 주는 요충지를 만들기 위해 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얀 단군은 한강 남쪽지역으로 깊이 진격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군포지역에서도 호암산성을 중심으로 당군의 방어에 크게 주력한 점은 앞서의 자료를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

동일기 신라와 관련된 유적으로 산본동 고분군이 있다. 이 고분군은 군포시 산본동 산1-2번지에 위치하며 1990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지표조사에서 확인되어 발굴, 조사되었다. 유적의 서쪽에는 해발 474m의 수리산이 자리잡고 이 산의 정상에서 길게 흘러내린 동편 구릉을 따라 안양시와 군포시의 시계가 그려지며 구릉의 맨끝 부분에 해발 65m의 약간 경사진 구름이 있다. 그리고 이 구릉의 정상부와 남동 경사면에 고분군이 분포되어 있었다. 고분군은 대체로 장축이 남북방향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약간 서쪽으로 치우친 것도 있으며 구릉사면에 일정한 열을 이루어 축조되었다.

제1호분은 구릉정상부에 위치한다. 지표에 깊이 80~90cm 정도의 장방형 토광을 파고 그 안에 함석으로 네 벽을 쌓아 축조한 수혈식 석곽이다. 석곽은 평명 장방형으로 길이 242cm, 폭 95cm이고 가장 잘 남아 있는 북벽의 높이는 96cm이다. 장축은 대체로 남북방향이나 약 10도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안에서 꽃무늬가 새겨진 뚜껑달린 합(盒) 1점, 꽃무늬가 새겨진 완(盃) 1점, 청동제과대고구 1점, 파관(鈔板) 7점이 있었다.

2) 읍진군은 원래 고구려의 읍목군이었던 것을 경덕왕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의 과주이다. 이 군에 속한 현은 셋이다. 곡양현은 원래 고구려의 잉별노현이었던 것을 경덕왕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의 금주이다. 곡양현은 원래 고구려의 제차파의현이었던 것을 경덕왕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도 그대로 부른다. 소성현은 원래 고구려의 태소홀현이었던 것을 경덕왕이 개칭한 것이다. 지금의 인주이다.경원대소 또는 미추라도도 한다.京津郡, 本高句麗栗木郡, 景德王改名, 今萊州. 領縣三 穀壤縣(穀陽縣), 本高句麗仍伐奴縣, 景德王改名, 今黔州, 孔巖縣, 本高句麗 濟次巴衣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郡城縣, 本高句麗 賈古忽縣, 景德王改名, 今仁州[一云慶原賈古, 一作彌郡]三國史記, 권35, 雜志4, 地理2, 新羅2).

제2호분은 제1호분에서 남쪽 아래로 13m 떨어진 구릉에 있다. 석실은 현실과 연도로 이루어졌다. 현실의 평면은 방형이며 연도는 남벽 왼쪽에 약간 치우쳐 달려 있는 횡형석 석실이다. 학석으로 쌓은 석실의 정측방향은 남북에서 약 10도 서쪽으로 기울고 현실의 폭은 북벽쪽이 250cm, 남벽쪽이 265cm 이고 서벽과 동벽의 길이는 각각 280cm와 270cm로 거의 장방형 석실이다. 석실을 중심으로 직경 6.4m의 크기로 호석시설이 둘러있는 것으로 보아 분구의 기저면도 이와 같은 원형분으로 추정된다. 제2호분은 이미 일제시기에 도굴, 파괴되었으며 동쪽 시상대 북단에서 회청색 토기병 1개가 출토되었다. 제3호분은 구릉 동남 경사면의 중턱에 위치한 수혈식 석곽이다. 석곽을 구축한 토광은 길이 330cm와 폭 190cm의 장방형이며 상부가 하부보다 넓다. 석곽의 평면은 남북 방향으로 장축을 둔 장방형이며 크기는 길이 220cm, 폭 87cm이다.

제4호분은 제3호분에서 동편으로 10m 떨어진 구릉의 동쪽 경사면에 위치한 수혈식 석곽이다. 제5호분은 제3호분에서 남쪽으로 8m 정도 떨어진 구릉 경사면에 장방형 토광 안에 만든 수혈식 석곽이다. 석곽의 평면은 남북방향을 장축으로 하는 장방형이며 안의 폭이 84~90cm, 길이 235cm, 높이 98cm이다. 제6호분은 구릉 남쪽 경사면의 제2호분에서 장축방향으로 열을 이루며 13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수혈식 석곽이다. 이미 도굴되었으나 시상대에서 토기편과 청동제 과대편이 채집되었다. 제7호분은 구릉 경사면의 남단에 위치한다. 발굴조사 전에 이미 파괴되어 서벽과 남벽을 상실하였다. 수혈식 석곽으로 150cm 길이의 토광을 파고 그 안에 석벽을 축조하였다. 제8호분도 수혈식 석곽으로 60cm 정도 낮은 토광을 파고 조영하였다. 제9호분은 구릉의 남쪽 경사면의 중턱에 있다. 석곽은 장방형으로 폭 70cm, 길이 210cm, 높이 55cm이다.

산본동 고분군의 분포상태와 유사하게 구릉 경사면을 따라 열을 지어 조영된 고분군은 낙동강유역에 군집하고 있는 가야고분군에서 흔히 볼 수 있으나 중부지방에서는 청주 신봉동 백제고분군에서 찾을 수 있다. 산본동 고분군의 천장구조와 유사한 것은 대구 북현동 고분군의 석곽묘에서 찾을 수 있다. 산본동의 횡형석 석실분과 유사한 고분으로는 중부지역에서는 백제고분인 서울 방이동 제4호분이 있다. 산본동 고분군에서 출토한 과만이 장식된 것은 온전한 것이 일본 정장현 증창(中倉)에 소장되어 있다. 하여튼 산본동 고분군은 묘제상으로 보아 통일신라기의 고분군이라 하겠다.

4) 후삼국과 고려시대의 군포

군포를 포함한 한주 지역은 후삼국 초기부터 공예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공예가 이 지역을 차지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895년 공예가 지족(猪足)·성천(猩川)의 두 군을 탈취하고 또한 한주 관내의 부약(夫若, 지금의 김포일대)·철원 등 10여 군현을 격파하고, 896년에는 왕건이 승평(僧平, 연천군

삭녕), 임강(臨江, 지금의 장단)의 두 고을을 쳐서 빼앗았다. 다음해에는 인물현(仁物縣, 지금의 개풍군 풍녕)이 항복하였고 공암(孔巖), 검포(黔浦), 협구(穴口) 등의 성을 쳐부수었다⁴⁾ 898년에는 다시 패서도(溈西道)와 한산주 관내의 30여 성을 빼앗고, 마침내 송악성을 수축하고 이곳에 도읍을 정하였으며 왕건으로 하여금 양주와 견주를 치도록 하였다. 900년에는 광주, 충주, 당성, 청주, 괴양 등의 고을을 공격하여 평강하도록 하였고⁵⁾ 그 후 실정을 거듭하다가 918년 태조에 의해 쫓겨나 부하에게 피살되었다.

궁예의 세력 확대과정에서 군포지역이 포함된 광주와 당성(唐城)을 수중에 넣어 한반도 세력 균형의 염서를 쥐고 있던 한강 하류 유역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남한강 유역의 요충인 국원(國原, 지금의 충주)과 그 인근 지역을 확보함으로써 후삼국 쟁패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⁶⁾

918년 왕건이 궁예를 대신하여 고려를 건국하였다. 고려시대 지방제도가 본격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한 것은 성종대부터였다. 983년(성종 2) 처음으로 전국에 12목을 설치하였다. 군포지역에는 윤진군(兪津郡)과 곡양현(穀壤縣)이 있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군포와 관련이 있던 과주(果州, 금주(衿州)의 기록에 보인다. 군포지역은 신라 경덕왕대에 윤진군으로 불리다가 940년(태조 23)에 모든 주군의 행정지명이 개칭될 때 과주군으로 바뀌었으며, 1018년(현종 9)에는 광주목의 관할이었다. 그리고 군포지역의 일부였던 금주는 신라 경덕왕대에 곡양이라 하였고 고려조에 오늘날의 이름으로 바뀌었으며 995년(성종 14)에 10도제(道制)가 실시되면서 단련사를 두었다. 983년 12목을 설치와 함께 군포 지역이었던 과주는 광주목, 금주는 양주목에 각각 예속되었다. 과주의 별호는 부안(富安) 또는 부림(富林)이라 불렀다. 10도제의 실시로 양주와 광주에 소속된 주현은 관내도에 예속되었다. 따라서 광주목에 예속되어 있던 과주는 양광도의 관할이 되었다.

고려의 지방제도는 현종대에 이르러 다시 정비되었다. 1012년(현종 3) 정월에 995년(성종 14) 이래 지속되어 오던 12절도사를 혁파하고 대신 5도호(都護), 75도안부사(道安撫使)를 설치하였다. 당시 과주군은 광주목의 4개 속군 가운데 하나로 이곳에 예속되었다. 따라서 과주군은 광주목을 통해 중앙정부와 연결될 수 있었고, 중앙정부의 지시나 명령도 이같은 계통을 통해 이루어졌다. 금주는

3) 九年, 秋八月, 弓裔擊取猪足狹川二郡, 又破漢州管内大柵濟潤等十餘郡縣. (『三國史記』권11, 新羅本紀 11, 眞聖王).

4) 三年丙辰, 攻取僧嶽·臨江兩縣. 四年丁巳, 仁物縣降. … 擊破孔巖·黔浦·穴口等城. (『三國史記』권50, 列傳10, 弓裔傳).

5) 二年 … 秋七月, 弓裔取溈西道及漢山州管内三十餘城, 遂都於松岳郡. (『三國史記』권12, 新羅本紀12, 孝恭王).

6) 光化元年戊午春二月 … 以我太祖爲精騎大監, 伐楊州·見州. … 三年庚申, 又命太祖伐廣州·忠州·唐城·青州[或云青川]·魏壤等, 皆平之. (『三國史記』권50, 列傳10, 弓裔傳).

7) 趙仁成, 『태봉』, 『한국사』11-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국사편찬위원회, 1996.

수주(樹州, 지금의 부평)의 속현으로 이곳에 있는 지사의 지휘를 받고 금주현은 수주의 6개 속현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예속은 문종대에 변하였다. 과주지역의 행정단위가 경기에 편입되면서 개성부의 관할이 되었다. 1062년(문종 16) 지개성부사(知開城府事)를 부활시켜 도성에서 관할하던 11개의 속현을 이곳에 속하게 하였다. 1308년(충렬왕 34)에는 부윤 이하의 관리를 두어 도성 안을 관할하게 하고 따로 개성현을 두어 성 밖을 관장하게 하였다. 1390년(공양왕 2)에는 경기도를 좌도와 우도로 나누었지 만, 과주, 금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과주, 금주가 언제 경기에서 떨어져 나갔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그후 공양왕대에 이들 지역은 분종대의 옛 제도에 따라 경기에 속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좌도는 과주군을 비롯하여 금주, 안산, 교하 등이 속하였으며 부평, 강화 등이 우도에 속하였다. 그리고 각각 도관찰출척사(道觀察黜陟使)를 두었다. 과주와 금주, 안산 지역은 좌도의 장관인 도관찰출척사의 지휘와 통제를 받았고 그를 통하여 중앙과 연결되었다.

이후 과주에는 감무(監務)가 파견되었다. 금주에는 명종 2년에 감무가 파견되었다. 감무는 예종3년부터 여러 작은 현에 파견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그만큼 지위가 올라간 것을 보여준다. 안산현은 예종 3년에서 충렬왕 사이에 감무가 파견되고 1308년(충렬왕 34)에는 군으로 승격되고 이곳이 분종의 탄생지였기 때문에 지군사(知郡事)로 올리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한편 고려의 유가종은 건국 초기부터 성립되어 크게 번성하였다. 이와 관련된 금주지역에 있던 유가종 사찰은 안양사와 수리사였다. 안양사는 『동문선』에 실려있는 이승인(李崇仁)의 「금주안양사 탑중신기(衿州安養寺塔重新記)」라는 자료에 창건의 유래가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옛적에 태조가 조공하지 않는 자를 정벌할 목적으로 이곳을 지나다가 산꼭대기에 오색구름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상히 여겨 사람을 보내 보니 과연 구름 밑에서 노승을 만났는데 이름이 능정(能正)이었다. 태조가 건국초에 불법이 있는 자의 큰 도움이 있을 것이라 말하는 자가 있었는데 능정과 말을 나누어 보니 자신의 뜻에 맞았다. 이것이 이 사찰을 건립하게 된 연유라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주지인 혜겸(惠謙)이 문하시중 최영(崔瑩)의 후원으로 7층탑을 증수하였다. 안양사 주지인 혜겸은 자은종의 고승인 한편 도승통 임공(林公)의 제자였다. 혜겸은 스승으로 하여금 이승인에게 글을 지어줄 것을 요청하도록 다리를 놓아주었다. 당시 임공을 자은종사로 기록하고 있는데 자은종은 유가종을 지칭한다. 따라서 안양사는 유가종 계통의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찰은 고려 말기에 일정한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수리사는 신라 진흥왕때 창건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자세한 창건경위는 알 수 없다. 수리사는 고려 중기 유가종의 고승 관오가 주지한 적이 있던 절이다. 유가종 사찰은 인주 이씨나 안산 김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지역적으로 안산 김씨와 밀착되고 왕실과 연결되는 수리사는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게 되었다.

2. 조선시대의 군포⁸⁾

고려말까지 과주로 불려오던 군포는 지방행정구역 개편시 과천현으로 고쳤다. 이때 행정구역 개편의 방향은 각 도의 단부(單府) 고을을 도호부, 감부(監務)를 원감으로 군과 현의 이름 가운데 '주(州)'자를 띤 것은 모두 '산(山)'자나 '천(川)'자로 고쳤는데, 영주를 영산으로 금주를 금천으로 고친 것들 예로 들 수 있다.

과천의 행정구역 변화는 1414년(태종 14) 원감을 과견하던 금천과 병합하여 금과(拏果)로 하였다. 즉 금천의 '금'자와 과천의 '과'자를 합하여 금과현으로 고을이름이 바뀌는 동시에 행정구역도 개편되었다. 과천과 금주를 합하여 금과로 개정한 이유는 금천은 인래(人叞), 노비, 토착민이 번성하고 과천은 비록 땅이 비좁고 인구가 적지만 도로 옆에 있다는 점을 그 이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은 얼마되지 않아 본래대로 복구되었다. 그 이유는 과천을 금천과 병합하였지만 서울에서 수원에 이르기까지 사신을 영송하는데 길이 멀고 험하였기 때문이다. 즉 과천과 금천이 합쳐진 후 금천을 치소로 하였기 때문에 사격집대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조에서는 경기관찰사의 보고에 의거하여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며 금천을 치소로 계속 유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과천과 금천을 합쳐서 금천을 치소로 삼았으나 양제역과 거리가 조금 멀지만 대소 사객들은 역에서 스스로 대접하게 되니 읍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왜인을 접대하는 일은 기일 전에 미리 마련하게 되므로 반드시 가까이 과천이 있는 후에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또 광주는 낙생역과 거리가 60리이지만 대접하는 여러 일이 정해진 날자에 맞추지 못함이 없는데 하물며 금천과 양제역의 사이는 40리로써 왕래하기가 어렵지 않으므로 이전대로 금천으로 치소로 삼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몇 개월 후 경기관찰사는 과천현을 치소로 삼으려 한다고 보고하였다.

1460년(세조 6)에는 과천현 백성들이 상언하기를 일찍이 본현을 혁파하여 금천현에 붙였으나 본현이 금천과 거리가 30여 리이고, 또 길옆에 있어서 사객이 더욱 번잡하게 왕래하며 인구와 생산물이 적어서 두 고을에 분주하게 왕래하면서 대접하기가 어려우므로 치소를 과천현으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허락하였다.

과천은 금천현과 합쳐져 한 고을로 되었다가 다시 두 고을로 복구되기도 하고 한 고을로 합쳐져

8) 『군포시사』, 135~163쪽.

있었을 때에는 어느 곳을 치소로 한 것인가를 둘러싸고 경기관찰사와 이조의 의견이 서로 달라 치소도 여러 차례 변화하였다. 이러한 반복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대등한 관제에 있는 두 고을이 병합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분제였다. 즉 군현의 합병에는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여러차례 군현이 병합되거나 분리되었던 금천과 과천의 경우에는 다른 군현과 다른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과천을 금천에 예속시키려 하자 과천 백성들이 원치 않았고 금천을 과천에 예속시키려 하자 금천 백성들이 원망하였으므로 끝내 시행되지 못하고 원래대로 복구되었음을 반영한다.

한편 군포시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는 광주목의 북방면이었다. 『여지도서』나 읍지 등에 나타난 지도를 통해 확인해 보면 광주목의 관할구역은 현재의 행정구역 가운데 의왕과 군포를 지나 안산까지였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과천현 남면과 광주목의 북방면이 현재의 군포시 지역을 이루었다.

한편 군포지역은 조선시대 여러 임금들이 온양의 온천에 거둥할 때 반드시 거치는 노정의 하나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인조·현종·숙종·영조·정조 등의 온천 거둥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거둥 노정은 대개 양재역·과천·광주의 사근찬·수원 등을 거치게 되었고 과천과 수원은 가고 올 때 유숙하는 곳이기도 하였다. 정조가 수원의 현릉원에 거둥할 때 이용하는 도로가 초기에는 과천로를 주로 이용하다가 나중에는 시흥로를 주로 이용하였는데 이때에도 반드시 군포지역을 지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군포지역의 도로는 조선시대에도 중요한 교통로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시흥로는 과천로에 비해 거리상 별반 차이가 없고 높낮이가 고르고 길이 평평하고 넓어서 경기감사 서용보(徐龍輔)의 의견에 따라 개설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화성축조에 착수한 1794년(정조 18) 4월 새로 금천로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다. 이 금천로는 이후 금천현이 시흥현으로 바뀌면서 시흥로라 불렸다. 시흥로를 이용했던 정조의 화성행차 노정을 대략 정리하면 사흥의 경계인 장생현(長生峴)을 거쳐 만안교(萬安橋)와 군포천교(軍浦川橋)를 지나 지지대고개와 장안문을 지나 화성부 행궁에 이른다.

조선의 지방군제는 세조 때에 크게 정비되었다. 진관체제로 변경되어 지방군제의 완성을 보게 되었다. 진관체제는 거진(巨鎭)을 중심으로 주변의 여러 진들을 하나의 진관을 편성함으로써 자전자수(自戰自守)하는 독립적인 군사거점이었다. 당시 편제를 보면 과천은 부평도의 좌익에 속하였고, 금천현은 부평도의 중익에 속하여 현령은 중익수령으로 병마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로 불리었다.

군포지역은 세종대 이래 왕실의 사냥터로도 이용되었다. 특히 연산군대에는 이 지역이 금표(禁標) 안에 포함되어 사냥시 징발된 군졸들은 짐승불이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금천지역이 사냥터로 이용되었음은 1426년(세종 8)의 기사에 처음 나오고 있다. 연산군대 군포지역에서의 사냥은 지역 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가져왔다. 이후 1505년(연산군 12) 5월에는 과천을 금포 내에 편입하고 현은 그대로 두게 하되 집인이 함부로 출입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였고, 금천도 소읍이므로 금포 안에 들이도록 하고 지경에 연결해 있는 소읍도 아울러 들이라고 하였다.

조선시대 각 지방의 토산물 가운데 특산물은 대개 공물(貢物)로 부과되었다. 조선 초기 과천은 오곡·속·소두·교맥·호매(胡麻)·상마(桑麻), 금천은 오곡과 속(粟)·소두(小豆)·녹두(菘豆)·두(豆)·교맥(蕎麥)·당서(唐黍)·지마(芝麻)·상마 등이 생산되었다. 과천의 공물은 진용(眞葍)·지초(芝草)였고 금천은 공물로 지초와 약재로 백편두(白扁豆)였다. 한편 군포지역 특산물의 하나로 금과 은이 산출되었다. 은이 산출된 곳이 정확하게 현재의 군포지역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인근 금천에서 채은(採銀)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임원경제지』에는 경기도내 92개의 장시 가운데 34개의 장시에서 거래된 물품을 수록하고 있다. 당시 과천에 속해 있던 군포장에서 거래된 물품은 비곡·면포·마포·과물·어염·우묵·연초·철물 등이다. 군포지역에 장시가 개설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동법의 실시와 양란을 경과하면서 경기도 지역의 장시개설 엄금정책이 차츰 이완되는 가운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자연스럽게 개설된 것으로 생각된다. 상품생산의 증가와 물화유통이 활발해짐으로써 이곳의 장시도 더불어 발달해 갔다. 정조대왕의 화성 건설과 함께 군포지역은 더욱 활성화되었다. 1796년(정조 20)에는 군포천 부근에 개설되어 있던 장시를 안양지방으로 옮겨가려고 한 적이 있었다.

좌의정인 채계공(蔡濟恭)이 화성으로 내려가던 중 군포천 길을 지나가는데 이곳에 거주하는 남자가 길옆에 모두 엎드려 연이어 호소하였다. 그들은 이곳에 거주하는 40여 호의 백성들은 오로지 군포 부근에서 장시에 힘입어 자생(資生)하는 방도로 살고 있는데 이변에 조정에서 안양발소(安養發所)를 이롭게 하기 위해 장시를 30리 밖 안양지방으로 옮기려고 하므로 이곳 사람들은 모두 장차 흩어지는 방법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정조는 군포와 안양 모두 장시를 개설하도록 명하였다.

조선시대 행정구역 가운데 현재의 군포시 지역을 이룬 곳은 과천현의 일부와 광주목의 일부였다. 과천의 행정구역은 금천과 합병하거나 분리되는 등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과천현의 지방경계는 동쪽으로 광주에 이르기 11리, 서쪽으로 금천에 이르기까지 10리, 남쪽으로 광주의 지경 지석(支石)에 이르기까지 19리, 북쪽으로 한강에 이르기까지 25리로 광주목(廣州牧)에 소속되었다. 『호구총수』·『읍지』 등의 자료를 통해 과천의 방리(坊里)를 살펴보면 자료에 따라 약간 상이하다. 정조 13년(1789) 편찬된 『호구총수』에 의하면 7개 면에 40개 리로 편성되어 있으나 1871년(고종 9) 편찬된 『과천현읍지』에는 7개면 44개 리로 수록하고 있다.

이들 지역 가운데 현재의 군포시 지역은 남면이었다. 남면의 리명을 현재의 행정구역과 비교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금정리 : 현 군포시 금정동 지역
- 당 리 : 현 군포시 당동 지역
- 봉성리 : 현 군포시 당정동 지역
- 당정리 : 현 군포시 당정동 지역
- 장간리 : 현 군포시 부곡동 지역
- 산저리 : 현 군포시 산본동 지역
- 부곡리 : 현 군포시 부곡동 지역

그리고 광주는 23개 면 131개 리, 3개 섬이 있었다. 이 가운데 군포지역에 해당했던 지역은 북방면(北方面)이었다. 북방면은 속달리(速達里)·둔대리(屯岱里)·대야미리(大夜味里)·도마교육곡리(道馬橋柳谷里)·팔곡리(八谷里)·건건리(乾乾里)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들 지역을 현재의 행정구역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속달리 : 현 군포시 속달동 지역
- 둔대리 : 현 군포시 둔대동 지역
- 대야미리 : 현 군포시 대야미동 지역
- 도마교육곡리 : 현 군포시 도마교동 지역
- 팔곡리 : 현 안산시 팔곡동 지역
- 건건리 : 현 안산시 건건동 지역

한편 군포지역의 인구와 호수는 과천현의 남면과 광주목 북방면의 기록을 참조해야 한다. 먼저 과천의 호수를 살펴보면 『세종실록지리지』에 호수는 244호, 인구는 743명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어디까지나 군역(軍役)과 요역(徭役)을 부담하는 남정인구(男丁人口)를 파악한 것으로 조선 초기 이 지역의 호수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세조 2년에 금천과 과천이 합쳐졌을 때는 호수가 632호에 달하였다.

군포지역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말에 이르는 사이에 호수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고 다만 인구는 1,500명 정도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군포시 지역이었던 남면의 인구는 『호주총수』를 기준으로 볼 때 호구수 460호, 인구는 남자 807명과 여자 1,122명으로 모두 1,929명으로서 과천현 관내 7개면 가운데 다섯 번째이었다. 한편 광주목에 속해 있으면서 현재의 군포지역을 이루고

있던 북방면의 각리 호구 수는 317호, 인구는 남자 700명과 여자 811명으로 모두 1, 511명이었다.

3. 근현대의 군포⁹⁾

1) 근대의 군포

군포시는 대한제국 말기 행정구역상 과천군(果川郡) 남면(南面)이었다. 군포시의 경계 안에서 생활했던 인구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과천 전체로는 1905년 현재 조사된 바로 호수 3, 454호, 남자 7, 936명과 여자 7, 187명 등 함께 15, 123명이었다. 그리고 전 인구에 대한 농민의 구성비는 90%나 된다. 그런데 이 중 남면 곧 지금의 군포시 지역은 거의 농업지대여서 농업종사자의 구성비는 이보다 더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의 주업이던 남면지역 주민의 존재형태는 당시 토지소유관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900년에 작성된 과천군 양안에는 지금의 군포시에 해당하는 남면 양안이 포함되어 있다. 과천군 남면 양안에 기록된 경작지는 밭 101결 77부 9속, 논 179결 47부 5속으로 진답 총결수는 281결 25부 4속이었고 거주호수는 492호였다. 현 군포시 지역이었던 과천군 남면 한 마을의 토지소유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마을의 소유농지 상황을 가령 1결(結) 이상의 소유농가들 부농층이라 할 때 남면 장간(章干) 마을의 부농층은 5호이다. 소농과 빈농층이 전체 거주호수의 86. 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농지는 19. 8%만을 소유하고 있어 소수의 부농층이 토지를 독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남면의 토지상황은 일본인들의 조사기록인 『재무회보(財務彙報)』(1908)에도 당시 과천군 전답의 약 9할 이상이 서울사람들의 소유로 토착인으로서 지주는 물론 소작농 소리조차 듣는 것이 드물고 자작경 소작농은 부자에 속하며 그 비율은 100분의 2에 불과하여 ‘실로 본군의 소작조직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던 것이다. 『재무회보』의 조사 결과는 앞서 양안의 전답 길수와 차이가 있는데 남면은 밭 92결 97부 4속, 논 127결 45부 9속이다. 일본식 면적단위인 정보로 환산한 수치는 각각 밭 228. 59정보, 논 233. 63정보가 된다.

논에서는 당연히 벼를 심지만 남면지역의 밭에 파종하는 작물을 계절별로 살펴보면 봄에는 75% 정도가 보리를 심고 일부 수수 등을 심는 지역도 있었다. 여름작물은 50%가 콩이었고 그밖에 면화·메밀·조·팥·담배농사를 하는 곳도 있었다. 또 각종 채소류도 생산했다. 가을 작물은 75%가 보리,

9) 『군포시사』, 165~219쪽.

나머지가 많이었다.

군포와 관련있는 이 시기 의병 활동은 주로 남한산성의진(南漢山城義陣)이었다. 이천과 여주에 각기 창의소(倡義所)를 설치하고 1895년 1월 15일을 전후하여 봉기한 의병은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서남지방 즉 광주·용인·시흥·과천·안산·남양·수원·죽산 일대에서 세력을 떨쳤다. 당시 이 지역 의병이 과천에서도 그 세력을 떨쳤다면 과천출신 의병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당시에 과천에 포함되었던 군포출신 의병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규모가 어느 정도였고 참여자가 누구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없다.

위와 같은 후기 의병 중에서 현 군포지역을 포함한 과천군에 거점을 두고 활동한 의병부대가 있었던지는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 시기 의병은 유생의병만이 아니라 워낙 다양한 직업을 가진 평민 의병장들이 등장하고 이들 평민 의병은 유생과는 달리 명분상의 의진(義陣) 설정지역을 내세우고 있지 않아 실제의 활동지역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 일본군이 과천지역을 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이 지역에도 의병의 활동이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기록은 과천지역에서 후기 의병부대의 활동상황에 관련된 조항을 일제 경무국이 편찬한 『폭도(暴徒)에 관한 편책(編冊)』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번역·간행한 『독립운동사자료집』에서 발췌·요약하면, “경기도 과천 현병본진소 현병 4명이 5월 16일 과천 남방 약 20리(半) 지점에서 10여 명의 적과 마주치자 그 중 2명을 쓰러뜨렸다”, “폭도토벌계획에 의거 제 13사단 기병(騎兵) 제32중대는 10월 29일 과천·안양방면을 수색하겠다고 보고함” 등의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는 당시 군포지역을 포괄하는 과천군에서 활동하던 의병부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다만 이악삼이란 의병장이 광주·과천 일대에서 활동하였다는 것과 앞의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몇몇 의병에 대한 이름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이다. 이것은 당시 의병 병력이 막강한 무력을 가진 일본군에 대항할 정도로 무장된 것이 아니었고 또한 일본군의 조직화된 의병 섬멸작전으로 포위망이 날로 좁혀짐에 따라 의병전쟁이 게릴라전 양상을 띠고 있었던 데서도 연유된다.

식민지하에서 지방제도도 식민통치의 필요에 따라 행정구역의 체계와 규모가 재정비되었다. 또한 식민정책이 고도화되면서 일종의 회유수단으로 자치제도가 도입되어 실현되기도 했다. 이러한 지방행정구역의 변천은 만 35년간 지속된 일제의 식민통치기간 중 그 성격이 바뀌는 시점과 일치하는 면이 있었다. 현 군포지역이 과천군에서 시흥군으로 편입되게 되는 것은 ‘합방’에서부터 3·1운동까지의 지방제도 정비과정에서였다. 일본은 1910년 9월 30일 「총독부관제(總督府官制)」를 공포했다. 1913년 12월 29일에 공포되고 다음해 3월 1일부터 시행된 「총독부령(總督府令)」 제111호에 의해 도의 관할구역과 부군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이 조정되었다. 특히 이때에 부군관할구역(府郡管轄區域)

의 대폭적인 병합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과천군 남면이었던 현 군포지역은 1914년 3월 1일부터 1979년 군포읍으로 승격되기 전까지 시흥군 남면으로 존속되었다. 그러므로 이후 현 군포지역의 민족해방운동은 시흥군의 것을 포괄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시흥군의 3·1운동에서 현 군포지역이었던 남면(南面) 사람들의 운동에 대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의 비비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남면과 인접지역인 수암면(水岩面)이나 의왕면(義旺面), 서이면(西二面)에서 일어난 운동을 생각해 볼 때 남면 사람들도 이를 간과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기도 20개 군에서는 1920년대 말까지 178개의 청년운동단체가 있었다. 이 중 현 군포지역에서 창립된 군포구락부 창립에 대해 당시 『동아일보』 1926년 6월 7일 기사에서는 “1926년 5월 30일 시흥군 남면 군포강에서는 유지청년 제씨의 발기로 군포구락부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선거와 진행방침을 결의하였다.” 라고 하여 부장·운동부위원·문예부위원·회계·서기 등 임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렸다. 이 군포구락부의 활동 역시 당시 경기지방의 다른 청년단체들의 활동상과 비슷하였을 것이다. 경기지방에 있었던 청년단체들은 대체로 야회이나 강연회 활동을 하였다. 청년간의 지식계별과 일반민중의 교화에 크게 공헌한 활동 중에서 토론회와 웅변대회도 있었다. 이 외에도 청년단체는 체육활동을 통해서 체육·건강 문제를 환기시키기도 하였고 지역의 풍속개량이나 문화선전을 목적으로 연예 및 오락활동을 펴기도 했다.

조선일보가 중심이 된 ‘귀향학생 문자보급운동’과 동아일보 중심의 ‘브나로드운동’이 그것이었다. 특히 많은 학생이 참가한 브나로드운동은 1931년부터 1934년까지 4회에 걸쳐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현 군포지역이 속한 당시 시흥군의 브나로드운동은 문맹퇴치에 역점이 모아졌다. 1932년 8월 10일 시흥군 군포보통공립학교(軍浦普通公立學校)에서 실시한 강습에는 250명이 참석했다. 이들 강습생은 가정방문을 통해 모집했는데, 40세 이상의 장년층이 많았다. 이들 강습생들을 청년부, 소년부, 부인부, 어린이 A·B부 등 5반으로 나누어 연필과 공책을 무료로 공급하면서 강습했다. 강습이 끝난 뒤에는 이들 강습생으로 하여금 연극을 시켜 주민위안찬지도 벌였다. 1932년 8월 31일자 『동아일보』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경부선 군포역 앞에서 활동하는 동아일보 제2회 브나로드의 책임대원들은 남면과 군포공립보통학교 직원들의 후원을 얻어 남면 일대에 문맹퇴치의 뜻을 적극적으로 선전하여 모집된 학생이 2백 5십명에 달하였다. 그 중에는 30세 된 농촌부녀자들과 또는 들에서 일을 하다 지게와 낫을 가진 채 상하 종소리할 들고 오는 30세 청년들도 있다. 불과 10여 일에 한글을 깨친 사람이 45명이나 된다. 지난 25일 밤에는 군포공립보통학교에서……연극을 개최하고 브나로드 취지를 설명한 후 배워야 한다는 연극 외에 몇 가지 비극을 출연하여 1천 여명 관중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다.

시흥군 남면 당리(堂里)에서 1932년 8월 10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강습에는 처음에 249명(남자 177명, 여자 72명)이 참석하였으나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229명(남자 166명, 여자 63명)이었다. 이들 중 한글을 깨우친 사람은 155명(남자 96명, 여자 59명)이었고 숫자를 해독한 사람은 93명(남자 72명, 여자 21명)이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시흥군에서도 농촌계몽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특히 현 군포지역이었던 남면에서 문맹퇴치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촌계몽운동도 일제 당국의 금지명령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현 군포지역이었던 시흥군 남면 당정리(堂井里)에서는 금주단연(禁酒斷煙)운동도 일어났다. 이 지방 유지인 양재철헌(梁在楨)의 발기로 금주단연동맹회(禁酒斷煙同盟會)를 조직했다. 임원으로는 회장 양재철헌(梁在楨), 총무 양재천(梁在贊), 회계 양재성(梁在星), 서기 김기홍(金基洪)이다. 범칙자에게는 벌금 1원씩을 걷었고, 교육 및 자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매일 1인당 연초대금으로 30전씩 저금하는 회원이 500여 명에 달했다. 이를 보면 현 군포지역에서도 금주단연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현대의 군포, 군포시의 발전

대한민국정부는 1948년 8월 15일 독립을 내외에 선포하고 오랫동안 전쟁준비를 마친 북한군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전후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일찍이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쟁을 치르면서 그 피해 또한 엄청난 것이었다. 특히 시흥군은 수도 서울에 접경하고 있어서 서울 방어를 위한 공방전이 있었던 지역이며 당시 삼남지방으로 통하는 교통로의 관문격인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개전 초나 1·4후퇴 때에도 꼭 이곳이 먼저 밀리고 수복하고 하였으므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그 피해가 더 많다.

개전 당시에는 시흥군은 큰 전무없이 넘어갔다. 그러나 1·4후퇴와 수복작전에는 수리산 일대의 격전 등으로 인명·주택·가옥·관공서·교육기관 등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 시흥군의 인명피해(사망·납치·행방불명·부상)는 의외로 많은 편이다. 그러나 후의 정밀조사한 바에 의하면 납치지수는 엄청나게 늘어나서 남자 646명, 여자 1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20명은 그들의 주소와 직업연령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다. 초기의 전투, 9·28수복, 1·4후퇴, 서울 재탈환 전투 등 밀고 밀리는 전쟁은 모두 이곳을 지나쳤다. 그러므로 시흥은 이러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쟁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1948년 8월 15일을 기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하는 정부가 수립되었다. 정부가 수립된 지 3개월 후인 같은 해 11월 17일에는 법률 제98호로 유효기간 6개월의 시한법인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지방제도에 새로운 장이 열리기 시작했다. 1953년 10월 시흥군은 1읍 7면 71리인데, 이 중에서 남면에는 당리·당정리·부곡리·산본리·금정리가 있었다.

시흥군 남면인 군포지역은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9409호에 의하여 군포읍(軍浦邑)으로 승격되었으며 다음해인 1980년 1월에는 행정리 20개 리로 개편되었다. 1985년에 24개 리로 늘어났고 1987년에 다시 32개 리로 개편되었으며 같은 해 7월부터 34개 리로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시 승격 직전인 1988년 현재 군포읍은 20.69㎢의 면적에 법정리 5개, 행정리 34개, 428개의 국민반으로 편성되었다. 가구수로 볼 때 전체가구(23,303) 중 농가는 1.7%(403)에 지나지 않으며 비농가가 98.3%(22,900)에 달하는 등 군전체(8:92)에 비하여 현저한 도시화를 이루고 있다.

1989년 1월 군포시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게 되었다. 법률 제4050호(1988.12.31)에 의하여 시흥군에서 분리된 군포시의 기구는 시장과 부시장 밑에 2담당관(총무·개발), 2실(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 14과(총무과·새마을과·세무과·회계과·시민과·사회과·가정복지과·민방위과·산업과·지역경제과·건설과·도시과·건축과·수도과, 1소(보건소), 6동(군포 1동·군포 2동·당정동·산본 1동·산본 2동·금정동)으로 구성되었다. 당시의 공무원 수는 355명이었다. 1995년 8월 현재에는 시장, 부시장 밑에 2국, 2직속, 3사업소, 17과, 의회사무과, 77개 그리고 12동으로 구성되었다.

1980년대 후반 군포가 시로 승격하는 시기를 전후하여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 소득계층간 분배개선 및 복지요구 등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주택문제 해결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여 사회안정을 기하고 경제의 정상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만 호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였다.

분당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의 총면적은 1,800여만 평으로 계획이 완료된 1995년에는 분당 9만 7,500호, 일산 6만 9,000호, 중동·평촌·산본에 각각 4만 2,500호씩 총 29만 4,000호의 신규주택이 들어서게 되어 100만이 넘는 서울시의 인구가 유입되어 살게 되었다.

2003년 11월말 현재 군포시 각 동별, 남녀 인구는 아래와 같다.¹⁰⁾

10) 군포서청 홈페이지(<http://www.gunpo21.net>).

동별	세대수	인구수			전월말 인구수	인구증감 (전월대비)	외국인수
		계	남	여			
계	93, 393	273, 932	137, 406	136, 526	273, 540	392	2, 070
군포 1동	10, 890	28, 601	14, 995	13, 606	28, 649	-48	1267
군포 2동	11, 218	34, 879	17, 564	17, 315	34, 801	78	9
산본 1동	9, 329	23, 721	11, 783	11, 938	23, 722	-1	426
산본 2동	8, 823	27, 576	13, 691	13, 885	27, 521	55	18
금정동	8, 003	21, 484	11, 064	10, 420	21, 388	96	280
재궁동	9, 036	26, 110	12, 959	13, 151	26, 042	68	5
오금동	9, 146	28, 539	14, 327	14, 212	28, 567	-28	6
수리동	7, 685	23, 026	11, 396	11, 630	23, 047	-21	4
중내동	7, 430	24, 742	12, 280	12, 482	24, 666	76	12
광정동	10, 039	30, 074	14, 689	15, 385	29, 859	115	3
대야동	1, 794	5, 180	2, 658	2, 522	5, 178	2	40

제2장 군포시의 지명

1. 지역사, 향토사와 지명

1) 지명은 향토를 가꾸는 문화재

태초에 완용께서 태백산(太白山) 꼭대기 신단수(神檀樹) 아래 내려와 신시(神市)를 열고, 단군께서 처음 아사달(阿斯達)에 도읍을 정한 이래 이 땅위에 수 많은 지명이 생성·변천·소멸되어 왔다. 만약 지명이 없다면 인류의 문화사를 구성하는 두 가지 고유명사 중 인명(人名 : 누가)만 있고, 장소地名 : 어디)가 빠짐으로써 역사를 바로 서술할 수 없게 된다.

지명이란 무엇인가? 지명은 땅과 인간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언어로서 너와 나, 우리들 사이에 있는 무언의 약속이자 공감대이고, 그 말이 없으면 그 곳을 떠올릴 수 없는 절대적 언어(적어도 인위적인 지명의 변경이 없는 한)가 바로 지명이라고 할 수 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의하여 표현된 언어중의 하나가 바로 지명이다.

사람들은 처음 먼 곳과 가까운 곳, 높은 곳과 낮은 곳, 큰 것과 작은 것, 위와 아래 등등 어떤 곳을 구분하기 위한 필요에서 지명을 만들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지명을 사용하는 언중(言衆)에 의하여 역사가 보태지고, 인물이 더해지고, 이야기가 붙여지게 되는데, 이것을 필자는 '지명이 살찌는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어떤 지명설화, 어떤 지명전설도 그것을 허황하고 꾸며진 이야기로 매도하기보다는 그 내용에 담겨진 언중들, 그 당시 기층 민중의 의식과 생활상을 담고있는 자료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지명은 자기의 분위기, 자기의 목소리, 자기의 포즈를 지니고 있다. 다만 우리가 그 언어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따름이며, 어떤 지명을 호명(呼名)하여 불러주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선인들의 음성을 통하여 '온고지신(溫故而知新)'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생각해보면, 사람의 이름(人名)이 단 한 사람만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1회적이며, 한시적이며, 의도적 작명(作名)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에 비하면 지명은 집단적이며, 자연발생적이며, 관습적으로 생성된 생활어로서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그 계승성(繼承性)과 소중함을 이찌 인명에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 지명은 저마다 그렇게 부르게 된 사연이나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그 이휘 속에 녹아들어 있는 국어학, 역사학, 민속학, 지리학 등 문화사적인 값진 요소들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통틀어 '지명문화재'라고 이름하는 소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설혹 지금 조사된 자료가 그 유래나 명명 당시를 알 수 없다면, 그 위치가 확실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선 그 어휘만이라도 조사해서 수집해 놓지 않으면 곧 사라져 버릴 언어문화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2) 지명은 지역사 연구의 요람

모든 사람은 지명으로 태어나고, 지명 위에 살다가, 지명 속에 묻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공기의 소중함을 망각하듯이, 지명에 대해서 지극히 무관심한 편이다. 한편 모든 도시는 그 자체로서 역사이고 문화이어야 한다. 더구나 군포시처럼 신도시 조성에 의하여 생성된 도시에서는 군포지역의 지명이 이 고장 출신의 토박이가 되었든 아니건 군포시민을 군포사람답게 만드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흔히 국토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경(京)과 향(鄕), 서울과 지방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여러 지역이 모여 지방을 이루고, 지방이 모여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취락의 형성 → 고을 → 지방 → 국가라는 틀에서 보면 서울도 역시 하나의 지방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 만하저면 국토를 경(京)과 향(鄕)으로 나누어 불렀던 것은 왕조시대에 국왕을 중심으로 지방을 내려다보고 호령하던 시전의 낡은 사고방식의 잔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 향토사를 공간적으로 이해하면 국토사 속의 작은 조각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작은 조각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동체의 일부분이다. 또 문화사적으로 보면 빗살무늬토기를 만들어 사용하던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져 오는 향토성이 강한 집단적 의미를 갖는다. 그 중에서 지명은 그 지역사, 향토사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가령 '수리산'이라는 이름을 예로 들어보면, 그 이름의 연원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산을 둘러싼 시흥, 안산, 과천 등 관련 고을의 변천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 '군포천'에 대하여 옛 지지에는 학의천이 흘러들어 와서 호계를 지나 안양시내 중심을 흐르는데 그곳까지 부르던 이름이라 하였다. 그러다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군포천'이라는 이름이 안양천에

흡수되어버리고 말았으나, '포(浦)'라는 물가지명이 만해주듯이 '군포'는 어긋 하천가의 이름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처럼 지명은 향토사의 뿌리가 되면서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특히 지명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모국어적(母國語的) 의미가 강하다. 지명은 고향의 정서, 어릴 때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향토애의 뿌리가 되며, 나아가 고향을 지키고 가꾸는 일,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공헌하는 일 등등이 지명을 대체로 하여 하나로 결속되는 힘을 모으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애향심이 곧 애국심의 바탕이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군포지역에서는 다행히 류지호 선생 등 뜻있는 분들에 의하여 「군포시 지명유래집」이라는 책자가 이미 1999년도에 만들어짐으로써 신도시 개발과 함께 자칫 사라질 뻔한 소중한 이름들이 대부분 조사·보존되고 있었다. 이것은 군포시의 지역사나 향토사 연구를 위해서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 군포시의 연혁과 지명변천

1) 고려시대 이전까지

군포지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곳은 처음 마한(馬韓)의 영토에 속하였던 곳이다. 그후 삼국이 정립하면서 백제의 영토가 되었고, 475년(장수왕 63)고구려가 수도를 만주 압록강 연안의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기고 남진정책을 추진하면서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점령하였으며, 이때 백제의 개로왕은 아차성 아래에서 전사하였다.

이때 군포지역과 지리적으로 연관된 세 고을은 다음과 같다.

- 안산군(安山郡) - 백제·고구려의 장항구현(章項口縣)
- 시흥군(始興郡) - 백제·고구려의 잉벌노현(仍伐奴縣)
- 과천군(果川郡) - 백제의 동사힐현(冬斯飭縣)이었다가 고구려 때는 읍목군(栗木郡)이 되었다.¹⁾

그후 551년(전흥왕 12) 신라의 복진과 한강유역 점령, 676년(문무왕 16) 신라의 삼국통일을 거치고 나서 685년(신문왕 5) 전국의 행정구역을 정비하여 9주 5소경을 설치하였다. 이어서 757년(경덕왕

1) 세 고을의 삼국시대 첫 시작이 고구려로 된 경우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대동지지』의 위 세 고을 연혁을 따름.

16) 전국의 행정구역에 대한 개편과 함께 지방변경을 단행하였는데, 이때 우리말을 이두로 표기한 3~4 글자의 이두식 지명을 중국식의 2 글자 지명으로 바꾸었다.

이것은 옛 고구려·백제의 영토를 포함하여 온 나라에 걸쳐서 이루어진 획기적인 지명개편이며, 우리 나라 지명을 중국식 한문표기로 바꾸는 대대적인 작업이었다. 이때 위의 세 고을은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 안산군 : 장항구현 → 장구현(章口縣)
- 시흥군 : 잉벌노현 → 곡양현(穀壤縣)
- 과천군 : 읍목군 → 읍진군(粟津郡)

2) 고려·조선시대

신라의 멸망과 함께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는 신라 경덕왕 때부터 시행하여 오던 주·군·현 제도를 정비하고 전국의 지명을 전면 개편하였으니 이 때가 940년(태조 23)이다.

- 안산군 : 장구현 → 안산현(安山縣). 1308년(충렬왕 34) 안산군으로 함.
- 시흥군 : 곡양현 → 금주(衿州) 또는 검주(黔州). 고려 성종 때 별호를 시흥(始興)이라 함.
- 과천군 : 읍진군 → 과주(果州). 고려 성종 때 별호를 부림(富林) 또는 부안(富安)이라 함.

고려가 망하고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수도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기고 1402년(태종 2) 경기 좌·우도를 경기도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1413년(태종 13) 전국에 걸쳐서 지방행정구역과 행정지명을 개편하였다. 또한 이 때 전국을 현재의 8도제(경기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강원도·황해도·평안도·함경도)로 정착시켰다.

이 때 고을 이름을 개편하게 된 것은, 종2품 부윤(府尹)이 부임하는 도호부(都護府)나 정3품 목사(牧使)가 부임하는 목(牧) 이외의 고을 이름에는 '주(州)'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고을 이름의 끝(語尾)에 '산(山)' 또는 '천(川)'을 붙이게 함으로써, 부사나 목사가 다스리는 고을과 현감이나 현령, 군수가 다스리는 고을을 명칭에서부터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다.

- 안산군 : 안산군 → 이름을 그대로 함. 1466년(세조 12) 별호를 연성(蓮城)이라 함.
- 시흥군 : 금주(衿州) → 금천현(衿川縣). 1795년(정조 19) 금천현을 시흥현(始興縣)으로 고침.
- 과천군 : 과주 → 과천현(果川縣)

1414년(태종 14) 과천현과 금천현을 하나로 합하고 두 고을의 머리글자를 합하여 금과현(金果縣)이라 하였다가 금방 폐지하고 원래대로 복구하였다. 이어서 다시 1456년(세조 2) 또 두 고을을 병합하였다가 곧 폐지한 뒤 원래대로 환원하였다.

한편, 군포지역은 1759년(영조 35)에 만든 『여지도서』에 과천현의 면명과 방리가 나오는데, 이때 과천현 남면의 지역이었다. 그러다가 1789년(정조 13)에 만든 『호구총수(戶口總數)』에 처음으로 과천 고을 각 면의 이름과 함께 면별 이명(里名)이 나오는데, 남면은 다음의 7개 리로 되어있었다.

- 금정리(衿井里)
- 당리(堂里)
- 봉성리(鳳城里)
- 당정리(堂井里)
- 장간리(章千里)
- 산저리(山底里) ※산저리는 1871년 산본리(山本里)로 고쳐짐.
- 부곡리(富谷里)

1895년(고종 32) 갑오개혁으로 전국의 지방제도에 대한 개편이 있었는데, 이것은 일본의 권고에 의한 것으로 이때 8도제가 폐지되고 23부제가 실시되었으며, 종전의 목·부·군·현을 일제히 군으로 고쳤으나 이듬해(1896년) 다시 13도제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때 안산군·시흥군·과천군은 모두 경기도의 4등군에 속하게 되었다.

3) 일제시대 이후 - 현재

일제에 의하여 전국적이고 조직적인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이 이루어지기 전의 과천군 남면(南面)과 안산군 북방면(北方面)의 동리는 다음과 같다.²⁾

- 과천군 남면(10개리)
 - 산본동(山本洞) - 당리(堂里) - 용호동(龍虎洞)
 - 장간리(章千里) - 부곡리(富谷里) - 피곡리(槐谷里)
 - 금정리(衿井里) - 당정리(堂井里) - 봉성리(鳳城里)
 - 초막동(草幕洞)
- 안산군 북방면(北方面) (9개리)
 - 속달1리(速達一里) - 속달 2리 - 속달 3리

2) 조선총독부, 『지방행정구역 명칭일람』, 1912.

이보다 앞서서 이미 1973년 7월 1일 시흥군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되었고, 1979년 4월 28일 시흥군 과천면이 경기도 과천시구 지원사업소로 떨어져 나갔으며, 1981년 7월 1일 시흥군 소하읍이 평명시로 승격되었다. 말하자면 1914년 일제에 의하여 과천군과 안산군, 시흥군이 시흥군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통합되었던 역사는 '시흥없는 시흥'이라는 말을 들었으며(옛 군청소재지였던 '시흥'이 서울특별시로 이미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군포시 역시 '군포없는 군포'(구군포가 안양시 호계동에 소재함)라 하여 바쁘게 나누어지는 땅으로 널리 회자되었던 곳이다.

한편 군포시의 승격 이후 행정동사무소의 개편은 다음과 같다.

- 1992년 5월 1일 시 조례에 의하여 행정동사무소 금정동을 금정동과 재궁동으로 분동하였다. (군포시 전체 행정동 7개 동)
- 1993년 1월 6일 시 조례에 의하여 군포시 청사를 당동에서 금정동으로 이전하였다.
- 1993년 1월 14일 시 조례에 의하여 행정동사무소 개궁동을 개궁동과 오금동으로 분동하였다. (군포시 전체 행정동 8개 동)
- 1993년 6월 8일 시 조례에 의하여 행정동사무소 산본 2동을 산본 2동과 수리동으로 분동하였다. (군포시 전체 행정동 9개 동)
- 1994년 7월 19일 시 조례에 의하여 행정동사무소 수리동을 수리동과 근대동으로 관동하였다. (군포시 전체 행정동 10개 동)
- 1995년 2월 28일 시 조례에 의하여 행정동사무소 산본 2동을 산본 2동과 광정동으로 분동하였다. (군포시 전체 행정동 11개 동)
- 1994년 12월 29일 시 조례에 의하여 화성군 반월면의 대야미리, 둔대리, 속달리, 도막교리의 4개 리를 군포시에 편입하고 행정동사무소를 대야동으로 하였다. (군포시 전체 행정동 12개 동)
- 1998년 10월 8일 시 조례에 의하여 행정동사무소 당정동을 군포 1동에 통합하였다. (군포시 전체 행정동 11개 동)

3. 군포의 지명유래

1) 군포지역 주요 지명의 이해

(1) 군포(軍浦)와 군포(軍砲)

‘군포’라는 이름은 언제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많은 지명이 그렇듯이 ‘군포’라는 이름도 역시 처음 명명된 시기와 그 내력에 대하여 확실한 출전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연원에 대하여는 출처 불명의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제보한 기록이 있을 뿐이며, 인근의

지명을 통하여 몇 가지 추론할 수 있는 소재만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군포라는 이름은 현재의 군포시와 인접한 안양시 호계동 사이를 흘러서 남출북류(南出北流)하는 안양천 상류를 '군포천(軍浦川)'이라 하였음이 이미 1699년(숙종 25)에 간행된 『과천현신수유지』에 나오고 있으므로 문헌상으로는 3백년이 넘는 오래 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시 이 일대는 과천현 남면(南面)에 속한 지역이었다.

이 군포천 지역은 정조 연간에 화성축조를 위한 서울 - 수원간 도로가 새로 뚫리고 임금이 현통원 전배를 위한 화성행궁, 금천행궁, 안양행궁이 설치됨에 따라 임금이 다니는 길을 '시흥로(始興路)'라 하였다. 처음 정조의 거동이 과천을 거쳐서 화성으로 간 길을 '과천로(果川路)'라 하였는데, 어개(御苑) 행렬이 험한 남태령을 넘는 인과, 또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군포를 거치는 노정으로 바꾸게 되었으며 그 길이 시흥로(금천로)이다.

이 시흥로의 노정은 서울 돈화문 → 승례문 → 노량주교(舟橋) → 장생원(長生峴 : 장승백이) → 시흥행궁 → 만안교(安陽) → 군포천교(軍浦川橋) → 사근찰행궁 → 지지대고개 → 수원 장안문 → 화성부행궁 → 팔달문 → 상류천점(上柳川店) → 대황교 → 현릉원 제실에 이르게 되는데, 이 노정 83리 중에도 '군포천교'라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 '군포천교'는 오늘날의 군포교와는 다르며, 그때의 군포천교는 지금의 호계교 부근으로 보고있다.

이 군포천의 옆, 지금의 안양시 호계 3동 구군포 4거리 일대에 조선후기부터 5일과 10일에 형성되는 시장을 군포장이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찢포를 뜻하는 '군보천점(軍堡川店)' 또는 '군보천(軍鋪川)'이라고도 하였으며, '군포' 또는 '군포장'이라는 이름은 1900년대 초에도 서울과 한강 남쪽의 경기지방에서는 널리 알려진 이름이었다.

한편 제국주의 일본이 조선정부로부터 경부선 철도부설권을 얻고 1904년 경부선을 개통하면서 지금의 군포역 이름을 처음에는 (1905년 1월 1일부터) '군포장역(軍浦場驛)'이라 하였으며, 경술국치 이후에는 이곳에 '군포장 순사주재소'를 들만큼 중요시하였던 곳이다. 그후 1926년 안양시 안양 1동에 안양시장이 개설되면서 군포장은 없어지게 되었고, 4) 이 지역은 '구군포(舊軍浦)'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었다. 말하자면 '군포'라는 이름의 발상지는 안양시 호계 3동에 남아있게 된 셈이다.

그러나 1938년 4월 1일부터 일제가 경부선을 복선화하면서 '군포장역'을 '군포역'으로 고쳤고, '군포'라는 이름은 이미 그 이전 경부선 군포장역이 생기면서 안양천의 북쪽에서 안양천의 서쪽 수리산 밑 동쪽 일대를 뜻하는 이름으로 그 위치를 바꾸어 오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후 1979년 5월 1일 시흥군 남면이 '군포읍'으로 승격되면서 '군포'라는 이름은 행정구역 명칭으로 공식 등장하게

4) 시흥군, 『시흥군지』, 1988, 591쪽.

되었으며, 1989월 1월 1일 군포읍이 군포시로 승격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군포는 '군(軍)'과 '포(浦)'가 합해진 이름이다. 먼저 '군'에 대하여 살펴보자. '군'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지명은 대개 군 주둔지 혹은 군의 작전, 이동, 보급 등과 관련된 곳에 남아 있으며, 그런 이름으로는 경복 경주사의 천군동(千軍洞)과 북군동(北軍洞), 충남 부여의 군수리(軍守里), 경기도 평택의 군문리(軍門里) 등 여러 곳에 그런 예가 남아있으며, 대개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그 유래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군포 지역에서 군사와 관련되는 것은 구전으로 전해지는 '군포(軍浦)'에 관한 이야기 이외에는 소개할 만한 근거가 없다. 이 군사분야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따로 설명하기로 하고 먼저 군군포 지역에 남아있는 '군웅산(軍雄山)'이라는 이름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군웅산은 원래 군군포 지역에 남아있는 아산인데, 미루어 짐작컨대 이 산 이름으로 인하여 '군포'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점에 관하여는 군포시민으로서 『군포지명유래집』을 펴낸 류지호 선생이 그 당시 현지 답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산 일대가 지금은 모두 주택가로 되었고, 산꼭대기도 안양시 호계 3동 966 - 1번지 주택가로 되었다고 한다.

군웅산은 이 일대를 말하는데, 그전에는 이곳에서 매년 음력 10월 2일에 군웅제(軍雄祭)를 지냈으며, 이 행사는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번영과 무병장수를 비는 행사로서 감전복을 입은 화령이에 의하여 임경엽 장군이 등장하는 등의 제법 큰 민속행사였다고 한다. 군웅제는 당초 호계과출소 북쪽 약 100m 지점의 군웅산 위에서 제를 지냈는데, 1960년 말 이곳에 민가가 들어서자 과출소 북쪽 약 50m 지점으로 옮겨서 제를 지냈고, 그후 이곳도 소유주가 바뀌면서 1980년대 초부터는 아예 군웅제를 지낼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⁵⁾

비록 이곳에서 군웅제를 지내게 된 동기나 내용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전해지는 바가 없으나, 경기도 지방의 서해안 여러 곳에 분포하고 있는 임경엽장군 실화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것은 상고할 수 없다. 어쨌든 이 군웅산과 군웅제 행사 등에 의하여 '군포'라는 이름의 '군(軍)'자가 여기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편 군포의 '포(浦)'자는 '개 포(浦)'자로서 해안지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津), 포(浦), 호(湖) 등 일반적인 지명 어미의 하나이며, 대개 바닷가의 포구를 뜻한다. 그런데 과연 이곳 안양천 상류의 군포천까지 조수가 내가 드나들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남게 된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하여는 많은 예의 지명들이 있다. 곧 해안이 아닌 내륙의 강변, 천변에도 '포(浦)'자를 붙인 예가 많이 있으며, 꼭 조수가 드나들고, 선박의 운항이 가능해야만 '포(浦)'자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⁶⁾ 그것은

5) 류지호, 『군포시의 지명유래집』, 군포시, 1999, 80 ~ 81쪽.

‘포’가 조선시대에 이미 바닷가의 해안지명에서 내륙의 강변이나 천변의 불가로 그 사용범위가 확대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군포의 ‘포’를 꼭 바닷가나 선박의 접안 유부와 관계없는 불가지명으로 보아도 그 해석에 무리함이 없다고 본다.

다음은 군포의 옛 이름이었다는 ‘군포(軍浦)’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 이야기는 지금의 군포가 본래 ‘군포(軍浦)’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로서, 그 내용은 임진왜란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우리 군사들이 왜적에게 패하여 후퇴하다가 지금의 군포에 이르렀는데, 이곳에서 의병을 만나자 전열을 정비하게 되었다. 이때 이 지역 주민들이 굶주린 군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우리 군사들의 사기를 크게 높였다. 그후 군사들은 승병과 함께 왜적을 무찔러 전공을 세웠으며, 그때부터 굶주린 군사들이 배불리 먹은 곳이라 하여 ‘배부를 포(浦)’자를 써서 ‘군포(軍浦)’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시대가 바뀌면서 군포(軍浦)가 군포(軍浦)로 바뀌었는데 그 시기가 연유는 알 수 없다고 한다. 이 내용을 제보한 이응준 선생(당시 80세)은 그전에 군포읍 당정리장을 지냈던 분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어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없으나, 아마도 이 지방에 그전부터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를 제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군포지역에는 이외에도 군(軍)과 관련되어 생긴 지명으로 보이는 곳이 또 있다. 대야동의 둔대(屯臺 : 둔터)마을은 옛날 군대가 주둔하여 부르게 된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군내동의 둔전(屯田)마을 역시 군사와 관련된 지명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임진왜란 당시 ‘군포(軍浦)’로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와 군포 지역인 군웅산(軍雄山)과 군웅계 행사 등이 결합되어 군포의 ‘군(軍)’자에 유래를 보태주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 군포의 ‘포’ 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 ‘군포천(軍布川)’과 ‘군포천점(軍堡川店)’(『원행정려』의 도로교량조), 그리고 ‘군포천(軍舖川)’(『대동지지』)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포(布,舖, 또는 舖)’는 이곳에 형성되었든 시장 기능에 의하여 붙여진 글자이거나 유래불명의 동음이재(同音異字), 혹은 단순한 오자로 볼 수 있으므로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

(2) 군포천(軍浦川)과 안양천(安養川)

군포천이라는 이름은 오늘날 일반 지도에서 하천 명칭으로서는 찾아볼 수 없다. 문헌상 3백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지닌 ‘군포천’이 지도에서 사라진 것이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6) 군포와 가까운 인근 의항시 포인동(浦一洞)은 학의천 가에 있는 마을로서 ‘포(浦)’를 쓰고 있다. 가령 내륙지방인 충북 단양의 매포(梅浦), 충북 보은의 송포(松浦) 등등 이런 지명의 예는 매우 많다.

7) 내무부, 『지방행정지명사』, 1982, 214쪽 및 경기도 『지명유래집』, 1987, 440쪽.

민저 '군포천'이라는 이름의 출처부터 살펴보자. 한강의 제 1지류로서 안양천의 상류가 되는 군포천은 남출북류(南出北流)하는 하천으로서 안양을 거쳐 한강으로 흘러드는 하천이다. 이 하천을 '군포천'으로 기록한 가장 오래 된 기록은 1699년(숙종 25)에 간행된 『과천현신수증지』이며 이외에 1757년(영조 33)의 『여지도서』, 1861년(철종 12) 고산자 김정호가 만든 『동여도』 등 대부분의 문헌에 '군포천(軍浦川)'으로 기록되어 있다. (지도 1 참조)

한편 안양천은 안양시를 관류하고 안양동 앞으로 흐르기 때문에 부르게 된 이름으로서 안양이라는 이름은 불기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곧 '안양(安養)'이라는 말은 낙방(樂邦) 또는 극락이라고도 하며, 아미타불의 정토를 뜻하는 한편 마음을 평안히 하여 몸을 기른다는 뜻이기도 한 말이다. 안양천은 본래 안양시 삼성산에서 발원하여 안양유원지를 지나 안양대교에서 합류하는 삼성천을 말하였는데, 일제 때 하천이름을 새로 붙이면서 '안양천'으로 명명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8)

또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지지』(시흥현 산수조)에는 안양천을 '대천(大川)'이라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검암천은 수원의 광고산과 과천 청계산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물이 모여서 서쪽으로 흘러 군포천이 되고 호계를 거쳐 안양천에서 현을 서남쪽으로 돌아 북쪽으로 흐르는데, 현 서쪽 4리의 지경을 지나 북쪽 15리에 이르러 기탄(岐澗)이 되고 철곳포(鐵串浦)가 되며 양화도 아래서 한강으로 흘러든다"9)고 기록하고 있다.

또 같은 문헌인 『대동지지』의 과천현 산수조에도 군포천(軍浦川)에 대하여 "현 서남쪽 12리인데, 그 아래서 호계(虎溪)가 되고, 또 그 아래서 시흥의 안양천이 된다"고 하였다.10) 또 인덕원천에 대해서도 같은 과천현 산수조에서 "현 남쪽 8리의 청계산에서 발원하여 군포천으로 들어가고, 하류에서 안양천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다.11) 이 설명대로라면 현재의 안양천 본류가 되는 청계사천(淸溪寺川)~학의천(鶴儀川)이 박달동과 석수동 입구에 이르는 안양시내의 하천까지를 군포천으로 본 것인데, 그 일대가 그전 시흥현과 과천현의 경계지점이 되는 곳이다. 곧 인덕원천은 청계산에서 발원하여 군포천으로 합류하고, 그 물줄기가 호계를 거쳐서 석수동과 박달동 입구까지의 구간을 군포천으로 보았던 것이다.12)

모든 강물은 여러 갈래의 무수히 많은 물줄기에 의하여 형성된다. 그 물줄기마다 근원에 뿌리를 갖고 있으며, 그 갈래마다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다. 그리고 강이 흘러 내려가는 물굽이마다, 고을마다

8) 시흥군, 『시흥군지』상, 1988, 20쪽.

9) 김정호, 『대동지지』(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76, 85쪽.

10) 김정호, 『대동지지』(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76, 83쪽.

11) 김정호, 『대동지지』(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76, 83쪽.

12) 류지호, 『군포시지명유래집』, 군포시, 1999, 77쪽.

그 강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가령 한강의 경우를 보면, 서울에서도 독섬 앞을 동호(東湖), 동작동 앞을 동작강(銅雀江), 마포앞에서는 마포강(麻浦江), 서강(西江) 등으로 불렸고, 금강의 경우에도 공주에서는 금강(錦江), 부여에서는 백마강(白馬江)이라고 부르는 등의 예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지도에서 사라진 군포천이라는 이름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현행 하천법체계의 '안양천'이라는 이름에 흡수 통합되기는 하였으나, 역사적으로 안양천 상류를 이루는 중요한 하천 이름으로서 분명히 존재하였으며, 오늘날에는 하천 이름이 사라지는 대신 '군포시'라는 큰 이름을 남겨놓은 셈이다.

(3) 군포시의 산본(山本)과 일본의 성씨 산본(山本)

우리 나라의 쿨락은 대부분 배산입수의 예에 의하여 그 입지를 형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워낙 산이 많은 나라이기에 산을 등지고 하천가에 임하여 마을이 들어서서 것은 자연스러운 관습이며, 이에 따라 우리 나라의 많은 지명들이 산과 고개를 따서 붙여진 지명도 셀 수 없이 많다.

이런 지명 중에는 산이나 고개 아래 또는 밑을 뜻하는 재(底), 본(本), 하(下) 등을 어미로 하는 지명들이 있고, 또 산이나 고개를 넘는다는 뜻의 월(越), 유(踰) 등의 이름이 있다.

가령 서울 종로구 현저동(峴底洞)은 무악재 밑에 있는 마을을 나타내고 있으며, 부산 동래구 온천동 산재(山底)마을은 만덕고개 아래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또 전남 여수시 상암동의 사월채(寺越峙)는 홍국사로 넘어가는 '절너미재'이고, 서울 도봉구 수유동(水踰洞)은 수유=무너미를 한자로 나타낸 것이다.

특이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고개를 넘어가는다는 힘이 들고 땀을 흘리게 되므로 '땀 현(汗)'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남북한 몇 군데에 붙여져 있다.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의 한내리(汗乃里)는 '땀을 낸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름이며, 우리 나라에서 가장 높은 고개인 강원도 정선~태백시 사이의 씨리재(1,258m) 아래 있는 고한리(古汗里)는 특히 땀의 의미를 강조하는 이름으로 볼 수 있다.

산본(山本)이라는 이름의 예도 여러 곳에 보이고 있으며, 그 내용도 모두 산마을을 나타내고 있다. 가령 전남 광양시 옥룡면 산남리의 산본(山本)마을, 경남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山本里),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산본(山本)마을, 전북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 산본(山本)마을 등의 이름이 모두 우리말의 '산밑'을 한자로 나타내기 위하여 붙여진 이름들이다.¹³⁾

13) 한글학회, 『한국명어원조사전』 중, 1991, 2775쪽.

그런데 1990년대 초부터 '군포 산본지구'에 대한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산본'이라는 이름의 출처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산본이라는 이름이 일본의 성씨인 '야마모토(山本)'를 뜻하는 것으로 보고, 산본이라는 이름을 고쳐야 한다는 등의 논란이 일어났던 것이다.

일본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로서 군국주의 일본을 상징하는 인물의 하나인 사람이 바로 야마모토 이소로쿠(山本 五十六)(1884~1943)이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의 해군대장과 원수급 지냈고, 노일전쟁의 참전, 태평양전쟁 때는 연합함대 사령관으로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는 미군 작전계획의 일환으로(일본 국민이 영웅시하는 핵심인물을 제거하는 것) 솔로몬군도 상공에서 전사하였는데, 군포시 '산본'이라는 이름을 일본인들의 우상인 야마모토의 성씨를 따서 붙인 이름으로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 나라에는 일제 때 '산본'이라는 성씨를 따서 창씨개명한 인사들도 있었으므로 그들에 의하여 생겨난 이름으로 오해받게 된 것 같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하여 군포시의 '산본'이라는 이름은 일본의 성씨와 하등의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군포지역(당시 과천현 남면)에 산본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1871년(고종 8)으로서, 이때는 야마모토 이소로쿠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13년 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산본리의 본래 이름은 산저리(山底里)였다. 앞에서 산 아래를 나타내는 지명의 어미(語尾)로서 저(底)와 본(本), 하(下) 등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모두 밑이나 아래를 뜻하고 있으며, 산저리(山底里) = 산밑, 산본리(山本里) = 산밑이 현지의 토박이 지명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같은 말이며, 다만 한문표기만이 바뀐 것이라는 점이다.

사실 '산저'의 '저(底)'라는 표기보다는 '산본'의 '본(本)'이라는 이름이 그 본래의 뜻이나 해석에 있어서, 그리고 부르기도 좋은 이름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본(本)'은 단순한 '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문글자의 생긴 모양대로 나무의 줄기(本)를 나타내고 있으며, 나아가 뿌리나 근본, 바탕을 뜻하는 다양한 쓰임새를 지닌 글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산본'이라는 이름과 일본 성씨와의 관련설에 의한 불필요한 논쟁이 더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2) 군포의 산

(1) 수리산(修理山), 태을산(太乙山)과 견불산(見佛山)

산의 동쪽에서는 재상(宰相)이 나고, 서쪽에서는 장군(將軍)이 난다. 즉 사람의 어귀와 어리석음은 그 산천의 명려중탁(明麗重濁)에서 받는 것이니, 성현이 탄생하고, 인물이 태어나는 것은 영험있는 땅에서 난다는 聖人傑地靈이 과연 옳으며...

이것은 『시흥군지』의 산천에 나오는 말이다.

군포시를 형성하는 지리, 지형적 골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쪽에서 서쪽으로 떨어 내린 수리산 산줄기와, 군포시의 동쪽을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안양천(옛 이름 군포천)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자연 조건에 의하여 오늘의 군포시 경계가 대부분 이루어졌는데, 북에서 서쪽으로 떨어 내린 수리산맥의 능선에 의하여 군포시, 안양시, 안산시의 경계가 되고 있으며, 동쪽의 안양천에 의하여 군포시와 안양시의 동북쪽 경계가 대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자연조건 중에서도, 특히 수리산은 군포시를 감싸안으면서 수호하는 형세를 이루고 있는 산이다. 수리산의 최고봉인 태음봉은 높이 489.2m로서 그리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 수려한 자태와 맑은 물, 울창한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어서 군포시는 물론, 인근의 안양시나 안산시에서도 저마다 심린욕장이나 휴양림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미 삼국시대부터 이 산기슭의 산본 일대에서 취락생활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유물들이 나오고 있다.

오늘날 수리산은 군포시의 척추가 되는 산이요, 그 청정한 숲은 군포시민의 호흡이 되고 산소공급원이 되며, 곳곳에서 솟아 나오는 샘물은 군포인의 삶의 쉼터이요, 도시의 활력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군포인에게 있어서 수리산은 단순한 지대(地塊)가 아니라 심신을 맑기는 안식처요, 영혼의 쉼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산을 지금은 통털어 '수리산'으로 부르고 있으나 조선시대의 여러 문헌에는 태음산(太乙山), 혹은 견불산(見佛山) 등으로 불렀다. 이것을 문헌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세종실록지리지』

- 취암(鷲岩) : 진산 (군 동쪽에 있으며, 그 동쪽은 파천이다)

『선종동국여지승람』

- 수리산(修理山) : 군 동쪽 1리, 일명 견불산(見佛山)

- 취암(鷲岩) : 수리산에 있음.

『파천현 신수읍지』

- 수리산 : 파천현 남쪽 25리, 일명 견불산

- 태음산(太乙山) : 파천현 남쪽 20리

『청구도』

- 수리산 : 안산현 경계내

- 태음산 : 파천현 경계내

『동여도』

- 수리산 : 안산현 경계내

- 태음산 : 표시없음

『대동지지』

- 수리산 : 안산현 동쪽 5리에 있으며, 이르기를 태울산 또는 견불산이라 함. 여기에 크고 높은 취암봉이 있는데, '독수리 취(鷲)'는 방언으로 '수리(修理)'라 함.¹⁴⁾

이상의 문헌 내용을 종합해보면, 수리산의 서쪽줄기, 곧 안산시와 안양시 경계에 있는 취암봉(지금 은 수암봉이라 하며 높이 395m)이 옛 안산고을의 진산¹⁵⁾으로서 취암봉의 '독수리 취(鷲)' 자에서 비롯되어 수리산으로 통했으며, 이 산줄기 중에서 가장 높은 북쪽 489m의 봉우리는 태을산으로 되어 있음을 당시의 고지도¹⁶⁾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지도 1 참조)

말하자면, 수리산을 경계로 조선시대의 안산현과 과천현이 나누어졌는데, 이 산에 대하여 안산에서는 취암봉의 수리바위에서 비롯된 수리산 또는 견불산이라 하였고, 과천에서는 태을산으로 불렀던 것이다. 그러다가 1900년대를 전후하여 같은 산줄기의 연봉(連峰)에 대한 지명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산群(山群)을 하나의 이름인 '수리산'으로 묶어서 부르는 한편, 수리산 연봉 중 최고봉(489m)은 관행대로 태을봉이라고 불러왔던 것 같다. 따라서 문헌상으로 남아 있는 견불산이라는 이름은 현재의 수리산 연봉에는 사용되지 않는 이름이다. 그런데 수리산의 '수리(修理)'라는 이름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에 대하여는

- 산봉우리의 바위가 독수리처럼 생겼기 때문이라는 설
- 신라 진흥왕 때에 수리사라는 절이 있어서 생긴 이름이라는 설
- 옛날 대홍수로 천하가 물에 잠겼는데 이 산 꼭대기에 수리(독수리)가 앉았음만큼 남아서 수리산이 되었다는 설
- 조선시대 어느 왕족이 이 산에서 수도하였으므로 수리산(修寺山)이라 불렀다는 설¹⁷⁾

등이 있다.

우리 옛말에 산을 부르는 이름으로는 부리게, 수리(술)계, 모르게, 둔계, 외계 등의 여러 형태가 있으며, 수리산은 그 중에서 전형적인 수리계의 산 이름이다. 이중에는 차(車), 취(鷲), 술(述), 주(酒) 자가 붙은 산(봉) 이름들이 많다. 이것은 봉(峰) 또는 산의 고훈(古訓)이 '술' 또는 '수리'로서 충남 공주의 차평(車嶺)은 수리재(수레고개)가 되고, 충남 아산의 음봉(陰峰)은 본래 이름이 아술(述述)인

14) 김정호, 『대동지지』(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864.

15) 신경준, 『여암전서(旅巖全書)』(산수고) (경인문화사 영인본 1976년) 323쪽에는 “오봉산 서북쪽에 수리산이 있고, 수리산 서쪽에 안산군 치소(현청)가 있다”고 하였다.

16)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과천지도』(고지도, 규 10370).

17) 이증환, 『택리지』, 1751.



<지도 4> 수리산줄기 능선도

데, 여기서 ‘술’이 ‘봉’으로 바뀐 것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하고 있다. 또 강원도 평창의 주봉(酒峰)은 우리말의 술봉(수리봉)을 나타낸 것이다.

한편 산을 나타내는 ‘모리’계, ‘부리’계, ‘둘’계 등 여러 갈래의 지명 중에서 수리산은 ‘수리’계의 산 이름이면서, 한편 우리 옛 말에서 높다는 뜻을 지닌 ‘수리(suri)’와 통하는 이름이다.¹⁸⁾ ‘수리’는 ‘정수리’라는 말처럼 으뜸, 높음, 최고라는 뜻을 지닌 만인데, 수리산의 수리도 같은 뜻을 함축하고 있다고 본다.

수리산의 ‘수리’를 옛 문헌이나 안산지역에서는 독수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데, 독수리는 높이 나는 새로 유명하다. 독수리는 까마득한 상공을 높이 비상하므로 서양의 신화에서는 주피터의 새로 알려져 있으며, 문학

적으로는 태양과 낮과 밝음을 상징하기도 하는데,¹⁹⁾ 높다는 의미의 ‘수리’와 높이 날아가는 ‘수리’가 서로 통하는 이름이 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런데, 이 독수리 - 수리 - 수리산과 관련하여 수리산 산줄기 능선을 그려보면 그 형태가 마치 비상하려는 독수리 형상과 신동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도 4, 수리산줄기 능선도 참조)

수리산 산줄기 모양을 설명한 때, 보통 X자형이나 H자형으로 설명하는데 이 산줄기의 능선을 그려보면 영남없는 독수리형태, 곧 독수리가 막 날개를 펴고 비상하려는 형태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곧 독수리의 두 날개 중 오른 쪽 날개는 관모봉(官帽峰, 426.2m)과 태을봉(太乙峰, 489.2m)을 잇는 줄기가 되고, 왼쪽 날개는 안산시의 수암봉(秀岩峰, 395m)과 매봉재(335.3m)를 잇는 줄기가 된다. 또 독수리의 두 발 중 오른 쪽 발은 슬기봉²⁰⁾에서 갈라진 산줄기가 무성봉(258m)과 감부봉(189.1m)으로 이어지는 줄기이며, 왼쪽 발은 고깔봉에서 갈라진 산줄기가 바람고개(약 200m)와 순산터널로 이어지는 줄기이다.

그리고 이 독수리의 몸통을 이루는 구간이 곧 슬기봉에서 서쪽의 고깔봉으로 뻗은 능선으로서

18) 김장호, 『한국명산지』, 병희출판사, 1993, 308 ~ 309쪽.

19) 이승훈 편저, 『문학상징사전』, 고려원, 1995, 135 ~ 136쪽.

20) 이 슬기봉에 대하여 군포시(류지호씨)에서 펴낸 『군포시 지명유래집』에는 거봉봉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수리산 능선을 답사해 보아도 ‘거봉봉’이라는 표지판은 보이지 않고 슬기봉으로 되어 있었다. 이 점에 관하여는 ‘군포시의 산과 고개’ 항목에서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이곳이 독수리의 몸통이나 H자형의 중심 축이 되면서 독수리가 막 날개를 펴고 비상하려는 모양을 정면에서 볼 때의 형상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이 독수리의 몸통부분(슬기봉~고깔봉 사이)에 우리 공군의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어서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되고 있지만 여하튼 취암(독수리바위) - 수리산 - 공군부대(공군의 상징인 보라매)는 독수리와 같은 매과의 맹금류(猛禽)가 기막히게 연결되고 있는 점도 매우 신묘한 일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수리산 - 비상하는 독수리의 모양을 군포시의 심복이나 캐릭터로 사용함으로써 수리산 등산이나 군포시의 관광홍보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리산의 또 다른 이름의 하나인 태을산(太乙山)에 대하여는 명칭만 문헌에 전해질 뿐 그 내력에 대하여 따로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태을'이란 도가에서 태을성신(太乙星神)을 말하기도 하는데, 가령 지리산을 가리켜 『택리지』에서 태을성신이 사는 곳이라고 하였으며, 태을성은 병란이나 재앙, 인간의 생사를 다스리는 별을 말한다. 또 태을은 곧 태일(太一)로서 만유를 포함하는 대도(大道), 혹은 천지창조의 혼돈의 원기(元氣)를 말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풍수지리에서는 큰 독수리가 두 날개를 펼치고 날아 내리는 모습을 매우 귀한 지상(地相)으로 꼽으며, 이런 형상을 천을봉(天乙峰) 또는 태을봉(太乙峰)이라 부른다고 한다.²¹⁾ 그러므로 태을봉이라는 이름은 도가적인 태을성이나 풍수지리적인 태을봉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리산의 또 다른 이름인 건불산(見佛山)은 불가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견불(見佛)'은 불가의 '견성성불(見性成佛)'을 줄인 말인데, 선종(禪宗)에서 '자기의 불성을 깨달아 바로 불로써 각자(覺者)가 되는 것'을 말한다.

옛날 수리산 수입봉 및 지장굴(地藏谷)에 연암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이 절의 중이 일심으로 수도하던 중에 지장보살을 친견하였으므로 절 이름을 지장사로 바꾸었고, 마을이름도 지장골이 되었다고 한다.²²⁾ 수리산을 건불산이라 부르게 된 것은 이곳에서 지장보살을 친견하였으므로 건불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²³⁾ 지금은 수리산의 여러 이름이나 상우리의 이름 중에 '건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곳이 없다.

한편 태을산이라는 이름은 옛날의 관행에 따라 지금은 '태을봉'으로 바뀌어서 수리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그대로 붙여져 있으므로, 지명으로 인하여 지역간, 혹은 주민간의 갈등을 유발할 만한 요인은

21) 서광석, 『대 절지에 마련된 두 국립묘지』, 『건설교통저널』, 2003. 12월호, 100~101쪽.

22) 경기도, 『지명유래집』, 1987, 472쪽.

23) 류지호, 『군포시 지명유래집』, 군포시, 1999, 111쪽.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리산’이라는 이름은 각종 정부 발행 지도나 등산 안내도 등을 통하여 이미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이름이 되었다. 따라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지명에 대하여는 그 지역 주민들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공적인 지속력(繼承力)을 갖게 된다. 그 까닭은 여러 개의 시 경계를 이루는 산 이름을 어느 한 곳에서 바꾸게 되면 심각한 지명표기상의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수리산은 그 글자가 지닌 의미나 상징성, 발음하기 좋은 점 등 여러 가지 점에서 나무랄 데 없는 산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수리산에는 다음에 설명하는 봉우리 이외에도 명학봉(鳴鶴峰), 노적봉(露積峰), 쓰레봉, 문봉(文峰) 등이 있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는 그런 봉우리 중에서 군포시 관내에 해당되거나 구체적으로 봉우리의 위치가 확인된 것만을 여기에 적었다.

(2) 수리산의 봉우리들⁴⁾

□ 감투봉 : 삼파산(三波山)

오금동과 대야동, 군포 2동 경계에 있는 높이 185.2m의 산이다. 수리산 거룡봉(슬기봉) 줄기가 남동류하여 솟아오른 산으로서 모양이 감투처럼 생겼으므로 감투봉이라 부른다고 한다. 감투는 옛날 벼슬아치들이 머리에 썼던 탕건처럼 생긴 쓰개의 일종이며, 감투 = 벼슬을 뜻한다. 또 이 산 정상에서 세 곳으로 물이 흘러내리는데, 오금동으로 흐르는 물은 산본천, 군포 2동으로 흐르는 물은 당정천(흐린 내), 대야동으로 흐르는 물은 반월 저수지에 합류하므로 삼파산이라 부른다고 한다. (대야동의 감투봉 전설 참조)

□ 거룡봉(巨龍峰) : 거룡봉⁵⁾ : 슬기봉

수리동과 대야동 사이에 있는 높이 469.3m의 봉우리이다. 수리산 연봉 중에서 태을봉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인데, 종전의 높이 474.8m는 새 지도에 의하여 수정되었다. 이 봉우리는 독수리 형상을 이루는 수리산 줄기 중에서 고깔봉과 함께 독수리의 몸통을 이루는 봉우리이다.

이 봉우리를 경계로 대야동과 수리동이 나누어지며, 이 봉우리의 서남쪽은 군부대시설로 인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이 산의 본래 이름이 거룡봉이라고 하며, 그 동안 여러 지도에는 이 봉우리를 ‘수리산’으로 표기하여 왔다. 거룡은 큰 용을 뜻하는데, 그 연원이나 내력은 확실하지

24) ‘수리산의 봉우리들’에서는 독수리 형상을 이루는 수리산 줄기의 주요 봉우리와 고개를 포함하였으며, 그 외에는 수리산 줄기라 할지라도 ‘기타의 산’에 포함하였다.

25) 시흥군, 『시흥군지』상, 1988, 1115쪽.

않으나 대개 풍수지리에서는 산 줄기를 내룡(來龍) 또는 용(龍)이라고 하므로 지상학(地相學)의 관점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볼 수 있으며, 뒤에 언급하는 ‘거량’이 ‘거룡’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슬가봉이라는 이름은 근래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이며 그 연원이나 내력을 전해주는 기록이 없다. 15세기 문헌에 보이는 ‘슬갑다’라는 말에서 ‘슬기’가 나왔으며 슬기는 사리를 빠르게 판별하고 일을 잘 처리해 나가는 능력이나 지혜를 슬기라 하고 밝음이나 지혜로움을 뜻한다. 그런데 ‘슬기’가 그전부터 불려오던 이름이라면 같은 수리과(수리산을 뜻하는)의 맹금류인 ‘솔개’가 ‘슬기’로 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시흥군지』에 나오는 거량봉의 ‘거량’은 ‘갈’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보인다. 산줄기나 강물이 나누어지는 곳에 ‘갈’ 또는 ‘곶’이 붙은 이름이 많은데 이것은 갈라진다는 뜻의 옛말 ‘가닥’에서 비롯된 이름으로서 고랑, 거랑, 거량 등이 모두 이 ‘갈’ 또는 ‘곶’에서 파생된 말로 보아야 할 것이며 ‘거량’이 ‘거룡(巨龍)’으로 의미부여가 되었을 것이다.

□ 고갈봉

대야동과 안산시, 안양시 경계가 되는 높이 451.5m의 봉우리로서 수리산 줄기 연봉의 하나이다. 독수리 형상을 이루는 수리산 줄기 중에서 거룡봉(슬기봉)과 함께 독수리의 몸통부인(중심부)을 이루는 봉우리이다. 고깔은 천으로 세모지게 접어 만든 종이 쓰는 모지(巾)의 일종이다. 이 봉우리 아래 수리사(修理寺)라는 절이 있으니 기막히게 맞아떨어지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 관모봉(冠帽峰)

광정동과 산본 2동의 경계가 되는 수리산의 한 봉우리이다. 군포시를 감싸고 있는 수리산의 가장 동북쪽 봉우리로서 높이 426.2m이다. 관모봉은 독수리 형상을 이루는 수리산 줄기 중에서 오른 쪽 날개의 끝이 되는 봉우리이다. 이 산 아래는 산본 2동의 골안(곡안)마을이 된다. 관(冠)은 지난 날 머리에 쓰던 쓰개를 총칭하기도 하고 또 갓을 나타내면서 벼슬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관모는 관과 모자가 걸친 말로 이 봉우리의 형상이 방향에 따라서는 뾰족하게 보여서 관모를 닮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 매봉재 : 응봉(鷹峰)

수리산 줄기의 한 봉우리로서 안산시 수암동과 안양시 인양동 경계에 있는 높이 334.7m의 봉우리이다. 이 산은 군포시 관내가 아니지만 독수리 형상의 수리산 줄기 중에서 왼쪽 날개에 해당되며, 수암동의 북북서쪽이 되는 봉우리이므로 ‘수리산의 봉우리들’에 포함하였다. 안산시 수암동의 지장촌(지장

골) 뒤에 있는 산으로서 이곳 지장관의 '지장보살 친견선화'에 의하여 수리산의 '견불산(見佛山)'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산 봉우리의 모양이 마치 매의 모습과 비슷하게 생겨서 매봉재 = 응봉이라 부른다고 한다. 그러나 산을 뜻하는 옛 말로서 매봉은 부리게, 수리게, 들개, 뱀 등 여러 형태의 형태가 있는데 매봉은 뱀 - 매의 형태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 무성봉

수리동과 대야동 사이에 있는 높이 258.3m의 봉우리이다. 수리산 연봉의 거룡봉(솔기봉) 줄기가 동남류하다가 솟아 오른 봉우리로서 군포시 환경관리소 서쪽에 있다. 독수리 형상을 이루는 수리산 줄기의 연봉 중에서 오른 쪽 발의 중간이 되는 봉우리이다. '무성봉'이라는 이름의 내력이나 연원을 알려주는 문헌 또는 구전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 바람고개 : 풍령(風嶺)

대야동(속달) 남다골에서 서북쪽의 안산시 장상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높이 193.8m이며, 그 사이로 부는 바람이 세기 때문에 바람고개라 부른다고 한다.²⁶⁾ 독수리 형상을 이루는 수리산 줄기 중에서 왼쪽 발에 해당하는 산줄기이다. 『계림유사』에 “풍알패담(風日字履)”이라 하였고 ‘파문’이라고도 썼는데 오늘날의 ‘바람 = 풍’과 일치한다.

□ 수암봉(秀岩峰)

수리산 줄기의 한 봉우리로서 안산시 수암동과 안양시 안양동의 경계에 있는 높이 398m의 봉우리이다. 이 산은 군포시 관내의 산이 아니지만 독수리 모양의 수리산 줄기 중에서 왼쪽 날개의 중간에 해당하므로 ‘수리산의 봉우리들’에 포함하였다. 이 산은 이전 안산 고을의 진산(鎭山)으로서 취암(鷲岩 : 수리바위, 혹은 독수리바위라는 뜻)이라 불렀으며 『대동지지』에는 ‘취(鷲)’의 방언이 ‘수리’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곧 수리산이라는 이름이 이곳 수리바위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뒷날 취암이라는 이름이 산봉우리가 수려하다는 뜻의 수암봉(秀岩峰)으로 바뀐 것이라고 한다. 산 아래 쪽에는 안산시에서 조성한 삼림욕장이 있다.

□ 태을봉(太乙峰)

광정동 뒤 수리산에 있는 한 봉우리이다. 높이 489.2m로서 수리산 줄기의 최고봉이 된다. 옛 지나기도에는 안산의 수리산, 과천의 태을산이 따로 표기된 경우가 있는데, 지금의 수리산 능선을 경계로

26) 백여기씨 (남, 대야동 속달동 남다골 마을 이장)증언.

두 고유의 경계가 나누어졌거나 수리산 취암봉(수암봉)이 옛 안산 고유의 전산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도 3 참조) 독수리 형상을 이루는 수리산 줄기 중에서 태음봉은 오른 쪽 날개의 중간을 이루는 봉우리이다. (수리산 줄기 능선도 참조) '태음'이란 도가에서 '태음성신(太乙星神)'을 말하는데 병란이나 재앙, 인간의 생사를 다스리는 별이다. 또 풍수지리에서는 큰 독수리가 두 날개를 펼치고 날아 내리는 모습을 매우 귀한 지상(地相)으로 꼽는데, 그런 형상을 천음봉(天乙峰), 또는 태음봉(太乙峰)이라 부른다고 한다.²⁷⁾ 태음은 또 태일(太一)로서 천지 창조의 혼돈의 원기를 뜻한다.

(3) 기타의 산

□ 구봉산(九峰山)

대야동의 도마교동 동쪽 끝에 있는 높이 145.5m의 산이다. 의왕시 초평동의 옷새우대 사이에 있는 산으로 봉우리를 9개로 보기는 어려운데, 구봉산의 내력은 자세히 전해지지 않는다. '굽은산'이거나 '구분산'이 변한 이름으로 보이기도 한다. 산 아래 서쪽 기슭에 새골 마을이 있다.

□ 금성산(錦城山)

대야동과 군포 2동(부곡동) 사이에 있는 높이 122.4m의 산이다. 영동고속도로 군포인터체인지 진입로의 바로 동쪽에 있는 산이다. 금성에 대하여는 따로 전해지는 문헌상 기록이나 구전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 누진봉

군포 2동과 대야동 경계가 되며, 동쪽은 의왕시와 접하는 높이 113.3m의 산이다. 구봉산 능선의 북쪽 줄기가 되며 그 내력은 확인할 수 없다. '누진'은 '느러진'이 방언화하여 느진·누진이 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구봉산 줄기가 북쪽으로 길게 늘어졌기 때문이다.

□ 당산봉(堂山峰)

군포 1동(당동)의 당말에 있는 산이다. 군포 역 서쪽 당동체육공원 부근의 야산으로서 이곳에 도당 체를 지내는 영당이 있으므로 당산봉이라 한다. 폐교가 된 계명신업고등학교 뒤(서)로서 높이 139.1m의 산이다.

□ 동산(洞山) : 동산공원

채곡동과 금정동에 걸쳐있는 시민휴식공원이다. 동산은 높이 115.8m이며, 군포시청의 뒷산이 되며

27) 서광석, 「대 길지에 마련된 두 국립묘지」, 『건설교통저널』, 2003, 100~101쪽.

이곳에 현충탑이 서 있다. 보통 마을 산을 가리켜 등산 또는 등미라고 하며 지역에 따라서는 동그란 산을 등산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산 현충탑이 서 있는 지역은 조선시대 여산 송씨 문중의 사패지(賜牌地)로서 문중에서 군포시에 현충탑 건립 부지를 기증한 것이다. 그 아래 여산 송씨 문중의 목암계 제설이 있다.

□ 모자간산(母子間山) : 모자산(茅子山)

군포 1동(당정)의 정제이들 북쪽에 있는 높이 84.2m의 산이다. 의왕시 정원고등학교의 바로 서쪽에 있는데 지금은 도시내 공원으로 바뀌었고 도로 개설로 산 일부가 잘려나가는 등 그 형태가 변하였다. 이 산에 떠꽃(浮)이 많이 나서 모자산이 되었다는 설과 동쪽 의왕시 오봉산(五峰山)과 모자간(母子間)의 산이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 밤바위산 ; 밤배산

오금동과 군포 2동의 당동마을 경계 수리산 줄기에 있는 높이 181.7m의 산이다. 군포시내를 동북~서남쪽으로 비스듬하게 가로지르는 수리산 산줄기의 한 봉우리로서 그 밑으로 금당터널이 뚫렸다. 오금동 오금자리 동쪽 병풍바위와 이 바위 아래 산기슭에 있는 밤벌을 묶어서 밤바위산, 밤배산이라 부르기도 하며²⁸⁾, 예전부터 좋은 경치를 전망할 수 있는 곳으로 이름 높았다.

□ 우래산(우뢰산 : 雨雷山) : 안산

대야동(둔대)의 둔터마을 동북쪽에 있는 높이 268m의 산이다. 천지 개벽 때 이 산이 만일저수지 등남쪽에 있는 테미산 자리에 앉으려고 하였는데, 테미산이 먼저 앉았으므로 울면서 이곳에 앉았다 하여 우래산이라 부른다고 한다.²⁹⁾ 한편 이 산을 둔디에서는 인산이라 하고, 속밭에서는 우래산이라 부른다고도 한다.³⁰⁾ 옛날 고구려가 남산평(안산시 팔곡동)에 도읍을 정하려고 하는데 테미산이 먼저 자리를 잡아서 이 산이 울면서 밀려와 이곳에 앉았으므로 도읍지로 부적합해져서 취소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산이 9개 봉우리로 되어 있고, 그 중 3개소의 명당이 있다고 한다.

□ 우래산(雨來山)

재궁동과 군포 1동 경계의 군포 중학교와 군포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높이 127.5m의 산이다. 도시의 휴식공간으로 되어 있으며 ‘우래산’의 내력에 대하여는 문헌이나 구전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지명의 글자대로라면 비가 온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인데, 옛날 혹시 이 산에서 기우제를 지냈는지

28) 류지호, 『군포시 지명유래집』, 군포시, 1999, 38쪽.

29) 경기도, 『지명유래집』, 1987, 428쪽.

30) 김광영씨(남, 77세, 대야동 둔터마을)의 2인 증언.

모를 일이다.

□ 지봉산(芝峰山)

군포 2동(부곡)의 무작골 마을 서북쪽 차들박이골 남쪽에 있는 높이 111.4m의 산이다. '지봉(芝峰)'은 조선 광해군 때 실학자 이수광의 호인데 그와 관련된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지(芝)'는 지초(芝草)를 뜻하며 난초와 함께 군자에 비유하였으므로 지명에도 많이 쓰인 글자이다. 그전에 의왕시 웃새우대 사람들이 이곳에서 산신제를 지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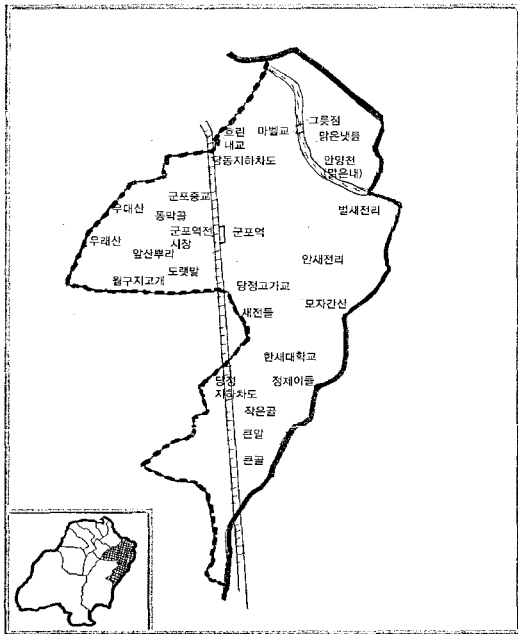
□ 테미산

대야동(둔대)의 반월저수지 제방 동쪽 끝에 있는 높이 158.2m의 산이다. 산 정상으로 안산시와 군포시 경계가 지나간다. 둔터마을 동북쪽의 우래산이 이 산 때문에 북쪽으로 밀려나서 테미산 남쪽 남산평이 서울이 되지 못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우래산 전설 참조) '테미'는 대개 산 위에 성터가 있는 경우에 붙여지는 이름으로서 '테'를 두른 '외'라는 뜻이다. '테'는 테두리를 말하며 나무의 나이테, 장터의 터와 동근어(同根語)가 되며 '위(圍)'의 뜻을 지닌 말이다.

4. 각 행정동의 지명

1) 군포1동(軍浦一洞)

(1) 관내도



군포1동 관내도

(2) 동명의 유래와 연혁

군포동은 원래 과천군 남면(南面) 당리(堂里)에 속한 지역으로서 안양천의 동쪽을 지나 국도1호선 및 호계로를 경계로 안양시 호계동과 접하고 그 남쪽으로는 철도차량기지 일대까지 의왕시와 접하고 있다.

‘군포’라는 이름은 지금 안양시 호계3동의 그전에 군포장이 있던 사거리일대를 부르던 이름이었으나 1904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고 1905년 1월 1일부터 군포장이 업무용 시작하면서 이 군포지역(1938년 4월 1일 군포역이 됨) 부근에 민가가 늘어나서 점점 번창해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호계3동의 그전 시장 일대를 구군포, 구장터, 구군포사거리 등으로 불렀으며 ‘군포’라는 이름은 안양천을 건너서 지금의 군포역 일대로 옮겨오게 된 것이다.

‘군포’에 대하여는 다음의 (3) 관내의 지명 중 ‘구군포’와 ‘군포역’, ‘군운산’ 등을 통하여 설명하였고 또 ‘군포지역 주요지명의 이해’에서 따로 소개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이 지역은 1789년(정조 13)에 만든 『호구총수(戶口總數)』에 과천현 남면의 7개 리 중 당리(堂里)와 당정리(堂井里), 봉성리(鳳城里 : 새전리)가 속한 지역이다.

1914년 일제에 의한 지방행정구역 통·폐합 때 시흥군 남면이 되었으며 이때 당리와 송호동(龍虎洞)을 합하여 당리로, 당정리와 봉성리(새전리)를 합하여 당정리가 되었다. 1989년 1월 1일 시흥군 군포읍이 군포시로 승격되면서 당리(당동)의 일부를 군포 1동으로, 당정리를 당정동으로 하였다가 1998년 10월 8일 행정동사무소인 당정동을 폐지하고 군포 1동에 통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군포라는 이름의 법정동은 없으며 동사무소로서의 군포 1동은 군포시 11개 행정동의 하나이다. 관내에는 한세대학교와 군포중학교가 있다.

(3) 관내의 지명

□ 구군포(舊軍浦) : 구장터(舊場-) : 군포장(軍浦場)

지금의 군포시 관내가 아닌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의 옛날 군포장이 있던 곳인데 편의상 군포동에 포함하였다. 이곳은 구군포사거리, 구장터, 구군포 등으로 부르고 있으며 5일과 10일(혹은 2일과 7일에 장이 섰다는 주장도 있다)³¹⁾에 장이 섰으므로 ‘군포장’이라 하였다가 1926년 안양시 안양동에 안양시장이 개설되면서 이곳 시장은 없어졌다(그러나 군포장이 6·25전까지 섰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다). 이보다 앞서서 1904년 경부선 철도를 개통하면서(1905년 1월 1일부터 업무개시) 지금의 군포

31) 이윤용(77세, 군포 1동)씨 증언.

역을 '군포장역'이라 하였는데 이 근방에 민가가 늘고 번창하자 호계 3동을 '구군포'라 부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군포'라는 이름이 안양천을 건너서 서쪽의 경부선 '군포장역'으로 옮겨오게 된 것이다. 그후 1938년 4월 1일 경부선을 복선화하면서 군포장역을 군포역으로 고쳤다. (군포지역 주요 지명의 이해 참조)

□ 구군포교(舊軍浦橋)

군포1동과 금정동 그리고 안양시 호계 3동 사이의 안양천 위에 놓인 다리이다. 화성전선 길에서 구군포사거리와 연결되는 다리로서 다리의 교명판도 '구군포교'로 되어 있다.

□ 군웅산(軍雄山)

군포시 관내가 아닌 안양시 동안구 호계 3동에 있는 야산인데 편의상 군포1동에 포함하였으며 지금은 주택가로 변한 곳이다. 이곳은 호계동 966-1번지가 되는데 원래 '군웅산'이라 하였고 매년 음력 10월 2일에 군웅제(軍雄祭)라는 민속행사가 열리던 곳이었다고 한다. 이 산과 하천(옛 군포천, 지금의 안양천)에 의하여 '군포(軍浦)'라는 이름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군웅제는 1980년대 초부터 이 행사를 지내지 않고 있으나 군포시에서 행사장소를 군포지역으로 옮겨서라도 다시 민속행사를 재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군포역(軍浦驛)

군포1동에 있는 경부선 철도역이자 수도권 전철역이다. 제국주의 일본이 조선정부로부터 경부선 철도 부설권을 얻고 1904년 경부선을 개통하였는데 이곳은 1905년 1월 1일부터 '군포장역'이라 하다가 1938년 4월 1일 경부선을 복선화하면서 '군포역'으로 고쳤다. 처음 군포장역이 들어서자 이 일대에 민가가 늘어나서 점점 번창해지기 시작하였다. 본래의 군포장은 구군포(안양시 호계 3동) 사거리 일대에 있다가 이곳에 역이 들어서면서 '군포'라는 이름도 역을 따라서 옮겨온 것이다. 군포시내 5개 철도역의 하나이다.

□ 군포역전시장(軍浦驛前市場)

군포 1동(당동781)의 군포역 바로 앞(서쪽)에 있는 재래시장이다. 군포역전시장은 1905년 1월 1일 경부선 '군포역'이 생기고 한국전쟁 이후 상설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군포역과 국도 47호선 사이에 있다.

□ 군포천(軍浦川)

군포시와 안양시 경계를 이루는 안양천 상류의 그전 이름이 군포천이었다. '군포천'은 1699년(숙종

25)에 간행된 『과천현신수읍지』나 그 당시의 고지도에도 모두 ‘군포천’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제를 거치면서 하천이름을 새로 붙일 때 안양천 상류가 되는 이 지역까지 ‘안양천’에 흡수함으로써 군포천이라는 이름은 하천범이나 지도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그 이름이 ‘군포사’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 굴다리 : 월구지 고개

군포 1동(당동)과 재궁동 사이에 있는 고개로서 당말고개, 월구지고개 또는 굴다리라고도 한다. 재궁동으로 통하는 당말지하차도가 굴다리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굴다리’라는 이름은 대야동의 대야미 역사 밑으로 통하는 다리도 굴다리라고 부르고 있다.

□ 넘말

군포 1동(당정동)의 큰말 북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큰말의 너머에 있으므로 넘말이라 한다. 너머 = 유(踰) 또는 월(越)의 의미를 지닌 이름이다.

□ 당넙어 : 당하리(堂下里)

군포 1동(당동)의 도렘말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그전에 당말 사람들이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비는 당제를 지냈는데, 마을 뒤의 도당사(都堂祠)에서 행하여졌다. 도당사 너머 마을이 되므로 당넙어라 하며, 당동의 아랫마을이 되므로 당하리라 하였다.

□ 당동(堂洞) : 당리(堂里) : 당말

군포 1동에 속한 2개 법정동의 하나이다. 1789년(정조 13) 『호구총수』에 나오는 과천현 남면 7개리의 하나로 이때 당리가 나온 만큼 오래된 마을이다. 1989년 1월 1일 군포시 승격과 함께 당리의 일부와 부곡리를 합하여 군포 1동에 편입되었으며 나머지는 군포 2동에 편입되었다.

민간에서 제를 지내는 당으로는 국사당(國師堂)·산제당(山祭堂)·칠성당(七星堂)·성황당(서당)·산신당(山神堂)·도당(都堂) 등으로 부르는데 경기도 지방에서 산신당이나 산제당을 짓고 제사 지내는 경우는 이를 도당이라 한다. 당동은 당말·동막골·아구랑·당넙어·도렘말(도내동)로 되어 있다. 당제를 지내는 영당(靈堂)을 모시고 있으며 내부에는 산신도 등이 있다.³²⁾

□ 당동 약수터

군포 1동(당동)의 산 22번지 3호에 있는 약수터이다. 1993년 10월에 개발된 우물이다.

□ 당동 지하차도

군포 1동(당동)의 강남화성 서쪽으로 연결되는 지하차도이다. 마벨교(속칭 '마베리')로부터 서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경부선 철길 부근에서 지하차도로 바뀌는 곳이다.

□ 당동 체육공원

군포 1동(당동)의 당말에 있는 도시공원이다. 월구지고개 서남쪽 바로 옆에 있는 공원이다. 2003년 11월 금정시민체육광장이 새롭게 단장되었는데 당동체육공원은 시민체육광장의 산능선 동쪽이 된다.

□ 당말 지하차도

군포 1동(당동)에서 재궁동으로 넘어가는 월구지고개 밑으로 관통하는 지하차도이다. 글다리라고도 하며 시민체육광장으로 통하게 된다.



당말 지하차도

32) 군포시, 『군포시의 마을신앙』, 2003, 14 ~ 15쪽.

□ 당산봉(堂山峰)

군포 1동(당동)의 당말에 있는 산이다. 군포역 서쪽 당동체육공원 부근의 야산으로서 이곳에 도당계 문 지내는 영당이 있으므로 당산봉이라 한다. 폐교가 된 계명실업고등학교 뒤(서) 높이 139.1m의 야산을 말한다. (군포의 산 참조)

□ 당정(堂井) : 당우물 : 당정동(堂井洞)

군포 1동(당정)에 속한 2개 법정동의 하나이다. 본래 신당 밑에 우물이 있어서 '당우물' 또는 '당정'이라 하였으며 1789년(정조 13)에 만든 『호구총수』에도 과천현 남면 7개리의 하나로 당정리가 명시되어 있다. 1914년 일제의 지방 행정구역 폐합 때 그전 당정리와 봉성리(鳳城里)를 합하여 당정리라 하였고 1989년 1월 1일 군포시의 행정동으로서 당정동이 되었다가 1998년 10월 8일 당정동사무소를 폐지하고 군포 1동에 병합되었다.

당(堂)은 마을의 번영과 주민의 평안을 위하여 재를 올리는 당으로서 산제당, 산신당, 국사당, 성황당 등 여러 형태가 있는데 경기지방에서는 이를 도당(都堂)이라 한다. 당정의 기원이 된 '당우물'은 큰밭의 논 가운데 있었던 우물이라고 하며 이 우물을 떠다가 재를 지냈다고 한다.

□ 당정고가교(堂井高架橋)

군포 1동과 군포 2동 경계의 경부선 철로 위로 설치된 과선교이다. 의왕시 고천에서 갈라져 군포시로 들어오는 시도가 경부선 철길을 지나서 동아아파트(군포 2동)의 뒤편(북)쪽으로 지나간다.

□ 당정지하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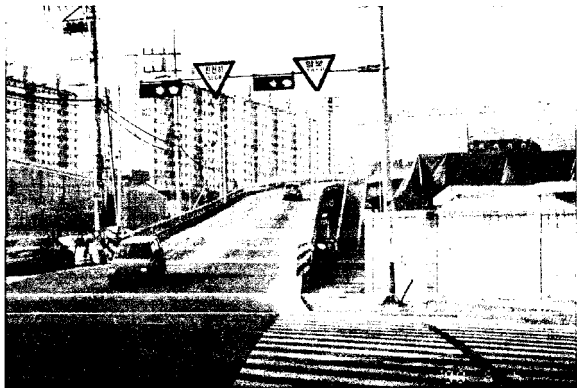
군포 1동(당동)과 군포 2동 사이에 있는 지하차도이다. 금당터널-군포초등학교 앞을 지나 의왕시로 이어진다.

□ 당정천(堂井川) : 흐린내

군포 1동(당정)을 흘러서 안양천에 합류하는 내이다. 감투봉에서 발원하여 황동 앞을 흘러서 북류하는데 황동 일대가 황토지역이 되어 하천의 물이 흐려지게 되므로 흐린내라고 하며 당정동을 흘러 내리므로 당정천이라고 한다. 지방 2급 하천이다.

□ 도랫말(도렴말) : 도내동(道內洞)

군포 1동의 군포초등학교 뒤(북쪽)에 있었던 마을이다. 지금은 새도시로 탈바꿈하였다. 옛날 마음씨 착한 김씨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형은 잘 살고 동생은 가난하였다. 그러나 형은 자식이 없고 동생은



양정 고가교

자식이 풀이 되었으므로 형님에게 아들 하나를 주고 마을을 떠나 살게 되었다. 그후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이 고향이 걱정되어 다시 돌아오게 되었으므로 “돌아온 마을”이라는 뜻에서 도랫말-도내동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대개 ‘도래’, ‘도내’라는 이름이 붙은 경우는 마을 앞에 강물이나 하천이 돌아 흐르는 곳, 큰 길이 들어가는 곳(취어진 곳)을 뜻하며 한문으로는 도내(島內), 도내(桃內), 도내(道內) 등이 있고 또 석(石 : 돌), 우(隅 : 모퉁이) 등의 글자가 붙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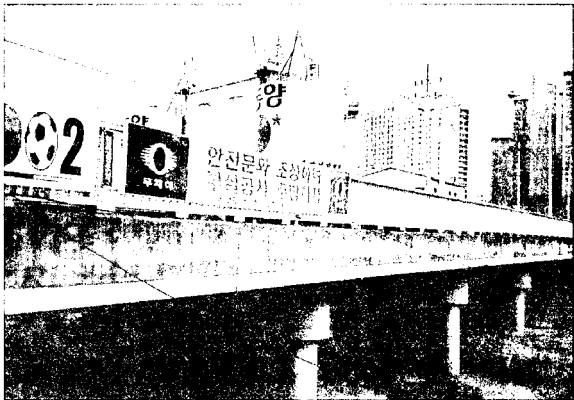
□ 동막골 : 화산동(花山洞)

군포 1동의 군포중학교 동쪽에 있었던 마을이다. 지금은 새도시로 바뀐 곳이지만 옛날에는 진달래, 철쭉이 만발한 구릉이었으므로 화산동이라고도 불렀던 곳이다. 원구지고개의 동쪽 마을이었다.

‘동막’은 동쪽에 막을 짓고 살았던 곳, 돌이 많은 곳(돌막-동막), 동쪽이 막힌 곳, 마을(洞)에서 막을 세운 곳 등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으나 확실한 내력은 알 수 없다.

□ 마벨교(마벨마을)(속칭 ‘마버리’)

군포 1동의 안양천 위에 놓인 다리이다. 지금은 없어졌으나 그전에 마벨을 만드는 공장이 지금의 ‘백시스템’공장 부근에 있었다고 하며, 그 일대를 지금도 ‘마벨마을’이라고 하면 부근 사람들은 다



마뻬교

통한다고 한다.³³⁾ 마뻬는 공구의 일종인 드라이버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 맑은 내 : 청천(淸川)

군포 1동(당정)을 흘러서 북류하는 안양천의 다른 이름이다. 이 하천은 안양천의 상류로서 본래 '군포천'이라 하였고 현지 주민들은 '맑은 내' 라고 불렀다. 모라산, 지지대 고개 등에서 흘러내린 물이 의왕시 고천동을 지나 당정동 별세전리를 거치는 내이다. 호란내=당정천에 대하여 물이 맑은 내라는 뜻으로 보이기도 한다.

□ 맑은냇들 : 청천평(淸川坪)

군포 1동(당정)의 별세전리 일대를 불렀던 이름이다. 정조의 현릉원 거둥을 기록한 『원행정려』에는 '군포천교(軍浦川橋)'(장산 모듬이로부터 3리), '청천평(淸川坪)'(서원천교로부터 1리)이라는 기록이 나오는데,³⁴⁾ 이곳이 맑은냇들, 곧 지금의 당정동 별세전리 일대를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3) 서영순(여, 45세, 군포 1동 수정다방 주인), 마뻬교 알 마을상회 주인(여, 70세) 등 증언.

34) 시흥군, 『시흥군지』상, 1988, 302쪽.



모자간산

□ 모자간산(母子間山) : 모자산(茅子山)

군포 1동(당정)의 정제이들 북쪽에 있는 높이 84.2m의 산이다. 의왕시 정원고등학교의 바로 서쪽이 되는데 지금은 도시 내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이 산 밑(동쪽)으로 의왕시와 경계가 된다. 산 이름은 이 산에 떠풀=묘(茅)가 많이 나서 모자산이 되었다는 설과 동쪽 의왕시 오봉산(五峰山)과 모자간의 산이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근래에 새로 지은 LG아파트 부근이 되며 산은 도로 개설로 말미암아 깎이고 잘려나갔다. (군포의 산 참조)

□ 목골

군포 1동의 월구지 고개 부근에 있었던 논이다. 본래 꿀짜기를 이루고 있었다. '목'은 지형이 잠록하여 목을 이루거나 길목이 되는 경우에 붙는다.

□ 바가지 우물

군포 1동(당정)의 큰밭에 있었던 우물이다. 두레박을 써서 물을 퍼 올리지 않아도 바가지로 손쉽게 물을 퍼 낼 수 있는 우물이다. 이 우물은 당정동 우물제를 지내던 우물이었으나 경부선 복복선 공사와

골프장이 들어서고 주변지역이 변하면서 없어졌다고 한다.³⁵⁾

□ 방죽말

군포 1동(당정)의 자연마을로서 그전에 방죽이 있어서 방죽말이라고 불렀다. 골프장과 경부선 철도 건설 등으로 마을 주변이 대부분 바뀌었다.

□ 벌말

군포 1동의 경부선 군포역 부근에 있었던 마을이다. 역이 들어서기 전에는 벌판이었다가 경부선 기차역이 자리잡으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 벌새전리 : 평봉성(坪鳳城)

군포 1동(당정)의 안양천 부근 애자교의 바로 서남쪽 마을이다. 벌새전과 안새전 마을은 봉성리라 부르던 곳으로 1789년(정조 13) 과천현 남면의 『호구총수』에도 마을이름이 나오는 7개 리의 하나이다. '새전'은 봉성=새재가 변한 이름으로 보고 있으며, 벌판에 있는 마을이므로 '벌판 평(坪)'자를 따서 평봉성, 벌새전이라 한다. 지금은 대부분 공장시설이 들어섰다.

□ 봉성리(鳳城里) : 안새전리

군포 1동(당정)의 벌새전리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었다. 지금은 대부분 공장지대로 되었다. 봉성리는 1789년(정조 13) 『호구총수』에 나오는 과천현 남면 7개리의 하나로 되어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당정리에 통합되었다. 봉성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새재'가 되므로 새곶말>새곶말>새전의 새재가 변한 이름으로 볼 수 있다. 벌새전의 안쪽이 되므로 안새전이라고 하며 봉황이 날개를 펴고 앉아있는 형국이므로 봉성리라 불렀다고 한다.³⁶⁾

□ 새전들

군포 1동(당정)의 모자간산 서쪽, 안새전리의 남쪽에 있는 들이다. 새전마을(봉성리)의 남쪽 넓은 들이므로 새전들이라고 한다.

□ 아구랑(阿邱岡)³⁷⁾ : 아구동(阿口洞)

군포 1동의 상업은행 군포지점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아구랑(阿邱岡)을 글자대로 풀이하면 "아름다운 언덕의 솟을 대문" 씬으로 풀이되는데 그 내력은 자세히 알 수 없다. 일설에는 옛날 흰 개

35) 군포시, 『군포시의 마을신앙』, 2003, 38쪽.

36) 군포시, 『군포시 지명유래집』, 1999, 47쪽.

37) 이윤용(77세, 군포 1동), 심재극(군포농업협동조합장)씨의 증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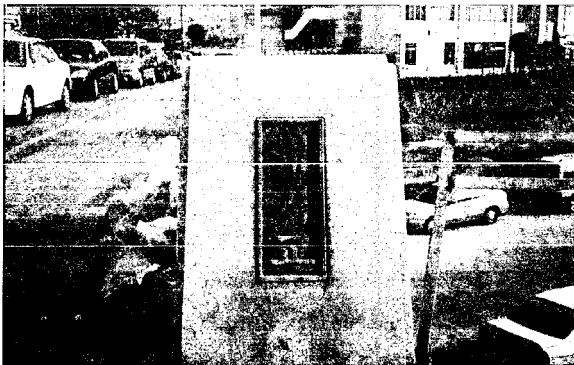
두 마리가 입을 벌리고 이 마을 언덕을 넘어갔으므로 아구랑 또는 아구등이라 부른다고 한다. '아구'는 부양의 아궁이를 뜻하기도 하고, 입의 속된 말로서 아가라·아구를 뜻한다.

□ 앞산뿌리

군포 1동의 군포역 남쪽의 고개로 못 미쳐서 있는 마을이다. 산줄기가 이 마을에까지 이르렀다가 끊긴 곳이므로 앞산뿌리라고 하는데, 1981년 구획정리되어 시가지로 변화였다.³⁸⁾ 뿌리는 산줄기를 말한다.

□ 애자교

군포 1동(당정) 벌새전리 동북쪽 인양천 위에 놓인 다리이다. 벌새전리에 신한애자공업(주)이 들어섰으므로 그 제품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군포시내의 바벨교나 애자교라는 다리 이름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교량이름으로 한 것인데 이 보다는 그 부근에 있었던 옛 지명을 복원하여 다리이름으로 붙이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다. 애자는 전신·전화·전력 등의 가공선로에 전선을 지탱하고 접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자기나 유리·합성수지 제품을 말하며 대개 뚝뚝의 형태로 생겼다.



애자교

38) 경기도, 『지명유래집』, 1987, 442쪽. 1 : 25,000 지형도에는 앞산뿌리가 군포초등학교 동쪽으로 되어 있으나 지명유래집을 따름.

□ 영당(靈堂)

군포 1동(당동)의 당말에 있는 제당이다. 영당은 당산봉에 있는 조그만 기와집으로서 영당 안에는 최근에 모셔진 산신도가 있다.



영당 산신도

□ 우래산(雨來山) : 우뢰산

군포 1동(당동)과 재궁동 사이, 군포중학교와 군포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높이 127.5m의 산이다. 군포시 관내에는 두 곳의 우래산(우뢰산)이 있으며 이 우래산의 내력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한문 글자대로 풀이하면 그전에 기우제를 지내던 곳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래산의 한문표기가 '우래산(又來山)'이라면 이 산 아래 동쪽에 있었던 '도랫말'과의 관련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매봉’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우래산 = 도랫말)(군포의 산 참조)

□ 웃터 : 상대동(上垔洞)

군포 1동(당동)의 아구랑과 당너머 사이에 위치한 마을이다. 집터가 좋은 곳이므로 웃터 또는 상대라 불렀다고 한다.

□ 월구지고개

군포 1동(당동)의 아구랑과 재궁동의 정글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우래산의 바로 남쪽이 되며 당말고개 또는 글나리라고도 부른다. ‘월구지’는 본래 ‘월걸이’로서 달이 걸치는 고개를 뜻하는 이름이라고 한다. 그런데 월구지는 ‘달꽃이’가 변한 이름으로도 볼 수 있다. 산의 부리가 돌출하여 꽃을 이루는 경우에 달꽃이>월고지>월구지로 될 수 있다. 바로 남쪽으로 당말지하차도가 뚫렸다.



월구지 고개

□ 작은골

군포 1동(당정)의 큰밭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당정과 큰밭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며 큰골에 대해

여 상대적으로 작은 관짜기라는 뜻이다.

□ 잠상(蠶桑)

군포 1동(당동)의 동백골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뒷산이 풍수지리상 누에(蠶穴)에 해당되므로 누에는 뽕잎을 먹고산다 하여 잠상이라 이름하였다고 한다.

□ 장군바위

군포 1동(당정)의 별새전리 남쪽에 있는 바위이다. 당정리 새전마을에서 의왕읍으로 넘어가는 길 옆에 있는 바위라고 하며 이 바위에는 아기장수와 용마에 얽힌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³⁹⁾ 옛날 가난한 부부가 용동자를 낳았는데 부인이 밖에 나갔다가 방에 들어와 보니 아기가 천장에 올라가 있었으며 갓난아기의 입구리에는 날개가 돋아있었다. 이 아기가 보통의 아이가 아닌 것을 알게 된 부모는 장차 이 아기가 자라나면 역적이 될 것이 두려워서 이 아이를 죽이기로 결심하였다. 부모는 곧 아이를 이불로 덮고 무거운 멧돌을 가져다가 아이를 눌러서 죽이고 말았다. 그러자 뒷산인 오봉산에서 용마가 튀어나오더니 무릎을 꿇고 죽었다. 이 용마는 장차 아기장수가 탈 밀로서 아기장수가 죽자 용마도 스스로 죽고 말았다고 한다.

이 바위에는 흡사 말 발자국 같은 자국이 남아있으며, 이런 연유로 인하여 이 바위를 장군바위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아기장수와 용마바위'전설은 전국적으로 약 100 여 개소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는 전설 중의 하나이다.⁴⁰⁾

□ 점배이들 : 정제이들

군포 1동(당정)의 한세대학교 북동쪽에 있는 들이다.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1 : 5, 000 지형도에는 점배이들(1979년판), 정제이들(2002년판)의 두 가지로 표기되어 있다. 이 일대의 들이 큰밭에서 논 가운데 우물을 대상으로 그전에 정제(井祭)를 지냈던 곳이다. 정제이들은 정제=우물제를 지낸 들이므로 생겨난 이름일 것이며 점배이들은 표기 오류로 보인다.

□ 취락마을 : 79번지 마을

군포 1동(당동)의 군포중학교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본래 북승아밭이었는데 1977년 취락구조 개선 사업으로 생긴 마을이며 79번지에 위치하므로 79번지 마을이라고도 하였다. 우래산의 북쪽 기슭에 있는 마을이다.

39) 군포시, 『군포시 지명유래집』, 1999, 48쪽.

40) 시흥군, 『시흥군지』상, 1988, 1149쪽.

□ 큰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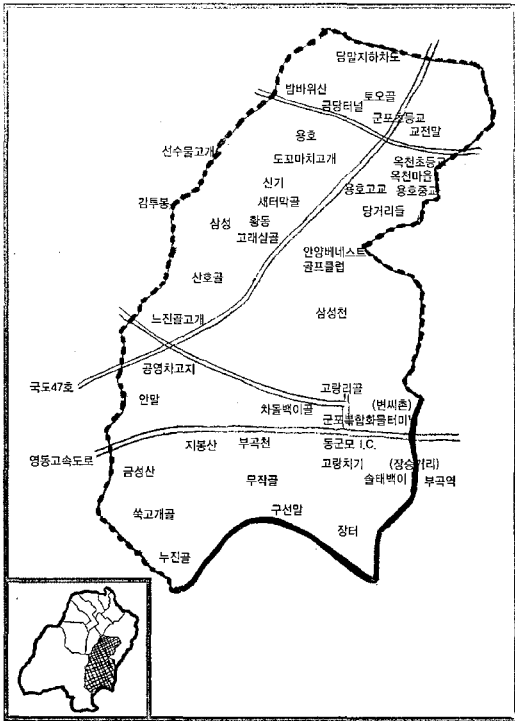
군포 1동(당정)의 당정지하차도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당정등에서 제일 큰 마을이므로 큰말이라 하고, 그 중에서도 북쪽지역은 이렛말, 남쪽지역은 옷말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것은 이 지역이 안양천 상류로서 하천이 북류하므로 북쪽마을이 이렛말이 되고, 남쪽 마을을 옷말이라 부른다고 한다. 화물기지창 건설로 마을이 줄어들었다. 마을에는 수령 5백년의 큰말 느티나무가 있어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 흐린내교

군포 1동과 금정동 사이의 당정천(흐린내) 위에 놓인 다리이다. 회성전선의 남쪽 모퉁이와 페리칸의 서쪽이 되는데 교명판도 '흐린내교'로 되어 있다. 당정천이 감투봉에서 흘러 내리다가 황동 일대의 토질로 인하여 냇물이 흐려지므로 흐린내라 불렀기 때문이다.

2) 군포2동(軍浦二洞)

(1) 관내도



군포 2동 관내도

(2) 동명의 유래와 연혁

군포 2동은 1989년 1월 1일 군포시로 승격되면서 그전 당리(堂里) 일부와 부곡리(富谷里)를 병합하여 군포 2동이라 하였으며 당리=당동과 부곡리=부곡동은 군포 2동의 법정동이 되었다.

원래의 '군포(軍浦)'라는 이름은 마을이나 동(洞), 면(面) 또는 고운의 이름이 아닌 하천의 이름으로서 1699년(숙종 25)에 간행된 『과천현신수읍지』에 안양천 상류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처음 나온다. 지금은 '구군포(舊軍浦)'라고 부르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 3동에 옛날 군포장이 섰으며 이곳에 군웅산(軍雄山)이 있어서 이곳에서 매년 '군웅제'를 지냈다.

따라서 지금은 '군포천'이라는 하천이름이 지도에서 사라졌으나 그전에 이곳 군웅산과 그 옆을 흐르는 하천의 '물가 포(浦)를 합하여 '군포천(軍浦川)'이라 하였으므로 군포 2동의 '군포'는 여기에 서 비롯된 이름이다. ('군포(軍浦)'와 '군포(軍隨)' 참조)

한편 군포 2동의 법정동으로 남게 된 당동(堂洞)은 1789년(정조 13)에 만든 『호구총수』의 과천현 남면에 속한 7개 리의 하나로 나올 만큼 오래된 마을이다. 이 마을은 현재 군포 1동과 군포 2동에 나누어져 있는데 1914년 4월 1일 일제의 지방행정구역 폐합 때 시흥군 남면이 되었고 당리와 용호동(龍虎洞)을 합하여 당리로 만든 곳이며 '당(堂)'은 마을 주민들이 도당제를 지내는 당집이 있어서 생긴 이름이다. (군포 1동의 '당말' 지명 참조)

부곡동(富谷洞) 역시 1789년 『호구총수』에 처음 나오는 이름으로서 1914년 4월 1일 일제에의 지방행정구역 폐합 때 장간리(章干里) 일부를 부곡리에 병합하였으며 경부선 철도역인 의왕시의 부곡역도 같은 뿌리에서 나온 이름이다. (부곡동 지명 참조)

군포라는 이름의 법정동은 없으며, 동사무소로서의 군포 2동은 군포시 11개 행정동의 하나이다. 관내에 용호고등학교, 용호중학교, 군포초등학교, 육천초등학교가 있다.

(3) 관내의 지명

□ 각골말 : 각곡촌(角谷村)

군포 2동(부곡) 무작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한다. 마을이 지형이 소의 뿔처럼 생겨서 부르는 이름이라고 한다. 그런데 '각골'은 '갓골'로서 어떤 지형의 가장자리나 변두리를 뜻하는 경우가 많으며 갓 = 변(邊)에서 비롯된 이름으로도 볼 수 있다. 이곳은 조선조 말엽까지도 도독과 호랑이가 출몰하였다고 하는데 지금의 어느 마을인지 확실하지 않다.⁴¹⁾

41) 경기도, 『지명유래집』, 1987, 443쪽.

□ 감투봉 : 삼파산(三波山)

군포 2동 삼성마을 뒤(서쪽)에 있는 높이 185.2m의 산이다. 대야동과 오금동의 경계가 되며 수리산의 남동 줄기가 솟아오른 산이다. 이 산 정상에서 세 곳으로 물이 흘러내리는데 오금동으로 흐르는 물은 신본천, 군포 2동으로 흐르는 물은 호란내(당정천), 대야동으로 흐르는 물은 반월천에 합류하므로 삼파산이라 한다. 또 산 모양이 감투처럼 생겼으므로 감투봉이라 부른다고 한다. (군포의 산 참조, 대야동의 감투봉 전설 참조)



감투봉

□ 갯다리

군포 2동(부곡)의 변씨촌 마을과 고랑치기 사이에 있는 들이다. 옛날에는 바닷물이 이곳까지 들어왔다고 하며 1987년 마을 주민들이 큰 전신주 4개로 다리를 놓았으므로 갯다리라 하였다. 지금은 한국복합물류 군포터미널 부지에 대부분 편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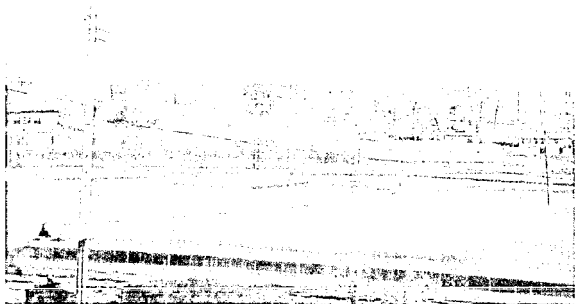
□ 고랑리굴

군포 2동(부곡)의 변씨촌 서쪽 골짜기이다. 지금은 한국복합물류 군포터미널 부지에 편입되었다.

고랑치기 마을과 관련된 이름이다.

□ 고랑치기

군포 2동(부곡)의 구선말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본래 농경지로 작고 깊은 고랑이 있어서 고랑치기라 불렸으며, 처음에는 1가구만 있었는데 부곡역 앞에 철도관사가 생기면서 호수가 늘어났다고 한다.⁴²⁾ 뒤(북)로 군포북합화물 터미널이 들어섰다.



고랑치기 마을

□ 고래실골 : 앞고래실골

군포 2동의 삼성마을 앞 들이다. 국도 47호선의 서쪽이 되는데 ‘고래’는 물이 많고 땅이 기름진 논을 말한다. 마을 앞에 기름진 문전옥답이 있으므로 고래실골, 앞고래실골이라 한다.

□ 공영차고지(公營車庫地)

군포 2동(부곡동)의 환경미화타운과 군포시 보건소 사이에 있는 시내·시외버스 터미 등의 공영차고지이다. 그전 안말의 바로 북쪽이 된다.

42)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경기편 상』, 1985, 410쪽.

□ 교전말(校前-)

군포 2동(당동)의 군포초등학교 앞에 있는 마을이다. 학교가 들어서면서 민가가 들어서기 시작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 학교 앞에 있는 마을이므로 교전마을이라 한다.

□ 구선말(九仙洞)

군포 2동(부곡)의 고랑치기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시대 광주북과 시흥군의 살피가 되는데, 광주에 딸린 곳은 광주 시우대, 시흥에 딸린 곳은 시흥 새우대라 불렀다고 한다⁴³⁾(시우대는 지금 의왕시 초평동이다) 마을이 산 모퉁이가 되므로 구석말>구성말>구선말이 된 것으로 보인다.



구선말

□ 누진골

군포 2동과 대야동 경계에 있는 누진봉(113.3m)의 북쪽 골짜기이다. 무작골 남쪽 부곡천의 남쪽 골짜기가 된다.

43) 경기도, 『지명유래집』, 1987, 442~443쪽.

□ 누진봉

군포 2동과 대야동 경계가 되며 동쪽은 의왕시와 접하는 높이 113.3m의 산이다. 구봉산 능선의 북쪽 줄기가 되며 그 내력은 확인할 수 없다. (군포의 산 참조)

□ 금당(禁堂)터널

군포 2동(당동)과 오금동 사이의 수리산 줄기를 관통한 터널이다. '금당'은 오금동에서 '금(禁)'과 당동의 '당(堂)'자를 합하여 만든 합성지명이다.

□ 금성산(錦城山)

군포 2동(부곡)과 대야동 사이에 있는 높이 122.4m의 산이다. 영동고속도로 군포인터체인지 진입로 의 바로 동쪽 산이다. (군포의 산 참조)

□ 느진골

군포 2동의 삼성마을과 대야동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지대가 높아서 다른 지역보다 농사를 항상 늦게 짓는다고 하여 느진골이라 부른다고 한다.

□ 느진골고개 : 만곡현(晩谷峴) : 갈티고개

군포 2동(부곡)의 삼성마을과 대야동 감티마을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갈티고개라고도 하며 '느진'은 느슨함, 늘어진, 느릿하다는 뜻으로 어(於), 연(漣), 맨(晩)의 뜻을 지닌 이름이다.

□ 당거리들 : 당가평(堂街坪)

군포 2동(당동)의 거리 앞들이라는 뜻이다. 지금 당동 주공 4단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들이다. 토오골, 오골 새터말골 등의 물이 흘러드는 제법 넓은 들이었으나 지금은 아파트 단지와 용호고교, 용호초교, 용호중교 등의 부지가 되었다.

□ 당정(堂井)지하차도

군포 2동(당동)과 당정동을 통하는 도로의 지하차도이다. 금당터널-군포초등학교 앞을 지나 당정동-의왕시로 이어지는 도로로서 국도 1호선과 연결된다.

□ 도당재(都堂·)

군포 2동 삼성마을에서 서쪽 야산으로 올라가는 고개이다. 이 고개 위에는 당이 있는데 당할아버지, 당할머니라고 부르는 두 그루의 소나무가 있다. 이 곳에서 마을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하는 도당제를

지냈으나 1990년대 이후 도당제를 지내지 않고 있다고 한다⁴⁴⁾ 도당은 산신제당이나 산계당을 지어놓고 제사 지내는 곳을 경기·충청지방에서는 도당이라 하며, 무녀나 악녀(樂女)에 의하여 굿을 하는 경우도 있다.

□ 도꼬마치고개 : 도독막고개

군포 2동 용호마을에서 새터말(신기)로 넘어가는 높이 89.9m의 고개이다. 수리산의 한 줄기가 동류하면서 그 능선을 남북으로 통하는 고개로써 옛날 고갯길에 강도나 산적이 나타났으므로 해가 저물면 넘기를 꺼렸던 고개라고 한다.

□ 도렘말 지하차도

군포 2동(당동)의 국도 47호선에 설치된 지하차도이다. 군포초등학교 남쪽 도로가 된다. 군포 1동의 그전 도렘말에 가깝다. (군포 1동 도렘말 참조)



무작골

44) 군포시, 『군포시의 마을신앙』, 2003, 9 - 10쪽.

□ 동군포 인터체인지

군포 2동(부곡)의 한국복합물류 군포터미널 남쪽에 조성된 화물전용의 인터체인지이다. 그전 차불 백이골과 대곶마을 일대에 들어섰다.

□ 무작골 : 무지개골 : 홍곡(紅谷)

군포 2동(부곡) 구선발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고랑치기 마을의 서쪽이 되며 옛날 마을 가운데 있는 우물에서 무지개가 섰으므로 무지개골, 무작골, 또는 홍곡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⁴⁵⁾

□ 밤바위산 : 밤배산

군포 2동(당동)과 오금동 경계의 수리산 줄기에 있는 높이 181.7m의 산이다. 군포시내를 동북-서남으로 비스듬하게 가로 지르는 산줄기의 한 봉우리인데 그 밑으로 금당터널이 뚫렸다. 오금동 오금천의 동쪽 병풍바위와 이 바위 아래 산기슭에 있는 밤벌을 묶어서 밤바위라고 부르거나, 밤바위산, 밤배산이라 부른다고 한다.⁴⁶⁾ (군포의 산 참조)

□ 변씨촌(邊氏村)

군포 2동(부곡)의 한국복합물류 군포화물터미널 동쪽 끝에 있었던 마을이었으나 터미널 부지에 편입되어 폐동되었다. 본래 원주 변씨(邊氏) 창의공과 후손이 낙향하여 터를 잡은 후 그 씨족들이 집단으로 살았던 마을이다.⁴⁷⁾

□ 부곡(富谷) : 대골 : 부곡동(富谷洞)

군포 2동에 속한 2개 법정동의 하나이며 자연부락명으로는 대골이라고도 불렀다. ‘부곡’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하여는 세 가지 설이 있다. 『시흥군지』에는 조선시대의 어느 해에 가뭄이 들어 온 들의 모가 말라죽었으나 이 마을 앞에는 눈에 물이 많아서 풍년이 들었으므로 ‘부곡’이라 하였다고 한다. 또 하나는 조선시대에 남양부사가 이곳을 지나다가 마을이름을 물어보니 ‘빈골(貧谷)’이라고 대답하므로 기왕이면 넉넉한 이름을 택하여 ‘부곡’으로 부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또 이곳에 큰 부자가 살았으므로 부곡이라 불렀다는 설이 있다.

그런데 ‘부(富)’는 곧 우리말의 ‘가벌’로서 부곡=가마골>감골이 되며 ‘감’은 곶, 검 등과 함께 신인 신성 혹은 크다는 뜻의 ‘쿰’을 뜻하기도 하므로 부곡=대골과 서로 통하는 이름이다.⁴⁸⁾

45) 최섬섭 (여, 70세, 부곡동 497, 무작골 거주).
46) 류지호, 『군포시 지명유래집』, 군포시, 1999, 38쪽.
47) 박열순 (여, 80세, 부곡동 555, 스텔백이 거주)의 2인.
48) 변재천 (남, 73세, 부곡동 613-1, 구선발 거주)의 1인.

□ 부곡교(富谷橋)

군포 2동(부곡)과 의왕시 삼동의 왕송저수지 북쪽 하천 위에 놓인 교량이다. 경부선 부곡역에서 서쪽으로 부곡육교를 건너와서 북쪽 하천 위에 놓인 교량이며 부곡동 장터와 연결되는 다리이다.

□ 부곡복합화물터미널

군포 2동(부곡)의 영동고속도로 북쪽에 인접하여 설치된 화물터미널로서 동군포 인터체인지를 통하여 진입할 수 있다. 고량리골, 차돌박이골, 번씨촌 등이 터미널 부지에 편입되었다. 보통 한국복합물류군포복합화물터미널이라고 한다.

□ 부곡약수터

군포 2동(부곡 671번지)에 있는 약수터이다. 1996년 6월에 설치된 우물이다.

□ 부곡천(富谷川)

군포 2동(부곡)의 공영차고지와 환경미화타운 일대의 물이 남쪽으로 흐르는 하천이다. 영동고속국



삼성마을(뒤는 김투봉)

도를 지나서 의왕시의 왕송저수지로 흘러 들어간다.

□ 산호골

군포 2등의 삼성마을 남쪽 국도 47호와 화물터미널 진입로가 교차하는 북쪽 골짜기이다. 명칭의 내력은 확인할 수 없다.

□ 삼성(三姓 : 三星) : 삼승(三升)

군포 2등(부곡)의 안양베네스트골프클럽과 국도 47호를 사이에 두고 서쪽에 마주 보는 마을이다. 본래 현봉 객씨, 인동 장씨, 신안 주씨의 세 성씨가 들어와 마을을 이루었으므로 삼성(三姓)이라 하며, 5. 16이후에는 삼성(三星)으로도 썼다고 한다. 마을에 주자를 모시는 삼성사(三聖祠)가 있고, 또 10여 년 전까지 도당제류 지냈다. 김투봉 동쪽 기슭에 있는 마을이다.

□ 삼성사(三聖祠)

군포 2등(부곡)의 삼성마을에 있는 사당이다. 1882년 이 마을 신안 주씨 분중에서 사림의 도움을 받아 사우를 짓고 주문공(朱文公)의 진영(眞影)을 봉안하고 있다. 6. 25사변 때 건물 일부가 붕괴되고 영정이 불탔는데 그후 다시 복원하였다.

□ 삼성약수터

군포 2등(당동)의 삼성마을 부근에 두 개의 약수터가 있다. 당동 172번지에 위치하며 우물은 1996년에, 샘은 1997년에 약수터로 개발되었다.

□ 삼성천(三姓川)

군포 2등(부곡)의 삼성마을에서 흘러 내리는 하천이다. 동쪽으로 흘러 안양베네스트 골프클럽을 지나 남류하다가 의왕시의 왕송저수지로 흘러드는 내이다.

□ 새터말(새터말골) : 신기(新基)

군포 2등(당동)의 삼성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신기와 삼성마을 사이를 새터말골이라 한다. '새터'는 새로 터를 잡은 마을을 뜻하며, '신기'와 같은 말이다. 우리 나라 마을 이름 중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이름이다.

□ 숲태백이

군포 2등(부곡) 장터 마을의 북쪽, 고랑치기의 동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경부선 부곡역 철길의 바로 서쪽에 되는데, 그전에 마을 중앙에 묘가 있고, 그 묘 옆에 큰 소나무가 있어서 숲태백이라

부른다고 한다. '백'은 '장승백이'처럼 무엇이 '박혀' 있었던 곳을 '백이'라 하므로 숲터+백이가 결합된 이름으로 볼 수 있다.⁴⁹⁾



숲터백이(육교 아래)

□ **쑤고개골** : 호현(高峴)

군포 2동(부곡)과 대야동 경계에 있는 고개와 골짜기이다. 누진봉에서 급성산으로 이어지는 산 줄기의 중간, 구선말 남쪽에서 도마교로 이어지는 도로 중간의 높이 75m쯤 되는 고개를 말한다. 이 고개의 남쪽을 쑤고개골이라 하는데, 이 일대에 다복축이 무성하였으므로 호현이라고도 하였다.

□ **신기천(新基川)**

군포 2동(당동)의 새터말골에서 발원하여 용호초등학교 뒤(남쪽)를 흘러서 당정천으로 합류하는 소하천이다. 새터말골=신기의 이름을 따서 신기천이라 한다.

49) 박일순 (여, 80세, 부곡동 555, 숲터백이 거주)의 2인.

□ 안말

군포 2동(부곡)의 군포환경미화타운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지금은 대부분의 민가가 이주하였으며 공영차고지의 남쪽이 된다.

□ 안양베네스트골프클럽

군포 2동에 있는 국제 규격의 골프명문이다. 숲과 코스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뛰어난 환경을 자랑하며 1968년 6월 16일 개장하였다. 면적 267,000평이며 골프코스는 18홀 6,219m이다.

□ 여사벌 : 여사곡평(麗使谷坪)

군포 2동(도마교) 금성산 남동쪽 삭고개골 부근에 있는 들이다. 고려시대 중국 사신들이 황해바다를 건너와서 남양을 거쳐서 이 들을 통하여 한양으로 들어갔다고 한다.⁵⁰⁾

□ 옥천(玉泉)마을

군포 2동의 용호중학교와 옥천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옥천'이라는 이름은 인근의 금정동 산 100번지 밤바위산 기슭에 있는 옥천약수터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라고 한다.⁵¹⁾ 옥천이란 맑은 샘을 말한다. 샘에서 흐르는 물이 맑고 깨끗한 것을 옥에 비유하여 옥천이라 하며, 부르기 좋은 마을 이름의 하나이다.

□ 용사갈

군포 2동과 대야동 경계를 흐르는 하천이다. 누진봉 아래 누진골에서 발원하여 검바위를 거쳐 의왕시의 왕송저수지로 흐르는 하천이라고 한다.⁵²⁾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없다.

□ 용호동(龍虎洞) : 요골 : 용호마을

군포 2동의 국도 47호선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지금은 옛 마을이 없어지고 아파트촌의 '용호마을'이 되었다. 원래 과천군 남면 용호동이라 하였고, 현지 토박이말로는 '요골'이라 불렀는데 용호(龍虎)는 풍수지리에서 좌우의 두 산줄기를 좌청룡, 우백호라 부르므로 이를 합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이 마을 북서쪽에 동래정씨 선대의 묘소가 있어서 그로 인하여 생긴 이름이라고 한다.

50) 류지호, 『군포시 지명유래집』, 군포시, 1999.

51) 황성회씨 (여, 군포시 군포 2동 사무소 근무).

52) 류지호, 『군포시 지명유래집』, 군포시, 1999.



옥천마을

□ 원수물고개 : 원수를 고개

군포 2동(당동)과 오금동 경계가 되는 수리산 줄기의 고개이다. 신기(새터말)마을 서쪽에서 오금동으로 넘어가는 높이 133m의 고개로서 오금동(도장동) '원수읍팔'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오금동의 지명 참조)

□ 잠승거리

군포 2동(부곡)의 장터와 경부선 부곡역의 부곡육교 사이를 말한다. 장승은 마을입구나 절의 경내 입구, 큰 길 주막거리 부근 등에 나무로 짝아 세웠으며 장생(長柱), 장승(長丞·長承), 장성 등으로 불렸다. 솟장승(천하대장군)과 암장승(지하여장군)의 둘을 세우는데 나중에는 관로의 길가에 10리 간격으로 세워져 리정(里程)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장승이 세워진 곳에 장승거리, 장승백이, 장승막 등의 이름이 붙어있다. 이 지역은 조선시대 고지도에 '부곡주막'이 나오는 길이었으므로 장승이 세워져 있었을 것이다. 이것을 다시 복원하여 세우면 좋을 것이다.

□ 장터 : 장터골(밭)

군포 2동(부곡)의 경부선 부곡역 서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마을이 빈판에 위치하므로 장터밭이라고도 하고, 장터골이라고도 한다. 옛날에 장이 섰던 곳이라고 하는데 60년 전에도 장은 서지 않았다고 한다.⁵³⁾ 장이 열리는 곳을 '장터'라 하고 한자로는 장기(場基), 장대(場臺)라고 하였으며 '구장터', 옷장터, 아랫장터, 새장터 등의 이름이 붙는다.

□ 지봉산(芝峰山)

군포 2동(부곡)의 무적골마을 서북쪽, 차돌박이골의 남쪽에 있는 높이 111.4m의 산이다. '지봉(芝峰)'은 조선 광해군 때 실학자 이수광의 호인데, 그와 관련된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재(芝)'는 지초(芝草)를 뜻하며, 난초와 함께 군자에 비유하였으므로 지명에도 많이 쓰이는 글자이다. 그전에 의왕시 초평동 옷새우대 사람들이 산신제를 지냈던 산이라고 한다. (군포의 산 참조)

□ 차돌박이골

군포 2동(부곡)의 군포북합화솔터미널에 편입된 골짜기이다. 북부터미널 주유소 일대로서 이 일대는 차돌(석영)이 많이 박혀 있었으므로 차돌박이골이라 하였다.

□ 토오골 : 토골

군포 2동(당동)의 군포초등학교 서남쪽 골짜기이며, 이 골짜기 서쪽 산이 밤바위산이다. 토오골의 내력은 확인할 수 없으며, 금당터널이 뚫린 자리에 있었던 논골짜기이다.

□ 해당우물(海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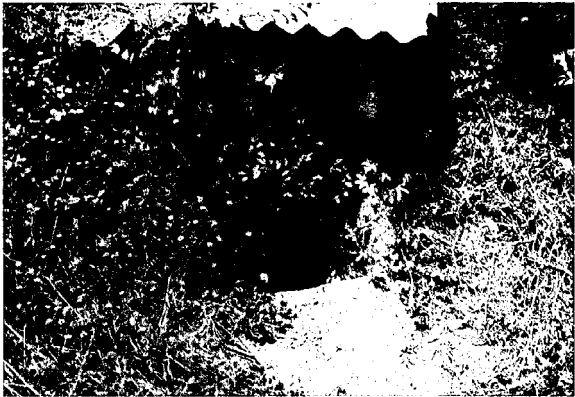
군포 2동(부곡)의 삼성마을 서쪽 아산에 있는 우물이다. 이 길을 도당재라고 하며 도당재 아래 있는 우물로서 마을에서 도당재를 지날 때 사용하였던 우물이다. 해당화가 많이 피어서 해당우물이라 부른다고 한다.⁵⁴⁾ 해당화는 바닷가 모래 땅이나 산기슭에서 주로 자란다.

□ 호꼬뿌리

군포 2동과 대야동 경계의 금성산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산 줄기의 부리를 말한다. 이곳이 호랑이의 코에 해당된다 하여 호꼬뿌리라 부른다고 한다. 여기서 '뿌리'는 즉 부리로서 산 줄기를 말한다.

53) 박일순 (여, 80세, 부곡동 555, 솔태백이)의 2인.

54) 군포시, 『군포시의 마을신앙』, 2003, 10쪽.



희담우물

□ 황동(黃東) : 황등(黃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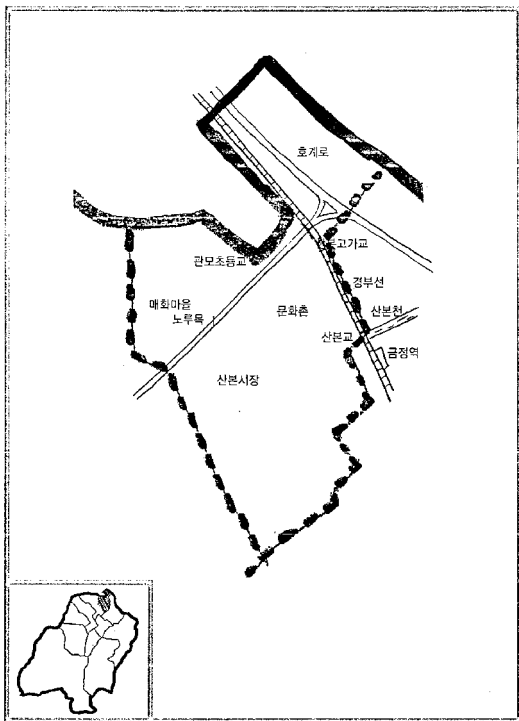
군포 2동(부곡)의 삼성마을 동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실제는 삼성마을과 한 마을이나 다름없다. 본래 동쪽에 있는 산이 붉은 황토이므로 황동산(黃東山)이라 하고, 그 아래 마을이 되므로 '황동산말'이라 하였는데, 차츰 줄어들어서 '황등'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황등'이 아니라 '황등(黃登)'이었다는 설도 있으나⁵⁵⁾ 현재 군포시에서 사용하는 이름은 '황등'이다.

55) 군포시, 『군포시의 마을신앙』, 2003, 9쪽.

3) 산본1동(山本一洞)

(1) 관내도



산본1동 관내도

(2) 동명의 유래와 연혁

‘산본(山本)’이라는 이름이 문헌상 처음 등장하는 것은 1789년(정조 13)에 만든 『호국중수』에 과천현 남면(南面) 7개 리의 하나로 나오는데, 이때는 ‘산저리(山底里)’라 하였다. ‘산본’이나 ‘산저’라는 이름은 한문 표기만 다를 뿐 현지 토박이말의 ‘산밭’을 나타내므로 언중(言衆: 주민)들의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산밭’은 군포시의 수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수리산의 밑 또는 아래를 뜻하는데, 1871년(고종 8)에 산저리가 산본리로 바뀌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 ‘산본’이 일본인들의 성씨의 하나인 산본(山本: 야마모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태평양전쟁 당시 연합함대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쿠(山本 五十六)(1884~1943)와는 관계없는 이름이다.

골 산저리→산본리로 바뀐 것은 1871년이며, 그가 태어난 것은 1884년으로서, 그가 태어나기 13년이나 앞서서 붙여진 이름이다. 특히 ‘산본’이라는 이름은 경남 김해시, 전남 광양시와 강원도 춘천시 등에도 같은 이름이 있다.

1914년 일제에 의한 전국의 지방행정구역 통폐합 때 시흥군 남면(南面) 5개 리의 하나인 산본리가 되었고, 1989년 1월 1일 시흥군에서 군포읍이 시로 승격·분리될 때 산본리는 산본 1동과 산본 2동 등으로 나누어졌다. 법정동으로서의 산본동은 군포시 9개 법정동의 하나이고, 동사무소로서의 산본 1동은 군포시 11개 행정동의 하나이다. 관내에 관모초등학교가 있다.

(3) 관내의 지명

□ 노루목 : 장항(獐項)

산본 1동의 수리산 관모봉 줄기가 떨어 내린 산줄기로서 지금의 노루목 주유소 부근이다. 지형이 노루의 목처럼 생겼다 하여 부르는 이름이라고 한다. 그러나 ‘노루’가 붙은 지명은 여(於), 광(廣), 황(黃), 판(板) 등의 뜻을 나타내는데 지형이 늘어졌다는 뜻의 ‘느르’, 넓다는 뜻의 ‘너르’, 누르디는 뜻의 ‘누르’, 널판을 뜻하는 ‘너르’ 등이 변하여 ‘노루’목이 된 경우가 많다. 목(項)은 사람의 목처럼 잘록한 부분, 굽어진 부분 등을 나타내며, 전국적으로 ‘노루목’이라는 이름이 매우 많다.

□ 매화마을

산본 1동의 노루목 주유소 부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매화(梅花)는 매실이라고도 하며 4군자로 꼽는 낙엽교목이다. 추위를 이기고 이른 봄에 일찍 꽃을 피우므로 옛 선비들이 난초, 국화, 대나무와 함께 4군자의 하나로 꼽았던 나무이다. 군포시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마을 이름 부여는 산본



노두록 주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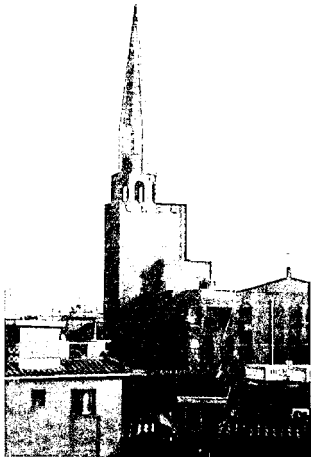
신도시 조성 당시 위양에서 군포로 들어오면서 차폐대로 꽃이름 → 명산이름 → 위인이름 순으로 지명 위원회에서 붙였다고 한다.(이후 수록된 아파트 단지별 마을 이름은 모두 이 명명방식에 의한 것이라고 함)

□ 문화촌(文化村)

산본 1동의 금정역 서쪽에 조성된 집단 주택지이다. 산본 신도시 조성 이전부터 있었던 집단 취락지로서 본래는 산본천의 위쪽(북)으로 밀집되었으나 그 남쪽까지 확장되었다. 면적과 형태가 확실화되어 있는 집단 주택지대로서 전국적으로 이런 형태의 취락지역에 '문화촌'이라는 이름을 붙인 곳이 많이 있다.

□ 산본고가교(山本高架橋) : 소벌고가교

산본 1동의 동북쪽 고가차도이다. 안양시 호계로에서 산본으로 들어오는 길목으로서 경부선 철로 위에 설치되었으며, 명학 입체교와 연결된다. 이 고가교를 '소벌고가교'라고 표시한 곳도 있으나 그 출처와 내력을 확인할 수 없다.⁵⁶⁾



문화촌

□ 산본교(山本橋)

산본 1동과 금정동 경계의 산본천 위에 놓인 다리이다. 금정역사의 북쪽이 된다.

□ 산본시장(山本市場)

산본 1동 214번지에 있는 시장이다. 군포시에는 2개의 재래시장이 있는데 군포역전시장과 산본시장이자. 노루목 주유소의 남쪽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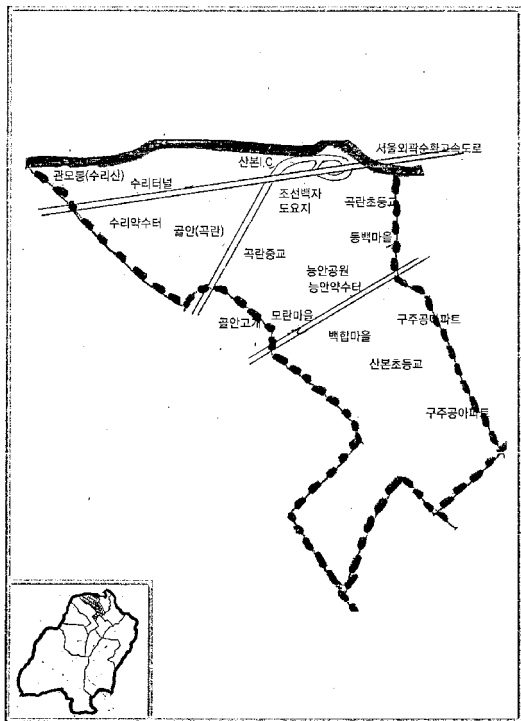
□ 산본천(山本川)

산본 1동의 문화촌(文化村) 마을 사이로 흘러서 안양천에 합류하는 지방하천이다. 지금은 모두 복개되어 도로 밑을 흘러서 산본교(금정역사 내)를 지나 보령재약 북쪽에서 안양천에 합류한다.

56) 새한지도, 『수도권생활정보지도』, 2003, 256쪽.

4) 산본2동(山本二洞)

(1) 관내도



산본2동 관내도

(2) 동명의 유래 및 연혁

‘산본’이라는 이름은 산본 1동의 동명유래와 같다. 1789년(정조 13)에 만든 『호구총수』에 과천현 남면(南面)에 속한 7개 리의 하나로 나오는데, 이때는 ‘산저리(山底里)’로 되어 있었다. 1871년(고종 8)에 이르러 지금의 이급인 ‘산본’으로 고쳐졌으나 한글 표기만 달라진 것일 뿐 현지에서 부르는 ‘산밭’이라는 토박이 이름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었을 것이다.

‘산본’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일본인들이 영용시키는 인물이자 일본인들의 성씨인 ‘산본(山本)·(야마모토)’(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의 해군원수 ‘야마모토 이소로쿠’)을 붙인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는 1884년에 태어났고, 산저리가 산본으로 바뀐 것은 1871년이 되므로 일본의 성씨와는 관계없는 우리말 ‘산밭’을 한자화한 이름이다. 산본의 ‘본(本)’은 사물의 근본으로서 ‘밭’을 뜻하기도 하고, 나무의 줄기나 뿌리를 나타내기도 하며, 인간의 본성이나 고향을 의미하는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매우 좋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1914년 일제에 의한 지방행정구역 폐지·분할 때 시흥군 남면(南面) 5개 리의 하나인 산본리가 되었고, 1989년 1월 1일 시흥군에서 군포읍이 시로 승격·분리될 때 산본리는 산본 1동과 산본 2동 등으로 나누어졌다. 법정동으로서의 산본동은 군포시 9개 법정동의 하나이고, 동사무소로서의 산본 2동은 군포시 11개 행정동의 하나이다. 관내에 곡란중학교, 곡란초등학교, 산본초등학교가 있다.

(3) 관내의 지명

□ 개나리 마을

산본 2동의 곡란초등학교(서쪽) 옆에 있는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단지이다. (‘개나리’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경위는 매화마을 참조) 개나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른봄에 노란 꽃을 피우는 풀푸레나무과의 낙엽 활엽교목이 있고, 또 다른 개나리는 참나리에 대한 말로 “야생하는 나리”를 말한다. 여기서 봄에 노란 꽃을 피우는 개나리를 말한다.

□ 골안 : 곡내(谷內) : 곡란(谷蘭)

산본 2동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쪽에 있는 자연마을로서 지금은 산도시의 주택가로 바뀌었다. 골안-곡내는 골짜기에 조성된 평지, 곧 곡저평지(谷底平地)나 분지에 취락이 형성되면서 부르는 이름이다. 골은 곡(谷) 또는 동(洞) : 행정구역이 아닌)을 말하며, ‘실’이 붙기도 한다. 한편 이곳에 난초가 많이 자생하여 ‘곡란’이라 하였다는 설도 있는데, 곡란은 골안의 아화(雅化) 지명으로 보인다.

□ 골안고개 : 곡내현(谷內峴) : 산실고개

산본 2등과 광정동 사이, 광정과 골안 사이의 작은 고개이다. 일명 산실고개라 불렀다고 하며 지금은 능내동원과 시가지로 바뀌었다. 산본중학교와 곡관중학교 사이에 있었다.

□ 관모봉(冠帽峰)

산본 2등과 광정동의 경계가 되는 높이 426.2m의 봉우리이다. 수리산 줄기의 동북쪽 맨 끝 봉우리가 되며, 그 아래는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의 수리터널이 뚫려있다. 봉우리가 관모처럼 생겼기 때문이라고 하며, '관모'는 갓(冠)과 모자가 결합된 말이다. (군포의 산 참조)

□ 구주공(舊住公)마을⁵⁷⁾

산본 2등에 있는 대한 주택공사 아파트이다. 군포시청 뒤 동산공원의 북쪽에 있는 마을로서 1단지와 2단지로 되어 있다.

□ 능안 공원 : 능내 공원(陵內公園) : 능안약수터

산본 2등의 개나리아파트 남쪽에 있는 공원이다. '능안', '능내'라는 이름의 내력은 산본고등학교 뒤쪽, 수리산 기슭에 있는 전주 이씨 안양군묘(安陽君墓 : 조선 성종의 제 3남)로 인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능(陵)'은 본래 임금이나 왕후의 무덤을 말하지만, 지방에서는 규모가 큰 무덤, 왕실의 종친이나 혹은 벼슬을 지낸 사람의 묘소를 높여서 '능'이라고 부르는 예가 많다. 또 산의 구릉지대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이곳에 능안약수터가 있다.

□ 동백(冬柏)마을

산본 2등의 곡관초등학교 남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동백'으로 부르게 된 내력은 매화마을 참조) 동백은 차나무과의 상록교목이다. 붉은 꽃을 피우며 옛날에는 여인들의 머릿기름으로 동백얼매를 썼고 여인의 정절을 상징하는 나무이다.

□ 모란(牡丹)마을

산본 2등의 능안공원 남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모란과 목단은 같은 이름인데, 대개 꽃으로 부를 때에는 '모란'이라 하고, 약재로 부를 때에는 '목단'이라 한다.

57) 군포시, 『군포시 행정지도』, 2001년.



능안공원

□ 백합(百合)마을

산본 2동의 산본초등학교 서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백합은 화초로 유명하고, 순수 또는 순결을 상징하는 다년생 화초이다.

□ 산본(山本)인터체인지

산본 2동의 바로 뒤 수리산 기슭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나들목이다. 수리터널 입구 못 미처서 군포시내로 들어오는 길이며, 군포시민회관, 군포시청, 산본역으로 연결된다.

□ 수리산(修理山)

산본 2동의 뒤로부터 서쪽-남쪽으로 뻗은 산줄기이다. 최고봉인 태을봉의 높이가 489.2m이며 이 산으로 인하여 안양시, 안산시와 천연의 경계가 되고 있다. (군포의 산, 수리동의 수리산 등 참조)

□ 수리약수터(修理藥水-)

산본 2동의 산 18-3번지에 있는 우물이다. 태을초등학교 북동쪽에 있으며, 1993년 10월에 개발된 약수로서 수량이 풍부하다.

□ 수리터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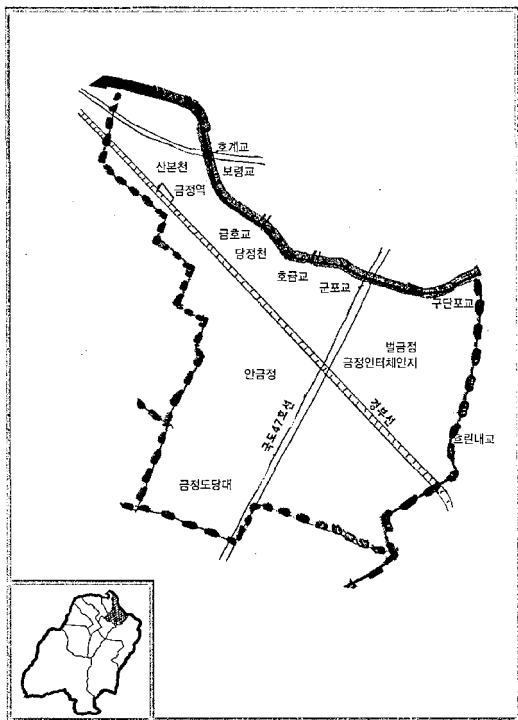
산본 2동의 수리산 관모봉 동쪽 기슭에 설치된 터널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조남분기점과 연결된다. 길이는 1.9km이며 국내에서 터널 폭이 가장 넓은 터널로 알려져 있는데, 연도 2차선의 폭이 17.94m인 터널로 기록되어 있다.

□ 조선백자도요지

산본 2동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바로 아래(남) 있는 유적이다. 산본동 1057-4번지에 위치하며 사적 제342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곳은 조선 전기의 백자가마터로서 2개의 작업장이 거의 완벽한 형태로 남아있는 귀중한 유적이다. 면적 2,348㎡이며 1991년 1월에 사적지로 지정되었다.

5) 금정동(衿井洞)

(1) 관내도



금정동 관내도

(2) 동명의 유래와 연혁

금정동의 ‘정(井)’은 우물로서 『계림유사』에는 ‘정월오물(井日烏沒)’이라 하여 오물=우물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물은 원래 ‘우물’이었을 것으로 본다. 이 지역에 전해지는 바로는, 이 일대의 벌판에 어디든지 파기만 하면 샘물이 솟아 나와서 물을 뜨는 여인들의 옷깃(衿)을 적신다 하여 금정이라 부른다고 한다.

또 다른 설로는 정조 임금의 화성 거동시에 이곳을 지나다가 큰 샘에서 물을 마셨으므로 그 샘을 금정이라 하였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조의 현동원 원행이 1790년부터 이루어졌고 ‘금정’은 그 이전부터(1789년 문헌에 등장) 불러진 이름이므로 시간상 차이가 있다. 한편 시흥군의 옛 이름인 금천현의 ‘금천(衿川)’과 ‘금정(衿井)’은 같은 ‘옷깃 금(衿)’ 자를 쓰고 있으므로 어떤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흥이 ‘금천’으로 불려지던 1413년~1795년 사이에는 지금의 군포시 금정동 일대가 모두 과천현 남면의 지역이었고, 금천현의 치소(治所) 역시 금정동과 원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금천과 금정이 서로 관련된 이름으로 보기 어렵다. ‘금천(衿川)’이라는 이름은 1990년대에 군포시에서 시민문화제 행사이름을 ‘옷내골’ 축제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옷내’는 곧 ‘금천’의 훈역이다.

그런데 금정의 ‘금’은 크다는 뜻의 ‘큰’, ‘큰’을 표기한 글자로 볼 수 있으며, 큰 우물이 있어서 큰 우물, 금우물, 금문 또는 금정이라 부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 유래나 뜻대로 금정(衿井)은 시정(詩情)이 넘쳐나는 좋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물을 뜻하는 글자로 ‘샘 泉(泉)’자와 ‘우물 정(井)’자의 두 가지가 쓰이고 있는데, ‘천(泉)’은 자연 상태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 것을 뜻하고, ‘정(井)’은 샘을 인공적으로 다듬어서 물을 퍼 낼 수 있도록 한 곳을 말한다. 곧 우물은 움푹 파인 움푹>우물이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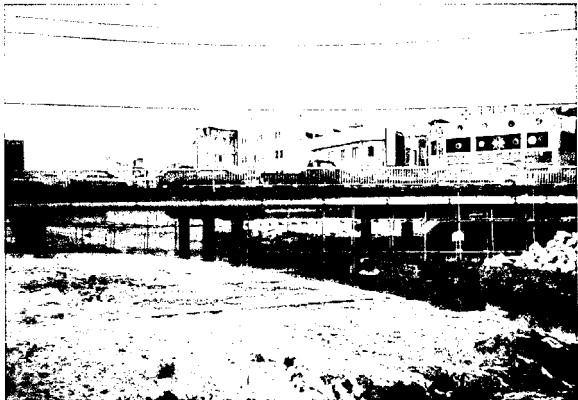
금정이라는 이름은 1789년(정조 13)에 만든 『호구총수』에도 과천현 남면(南面) 7개 리의 하나로 나오는 마을 이름이다. 1914년 일제에 의한 지방행정구역 폐합 때 시흥군 남면이 되었고, 이때 과곡리(槓谷里)를 금정리에 병합하였다. (과곡리는 현재 행정동 편제상 오금동에 속한다)

1989년 1월 1일 시흥군에서 군포시가 분리·승격되면서 군포시 9개 법정동의 하나이자 11개 행정동의 하나로 현재에 이르렀다. 관내에 금정초등학교가 있다.

(3) 관내의 지명

□ 구군포교(舊軍浦橋)

금정동과 군포 1동, 그리고 안양시 동안구 호계 3동 사이의 안양천 위에 놓인 다리이다. 희성전선



구군포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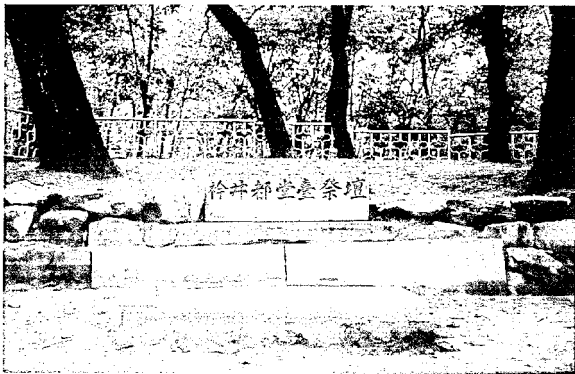
앞에서 구군포사거리와 연결되는 다리이며, 교명판도 '구군포교'로 새겨져 있다. 이 길을 안양사에서 '구군포간'로 명명한 바 있으나 앞으로 군포시의 가로명칭 제정 시 어떤 이름이 될지는 알 수 없다.

□ 군포교(軍浦橋)

금정동과 안양시 호계 3동 사이의 안양천 위에 놓인 교량이다. 구군포교의 서북쪽(안양쪽)이 되며 안양시의 흥안로(興安路)와 연결되고, 금정인터체인지를 통하여 군포시내와 연결되는 다리이다.

□ 금정(衿井) 도당대(都堂臺)

금정동의 안금정 서쪽 산에 있는 계단이다. 이곳은 동산(洞山)의 절길 쪽 봉우리(102.8m) 위에 설치되어 있는데 '금정도당대계단'이라고 새겨놓았다. '도당'은 경가지방에서 산신제를 올리는 당을 말하는데 원래는 마을 앞 산줄기 끝에 있는 큰 향나무였다. 어느 해에 제물로 사용할 소를 사와 가지고 깨어 놓았는데 소가 줄을 끊고 도망가버렸다. 온 마을 사람들이 소를 찾아 보니 현재의 당이 있는 참나무 밑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이곳을 명당자리로 생각하여 도당대계단을 설치하였는데 그때가 70년 전쯤이며, 현재의 계단은 1995년 5월 1일 새로 설치하였는데, 당은 참나무 여섯 그루로



금정도당대

되어 있고 앞쪽을 석축한 것이다. 지금도 매년 음력 7월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⁵⁸⁾

□ 금정역(衿井驛)

금정동의 경부선 선로에 있는 역으로서 지하철 4호선(당고개~오이도행)의 환승역이다. 1988년 10월 수도권 전철 안산선이 개통되면서 그 환승역으로 설치되었다.⁵⁹⁾ 신본천 위에 설치된 역으로서 ‘금정’이라는 이름은 법판에 자리잡은 마을이 되어 어디든지 파기만 하면 샘물이 솟아 나와서 물을 뜨는 여인들의 옷깃(衿)을 적신다 하여 금정이라 부른다고 한다. 그 유래대로 풀이하면 ‘금정’은 매우 시정(詩情)이 넘치는 이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금정의 ‘금’은 크다는 뜻의 ‘금’을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큰 샘이 있어서 큰 우물>금우물>금물 또는 금정이라 한 것으로 보고 있다.⁶⁰⁾

□ 금정(衿井)인터체인지

금정동의 금정역 동남쪽에 있는 교차로이다. 국도 47호선이 안양시내의 흥안로가 되어 군포시와 연결되며, 이곳을 통하여 군포시내의 각 방면과 접속하게 된다.

58) 군포시, 『군포시의 마음신앙』, 2003, 44 ~ 45쪽.

59) 한상훈 (금정역 근무, 393-7788, 2003년 12월 27일).

60)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경기편 상, 1985, 410쪽.



금호교

□ 금호교(衿虎橋)

금정동의 안양천 위에 놓인 다리이다. 한림벤처타운과 안양시 호계동의 가스안전공사 방향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금호'는 금정동의 '금(衿)'과 호계동의 '호(虎)'자를 합하여 만든 이름이다.

□ 당정천(堂井川) : 흐린내

금정동의 회성전선 서쪽으로 북류하여 금호교 못미처서 안양천에 합류하는 하천이다. 이 하천은 감투봉에서 발원하여 황동을 지나면서 토질로 인하여 내가 흐러지므로 '흐린내'라 불렀다고 한다. 당정동을 지나므로 당정천이라 하며, 이것이 공식 하천 명칭이다. 이 당정천이 흐르는 도심 구간에 금정 1교와 금정 2교가 있다.

□ 동산공원(洞山公園) : 군포레포츠공원 : 금정4호공원

금정동과 계곡동에 걸쳐있는 시민 공원이다. 동산은 높이 115.8m의 아산으로서 군포시청의 뒷산이 되는데, 대개 마을 산을 가리켜 동산, 동매, 동미라고 하며, 동네 산을 뜻하는 친근하고 소박한 이름이다. 이 산을 중심으로 군포시청과 군포사회회, 군포경찰서, 군포교육청, 군포전화국, 군포우체국, 군포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이 있고, 현충탑이 서 있다.

□ 벌금정 : 평금정(坪衿井)

금정동의 경부선 철도 동쪽, 안양천 일대의 들편을 말한다. 일제 시대에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벌은 들과 통하는 말로서 평야나 산간에 발달한 좁은 들을 나타낼 때 ‘벌’ 또는 ‘평(坪)’을 쓴다. 『훈몽자회』에는 “대야왈평통작평(大野曰坪通作平)”이라 하여 “큰 들은 평(坪)이라 하며, 보통은 평(平)으로도 쓴다”고 하였다.⁶¹⁾

□ 보령교

금정동의 보령제약 동쪽에서 안양천을 건너 안양시 호계동의 호계교로 연결되는 다리이다. 호계교의 바로 밑(남쪽)에 있으며, 주로 보령제약에서 사용하는 다리이다.

□ 산본천(山本川)

금정동의 금정역 밑으로 흘러서 안양천에 합류하는 하천이다. 수리산 밑의 초막동, 성지골 등 여러 물이 흘러서 산본천이 되고 금정동을 지나는 지방 2급하천이다. (‘산본’은 산본동의 유래 참조)

□ 안금정 : 내금정(內衿井)

금정동의 벌금정 서쪽, 경부선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금정리의 안쪽이 되므로 안금정, 내금정이라 한다. 금정인터체인지의 동쪽이 되며 지금은 모두 시가지화되었다.

□ 절말

금정동의 안금정에 속했던 자연마을이다. 안금정과 당동의 동막골 사이에 있었는데, 일제 초기부터 오지그릇을 구웠던 곳이므로 절말이라 불렀다고 한다. ‘젼(店)’이란 그전에 광물의 공작소, 도자거나 그릇의 제조, 갓이나 심, 농기구의 제작, 불건을 파는 시전 등을 통틀어서 ‘젼’이라 하였다. 지금의 산본골뜨연습장 일대에 있었던 마을이다.⁶²⁾

□ 호계교(虎溪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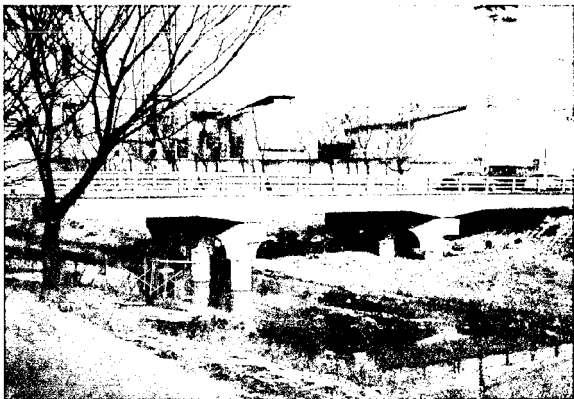
금정동의 안양천 위에 놓인 다리이다. 이 다리는 안양시 호계로상의 다리로서 금정동과 안양시 호계 1동 사이를 잇는다.

□ 호금교(虎衿橋)

금정동의 안양천 위에 놓인 다리이다. 금호교의 남쪽이 되며 금정동과 안양시 호계 1동을 연결한다.

61) 이영택, 『한국의 지명』, 1986, 158쪽.

62) 이윤용(77세, 군포1동), 심계극(군포농업협동조합장)씨의 증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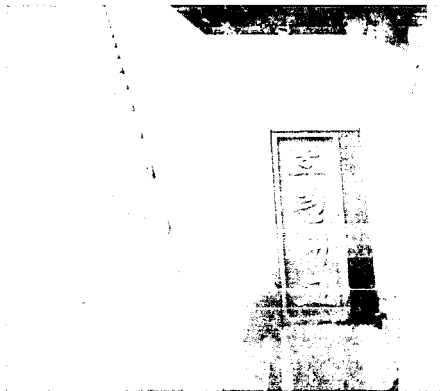


호금교

‘호금’은 호계동과 금정동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합성지명이다. 이 명칭은 ‘금호교’의 경우 금정동의 ‘금’을 앞세웠으므로, ‘호금교’에서는 호계동의 ‘호’자를 앞세움으로서 주민들 간의 지명갈등을 조화시키는데 성공한 작명법이라고 할 수 있다.

□ 흐린내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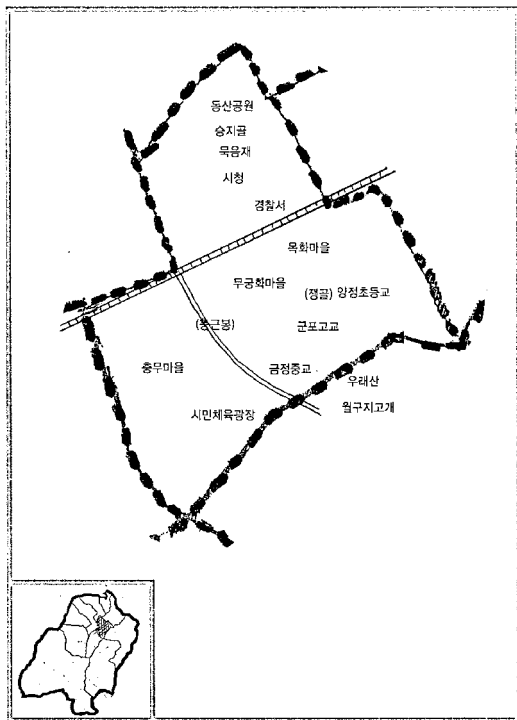
금정동의 회성전선 앞(서쪽)으로 북류하여 안양천에 합류하는 하천을 당정천 또는 흐린내라 하며, 그 하천 위에 놓인 다리로서 교명판도 ‘흐린내교’로 새겨져 있다. 회성전선의 남쪽 모퉁이에 있는 다리이다. (당정천 : 흐린내의 유래 참조)



호린내교

6) 재궁동(齋宮洞)

(1) 관내도



재궁동 관내도

(2) 동명의 유래와 연혁

재궁동은 법정동인 금정동의 일부로서 그전 느티울 마을 인근에 있었던 쟁골마을에서 취한 이름이다. 쟁골은 재궁골이 변하여 재강골>재양골>쟁골의 토박이말로 되었는데, 이곳에 여산(礪山) 송씨(宋氏)의 재궁이 있었기 때문이다. 재궁(齋宮)이란 재(齋)와 궁(宮)이 결합된 말이다. '재(齋)'는 원래 각 지방의 향교에서 성균관을 본 따서 서당과 비슷하게 운영하던 제도이며, 이것이 문중에서는 사학(私學)으로 발전하였고, 향교를 본 따서 조상을 제향하는 곳으로 변한 것을 재궁이라 하였다.

또 후손들이 벼슬을 지낸 조상의 묘를 지키고, 제향을 올리는 집을 재궁이라 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재궁동, 재궁리, 재동리, 궁동, 궁대리 등의 이름이 남아있다. 이곳은 조선 초기 현성부사문 지낸 송복산(宋福山 : 1390~1467)선생의 묘를 쓴 후, 수양대군에 의하여 단종이 폐위되자 그의 둘째 아들 송 찬(宋 璣)이 관직을 사직하고 이곳에 내려와 초려(草廬)를 짓고 살았다. 그는 문과 장을 북향으로 내고 옛 임금을 생각하면서 일체의 손님과 교유하지 않았으며, 행적을 숨긴 채 살았으므로 그를 과천처사라 불렀다고 한다.⁶³⁾ 그의 후손들이 이곳에 재실을 짓고 조상을 모셨으므로 이곳을 재궁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곳은 법정동인 금정동에 속하여 온 마을이므로 재궁동의 연혁은 금정동의 연혁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1992. 5. 1 시 조례에 의하여 행정동인 금정동을 나누어 금정동과 재궁동으로 분동하였다. 1993. 1. 14 시 조례에 의하여 재궁동을 나누어 재궁동과 오금동을 분동하였다. 재궁동은 군포시 관내 11개 행정동의 하나이며, 관내에 군포 시청, 군포경찰서, 군포교육청, 군포우체국 등의 관청이 들어서 있고, 군포고등학교, 금정중학교, 군포양정초등학교가 있다.

(3) 관내의 지명

□ 광재골

재궁동의 군포우체국에서 군포경찰서를 거쳐 목화(한성)마을에 이르는 골짜기이다. 그전 광정마을로 들어가는 골짜기를 광재골이라 하였고, 변하여 광재골이 되었다. 광정마을의 동남쪽이 되며, 재궁골>재강골>쟁골의 경우처럼 토박이말로 방언화한 것이다.

□ 느티울 : 괴곡(槐谷) : 느티울골

재궁동과 오금동 일대에 걸쳐 있었던 마을이다. 지금의 충무마을 일대가 느티울마을이며, 그 서남쪽 골짜기를 느티울골이라 하였다. 느티울골은 지금의 금정동 시민체육광장과 오금동 소월마을 부근이

63) 경기도, 『지명유래집』, 1987, 44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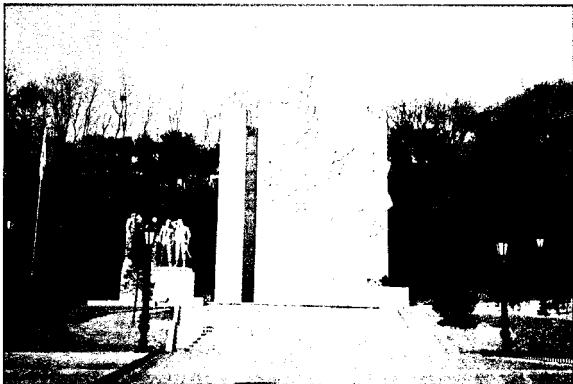
된다. 예로부터 왜나무(느티나무 = 괴목)는 청사를 다루는 조정을 상징하였으므로 민간에서 당산나무나 마을의 수호목으로 심었다. 그전에 등근봉 서쪽에 오래 된 느티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괴곡리는 1912년 과천군 남면 10개 리의 하나로 되어 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시흥군 남면 금정리에 병합되었다.

□ 당말지하차도(地下車道)

재궁동과 군포 1동(당동) 사이에 있는 지하차도이다. 금정중학교 남쪽에서 원구지고개 남쪽으로 동하며 그전 등막골 남쪽으로 연결된다. 당동(당말)을 지하차도 이름으로 하였다. (군포 1동의 당말 참조)

□ 동산(洞山) : 동산 공원 : 군포레포츠클럽원 : 금정4호공원

재궁동과 금정동에 걸쳐있는 시민공원이다. 동산은 높이 115.8m의 산으로서 군포시청의 뒷산이 되며, 이곳에 현충탑이 서 있다. 대개 마을의 산을 가리켜 동산, 동메, 동미 등으로 부르며, 동네 산을 뜻하는 친근하고 소박한 이름이다. 현충탑이 들어선 그 일대는 조선시대 여산 송씨의 사재지(賜牌地 : 나라에서 내린 땅)로서, 문중에서 충훈탑 부지 1천여 평을 군포시에 기증하였다. 이 산 아래



동산공원 현충탑

군포시청과 군포시 의회, 군포경찰서, 군포 우체국 등의 관청기를 형성하고 있다.

□ 등근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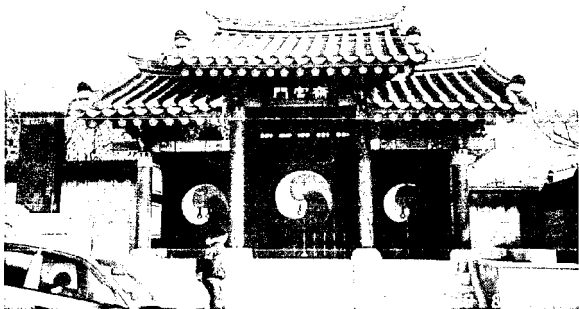
재궁동의 지금 무궁화마을과 충무마을 사이에 있었던 높이 84.8m의 봉우리였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금정중학교의 서쪽이 되며, 그전 느티울 마을의 뒷산인데 등그렇게 생겼으므로 등근봉이라 하였다.

□ 목화(木花)마을

재궁동의 군포경찰서 동쪽에 있는 아파트단지이다. 목면 또는 면화란 목화라고 하는데, (이 아파트 단지 이름으로 택하게 된 경위나 내력은 매화마을 참조) 목화는 고려 공민왕 때 분식점이 중국에서 그 씨를 몰래 들여와 우리 나라의 의류 혁명을 일으킨 일년생 나무로서 무궁화과에 속한다.

□ 무궁화(無窮花)마을

재궁동의 목화마을에 인접하여 서남쪽에 있는 아파트단지이다. 우리 나라 국화(國花)인 무궁화들 아파트 단지 이름으로 하였다(그 배경이나 내력은 매화마을 참조).



목음재의 재궁문

□ 묵음재(默陰齋)

재궁동의 군포시청 뒤 현충탑 아래 있는 여산(隱山) 송씨(宋氏) 재실이다. 조선 초기 한성부사를 지낸 송복산(宋福山) 선생을 모시는 재실로서 문은 재궁문(齋宮門)이라 하였고, 문 앞에는 신도비(근래에 세운)가 있다. 송복산의 호가 묵재(默齋)이므로 재실을 묵음재라 하였다.

□ 산본역(山本驛)

재궁동과 광경동 사이의 수도권 전철 안산선에 설치된 역이다. 안산선이 1988. 10월 개통되었고, 그후 산본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1992. 5. 1 산본역이 영업을 시작하였다. ‘산본’은 수리산의 ‘산’말을 뜻한다. (산본 1동과 산본 2동의 동명 유래 참조)

□ 승지굴(承旨-)

재궁동의 등산공원 현충탑이 서 있는 그 일대의 골짜기이다. ‘승지(承旨)’는 조선시대 승정원에 딸린 벼슬로서 임금의 명을 기록하여 출납하는 자리인데, 승지를 지낸 송복산 선생의 증손 형관공(刑判公) 송 점(宋楸)이 살았던 곳이라고 한다. 이곳에 문중에서 세운 안내표지석이 있다.

□ 시민체육광장(市民體育廣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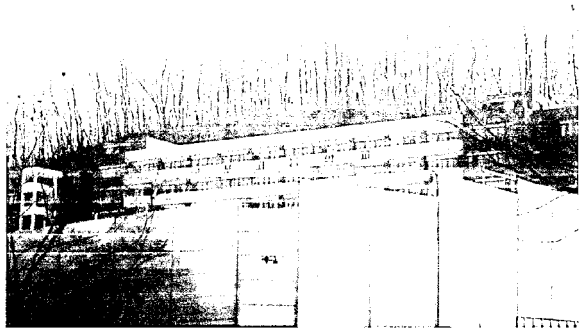
재궁동의 충무마을 등쪽에 있는 체육공원이다. 금정중학교의 남쪽이 되며, 2003. 8. 31 전천후 체육공원으로 새롭게 단장되었다. 면적 81,385㎡이며 인조잔디가 깔린 축구장, 육상경기장, 관람석, 우레탄 트랙이 설치되어 있고, 농구장, 배구장, 족구장, 실내체육관 등이 설치되어 있다.

□ 우래산(雨來山)

재궁동과 군포 1동의 경계의 군포중학교와 군포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높이 127.5m의 산이다. 군포 시 관내에는 두 개의 우래산이 있으며, 이곳은 한문표기대로라면 옛날 기우제를 지냈던 곳으로 보이기도 한다. 또 우래산이 인근에 있었던 도랫말과 관련되는 이름이라면, 우(又 : 도, 또) 래(來 : 갓)말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 월구지고개 : 당말고개 : 굴다리

재궁동의 그전 쟁골마을과 군포 1동(당동)의 야구광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우래산의 바로 남쪽이 되며, 당말고개 또는 굴다리라고도 하였다. ‘월구지’는 본래 ‘월걸이’로서 달이 걸리는 고개라는 뜻이라고 한다. 한편 ‘월구지’는 ‘달꽃이’가 변한 이름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산의 부리가 돌출하여 ‘꽃(串)’을 이루는 경우에 달꽃이>월고지>월구지로 될 수도 있다. ‘달’은 산 또는 산비탈을 뜻하며, 바로



우리산(군포교교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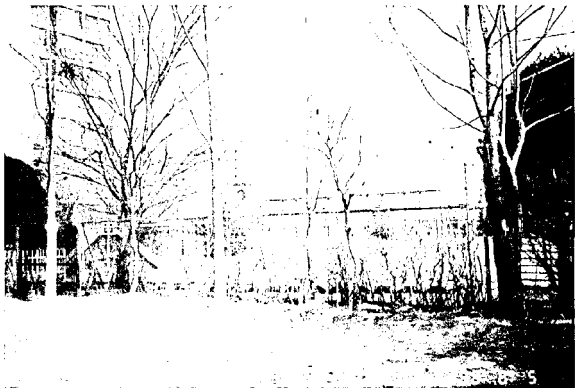
남쪽에 당말 지하차도가 뚫렸다.

□ 쟁골 : 재궁골(齎宮-)

제궁동의 양정초등학교와 목화마을 부근에 있었던 자연마을이다. 이곳은 재궁골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재강골>쟁골이 되었으며, 조선 초기 한성부사를 지낸 여산(礪山) 송씨(宋氏) 송복산(宋福山)의 묘와 그를 모시는 재실이 있었으므로 재궁골>재강골>쟁골이 되었다. (제궁동의 동명유래 참조)

□ 충무(忠武)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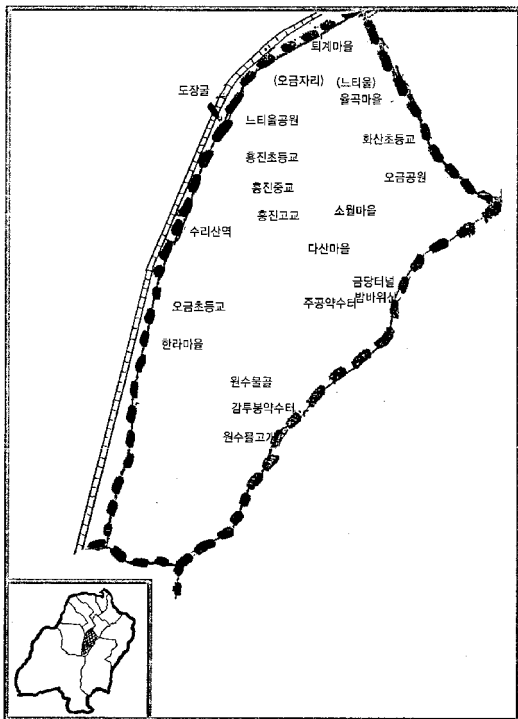
제궁동의 산본역에 인접하여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 선조 때 왜적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시호를 아파트 단지 이름으로 정한 것이다(그 경위는 매화마을 참조).



정공(양정초등학교 부근)

7) 오금동(五禁洞)

(1) 관내도



오금동 관내도

(2) 동명의 유래와 연혁

오금동은 법정동으로서 금정동(衿井洞) 일부와 산본동(山本洞)의 일부로 형성된 행정동이다. '오금'이란 사람의 무릎이 구부러지는 그 안쪽을 말하며, 오금쟁이, 오금매기, 오금다리라고도 한다. '오금'은 옥다, 오그리다(曲)에서 비롯된 말로서 오목하게 들어간 곳을 말한다. 최세진의 『훈몽자회』에서도 "오금 곡(曲)"이라 하였다. 같은 이름의 오금동에 관하여, 서울 송파구 오금동은 조선 인조 임금이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으로 피난하면서 다리가 아파서 "아이구 오금이야" 하였으므로 '오금동'이라 불렀다고 하며, 군포시 오금동도 이 오금으로 인하여 생긴 이름으로 보인다.

마음이 오금처럼 산이 구부러진 안쪽에 아늑하게 자리 잡았으므로 '오금자리'라고 불렀던 자연마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한문 표기의 '오금(五禁)'은 별다른 의미가 없으며, 단순한 음차(音借) 표기일 뿐이다.

오금동 지역은 큰 우물이 있어서 큰우물>큰우물>금우물>금물 또는 금정이라 부르던 지역과 수리산의 산길이라는 뜻으로 부르게 된 산본동 지역에 걸친 지역이다. (금정동과 산본동의 동명 유래 참조)

과천현 남면(南面)에 속한 금정리와 산저리(山底里 : 1871년 산본리로 고쳐짐) 지역으로서 1914년 과천군·시흥군·안산군의 3개 군이 시흥군으로 통합되면서 시흥군 남면 지역이 되었다. 이때 산본리, 금정리(괴곡리를 병합)가 되었으며, 1979년 5월 1일 시흥군 남면이 군포읍으로 승격된 후 1989년 1월 1일 군포읍이 군포시로 승격될 때 금정동에 속하였다.

1992년 5월 1일 금정동을 나누어 재궁동을 분동할 때 재궁동에 편입되었고, 1993년 1월 14일 재궁동을 나누어 오금동을 분동하였다. 오금동은 군포시 9개 법정동의 하나인 산본동과 금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풍사루소로서의 오금동은 군포시 11개 행정동의 하나이다. 관내에는 흥진고등학교, 흥진중학교, 흥진초등학교, 오금초등학교, 군포화산초등학교가 있다.

(3) 관내의 지명

□ 감투봉 : 삼파산(三波山)

오금동과 대야동, 군포 2동 경계에 있는 높이 185.2m의 산이다. 수리산 거룡봉(슬가봉) 줄기가 남동류하여 솟아오른 산으로서 모양이 감투처럼 생겼으므로 감투봉이라 부른다고 한다. 감투는 옛날 벼슬아치들이 머리에 썼던 탕건처럼 생긴 쓰개의 일종이며 감투=벼슬을 뜻한다. 또 이 산 정상에서 세 곳으로 물이 흘러내리는데, 오금동으로 흐르는 물은 산본천, 군포 2동으로 흐르는 물은 당정천(호린내), 대야동으로 흐르는 물은 반월저수지에 합류하므로 삼파산이라 부른다고 한다. (대야동의 감투봉 건설, 군포의 주요 산 참조)

□ 감투봉 약수터

오금동의 원수물골에서 원수물고개로 넘어가는 골짜기에 있는 샘이다. 이 산의 정상은 감투봉이라하므로 '감투봉약수터'라 한 것이다. 우신운수(뽕스)의 등쪽 골짜기이다.



감투봉 약수터

□ 공동지골

오금동의 오금초등학교 동남쪽 골짜기이다. 도장굴골의 동남쪽이자 원수물골의 북쪽 골짜기이다. 그 내력이 확실하지 않으나 1979년도 1 : 5,000 지형도에는 공동묘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생긴 이름으로 보인다.

□ 금당(禁堂)터널

오금동과 군포 2동의 당동 사이 반비위산 북쪽을 동서로 관통하는 터널이다. 도오골에서 산 줄기끝 관통하여 도장동의 동북쪽으로 통하는 터널로서 오금동의 '금(禁)'자와 당동의 '당(堂)'자를 합하여 금당터널이라 하였다. 일부 지도에 '금화터널'로 표기된 곳도 있다.

□ 느티옴 : 괴곡(槐谷)

오금동과 계곡동 일대에 걸쳐 있었던 마을이다. 지금의 오금동 율곡마을과 계곡동의 층무마을 일대(아파트 단지)에 있었던 마을이다. 옛부터 느티나무가 많아서 느티굴>느티옴(기 탈락)이라 하고, 한자로 괴곡이라 하였다(느티나무=槐). 느티나무는 회나무라고도 부르는 낙엽교목으로서 중국의 주대(周代)에 조정의 뜰에 회나무 세 그루를 세워서 삼공(三公)의 좌석을 표시하였을 만큼 널리 숭상하던 나무이다. 괴곡리는 1912년 과천군 남면 10개리의 하나로 되어 있다(64)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 때 시흥군 남면 금정리에 병합되었다.

□ 느티옴골

오금동의 소월마을과 계곡동의 시민체육공원 일대의 골짜기이다. 바로 위(북)에 느티옴 마을이 있으므로 이곳을 느티옴골이라 하였다.

□ 느티옴 약수 : 괴곡약수(槐谷藥水)

오금동의 동사무소 뒤(남쪽) 밤바위산 밑에 있었던 약수터이다. 금당터널공사로 인하여 폐정이 되다시피 하였으나 그전에는 마을의 대동제를 지낼 때 제사용으로 사용하던 샘이었다.

□ 다산(茶山)마을

오금동의 흥진고등학교 동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조선 후기의 대학자이자 신학자인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선생의 호를 아파트 단지의 이름으로 하였다(그 배경이나 연원에 대하여는 매화 마을 참조).

□ 도장굴 : 도장동(道藏洞)

오금동과 수리동, 광정동 일대에 걸쳐 있었던 마을이며 그 일대의 골짜기를 도장굴골이라 하였다. 오금동의 느티옴공원, 수리동의 양지공원, 광정동의 도장공원 일대를 도장굴골이라 하며, 수도권 진진 안산선의 산본역과 수리산역 사이의 커브구간을 말한다. 그 내력을 전해주는 문헌자료나 구전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수리동의 도장골 참조)

□ 도장터널

오금동과 수리동 사이의 시도(市道)상에 설치된 터널이다. 수도권 진철 안산선과 나란히 뻗다가 수리산 줄기인 무성봉과 감무봉 사이를 관통하는 터널로서 남쪽에서 국도 47호선과 접속하게 된다.

64) 조선총독부, 『지방행정구역 명칭일람』, 1912, 74 쪽.

□ 밤바위산 : 밤배산 : 밤바위

오금동과 군포 2동 당동마을 경계의 수리산 줄기에 있는 높이 181.7m의 산이다. 군포시내를 동북서남쪽으로 비스듬하게 가로지르는 산줄기의 한 봉우리로서 그 밑으로 금당터널이 뚫렸다. 오금동 오금자리 동쪽 병풍바위와 이 바위 아래 산기슭에 있는 밤벌을 묶어서 밤바위, 밤바위산, 또는 밤배산이라 부른다고 한다.⁶⁵⁾

□ 소월마을

오금동의 화산초등학교 남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소월 김정식은 주옥같이 아름다운 시를 남기고 요절한 천재시인이다 (그의 호를 아파트 단지 이름으로 채택한 배경은 매화마을 참조).

□ 수리산역(修理山驛)

오금동과 수리동 사이의 수도권 전철 안산선에 있는 역이다. 1988년 10월 안산선이 개통되었는데, 그후 산본신도시 건설에 따라 1992년 5월 1일 산본역이 개통되었고, 수리산역은 군포시 관내 5개 역 중에서 가장 최근에(2003년 12월) 개통된 역이다 (수리동의 수리산역 참조).

□ 오금공원(五禁公園)

오금동의 화산초등학교 동남쪽에 있는 도시공원이다. 재궁동 시민체육광장의 남쪽이 되며, 오금자리의 이름을 따서 오금공원이라 하였다.

□ 오금약수터

오금동의 금정동 871-6번지에 있는 약수터이다. 1994년 12월에 개발된 우물이다.

□ 오금자리

오금동의 느타리굴과 도장굴 사이에 있었던 마을이다. 흥진중·고등학교와 소월마을 일대에 있었다. ‘오금’이란 본래 무릎이 구부러지는 그 안쪽을 말하며 슬픽 또는 꼭추라고도 한다. “오금이 저린다”는 말은 힘이 빠져 오금을 펴지 못하겠다는 뜻이다. 오금을 지역에 따라서는 오금쟁이, 오금매기, 오금댕이, 오금다리라고도 하는데, 마을의 산 뒤쪽이 아늑하게 가려져 있어서 급히진 오금처럼 보였을 것이다.

65) 류지호, 『군포시 지명유래집』, 군포시, 1999, 38쪽.



옛 오금자리 부근(출진고 - 옥곡마을)

□ 옥천 약수터

오금동의 수리산 줄기에 있는 약수터이다. 금정동 산 100번지에 있는 약수터로서, 1996년 8월에 개발된 샘이다.

□ 원수물골(원승물골) : 원수물고개

오금동과 군포 2동의 당동마을 사이에 있는 높이 136.6m의 원수물고개가 있고, 이 고개의 서쪽 오금동 현리마을 4단지과 우신운수가 들어선 골짜기가 원수물골이다. 옛날 어느 전쟁 때에 한 장수가 도장굴골로 피하여 들어왔는데, 감투봉 밑의 원수물골에 이르러서야 한숨을 쉬면서 “원 승을만한 골짜기리구나” 하였으므로 원수물골 또는 원승을골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도장골의 “감축장(藏)” 자도 이처럼 숨다(감추다)는 뜻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⁶⁶⁾

66) 류거호, 『군포시 지명유래집』, 군포시, 1999, 936쪽.



원수물고개

□ 율곡(栗谷)마을

오금동의 퇴계마을 동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율곡 이이 선생은 조선 선조때의 명신이자 대유학자로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의 호를 아파트 단지 이름으로 하게 된 경위는 매화마을 참조).

□ 주공약수터

오금동의 한라아파트(1차) 동쪽에 있는 약수터이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조성한 아파트 단지의 동쪽이 되므로 '주공약수터'라고 하며, 이 아파트단지 바로 옆에도 '주공 4단지 약수터'가 있다. 1992년 9월에 약수터로 개발되었다.

□ 퇴계(退溪)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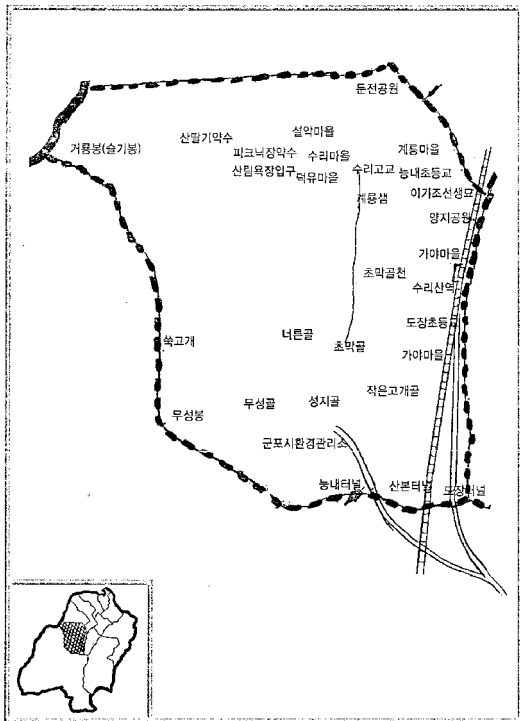
오금동의 율곡마을 서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퇴계 이황 선생은 조선 명종 때의 명신이자 대유학자로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의 호를 아파트 단지 이름으로 하게 된 경위는 매화마을 참조).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퇴계와 율곡 두 분의 이름이 나란히 아파트 단지 이름으로 명명되어 있는 것도 보기 좋은 일이다.

□ 한리(漢孺)마을

오금동의 수리산역 동쪽, 수도권 전권 안산선의 바로 동쪽으로 길게 조성된 아파트 단지이다. 제주도에 있는 남한 최고봉인 한라산(漢拏山)을 아파트 단지 이름으로 하였다 (그 경위는 대화마을 참조).

8) 수리동(修理洞)

(1) 관내도



수리동 관내도

(2) 동명의 유래와 연혁

수리동의 수리산 기슭 동쪽에 자리잡은 마을이므로 수리동이라 하였다. 이 지역은 산본 1·2동, 광정동, 궁내동, 수리동에 이르기까지 모두 '산본동'이라는 단일의 법정동의 속한다. '산본'이란 수리산의 '산밭'을 뜻하므로(산본동의 동명 유래 참조) 수리동, 산본동이라는 이름이 모두 수리산에서 비롯되었다.

군포시와 안양시, 안산시 등 3개시의 자연적인 경계를 이루는 수리산은 시흥군에 속하던 시절에는 수리산과 수암봉을 기준으로 '동부시흥'(지금의 군포시와 의왕시), '서부시흥'(안산시 일대 등)으로 나누기도 하였고, 이보다 앞서서 조선 후기에는 이 수리산을 경계로 과천현과 안산현이 나누어지기도 하였다. (수리산의 유래는 군포의 산 참조)

이 지역은 1789년(정조 13) 『효구총수』에 과천현 남면(南面)에 속한 7개리의 하나로 나오는 '산저리(山底里)'인데, 1871년(고종 8) 산본리(山本里)로 고쳐졌으나 모두가 '산밭'을 뜻하는 이름이다.

1914년 일제에 의한 지방행정구역 폐지·분합 때 그전 과천군·시흥군·안산군의 3개 군을 시흥군으로 통합하였는데, 이때 시흥군 남면에 속한 5개리의 하나가 된다. 그후 1979년 5월 1일 시흥군 남면이 군포읍으로 승격되었고, 1989년 1월 1일 군포읍이 군포시로 승격될 때 행정동인 산본 2동에 속하였다. 1993년 6월 8일 산본 2동을 나누어 행정동인 수리동이 되었고, 1994년 7월 19일 수리동을 나누어 행정동인 궁내동을 설치하였다. 수리동은 군포시 관내 11개 행정동의 하나로 현재에 이르렀다. 관내에는 수리고등학교, 능내초등학교, 도장초등학교가 있다.

(3) 관내의 지명

□ 가야(伽倻)마을

수리동의 수도권 전철 안산선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가야'는 경남 함천과 경북 성주 사이에 있는 명산 가야산(伽倻山)을 아파트 단지 이름으로 하였다. (매화마을 참조)

□ 거룡봉(巨龍峰) : 슬기봉

수리동과 대야동 사이에 있는 높이 469.3m의 봉우리이다. 수리산 연봉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인데 종전의 높이 474.8m는 새 지도에 의하여 수정되었다. 이 봉우리를 경계로 대야동과 수리동이 나누어지며 이 봉우리의 서남쪽은 군부대 시설로 인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이 산의 이름은 본래 거룡봉이라 부른다고 하며, 그동안 여러 지도에는 이 봉우리를 '수리산'으로 표기하여 왔다. 거룡은 큰 용을 뜻하는데, 그 연원이나 내력은 확실하지 않으나*7) 풍수지리에서는

산 줄기를 내룡(來龍) 또는 용이라 하므로 지상학(地相學)의 관점에서 비롯된 이름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슬기봉'이라는 이름은 근래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이며, 그 내력이나 연원을 전해주는 기록이 없다. 15세기 문헌에 보이는 '슬갑다'는 말에서 '슬기'가 나왔으며, 사리를 바르게 판별하고 일을 잘 처리해 나가는 능력이나 지혜를 슬기라 하고 밝음과 지혜로움을 뜻한다. 그런데 '슬기'가 그전부터 부르던 이름이라면 같은 수리과(수리산=수리)의 명금류인 '슬개'가 '슬기'로 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군포의 산 참조).



슬기봉

67) 류지호, 『군포시 지명유래집』, 군포시, 1999, 62쪽.

□ 계룡(鷄龍)마을

수리동의 동사무소 동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계룡'이라는 이름은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 등의 경계에 있는 명산 계룡산의 이름을 아파트 단지 이름으로 하였다.(매화마을 참조) '계룡'이 이 마을 서쪽에 있는 수리산 연봉의 하나인 거룡봉(469.3m)을 '계룡'으로 잘못 알고 붙인 것인지도 알 수 없다.

□ 계룡샘(鷄龍-)약수터

수리동의 수리고등학교 남쪽에 있는 샘이다. 초막골천의 입구 하천변에 있으며, '계룡'이라는 이름은 인근의 '계룡마을'(아파트단지)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계룡샘 약수터

□ 너른골

수리동의 초막골에서 갈려나온 서쪽 골짜기이다. 무성골의 북쪽 골짜기가 되며 골짜기가 비교적 넓으므로 너른 골이라 하였을 것이다. '넓다'는 뜻의 옛말은 '남'이었으므로 경기도 지역 방언에서는 '넓은 바위=너른 배(바위)', '넓은 여울=너른 열(여울)', '넓은 밭=너른 밭>너밭'로 나타나기도 한다.⁶⁸⁾

그러므로 이곳은 '넓다'는 뜻보다도 '늘어졌다'는 뜻의 '늘어진골=느린골>너른골'로 된 것이 아닌가 보이기도 한다.

□ 능내(陵內)터널

수리동과 대야동 사이의 수리산 등남 줄기(무성봉 등남쪽)에 있는 터널이다. 군포시 환경관리소와 군포환경미화과, 부곡동 한국복합물류 군포터미널을 연결하는 시도에 설치된 터널이다. '능내'라는 이름은 부근의 김만기선생 묘역이나 이기조 선생 묘역으로 인하여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 덕유(德裕)마을

수리동의 선암마을 남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진라북도 무주군에 있는 명산 덕유산(德裕山)의 이름을 아파트 단지 이름으로 하였다. (그 명명 배경은 배화마을 참조).

□ 도장골 : 도장동(道藏洞)

수리동과 오금동, 광정동 일대에 있었던 마을이다. 지금의 수리동 양지공원, 광정동의 도장중학교, 신흥초등학교, 수도권 전철 안산선의 수리산역과 산본역 사이 커브구간 일대에 해당된다. 도장(道場)을 불가에서는 '도량'이라고 하는데, 중들이 정진 수도하는 곳이며, 한편 외양목을 도장나무라고 하는데, 이곳에 도장나무가 많아서 생긴 이름인지 확실하지 않다. 『군포시 지명 유래집』에서는 인근의 지명 중 '원수물골=원승을골'과 관련하여 '감출 장(藏)'자를 쓰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 도장교(道藏橋)

수리동의 도장터널 입구에 있는 다리이다. 수도권 전철 안산선과 나란히 뻗은 시도(市道)상의 교량으로서 도장터널의 북쪽 출입구가 되는 곳이다.

□ 도장골골

수리동과 오금동, 광정동 일대에 있었던 골짜기이다. 그전 도장골 마을 일대를 도장골골이라 하였으며, 지금은 그 일대가 아파트 단지, 도시공원, 수도권 전철 안산선 철로부지, 학교부지 등으로 편입되었다.

□ 도장터널

군포시내를 관통하는 수도권 전철 안산선과 나란히 뻗은 시도(市道)상의 터널이다. 이 시도가 국도 47호선과 교차하여 한국복합물류 군포터미널로 이어지는데, 도장터널은 수리산의 무성봉과 감부봉

68) 배우리, 『땅이름 뿌리 찾기 2』, 1994, 183쪽.

사이를 관통하는 터널이다. 이 구간에는 전철 안산선의 산본터널, 환경관리소로 이어지는 능내터널의 3개 터널이 있다.

□ 동적골 : 둔전(屯田)

수리동의 한국전력 산본 변전소와 광장동 우록마을 일대에 있었던 마을이자 골짜기이다. 이 지역은 지방의 주둔병에게 군량을 지급하도록 지급하는 둔전이 있었다고 한다. (공내동의 둔전 참조)

□ 둔전공원(屯田公園)

수리동의 설악마을 바로 동쪽에 있는 도시공원이다. 금강마을의 남쪽이 되며 그 부근이 옛날 동적골의 둔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한다.

□ 만남의 광장

수리동의 수리산 삼림욕장에 있는 장소이다. 수리산 능선에서 내려오는 등산로와 중간이 되며 남쪽으로 용진사와 죽고개 쉼터로 이어진다. 등산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이자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도시 주변의 삼림욕장마다 대개 이와 같은 이름을 가진 장소가 있다.⁶⁹⁾

□ 만남 약수터

수리동의 수리산 기슭에 있는 약수터이다. 산본동 산 207-2번지에 있으며, 1997년 9월 약수터로 개발된 샘이다.

□ 무성골

수리동의 무성봉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군포시 환경관리소의 바로 위(북)쪽이 되며 너른골의 남쪽이 된다. 무성봉의 이름을 따서 무성골이라 하며, '무성'의 내력은 확인할 수 없다. 전국적으로 '무성골'이라 부르는 골짜기가 많다. 그 중에는 으스스한 곳, 무서운 곳을 뜻하는 '무성굴'도 있다.

□ 무성봉

수리동과 대야동 사이에 있는 높이 258.3m의 봉우리이다. 수리산 연봉의 거룡봉(솔기봉) 줄기가 동남류하다가 솟아오른 봉우리로서 군포시 환경관리소의 서쪽에 있다. '무성봉'이라는 이름의 내력이나 연원을 알려주는 문헌 또는 구전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군포의 산 참조)

69) 김형수, 『한국 400 산행기』, 깊은 숲, 2003, 44~45쪽.

□ 방아골

수리동의 산본터널 북쪽 입구에 있는 골짜기이다. 방아는 곡식을 찧거나 뿜는 기구로서 물레방아와 디딜방아가 있다. '방아'라는 이름이 붙은 곳은 그전에 물레방아가 있었던 곳이거나 지형이 디딜방아를 닮은 경우가 많다. 옛날의 디딜방아는 Y자형으로 생겨서 두 사람이 밭을 딛게 되어있는데, 골짜기나 산 또는 물길이 갈라져서 Y자형으로 생긴 경우에도 '방아골'이라는 이름이 붙는다. 이곳은 그전에 방아골과 원수룡골이 갈라지는 형태의 골짜기였다.

□ 산딸기 약수터

수리동의 삼림욕장 입구에서 성불사로 올라가는 등산길의 중간에 있는 약수터이다. '산딸기'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내력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그전에 산딸기가 자생하던 곳이었을 것이다.

□ 산본(山本) 약수터

수리동의 수리산 기슭에 있는 약수터이다. 산본동 산 840-143번지에 있으며 1994년 12월에 개발된 샘이다. 인근의 용진사에도 용진사 약수터가 있다.

□ 산본터널

수리동의 수도권 전철 안산선이 수리산역을 지나 남쪽으로 달리는 선로상의 터널이다. 수리산의 한 줄기가 기룡봉(순기봉)에서 동남류하여 무성봉과 감투봉으로 뻗었는데 그 중간에 뚫은 터널로서 대야동과 경계에 걸쳐있다.

□ 선봉골 : 손봉골

수리동의 수리고등학교에 접하여 서남쪽으로 뻗은 (작은)골짜기이다. 1 : 5, 000 지형도에는 2002년판과 1979년판 모두 '손봉골'로 되어있다. 그 이름의 내력이나 연원에 관하여 문헌이나 구전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 설악(雪嶽)마을

수리동의 수리동사무소 뒤(북)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단풍으로 유명한 명산 설악산을 아파트 단지 이름으로 하였다. (그 경위는 매화마을 참조).

□ 성불사(成佛寺) 약수터

수리동의 수리산 기슭 성불사에 있는 약수터이다. 산본동 840-181번지가 되는데 1997년 9월에 약수터로 개발된 샘이다.

□ 성지골

수리동 초막골의 남쪽에 남북으로 길게 뻗은 골짜기이다. 형남·성남, 형계·성계로 되듯이, 지역에 따라서는 '형계'가 '성지'로 방언화된 경우도 있다. 군포환경관리소의 바로 앞에 되는데 문헌이나 구전상 따로 전해지는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수리(修理)마을

수리동의 덕유마을과 설악마을 사이에 있는 아파트단지이다. 수리산 자락의 수리동에 들어선 아파트이니 '수리'라는 이름을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수리산, 수리동의 명칭 유래 참조).

□ 수리산(修理山)

군포시의 북쪽과 서쪽으로 길게 뻗어 내린 산줄기로서 최고봉인 태을봉(太乙峰)은 높이 489.2m이고 군포시의 수호산이자 진산(鎭山)이라고 할 수 있는 산이다. 이 산 줄기를 경계로 안양시, 안산시와 접하고 있으며 슬기봉-고갈봉 일대는 군부대 시설이 들어서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수리는 옛 이름(안산시 수암봉의 그전 이름) 취암(鷲岩)이 곧 '독수리 바위'로서 산 봉우리의 바위가 독수리처럼 생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슬·수리는 높다는 뜻과 함께 으뜸, 높음, 최고라는 뜻을 지닌 말로서 우리말 '정수리'와 통하고, 태양을 뜻하는 '솔'(Sol : 로마의 신화에서는 태양신, 우두머리를 뜻하는 '솔'(수로 : 김수로왕) 등과도 통하는 말이다. 수리산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산 줄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맹금류, 특히 독수리가 막 날개를 펴고 비상하려는 형상을 이루고 있어서 산과 이름이 신통하게 일치하는 명산이다.

산을 나타내는 옛 말에는 '모락'계, '부리'계, '둘'계, '되'계, '수리'계 등 여러 갈래의 이름이 있으며, 설악산(설), 수락산(솔), 수리산과 같은 이름은 모두 '솔(수리)'계의 산 이름으로 분류된다. 이 산을 태을산, 견불산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렀고 또 여러 봉우리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따로 설명하였다. (군포의 산 참조).

□ 수리산 산림욕장

수리동에서 궁내동, 광정동 등에 이르는 수리산 줄기의 삼림욕장으로서 그 안에 만남의 광장과 테마가 있는 숲, 약수터 등이 조성되어 있다. 수리동 덕유마을과 설악마을 부근에 삼림욕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조성되어 있다.



수리산 산림욕장 입구

□ 수리산역(修理山驛)

군포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권 전철 5개 역의 하나이다. 1988년 10월 수도권 전철 안산선이 개통되었고, 이때 금정역이 설치되었는데, 수리산역은 맨 나중인 2003년 말에 개통된 역이다. 당초 역 이름을 '노장역'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수리산 기슭의 수리동에 들어서는 역이므로 '수리산역'이라 하였다. (수리산의 지명 참조).

□ 속고개 : 속고개

수리동과 대야동 사이의 수리산 줄기에 있는 고개이다. 수리산 거룡봉(솔기봉)에서 남동유하는 산 줄기가 무성봉으로 뻗은 그 중간지점에 있다.⁷⁰⁾ 이 부근에는 근래에 산을 깎아서 개설한 비포장도로가 있고, 이곳에서 쉬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속 또는 속과 관련된 이름은 전국적으로 매우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속이 무성한 곳, 숲을 구웠던 곳, 지형이 속 뒤편에 나왔거나 속 들어간 곳 등에 같은 이름이 붙은 경우가 많다.

70) 일양지도문화사, 『한국 200명산 전국등산지도』, 1996, 78쪽(속고개) 및 김형수, 『한국 400 산행기』, 2003, 34쪽(속고개).

□ 양지(陽地)공원

수리동의 수리산역 북쪽에 있는 도시공원이다. 수도권 전철 안산선의 서쪽에 조성된 공원으로서 가야마을(아파트)의 북쪽에 숲과 연못으로 조성되어 있다. 양지는 양달, 곧 양지바른 곳, 따뜻한 곳을 뜻하는 이음으로서 수리산록의 동쪽이 되기 때문이다. 이곳에 군포지역의 호국무공 수훈자를 위한 공적비가 세워져 있다.

□ 이기조(李基祚) 선생 묘와 신도비

수리동의 산본동 1152-11번지에 있는 묘역이다. 이기조 선생은 조선 인조 때의 문신으로 인조반정과 병자호란 때 공을 세운 인물이다. 이 묘역은 1728년(영조 4) 경기도 장단에서 이장하였으며, 조선 중기의 양신인데 동자석·방주석·문인석·신도비 등이 있고, 경기도 기념물 제121호로 지정되어 있다.

□ 작은고개골

수리동과 대야동 사이를 뚫은 능내터널의 북쪽 출입구에서 동쪽으로 보이는 골짜기이다. '작은 고개'가 있기 위해서는 또 다른 큰 고개가 있어야 하는데, 큰 고개가 어느 고개를 뜻하는지 전해지는 문헌이나 구전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 초막골 : 초막동(草幕洞)

수리동의 군포시환경관리소에서 북쪽으로 뻗은 골짜기이다. 이 일대는 본래 마을로 되어 있었던 곳으로 조선총독부 간행 자료에는 '초막동'으로 나온다. 또 한글학회 발간 자료에는 초막동=담배촌이라 하여 담배농사를 많이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다.⁷¹⁾ '초막'이란 풀이나 짚으로 지붕을 이은 집을 말하며 대개 조그만 막집을 뜻한다. 최근 초막골 일대에서 대규모 습지가 발견되었는데, 이곳에는 국수나무, 오리나무 등 여러 종류의 환경지표식물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초막골천

수리동의 초막골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흐르는 소하천이다. 초막골에서 흘러 내려므로 초막골천이라 하며 산본천의 상류가 된다. '초막골천'이라는 하천명칭은 군포시 발행 행정지도(2001년 9월 발행)에 표시되어 있다.

71) 조선총독부, 『한국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 74쪽 및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경기권 상, 1985, 41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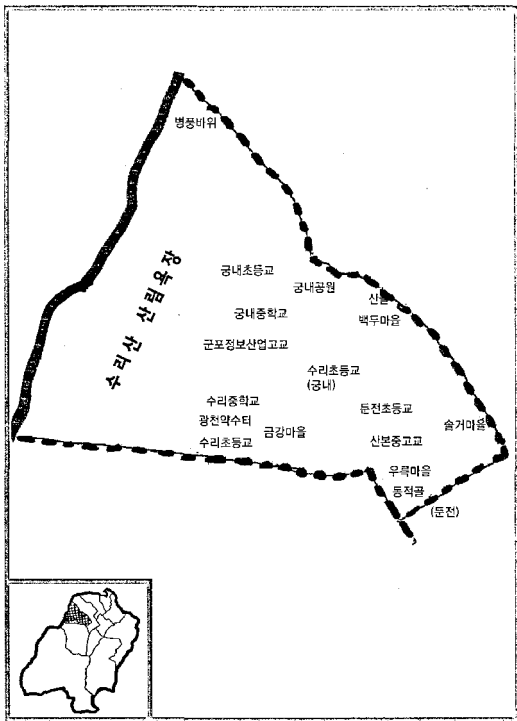
초막골

□ 피크닉장 약수터

수리동의 삼림욕장 입구 초입에 있는 약수터이다. 산을 오르는 첫 길목이 되므로 피크닉장 약수터라 하였을 것이다.

9) 궁내동(宮內洞)

(1) 관내도



궁내동 관내도

(2) 동명의 유래와 연혁

궁내동과 광정동, 그리고 수리동의 3개 동은 모두 수리산의 산밑이 되므로 행정동은 다를지라도 법정동은 모두 신본동(산 밑이라는 뜻)으로 되어있다.

궁내동은 본래 과천현 남면에 속한 지역으로서 곡란·광정골·궁안골·둔전골·도장골 등의 자연 마을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통틀어 산저리(山底里)라 하여 남면 7개리의 하나였다. 그후 1871년(고종 8) 산저리를 산본리(山本里)로 바꾸었으며, 궁내동이라는 이름은 그전 자연마을 궁안골-궁내동의 이름을 취한 것이다.

조선시대의 ‘궁(宮)’이란 국왕이 거처하는 궁궐이나 행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왕실의 종친이나 종실에 딸린 묘(廟), 사당 등도 ‘궁’이라고 불렀다. 이 지역은 왕족인 전주 이씨의 사택지(賜賚地)이고 또 인근의 광정동에는 전주 이씨 안양군묘(安陽君墓)가 있으므로, ‘궁 안쪽’이 된다는 뜻에서 생긴 이름으로 보인다. 안양군은 조선 성종의 제3남(왕자)이다.

1914년 일제에 의한 지방행정구역 폐지·분합 때 과천군·안산군·시흥군의 3개 군을 합하여 시흥군으로 통합되었고, 이때 군포지역은 시흥군 남면이 되었으며, 이곳은 5개리의 하나인 산본리가 되었다. 1979년 5월 1일 남면이 군포읍으로 승격되었고, 1989년 1월 1일 시흥군에서 군포읍이 군포시로 분리·승격되면서 군포시 수리동이 되었다. 그후 1994년 7월 19일 행정동사무소인 수리동을 나누어서 수리동과 궁내동으로 분동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궁내’라는 이름의 법정동은 없으며, 동사무소로서의 궁내동은 군포시 11개 행정동의 하나이다. 관내에는 군포정보산업고등학교, 산본공업고등학교, 궁내중학교, 수리중학교, 수리초등학교, 궁내초등학교, 둔전초등학교가 있다.

(3) 관내의 지명

□ 고개사거리72)

궁내동의 수리산 능선 위에 있는 등산로의 교차로이다. 안양시 창박골 삼거리에서 동이점골과 담배골을 통하여 수리산 능선으로 오른 후 군포시 상연사로 내려가는 길과, 태을봉에서 능선을 따라 서남쪽의 슬기봉으로 통하는 길이 교차하는 길목이 된다.

□ 평천약수터

궁내동의 수리초등학교 뒤편(서)에 있는 약수터이다. 광천(鑛泉)은 광물성이나 방사성 물질을 비교적 많이 포함하고 있는 샘을 말하는데, 이 약수터를 광천 약수터라고 부르는 내력은 자세히 알 수 없다.

72) 김형수, 『한국400 산행기』, 깊은 숲, 2003, 44~45쪽.



광천약수터

□ 궁내(宮內) : 궁안

궁내동의 아파트 단지인 묘향마을 부근에 있었던 자연마을이다. 이 마을 서쪽 수리산 기슭이 전주 이씨의 사패지(賜牌地)⁷³⁾이고, 이 산에 조선왕조 어느 대군의 묘가 있어서 궁내 또는 궁안이라 불렀다고 한다. '궁(宮)'이란 왕실의 궁궐 이외에도 종실에 딸린 묘(廟)나 사당도 '궁'이라고 하며 궁의 안쪽을 뜻한다. 광정동에 있는 전주 이씨 안양군묘(安陽君墓 : 조선 성종의 제3남 이항의 묘)로 인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한편 '궁안'이라는 이름에 대하여 이 지역이 궁에 소속된 땅이므로 그 안쪽이 되는 지역을 '궁안'이라 불렀다고 한다.⁷⁴⁾

□ 궁내공원(宮內公園)

궁내동의 수리산 기슭에 있는 도시공원이다. 궁내동의 이름을 따서 궁내공원이라 하였다. 수도사업 소(경수장)의 동쪽, 엘림복지타운의 서남쪽이 된다.

73) 풍신이나 종진, 기타 나라에서 특정인에게 내린 땅을 말함.

74) 이기형 (전주이씨 종친회 회장)씨의 증언.

□ 금강(金剛)마을

궁내동의 묘향마을 남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궁내동에는 명산의 이름을 따서 아파트 단지 이름으로 한 곳이 백두마을, 묘향마을, 금강마을의 세 마을이 있고, 역사인물을 딴 곳으로는 솔거마을과 우곡마을이 있다. ‘금강’은 천하명산 금강산을 취한 이름으로서 금강석, 다이아몬드, 가장 단단한 보석을 뜻하기도 하고, 불교에서 관행어처럼 쓰이는 말로서 ‘가장 뛰어난’, ‘가장 단단한’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 (매화마을 참조).

□ 동적골

궁내동의 우곡마을과 광정동 을지마을 일대에 있었던 골짜기이다. 도장굴골의 북서쪽이 되며 그전 궁내마을의 바로 남쪽이 된다. 이 골짜기에 논이 있어서 그 논을 둔전(屯田)이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이 일대를 둔전골, 둔터골 혹은 동적골이라 불렀다고 한다.⁷⁵⁾

□ 둔전(屯田)

궁내동의 동적골에 있는 논이 둔전이었으므로 이 마을을 둔전마을이라 불렀다고 한다. 둔전은 평시에는 농사에 종사하고, 외적이 침입할 때에는 군대를 조직하여 적을 막는 병사들이 소속되었는데, 둔전병이라 하였다. 그들이 주둔하는 곳을 둔(屯)이라 하였고, 그 전답을 둔전(屯田)이라 하였다. 그러나 ‘둔전’이라는 지명이 붙은 곳은 비교적 넓은 평야지대를 이루는 곳이 대부분이다.

□ 묘향(妙香)마을

궁내동의 아파트 단지인 백두마을 서남쪽 아파트 단지이다. 궁내공원의 바로 남쪽이 된다. 인근에 명산의 이름을 붙인 금강마을과 백두마을이 있다. 묘향산은 평안남도과 평안북도의 경계에 있는 높이 1,909m의 명산이다. (매화마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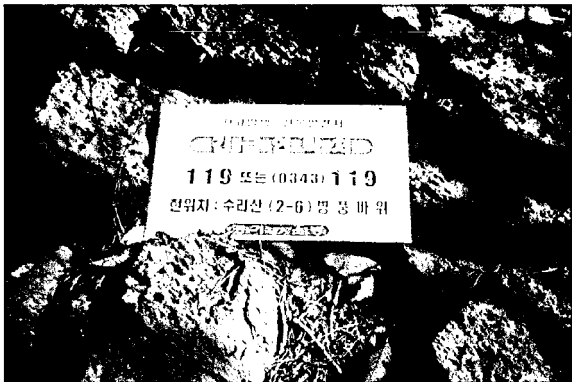
□ 백두(白頭)마을

궁내동의 궁내공원 남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을 아파트 단지의 이름으로 하였다. (매화마을 참조).

□ 병풍(屏風)바위

궁내동의 수리산 줄기 능선 위에 있는 바위이다. 병풍이란 장식을 곁하여 무엇을 가리거나 둘러치기 위해 여러 쪽으로 겹쳐져있는 장식품을 말한다. 병풍바위는 태을봉에서 솔거봉 쪽으로 조금 내려오

75) 유지호, 『군포시 지명유래집』, 군포시, 1999, 43쪽.



병풍 바위

면 농산 위에 병풍처럼 펼쳐진 바위가 나타난다. 바위의 높이는 약 15~20m, 폭은 30~40m 쯤 되며 산불이나 화재 등 사고 발생시 신고 위치 지점으로 명시되어 있다.

□ 산골

궁내동과 광정동 사이에 있었던 골짜기이다. 광정동 엘림복지타운의 남쪽에서 궁내공원으로 연결된 골짜기이다. '산골'이란 이름은 지명이기 보다는 '산골짜기'나 '두메산골'을 뜻하는 보통명사에 가깝다.

□ 산본천(山本川)

수리산 여러 골짜기의 물을 받아서 흘러내리는 하천이나, 지금은 모두 복개되어 궁내동의 지도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동적골과 궁내마을의 남쪽을 흘러서 동북류 하다가 문화촌 남쪽을 거쳐 안양천으로 흘러든다. (금정동의 산본천 참조).

□ 솔거(率居)마을

궁내동의 둔전초등학교 동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솔거는 신라 진흥왕 때의 천재적인 화가로서

그가 그린 황룡사 벽화(노승도)에 새들이 앉으려다가 부딪쳐 떨어졌다는 일화가 전해지는 화기이다. (매화마을 참조).

□ 수리산(修理山)

궁내동의 서쪽을 북에서 남으로 뻗은 산줄기이다. 이 산을 경계로 인양시와 군포시의 경계가 된다. 최고봉인 높이 489.2m의 태음봉(太乙峰)은 광정동에 위치하며, 태음봉의 바로 남쪽 줄기가 궁내동지역에 속한다. 수리산의 '수리'는 독수리의 수리, 높거나 우두머리를 뜻하는 정수리, 태양을 뜻하는 솔(Sol : 로마의 태양신), 솔개(소리개 : 매목 수리과에 속한 새)의 솔 등과 통하며, 수로왕의 '수로', '수로'부인의 '수로'와도 통하는 이름으로 보고 있다. (군포의 산 참조).

□ 수리산(修理山) 산림욕장(山林浴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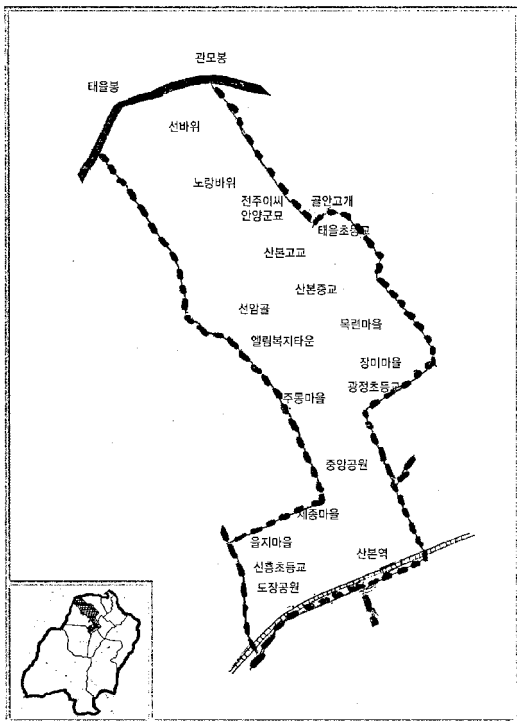
수리산 산림욕장은 수리산 줄기를 따라서 관모봉-태음봉-습기봉에 이르는 산줄기의 군포시 쪽 산 기슭에 위치한다. 습기봉부터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출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그 아래서 되돌아 나와야 한다. 궁내동, 수리동, 광정동에 이르기까지 아늑한 수리산의 자연을 즐길 수 있다. 독서의 숲, 만남의 광장 등 각종 주제를 선정한 숲이 있고, 광천약수터, 산딸기약수터 등등 곳곳에 샘이 있다. 수리산은 인양시, 안산시, 군포시 등 3개시가 저마다 관내의 숲을 산림욕장으로 개발하여 관리하고 있다.

□ 우륵(于勒)마을

궁내동의 산본공업고등학교 동남쪽에 있는 아파트단지이다. 우륵은 우리나라 3대 악성(樂聖)의 한 사람으로서 신라 진흥왕 때의 음악가이다. 본래 대기야국 시랍인태, 기야금을 치음 만들고 12곡을 지었다고 한다. 진흥왕 때 신라에 투항하여 충주에 살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이 아파트는 악성 우륵의 이름을 붙였다. (매화마을 참조).

10) 광정동(光亭洞)

(1) 관내도



광정동 관내도

(2) 동명의 유래와 연혁

이 지역은 법정동으로는 산본동이 되는 지역이다. '광정(光亭)'이란 빛나는 정자를 뜻하며, 이곳에 자리잡은 조선 제9대 임금 성종의 셋째 아들 안양군(安陽君)의 후손에 의하여 생겨난 이름이라고 한다.

안양군의 4대손 중에 이옥담(李玉潭 : 1579~1657)이라는 분이 선조들의 묘를 지키며 이 산기슭에 살고 있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무예를 좋아하고 풍류를 즐겼는데 이 산기슭에 마땅한 정자가 없어서 좋은 정자를 세우고자 터를 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꿈에 정자 터에서 찬란한 빛이 비추었으므로 정자를 완성하자 꿈에 빛나던 정자를 생각하고 그 정자를 광정(光亭)이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마을 이름도 광정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지역은 1789년(정조 13)에 만든 『호구총수』에 과천현 남면 7개리의 하나인 산저리(山底里)이며, 산저리는 1871년(고종 8) 산본리(山本里)로 고쳐졌다.

1914년 일제에 의한 전국의 지방행정구역 폐지·통합 이전에 과천군 남면 산본동이 되었고, 1914년의 대 개편 때 과천군·안산군·시흥군의 3개 군을 합하여 시흥군 남면 5개리의 하나인 산본리가 되었다.

그후 1979년 5월 1일 시흥군 남면이 군포읍으로 승격되었고, 1989년 1월 1일 시흥군에서 군포시로 분리·승격되면서 이 지역은 법정동을 산본동으로 하고 행정동사무소는 광정동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광정'이라는 이름의 법정동은 없으며, 동사무소로서의 광정동은 군포시 11개 행정동의 하나이다. 관내에는 산본고등학교, 산본중학교, 도장중학교, 태을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광정초등학교가 있다.

(3) 관내의 지명

□ 거북바위와 노랑바위 : 노랑바위 약수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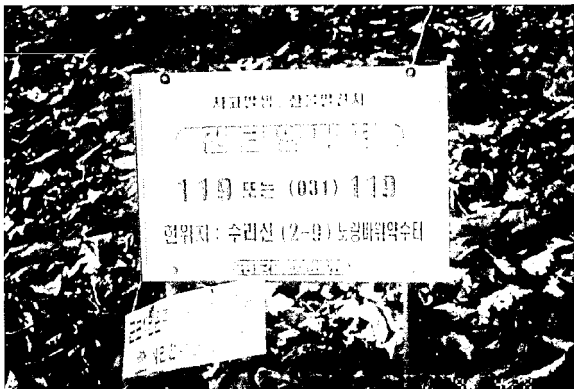
광정동의 수리산 등턱에 있는 바위이다. 전주 이씨 안양군묘(安陽君墓)의 뒤쪽(200m 쯤)에 있다. 옛날 어진 임금이 정사를 잘 다스려서 온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렸으나 왕의 나이 40이 넘었음에도 사직을 이어갈 왕자가 없었다. 이에 온 백성들이 명산대천에서 왕자의 탄생을 기원하고, 궁궐에서도 왕자를 점지해 주기를 신령게 빌었다. 마침내 하늘이 감응하였던지 왕비의 몸에 태기가 있어서 기다리던 왕자를 낳게 되었다. 그후 어느 해에 북쪽 오랑캐가 침입해 오자 임금은 왕자와 왕비, 신하들을 데리고 강화도로 피난하게 되었다. 그러나 폭풍이 몰아쳐서 배가 침몰할 위험을 당하였는데, 이때 큰 거북이 한 마리가 물 속에서 솟아 나와 왕자를 태우고 육지로 올려왔다. 그곳이 안산으로서 거북이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왕자는 수리산 동굴 속에 몸을 숨기게 되었다고 한다.

거북이는 며칠동안 굶어서 허기진 왕자를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음식을 구하러 내려갔는데, 왕자는 거북이가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줄 오해하였다. 절망한 왕자가 바위를 주먹으로 힘껏 내리치자 이때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큰 바위들이 무너져 내려서 왕자를 덮쳐서, 왕자는 노란 피를 흘리며 죽었다. 음식을 구하러 내려가던 거북이도 산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바위에 맞아 죽어 그 자리에서 거북바위가 되었다고 한다.

이때 왕자의 노란 피로 물들었던 바위를 노랑바위라 하였는데, 비바람에 씻겨서 지금은 노란색을 볼 수 없지만 왕자가 주먹으로 내리친 주먹 자국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이 노랑바위 부근에 우물이 있는데, 옛날 힘센 장수가 우물물을 마시려고 엮드려 두 주먹으로 바위를 쪼았을 때 그 두 주먹자국과 옷자락이 접힌 자국이 지금도 선명히 남아있다고 한다.

노랑바위는 약수터로 꾸며져 있으며, 이곳에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아들을 낳아준다는 전설이 있다.76) 또 이 전설에서 거북이의 화신인 거북바위는 전주 이씨 안양군묘의 신도비가 세워진 바위를 말한다.

거북은 예로부터 수명이 길고 수륙양생의 동물이므로 신성시하여 왔고, 전국 여러 곳의 지명과



노랑바위 안내판

결합하여 많은 설화를 남기고 있다. 그런데 노랑바위의 '노랑'은 '놀다'에서 비롯된 바위, 즉 유암(遊岩)의 뜻을 지닌 '놀은바위→노랑바위'로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골안고개 : 산실고개 : 곡내현(谷內峴)

광정동과 산본 2동 사이, 광정과 골안마을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산본중학교와 곡관초등학교 사이가 되는데, 옛날의 고개는 찾아볼 수 없고 능안공원 부근만 옛 모습을 남겨놓고 있을 뿐이다. '골'은 산골과 분지, 혹은 골짜기를 뜻하며, 산곡을 '실'로 부르기도 한다. 무실, 가래실, 산실, 어의실 등등 그 사래가 많다. 실(峯)=곡(谷)의 뜻이다.

□ 관모봉(冠帽峰)

광정동과 산본 2동의 경계가 되는 수리산의 한 봉우리이다. 군포시를 감싸고 있는 수리산의 가장 동북쪽 봉우리로서 높이 426.2m이다. 이 산 아래 산본 2동의 골안(곡안)마을이 된다. 관(冠)은 지난 날 머리에 쓰던 쓰개를 총칭하기도 하고, 또 갓을 나타내면서 벼슬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관모는 관과 모자가 접친 말로서 이 봉우리의 형상이 뾰족하여 관모를 닮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군포의 산 참조).

□ 도장공원(道藏公園)

광정동의 도장중학교 주변, 수도권 전철 안산선의 서쪽에 조성된 도시공원이다. 산본역의 바로 서남쪽이 되며 그전 도장골의 이름을 따왔으나 그 유래는 확실하지 않다. (수리동 도장골 참조).

□ 목련(木蓮)마을

광정동의 산본중학교 바로 남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목련'을 아파트 단지의 이름으로 정한 경위는 매화마을 참조) 목련은 목련과에 속한 낙엽교목으로서 이른봄에 꽃을 피운다.

□ 산골

광정동의 열림복지타운 남쪽(사거리 부근)에 있었던 골짜기이다. 산골이나 산실, 골안과 같은 이름들은 수리산 산기슭에 붙여진 이름으로서 계곡이나 곡저(谷底), 골짜기에 붙는다. '산골'은 보통명사에 가까우므로 지명으로 보기 어려우나, 그전에 이곳에서 불렸던 이름이므로 여기에 포함하였다.

□ 산본역(山本驛)

광정동과 계곡동 경계에 있는 수도권 전철 안산선의 지상역이다. 1988년 10월 안산선이 개통되었

76) 경기도·명지대학교, 『군포산본의 역사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990년 3, 30~31쪽.

고, 그후 산본 신도시가 건설되어 1992년 5월 1일 산본역이 개통되었다. ‘산본’이라는 이름은 수리산의 산밑을 뜻한다. (산본 1동의 등명유래 참조).

□ 선바위

광정동의 수리산 태을봉과 관도봉 사이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가 서 있으므로 선바위라 한다. 선바위는 지역에 따라서 일(立), 서(瑞), 선(仙), 선(禪) 등을 붙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대개 “서 있는 바위”를 나타내고 있다.

□ 선암골(禪庵谷)77)

광정동의 그전 광정마을 서남쪽 골짜기이다. 옅립복지타운의 북동쪽으로 접한 골짜기로서 지금의 천주교 산본성당 부근이 된다. 노랑바위의 서쪽에 있는 선바위를 인하여 이 골짜기를 선암골이라 부른 것으로 보인다.

□ 세종(世宗)마을

광정동의 중앙공원 남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세종 일군은 조선왕조 4대 임금으로서 한글을 만든 성군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니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세종’을 아파트 단지 이름으로 정한 경위는 대화마을 참조).

□ 수리산(修理山)

군포시의 북쪽에서 서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로서 군포시를 감싸안고 있는 산이다. 그중 최고봉인 높이 489.2m의 태을봉(太乙峰)이 광정동에 위치하고 있다. 수리산의 ‘수리’는 독수리의 ‘수리’, 높다 는 뜻의 경수리를 뜻하는 수리, 우두머리를 뜻하는 수리 등을 포함한 말이다. 이 산 이름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군포의 산 참조).

□ 수리산(修理山) 산신당(山神堂)

광정동의 수리산에 있는 당점이다. 태을봉 아래 있으며 태을초등학교 뒤편으로 난 길을 따라 수리산에 5분 쯤 올라가야 한다. 할아버지당은 ‘수리산 산신제당’이라고 써 붙인 재각형태로 되어있고, 그 옆에 당나무와 바위가 있다. 음력 1월과 7월 1일에 산신제를 올리는데 축문이나 발원문은 ‘태을당(太乙堂) 신령님’으로 되어있다.⁷⁸⁾

77) 유지호, 『군포시 지명유래집』, 군포시, 1999.

78) 군포시, 『군포시의 마을신앙』, 2003, 28~35쪽.



수리산 산신단(소지 장면)

□ 엘림(Elim) 복지타운

광정동에 있는 기독교 사회복지시설이다. 1986년에 법인인가 되어 경로원, 요양원, 직업전문학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엘림'이란 구약성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름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 두 번 제로 진을 쳤던 곳인데, 열 두 개의 샘과 70주의 대나무가 있었다고 하는 곳이다. 오늘날 이것을 오아시스로 보고있으며, 이 복지시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 오성약수터

광정동의 수리산 기슭에 있는 약수터이다. 산본동 산 28번지에 있으며 1996년 6월에 약수터로 개발된 샘이다. 샘 이름의 유래는 자세히 알 수 없다.

□ 을지(乙支)마을

광정동의 세종마을 서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마을 이름은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乙支文德) 장군의 성씨를 붙인 것이다. ('을지'를 택한 배경은 매화마을 참조).

□ 장미마을

광정동의 광정초등학교 뒤(북)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장미는 장미과에 속한 낙엽 관목이다. 꽃의 종류가 다양하며 덩굴로 뻗는 품종, 키 작은 품종, 그리고 1년에 한 번, 두 번, 4개월 피는 종자들이 있다. (‘장미’를 아파트 단지 이름으로 택한 내력은 대화마을 참조).

□ 전주 이씨(全州李氏) 안양군묘(安陽君墓)

광정동의 산본고등학교 뒤 수리산 기슭 초입에 있는 묘이다. 산본동 산 27번지가 되는데, 경기도 기념물 제122호로 지정된 곳이다. 안양군은 조선 성종의 제3남이며 갑자사화 때 연산군의 생모 윤씨를 폐출해 했다는 이유로 사사되었고 중종 때 복직되었다. 묘역은 300여 평이며, 1901년 경기도 양주에서 이장하였다.

□ 주몽(朱蒙)마을⁷⁹⁾

광정동의 중앙공원 서쪽에 있는 아파트단지이다. 주몽은 고구려를 건국한 동명왕(東明王)을 말하며, (‘주몽’을 아파트단지 이름으로 택한 배경은 대화마을 참조) 그런데 ‘동명(東明)’은 우리말의 ‘새벽’(‘새벽’이라는 말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을 뜻하는 이름으로서 밝고 새로운 세상을 의미한다.

□ 중앙공원(中央公園)

광정동의 세종마을 북쪽에 조성된 도시공원이다. 그 서쪽에 군포시립도서관과 광정동사무소가 있다. 군포산본 신도시의 중심부가 되므로 중앙공원이라 하였다.

□ 태을봉(太乙峰)

광정동의 뒤 수리산에 있는 한 봉우리이다. 높이 489.2m로서 수리산 줄기의 최고봉이 된다. 옛 지지도 지도에는 안산의 수리산, 과천의 태을산이 따로 표기된 경우가 있는데 지금의 수리산 능선을 경계로 두 고을의 경계가 나누어졌거나 수리산 취암봉(수암봉)이 옛 안산고을의 전산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태을’이란 도가에서 ‘태을성신(太乙星神)’을 말하는데, 태을성은 병란이나 재앙, 인간의 생사를 다스리는 별이다.

또 풍수지리에서는 큰 독수리가 두 날개를 펼치고 남아 내리는 모습을 매우 귀한 지상(地相)으로 그런 형상을 천을봉(天乙峰) 또는 태을봉(太乙峰)⁸⁰⁾ 부른다고 한다. 태을은 또 태일(太一)로서 천지 창조와 혼돈의 원기를 뜻한다고 한다. (군포의 산 참조).

79) 고태영씨 (남, 군포시 광정동 사무소 390-0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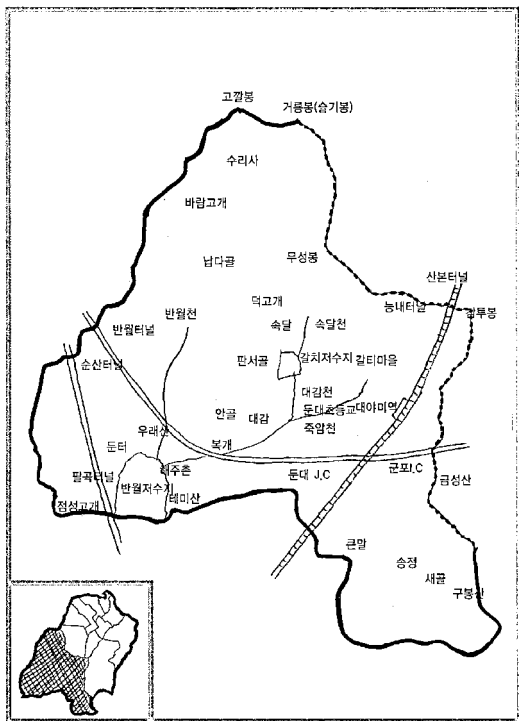
80) 서광석, 「대 길지에 마련된 두 국립묘지」, 『건설교통저널』, 2003년 12, 100-101쪽.



태을봉 정상

11) 대야동(大夜洞)

(1) 관내도



대야동 관내도

(2) 동명의 유래와 연혁

대야동은 대야미동(大夜味洞), 속달동(速達洞), 둔대동(屯垔洞), 도마교동(波馬橋洞)의 4개 법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야'라는 이름은 이 4개 동 중에서 대야미동의 '미'자를 뺀 것이다. 1994년 12월 26일 화성군 반월면(半月面)에 속한 이 지역을 군포시로 편입하면서 4개동 중 가장 인구가 많은 대야미동명을 줄여서 행정동명으로 정한 것이다.⁸¹⁾

본래의 '대야미(大夜味)'라는 이름은 지금의 대역미 역사(驛舍) 부근 행강들에 1천여 평(혹은 3천여 평) 되는 몇 개의 큰 논배미가 있어서 이 일대를 '큰 배미' 또는 '한 배미'라 불렀다. 전답을 헤아리는 단위로 두락(斗落 : 마지기), 야미(夜味 : 배미)가 있고, 밭을 세는 단위로 일경(日耕 : 하루갈이)이라는 용어가 있었다. 여기서 '배미'를 나타내는 '야미(夜味)'는 두둑에 의하여 구분되는 논 한 자리로서 밤(바미)=야(夜)와 '배미'의 취음 '미(味)'가 결합된 것이다.

따라서 '대야미'라는 이름은 우리 옛 밭의 자취와 그 표기법을 전해주는 국어학 연구 자료이자 재미있는 이름으로써 그 의미가 있다.

이 지역은 조선시대 광주군 북방면(北方面) 대야미리(大夜味里), 둔대리(屯垔里, 鎭垔里), 속달리(速達里), 도마교리(波馬橋里)였다가 1895년(고종 32) 안산군에 편입되었다.

그러다가 1914년 일제에 의한 지방행정구역 폐지·분합 때 수원군 반월면(半月面)에 편입되었으며, 1994년 12월 26일 지방행정구역 조정으로 군포시에 편입되었다.

이 때 기존의 둔대리, 속달리, 도마교리, 대야미리를 각각 법정동인 둔대동, 속달동, 도마교동, 대야미동으로 하였고 1994년 12월 29일 시조례 제 364호로 이를 관할하는 행정동을 대야동이라 하였다. 대야동은 군포시 11개 행정동의 하나로서 관내에 대야미동, 속달동, 둔대동, 도마교동의 4개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다. 관내에는 둔대초등학교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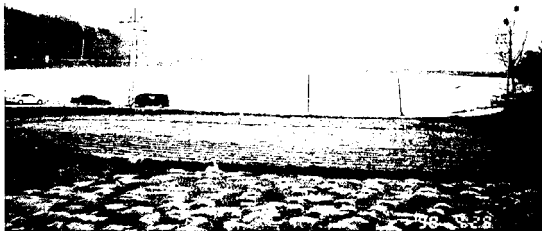
(3) 관내의 지명

□ 갈치저수지(貯水池)

대야동의 대야마을 북쪽에 있는 저수지이다. 1984년 준공된 저수지로서 이 저수지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대야천이며, 저수지가 생긴 곳은 본래 정장들이라고 불렀던 곳이다.

이 저수지가 속달마을 앞에 있음에도 '갈치저수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당초 수리시설로 설치할 예정이었던 곳이 갈치마을 부근이었으나 뒤에 위치를 이곳으로 변경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기왕에

81) 유지호, 『군포시 지명유래집』, 군포시, 1999, 91쪽.



갈치저수지

정해진 저수지 이름을 바꿀 경우 행정절차가 번잡해지므로, 당초 이름을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 ‘갈치저수지’가 되었다고 한다.⁸²⁾

□ 갈티 : 갈치 : 노치(蘆峙) : 노산(蘆山)

대야동의 갈티고개 밑에 있는 마을이다. 수도권 전철 안산선 대야미역의 바로 서북쪽 마을로 행강들의 동쪽에 위치한다. 아파트와 빌라 등의 신축 공사가 한창인 곳이며, 대야동사무소가 있다. ‘갈티’는 본래 고개이름이었으나 마을 이름으로 된 경우이다. ‘갈’은 고개나 하천이 나누어지는(갈라진) 곳에 붙는 경우가 많은데, 한자로는 갈(葛 : 칩), 노(蘆 : 갈대), 갈(渴) 등으로 표기되는데, 가락>곶>갈대를 나타내는 이름으로서 분기(分岐)를 뜻하는 이름이다.

갈치=갈티가 혼용되고 있으며, 한자로는 노산(蘆山)이라 하고, 고지도에는 노치(蘆峙)로 표기된 곳도 있다.⁸³⁾

□ 갈티고개

대야동의 대야미리에서 부곡등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갈’은 산이나 고개, 하천 등이 갈라지는

82) 정준수 (동래정씨 후손, 대야동 속달마을)씨의 증언.

83) 김정호, 『동여도』, 1857.

분기점에 붙는 이름이며, 이것을 한문으로 쓸 때는 노(麓, 예 : 노랑), 갈(葛, 예 : 갈현) 등으로 썼다. 노치(蘆峙), 노산(蘆山)이라고도 하고, 느진골고개라고도 하며, 국도 47호선이 지나고 있다.

□ 갈티교(橋)

대야동의 능내터널 입구에 있는 다리이다. 수도권 전철 안산선의 위로 지나는 시도(市道)상에 설치된 교량이다. 산본터널의 바로 앞 (남쪽) 철길 위에 있다.

□ 갈티들

대야동의 갈치저수지 앞에 있는 들이다. 대감천이 흘러내리는 그 일대의 들판으로서 둔대초등학교 서쪽 들이 된다.

□ 감루봉 : 삼파산(三波山)

대야동과 군포 2동, 오금동 경계에 있는 높이 185.2m의 산이다. 수리산 줄기가 남동류하여 뿔어 내리다가 밤바위산과 인접한 곳에 솟아 오른 산이다. 이 산 정상에서 세 곳으로 물이 흐르는데, 오금동으로 흐르는 물은 산본천, 군포 2동으로 흐르는 물은 호란내, 대야동으로 흐르는 물은 반원천에 합류하므로 삼파산(三波山)이라 부른다고 한다. 감루란 옛날 벼슬아치들이 머리에 쓰던 탕전처럼 생긴 모자로서 ‘감루’는 벼슬을 상징하는데 산 모양이 감루처럼 생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옛날 현풍 광씨의 딸이 주씨 가문으로 출가하였는데, 친정아버지가 위독하다 하여 친정집으로 돌아왔다. 이때 부친이 유언하는 말을 들으니 “내가 죽으면 감루봉의 흰 나무가 세 그루 있는 북서쪽 봉우리에 나뭇 문으라”고 하였다. 그런데 위독하던 친정아버지는 병세가 호전되었고, 집에 계신 시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 이에 친정아버지가 말한 명당자리에 친정식구들 모르게 시아버님을 모셨다. 그 후 이 산 꼭대기에서 용 두 마리가 밤마다 싸우므로 광씨 집안에서는 사촌 집안에서 묘자리를 물래 차지한 것을 알고 광씨의 아들이 산에 올라가 용 한 마리를 베어 죽였다고 한다. 뒤에 주씨 가문은 부유하게 살았으나 오래 가지 못했고, 광씨는 빈창했다고 한다.⁸⁴⁾

□ 감신골

대야동 갈치저수지의 바로 북쪽 골짜기이며, 덕고개 마을 남쪽이 된다. 지형도에는 ‘길실골’로 되어 있으나 문헌자료상 감신골이 옳은 것 같다.⁸⁵⁾

84) 『서홍군지』하, 921쪽. 군포의 산, 참조.

85) 국립지리원, 『안양 067』(1 : 5000), 2002년 발행.

□ 개매골

대야동 둔터마을 북쪽 골짜기이다. 잣개매골의 서쪽이 되며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다. '개매'는 뽕가, 즉 뽕원친의 개울가 마을이나 개울가의 산(되)을 뜻하는 이름으로 볼 수 있다.

□ 고깔봉

대야동과 안산시, 안양시 경계가 되는 수리산 줄기 연봉(連峰)의 하나이다. 높이 451.5m이다. 산 형상이 고깔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고깔은 세모지게 만든 깃(巾)의 일종으로서 종이 쓰는 것이다. 그 아래 수리사가 있으며 고깔봉이라는 이름은 불교지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군포의 산 참조).

□ 구룡골

대야동의 송정마을 바로 서쪽 골짜기이다. 명칭의 유래는 알 수 없으나 구(九)는 신성한 숫자(3이 겹치니)이고, 용도 역시 신성시하여 온 상상의 동물이므로 '구룡'이라는 이름이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 분포하고 있다.

□ 구봉산(九峰山)

대야동의 도마교동 동쪽 끝에 있는 높이 145.5m의 산이다. 의왕시 초평동의 옷새우대 사이에 있는 산으로 봉우리란 9개로 보기는 어려운데, 구봉산의 내력은 자세히 전해지지 않는다. '굽은산'이나 '구분산'(옛날 경기도 광주 고을과 수원 의 경계가 되어 구분하는)이 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⁸⁶⁾ (군포의 산 참조).

□ 군포 인터체인지

대야동의 뒷방이 동남쪽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터체인지이다. 국도 47호선을 통하여 군포시와 연결된다.

□ 굽다리

대야동의 대야미역사(驛舍)를 통하여 갈티마을, 둔대초등학교, 뒷방이 등을 다닐 수 있는 통로로서 위로는 수도권 전철 4호선이 지나간다.

86) 대야동은 조선시대 광주부(廣州府)에 속한 지역임. 지방(고을)의 반역을 막고 견제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경계가 길게 떨어져 나와서 개 이빨처럼 서로 엇물리게 구역은 정하는 계도령 전아상입계도(犬牙相入制度)라 하여 조선 태종 때부터 시행하였는데, 이 지역도 그런 계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승정에서 본 구룡산

□ 김만기(金萬基) 선생 묘역

대야동의 갈티마을 뒤(북)에 있는 묘역이다. 김만기(1633~1687) 선생은 숙종의 정인이자 보사공신으로 책록된 인물이며, 묘소에는 숙종 어필의 묘표가 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고, 『서석집(瑞石集)』 18권이 있다. 경기도 기념물 제131호이다.

□ 남다골 : 납덕곡(納德谷)

대야동의 바람고개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수리산에서 흘러내리는 반월천 상류의 마을로서 속달동의 최북단 마을이다. 수리사가 있는 절골의 아래쪽이 되며 '납'은 넓다는 뜻의 '넓'의 방언으로 보인다. 수리산 계곡에 비교적 넓은 들이 있어서 '넓덕골'이라 하던 것이 납덕>남다골로 된 것으로 보인다.

□ 납작골

대야동의 남다골 마을 북동쪽 골짜기이다. 역시 '납'은 넓다는 뜻의 '넓'의 방언이며 납덕>납직>납작골로 된 것이다.



남다골

□ 금성산(錦城山)

대야동과 군포 2동(부곡동) 사이에 있는 높이 122.4m의 산이다. 영동고속도로 군포인터체인지 진입로의 바로 동쪽 산이다. 산 이름의 내력은 확실하지 않다. (군포의 산 참조).

□ 느진골 고개 : 만곡현(晩谷峴)

대야동 감티마을과 부곡동 사이의 국도 47호선이 지나는 해발 80m의 고개이다. 감티고개라고도 하며 ‘느진’은 느슨한, 느지러진, 느직한 고개를 뜻하며, 늘어졌다다는 뜻의 어(於), 연(連), 만(晩)의 뜻을 지니므로 만곡현이라 한다.

□ 능골

대야동의 감치저수지 동쪽 골짜기이다. 능은 원래 임금이나 왕후의 묘소를 말하지만 지방에서는 규모가 큰 무덤, 벼슬을 지낸 사람의 무덤을 ‘능’이라 하고, 그 일대를 능골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이 골짜기에도 묘가 밀집하여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늘어진 골 길게 뻗어나간 산자락에 의하여 늘어진 골을 능>능>능골로 된 경우도 있다.

□ 능내터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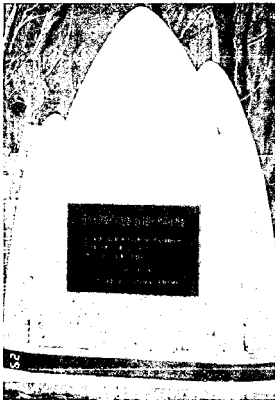
대야동과 수리동 사이의 시도를 통하여 군포환경관리소가 있는 성지골, 초막골로 연결되는 터널이다. '능내'라는 이름에 대하여는 어느 쪽의 능인을 말하는지 확실하지 않다.

□ 다량구리골

대야동의 도마교동 편 골(남)에 있는 골짜기이다. 의왕시 초평동(草坪洞)과 이어지는 낮은 구릉지대이다. '다랑이(다랭이)'는 비탈진 곳에 있는 층 층으로 된 작은 논배미를 말하며, 다랭이 논으로 인하여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 당숲

대야동의 덕고개 마을 서쪽에 있는 노목지대이다. 그전에 마을의 수호신에게 풍년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당집이 있었으므로 당숲이라 한다. 수령 몇 백년이 넘는 굴참나무, 서어나무 등이 들어서 있으며, '전국 아름다운 숲대회'에서 '보전해야 할 숲'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를 기념하여 표지석을 세워 놓았다.



당숲 표지석

□ 대암 : 대암(大岩) : 죽암(竹岩)

대야동의 북개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대감천의 서쪽 마을로서 큰 바위가 있어서 대암→대감이 되었다는 설과 옛날 대감들의 행차가 잦아서 대감이라 하였다는 설이 있다.

대감은 조선시대 정이품(예 : 판서) 이상의 비숙아치를 높여서 부르는 이름이며, 감치저수지 서쪽 관서골과의 관련은 확인할 수 없다. 경기도 『지명유래집』에는 옛날 훌륭한 죽림(竹林 : 대숲)이 있어서 생긴 이름이라 하고 있으나, 대=죽(竹)의 훈차(訓借) 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⁸⁷⁾

□ 대감천⁸⁸⁾

대야동의 감치저수지 남쪽을 흘러서 대감 마을 앞에서 죽암천과 합류하고 만월저수지로 들어가는 하천이다.



대감천

87) 경기도, 『지명유래집』, 1987, 337쪽. 이 지역은 대나무 북방한계 자생지의 일부이 될

88) 군포시, 『군포시 행정지도』(2001년 9월 발행)에 '대감천'으로 되어 있음.

□ 대야미(大夜味) : 대야미동(大夜味洞)

대야동에 속한 4개 법정동의 하나이자 논배미의 이름이다. 논을 헤아리는 단위로 두락(斗落 : 마지기), 야미(夜味 : 배미)가 있고, 밭을 세는 단위로 일경(日耕 : 하루갈이)이라는 용어가 있었다. 배미는 논 한 자리를 뜻하는 야미로 훈차기사(訓借記寫)한 것이며⁸⁹⁾, 우리말의 한 배미큰 배미를 뜻한다.

이곳은 행강골에서 흘러든 물로 큰 논배미가 형성되었는데, 지금은 안산선 대야미역(수도권 전철)과 아파트 등이 들어섰다.

대야미동은 본래 광주군 북방면(北方面)에 속한 지역으로 1895년(고종 32) 안산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는 수원군 반월면(半月面)에 편입된 곳이다. 1994년 12월 26일 행정구역 조정으로 군포시의 법정동으로 편입되었으며 행정동명인 대야동은 대야미를 줄인 이름이다.

□ 대야미역(大夜味驛)

대야동의 그전 한 배미(논) 일대에 들어선 수도권 전철 안산선 역이다. 역 이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름을 검토하였으나 주변을 대표할 만한 이름으로 '대야미'를 택하여 역명으로 하였다고 한다.

□ 대야미저수지(大夜味貯水池)

대야동의 금성산 남쪽 수렁배미골에 들어섰던 저수지이다. 1958년에 설치되었으며, 송정마을의 북쪽이 된다. 이 저수지는 근래에 고속도로 공사와 도로 확장 등에 의하여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 대야미천(大夜味川)

대야동의 갈터 동쪽을 흘러내리는 소하천이다. 수리산 줄기 감투봉 일대에서 흘러내리는 물이다.⁹⁰⁾

□ 대야지하차도(大夜地下車道)

대야동과 군포 2동 사이에 새로 설치한 자동차전용의 지하차도이다. 국도 47호선에 설치되어 있다.

□ 덕고개 : 덕현(德峴)

대야동의 남다골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속달과 남다골 마을의 중간이 되며 덕+고개로 이루어진 이름이다. '덕'에 대하여 홍양호의 『복세기략』에는 '고부알덕(高阜白德)'이라 하여 흙이 쌓인 땅,

89) 이명택, 『한국의 지명』, 태평양, 1986, 291쪽.

90) 군포시, 『군포시 행정지도』, 2001년 9월 발행, 대야미천.



덕고개

두드러진 언덕을 말하였다. 덕은 ‘마루덕’, ‘안전덕’, ‘문덕’의 ‘덕’과 통하는 말이다.

□ 도마교(渡馬橋) : 도마다리 : 도마교등

대야동에 속한 4개 법정동의 하나이다. ‘도마’는 식칼질을 할 때 밑에 받치는 두꺼운 나무토막이나 널 조각을 말한다. 한문표기의 ‘말을 건너게’하였다는 뜻의 ‘도마(渡馬)’는 우리말 ‘도마’의 음차(音借)표기로 보인다.

일설에는 마을 남쪽으로 삼남과 통하는 길에 널다리가 있었는데, 남양 원님이 현양 가는 길에 이 다리를 말을 타고 건넜으므로 도마교(渡馬橋)라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다.⁹¹⁾

이곳은 그전 광주군 북방면(北方面)에 속한 지역으로 도마로 놓은 다리가 있어서 도마다리, 도마교라 하였으며, 1895년(고종 32) 안산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수원군 반월면(半月面)에 편입되었으며, 1994년 12월 26일 군포시에 편입되어 법정동이 되었으며, 대야동에 딸리게 되었다.

91) 경기도, 『지명유래집』, 1987, 377쪽.

□ 도봉골

대야동(도마교)의 송정과 큰말 사이 들이다. 큰말에서 차례로(동쪽으로) 보수간길, 도봉골, 송정마을이 된다.

□ 동굴매골

대야동(도마교)의 큰 말(대촌) 바로 남쪽 골짜기이다. 이영진들의 바로 위쪽이 되며, 그 내력은 자세히 알 수 없다.

□ 둔터 : 둔대(屯臺) : 둔대동(屯臺洞)

대야동(둔대)의 바로 위(북)에 있는 마을이자, 대야동에 속한 4개 법정동의 하나이다. 옛날 이곳 마을을 둘러싼 산 봉우리의 넓은 공터에 군대가 주둔하였으므로 둔터, 둔대(屯臺)라 불렀다고 한다.⁹²⁾ 그전 광주군 북방면(北方面)에 속한 지역으로 1895년(고종 32) 지방관제 개정시 안산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 때 수원군 반월면(半月面)에 편입되었고, 1994년 12월 26일 군포시 대야동에 편입되어 법정동으로 남아있다.



둔터

92) 김광영 (남, 77세 : 대야동 둔터마을)의 2인 증인.

□ 둔대교(屯堡橋)

대야동(둔대)의 영동고속도로 밑 시도상(市道上)의 반월천 위에 놓인 다리이다. 그 위로는 영동고속도로 반월교가 지나간다.

□ 둔대 J. C

대야동의 대감마을 앞에 있는 영동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연결 시설이다.

□ 뫼땡이 : 금리(錦里) : 북방리(北方里)

대야동(대야미) 대야미역의 바로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시대에 뫼땡을 뜻하였으므로 뫼=북(北), 땡=방(方)으로서 북방리가 된다.⁹³⁾ 이 지역이 광주군 북방면에 속한 지역이었을 것이다. '금리'는 마을이 금성산(錦城山) 아래 있어서 부른 이름이다.⁹⁴⁾

□ 무성봉

대야동과 수리동 사이의 수리산 줄기에 있는 높이 258m의 봉우리이다. 군포시 환경관리소의 서쪽에 있는 봉우리이다. (군포의 산 참조)

□ 바람개비골

대야동(속달) 남다골의 서북쪽 골짜기이다. 바람고개를 넘어 안산시 장상동으로 통한다. 바람이 세므로 '바람개비골'이라 부른다고 한다.

□ 바람고개 : 풍령(風嶺)

대야동(속달) 남다골에서 서북쪽의 안산시 장상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높이 193.8m이며, 이 고개에 부는 바람이 매우 세므로 바람고개라 부른다고 한다.⁹⁵⁾ 『계림유사』에 '풍왈페담(風曰'半渡)''이라 하였고, '파론(把論)'이라고도 썼는데, 오늘날의 '바람'=풍(風)과 일치한다.

□ 반월교(半月橋)

대야동(둔대) 둔대 마을 동쪽, 반월저수지 상류의 영동고속도로에 놓인 다리이다. 그 밑으로 반월천이 흘러서 반월저수지로 들어간다.

93) 김진규, 『혼동자회 어휘연구』, 1993, 형설출판사, 330쪽.

94) 이재일 (역, 66세 : 뫼땡이 신안야퍼드) 증언.

95) 백여기 (남, 속달동 남다골 마을 이장) 증언.



바람고개

□ 반월육교(半月陸橋)

대야동(대야미) 뒷방이 마을 앞 영동고속도로 군포인터체인지의 국도 47호 위를 지나는 육교이다.

□ 반월저수지(半月貯水池)

대야동(둔대) 남쪽에 있는 저수지이다. 우래산(안산)의 남쪽, 테미산의 서북쪽에 접해 있으며, 1957년에 준공되었다. 이 저수지의 제방 남쪽은 안산시 팔곡 1동(八谷一洞)이 된다. ‘반월’이라는 이름은 1914년 군면 통폐합 때 안산군 월곡면(月谷面), 북방면(北方面), 성곶면(聲串面)을 통합하고, 면사무소를 건건리(乾乾里)에 두어 반월장터로 알려졌다. ‘반월’이라는 이름은 이때에 생겼으며, 수원군(화성) 반월면이 되었다가 1976년 반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설치되어 반월공단이 조성되었다. 1994년 12월 26일 반월면은 대야미, 속단, 둔대, 도마교의 4개 리를 군포시에, 팔곡일(八谷一), 건건(乾乾), 사사(沙沙)의 3개 리는 안산시에, 당수(棠樹), 임북(筵北)의 2개 리는 수원에 넘겨주고, 면 이름도 사라졌다. ‘반월’은 풍수신앙에서 보름달보다 더 길한 것으로 꼽았는데, 반달은 점점 커지고 온달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⁹⁶⁾ 반월저수지는 그전 반월면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96) 이명규, 『서울경기지역 지명 및 방언』, 한국문화사, 2000, 25쪽.

□ 반월천(半月川)

대야동의 수리산 고갈봉 아래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남다골을 지나 둔터 옆에서 반월저수지로 흐르는 지방 2급 하천이다.



반월천과 하천 표지관

□ 반월터널

대야동의 둔대(둔터) 서북쪽에 있는 터널로서 영동고속도로가 군포-반월 경계의 수리산 줄기를 지나는 터널이다. 반월터널 부근으로 경부고속철도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 보수간골

대야동(도마교)의 큰 말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동쪽으로는 도봉골, 송정 마을이 되는데, 그 유래는 확인할 수 없다.

□ 복개 : 복포(伏浦) : 복해(伏蟹)

대야동의 반월저수지 북동쪽, 안골의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곳 지형이 마치 바다의 게가 엎드려 있는 형상을 하고 있으므로 복해(伏蟹)라 하였다고도 전해진다. 이 이야기는 풍수설화에서 비롯

된 것으로 보인다.

□ 부처골

대야동 영동고속도로 반월터널의 동북쪽, 반월천의 서쪽 골짜기이다. 부처골은 절터나 탑, 불상 등이 있는 곳을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구체적인 유물·유적에 관하여는 전해지는 자료가 없다.

□ 새골 : 조곡(鳥谷)

대야동(도마교)의 송정 동남쪽, 구봉산 서쪽 기슭에 있는 마을이다. 우리말 '새'를 한문으로 쓸 때는 조(鳥), 갠(跣), 동(東), 신(新), 철(鐵), 초(草)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곳은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없다.

□ 새능골

대야동(대야마)의 뒷머리 서남쪽 골짜기이다. 수도권 진출 안산선이 지나가며 안산시와 경계 안쪽이 된다.

□ 샘골

대야동(둔대)의 둔터마을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서해안 고속도로 팔곡터널의 북쪽이 되며, 지팡바위골 서쪽이 된다. 대개 샘이 있는 골짜기에 샘골이라는 이름이 붙는다.

□ 서낭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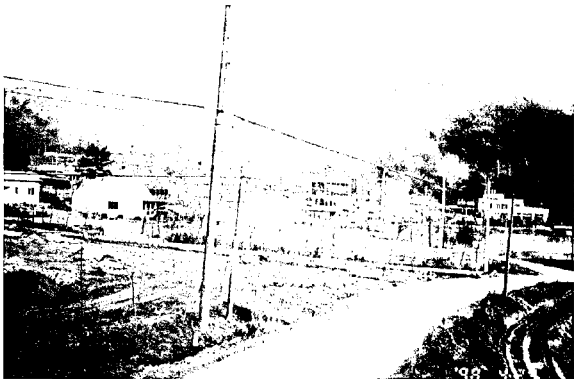
대야동(속담) 난다골 동쪽 골짜기이다. 성황당이나 산재를 올리는 곳을 서낭골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확인할 수 없다.

□ 속달(速達) : 속달동(速達洞)

대야동에 속한 4개 법정동의 하나이다. 속달(速達)은 빠르게 보내는 우편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수리산의 골짜기 안(內 : 속)을 뜻하는 이름이다. 속은 내포(內包)로서 리(裏), 알맹이로서의 정(精)을 나타내며, 표(表 : 겉)에 대응하는 말이 된다.

한편 '달'은 땅이나 산을 가리키는 말이다. 아사달=이침의 땅으로 '조선'과 같은 뜻이 되며 달=땅=땅이 모두 지(地)를 나타낸다. 비탈(빗달 : 비스듬한 땅), 양탄, 응탄의 '달'과 겹은 뜻이며, 한문의 '속달(速達)'은 음차에 불과하다. 하나=일(一)=하늘(天), 둘=이(二)=달(地), 셋=삼(三)=인(人 : 씨앗)으로 풀이하고, 천지인(天地人) 삼재에서 둘(二)과 달(地)을 같은 말의 뿌리로 보기도 한다.⁹⁷⁾

97) 경기도, 『지명유래집』, 1987, 377쪽.



속달마을

그전 광주군 북방면(北方面)의 지역으로 1895년(고종 32) 안산군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수원군(淮源) 반월면 속달리가 되었다. 1994년 12월 26일 행정구역 개편 때 군포시에 편입되어 대야동의 법정동이 되었다.

□ 속달천(速達川)

대야동의 수리산 줄기인 무성봉(258m) 남쪽에서 발원하여 남류하는 하천이다. 속달마을을 지나 갈치저수지로 흘러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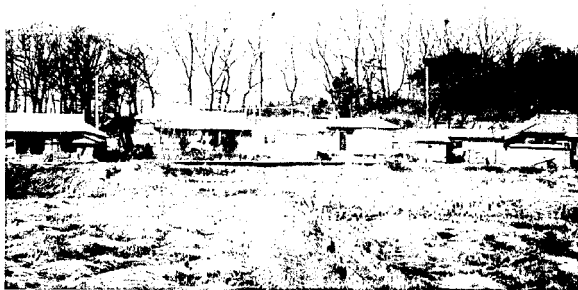
□ 송정(松亭)

대야동(도마교)의 새골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대개 옛날 오래된 소나무가 서 있어서 쉬어가기 좋은 곳에 '송정'이라는 이름이 남아있으며, 전국적으로 매우 많다.

□ 수령배미골

대야동의 금성산 남쪽 대야미 저수지가 있었던 곳이다. 수령배미는 논배미가 많이 있어서 수령처럼

98) 박갑천, 『세계의 지명』, 정음사, 1995, 58쪽.



송정 마을

되었기 때문에 보인다.

□ 수리골

대야동(운대)의 북계 서쪽 골짜기이다. 해주촌의 동쪽이 되며, 수리산의 한 줄기가 반원저수지 바로 위에서 멈추는 곳이다.

□ 수리사(修理寺)

대야동의 수리산 슬기봉과 고깔봉의 남사면에 위치한 경기도 지정 전통사찰이다. 신라 진흥왕 때 처음 세웠다고 하며, 6·25사변 때 소실된 것을 1955년 중건한 조계종 사찰이다. 이 절로 인하여 산 이름도 수리산이 되었다는 설이 있으나, 대개 산 이름이 먼저 붙여지고 절 이름은 나중에 붙이게 된다. (군포의 산 참조)

□ 수리산(修理山)

수리산은 군포시의 북쪽과 서쪽을 감싸 안으면서 수호하는 형태의 산이다. 최고봉인 태을봉(太乙峰 = 489m)을 비롯한 연봉(連峰) 중에서 슬기봉, 고깔봉이 대야동 지역에 속한다. (군포의 산 참조)

□ 속고개 : 숲고개 : 꼭고개

대야동과 수리동 경계의 수리산 줄기에 있는 고개이다. 이 고개는 수리산 거룡봉(巨龍峰, 일명 슬기봉) 줄기가 동남류 하여 무성봉으로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있는 고개이다. 속고개의 내력은 자세히 전해지는 문헌이나 구전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전국적으로 같은 이름이 매우 많은데 대개 옛날 숲을 구웠던 곳, 숲이 무성하였던 곳, 지형이 쭉 뻗어나왔거나 들어간 곳 등에 이런 이름이 붙는 경우가 많다.

□ 순산터널

대야동(둔대)의 반월저수지 서북쪽, 안산시와 경계가 되는 수리산 줄기를 관통하는 터널로서 서해안 고속도로상에 있다. 상행선 684m, 하행선 627m이며, 1996년도에 개통되었다. ‘순산’이라는 이름은 지질공학에서 사용하는 ‘순산모델링기법’의 용어를 터널이름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 공법은 지형특성이나 지층에 대한 응용지질학적 분석에 따라 터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그런데 개업이나 입막을 축하할 때, 혹은 터널 교량 지하도 등의 개통식 때 “순산(順産)을 축하한다”고 말하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된 것을 축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순산(順産)’과 터널 개통은 서로 통하는 것이다. 또 사람의 출생을 비유하여 “어둠의 긴 터널을 빠져 나와 이 세상에 처음 빛을 보는 것”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인간의 탄생-터널-순산(順産)과 터널굴착공사-개통-순산모델링기법이 서로 맞아떨어지는 이름이 되고 있다.⁹⁹⁾

□ 슬기봉 : 거룡봉(巨龍峰)

대야동의 수리산 줄기에 있는 높이 469.3m의 봉우리로서 수리동과 경계가 되는 곳이다.¹⁰⁰⁾ 이 봉우리를 종전의 지형도(1 : 5,000)에 의하여 474.8m로 기록한 경우가 있으나 새로 발간된 지도에 의하여 수정되었다. 슬기봉으로 부르게 된 내력은 확실하지 않으나 슬기는 사리문 잘 분별하는 지혜를 뜻하며 근래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또 거룡봉이라는 이름은 풍수지리에서 산 줄기를 ‘용’이라고 하므로 큰 산 줄기를 나타내는 이름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연원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군포의 산 참조)

□ 안골 : 내곡(內谷)

대야동(둔대)의 수리골 북쪽 골짜기를 안골이라 하며, 그 남쪽 북개와 대감마을 사이의 마을도

99) 정한섭 (남, 45세,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증언.

100) 군포시, 『군포시 행정지도』, 2001년 9월 발행, 슬기봉.

안골이라 한다. 안(內)과 밖(外) 표리를 이루게 되는데, 대개 골짜기의 안쪽, 골이 깊은 곳, 깊숙한 마을 등을 안골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

□ 안골천

대야동(둔대)의 안골마을 서쪽, 복개마을 뒤에서 흘러내리는 소하천이다. 남류하여 반월저수지의 동쪽으로 흘러든다.

□ 여덟미골

대야동(도마교)의 송정 마을 바로 남쪽 골짜기이다. 이영진들의 동북쪽에 인접한 골짜기이나 그 유래는 알 수 없다. 인근의 안산시 팔곡동이 '여덟미'에서 비롯된 이름인데, 그 관련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우래산 : 안산 : 우뢰산(兩雷山)

대야동(둔대)의 둔터마을 동북쪽에 있는 높이 268m의 산이다. 천지개벽 때 이 산이 반월저수지 동남쪽에 있는 테미산 자리에 앉으려고 하였는데, 테미산이 먼저 앉았으므로 울면서 이곳에 앉아서 우래산이라 부른다고 한다.¹⁰¹⁾ 이 산을 둔터에서는 안산이라 하고, 속담에서는 우래산이라 부른다고 한다.¹⁰²⁾ 경기도 발행 「지명유래집」(428쪽)에는 옛날 고구려가 남산평(안산시 팔곡동)에 도움을 청하려 하였는데 테미산이 먼저 자리를 잡아서 이 산이 울면서 밀려와 앉았으므로 도움지로 부적합해져서 취소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산이 9개 봉우리로 되어 있고, 그 중 3개소의 명당이 있다고 한다. 참고로 군포 1등에도 우래산(雨來山)이 있다. (군포의 산 참조).

□ 유곡(柳谷)

대야동(도마교)에 있는 자연부락으로서 그전에 버드나무가 많아 선비들이 풍류를 즐겼던 곳이라고 한다.¹⁰³⁾ 참고로 '유(柳)'는 수양버들이고, '양(楊)'은 메버들 또는 갯버들을 뜻하는데, '버들'이 들어가는 지명은 매우 많다.

□ 응천약수터

대야동의 산 1-39번지에 있는 약수터로서 1996년도에 약수터로 개발된 곳이다.

101)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경기편 하, 1986, 486쪽.

102) 김광영 (남, 77세 : 대야동 둔터마을)의 2인.

103) 경기도, 『지명유래집』, 1987, 377쪽.



우래산

□ 이영진들

대야동(도마교)의 큰 말 남쪽 한국전력 사택을 포함한 그 일대의 들이다. 동골매골, 여명미골, 보수간골 등의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이 들로 남류한다고 한다. 이영은 짚이나 풀 따위를 엮어서 지붕이나 담을 덮는 것을 말하는데, 이 들판을 '이영진들'이라고 부르는 내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작은 봉수골

대야동(숙담)의 갈치저수지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관서관을 중심으로 북쪽은 큰 봉수골, 아래는 작은 봉수골이라 한다. 옛날 봉수대가 있었던 곳은 대개 '봉우계' 또는 '봉우터'로 불리었는데, 이곳은 '봉수'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다.

□ 잿개매골

대야동(숙담)의 남다골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반월천의 동쪽 일대를 잿개매골이라 한다. 서쪽 골짜기인 개매골과 관련된 이름으로서 '개매'는 물가의 산(반월천)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둔터마을의 뒤가 되며 작은 개매골>작개매골>갯(잿)개매골로 부르게 된 것 같다.

□ 절골

대야동(속단)의 남다골 북쪽 골짜기이다. 바람개비골의 북쪽의 골짜기로서 그전에 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시기와 절의 이름은 알 수 없다.

□ 점성(占星, 첨성 : 瞻星)고개

대야동(둔대)의 둔터마을에서 서남쪽의 안산시 팔곡동 일대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서해안고속도로 팔곡터널 남쪽으로 넘어가는데, 안산시 팔곡동 점성마을과 안산중앙병원 부근으로 통하던 고개이다.

점성은 원래 첨성리(瞻星里)로서 조선후기의 대학자이자 실학사상가였던 성호(星湖) 이익(李瀾 : 1681-1763)이 살았던 곳이다. 그는 유흥원의 실학사상을 수용하여 계승하고, 천문·지리·의학 등에 두루 능통하였으며, 이곳에서 『성호사설』 등의 많은 저술을 남겼다. 그의 ‘성호(星湖)’라는 이름도 이곳 첨성리에서 비롯되었는데 뒤에 첨성리가 점성리로 바뀌었다.¹⁰⁴⁾ ‘첨성(瞻星)’이란 “별을 쳐다본다” “별을 바라본다”는 뜻으로서 그가 이곳에서 천문과 지리를 연구하면서 하늘의 별을 살펴본 탓 때문이다. 그의 묘소는 인근의 능골마을이고, 성호가 학문에 전념하던 곳이 이곳 점성 마을로서



점성고개(철담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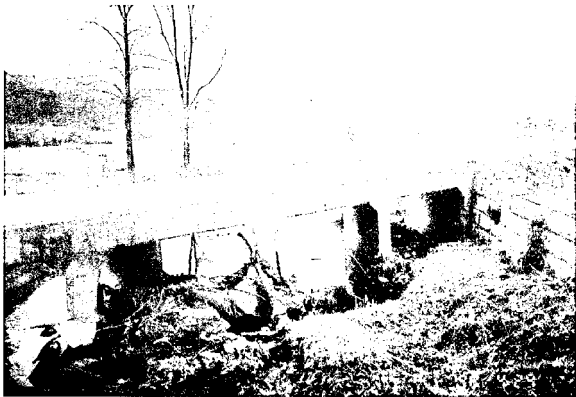
조선 후기 실학사상 기억되어야 할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점성(占星)'이라는 이름은 별의 모양이나 밝기, 그 위치 등을 보아서 개인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일을 말하는데, 첨성이 점성으로 바뀌게 된 경위는 확실하지 않다. 이 고개는 그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로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지명이라고 할 수 있다.

□ 정난종(鄭蘭宗) 선생 묘역 및 신도비

대야동(속담)의 수리산 남쪽 기슭, 속담동 산 3번지에 위치한다. 정난종(1433~1489)선생은 세조 때의 공신으로 성리학에 밝았고, 금석문에도 그의 편적이 많이 남아있다. 이곳은 조선조 사대부가의 묘역으로 잘 보존되어 있고, 고고미술사, 금석문, 묘제 등의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또 속담마을에는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 95호로 지정된 동래 정씨 동래군과 종가(宗家)가 보존되어있다.

□ 정장들

대야동(속담)의 속담마을 앞 갈치저수지가 들어선 곳이다. 작은 봉수굴, 큰 봉수굴, 속담천 등의 물이 흘러드는 곳이다. '정장들'의 내력은 확인할 수 없으나 정장들 서쪽 판서굴의 정판서로 인하여



죽림천

104) 시흥군, 『시흥군지』 상, 1988, 225~229쪽.

붙여진 이름이거나 정난중 선생 묘역으로 인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볼 수 있다.

□ 죽암천(竹岩川)

대야동의 둔대초등학교 앞을 지나 서쪽의 반월천으로 흐르는 내이다. 대감-대암-죽암은 복개마을 동쪽에 있는 마을로서 대=죽(竹)의 혼차 표기로 본다. 그러나 하천의 명칭은 『군포시 행정지도』에 대감천, 죽암천이 각각 별개의 하천으로 표시되어 있다.

□ 지방바위골

대야동(둔대)의 둔터 서북쪽 골짜기이다. 시해안고속도로 순산터널이 시작되는 남쪽 입구가 된다. '지방바위'가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 접예골

대야동(둔대)의 점성고개 북쪽 골짜기이다. 시해안고속도로 팔곡터널의 북쪽 출구 부근이 된다. 둔터마을 서쪽이 되는데 명칭의 유래는 확인할 수 없다.

□ 큰 말 : 대촌(大村)

대야동(도마교)의 송정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그전 도마교리의 원 마을이 되며, 가장 큰 마을이다. 한국전력 사택의 북쪽 마을이다.

□ 큰 봉수골

대야동(속담)의 감치계수지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판서골의 남쪽을 작은 봉수골, 판서골의 위쪽을 큰 봉수골이라 한다. '봉수'는 옛날의 통신수단인 봉수대를 뜻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105)

□ 테미산

대야동(둔대)의 반원지수지 계방 동쪽 끝에 있는 높이 158.2m의 산이다. 산 정상은 안산시의 군포시 경계가 된다. 둔터마을 동북쪽의 우회산이 이 산 때문에 북쪽으로 밀려나서 테미산 남쪽 남산평이 서울이 되지 못했다는 전설이 있다. (우회산 참조) '테미'는 대개 산 위에 성터가 있는 경우에 붙여지는 이름으로서 '테를 두른 뫼'라는 뜻에서 테미산이라 한다. '테'는 테두리를 말하며, 나무의 나이테, 장터의 터와 동근어가 되며 '위(圍)'의 뜻을 지닌 말이다. 106) (군포의 산 참조).

105) 옛날 봉수대가 있었던 곳은 대개 '봉우재' 혹은 '봉우터'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106)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경기편 하, 1986, 486쪽.



테마산



관서관

□ 판서골(判書洞)

대야동(속단)의 갈치저수지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정판서가 살았던 곳이라고 하며¹⁰⁷⁾, 속달마을의 정난중 묘소와 신도비 등이 있어서 쉽게 수궁할 수 있다. 판서는 조선시대 6조(六曹)의 장관으로 정경(正卿)이라고도 하는 정2품 벼슬을 말한다.

□ 팔곡(八谷)터널

대야동(둔대)의 서남쪽 서해안고속도로가 수리산 줄기를 지나는 터널이다. ‘팔곡’은 그전 수원(화성)군 반월면(지금 안산시 팔곡동) 팔곡리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 ‘여덟마’라는 산 이름에서 비롯되었다¹⁰⁸⁾는 설과 마을이 8개의 골짜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설¹⁰⁹⁾이 있다.

□ 해주촌(海州村)

대야동(둔대)의 둔터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반월저수지의 물가 마을이 되며, 해주는 황해도의 해주를 말한다. 북한의 해주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¹¹⁰⁾



해주촌

- 107) 정진호 (남, 70세, 속달동 169, 판서관) 증언.
108) 수원시, 『수원시사』(중), 1997, 732쪽.
109) 경기도, 『지명유래집』, 1987, 378쪽.
110) 경용학(남, 76세, 속단동 해주촌 거주) 증언.

□ 행갈곡

대야동(대야미)의 김만기 선생 묘역과 그 동쪽 일대의 골짜기를 말한다. 능내터년의 남쪽 골짜기이다.

□ 행강들

대야동(대야미)의 갈티마을 동쪽 골짜기이다. 수도권 전철 안산선이 지나는 대야미 역사 일대의 들판으로서 '행갈골'과 관련된 이름으로 보이나 내력을 확인할 수 없다.

□ 활터 : 수리정(修理亭)

대야동(숙달)의 남다골 마을 동쪽에 있는 활쏘기 장소이다. 수리정이라는 정자와 함께 활을 쓰는 곳으로 조성되었다.



활터(수리정)

제3장 씨족의 역사

1. 성씨 개요

성씨(姓氏)란 일정한 인물을 시조로 하여 대대로 이어내려오는 단계현연집단(單系血緣集團 unilineal kin group=lineage)의 한 명칭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씨는 한자의 표기이며 이름 앞에 붙어 가계(族系)를 나타내는 동계혈연집단(同系血緣集團)의 명칭을 가리키고 이는 바로 중국식 출자율(出自律 descent rule)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씨가 사용된 때부터는 적어도 단계출자체계(單系出自體系 unilineal descent system) 중에서도 부계적(父系的) 출자(出自)를 진제로 하는 것이며, 동시에 부계출자체계나 집단(partrilineal descent system or group)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처음에 중국에서는 성은 여자가, 씨는 남자가 칭하는 것으로서 역시 성과 씨가 분리되어 사용되다가 진대(秦代) 이후로 씨=성이 되어 남자도 성을 칭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체로 동일한 의미로 쓰이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다.¹⁾

1) 삼국이전의 성씨

『사기(史記)』, 『조선전(朝鮮傳)』에는 ‘朝鮮相路人相韓陰尼谿相參將軍王峽’이라 하여 로인, 한음, 왕협은 로(路)·한(韓)·왕(王) 등의 성을 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삼(參)은 조선과는 지역이 다른 니계(尼谿)의 상(相)이고 성을 갖고 있지 않다. 위씨조선은 왕인 위씨를 중핵으로 하여, 로(路)·한(韓)·왕(王) 등의 성을 가진 중국계의 유력자군 상이나 장군으로 결집한 지배층과 영내 각지의 토착유력자를 흡수하여 구성된 연합국가로 알려져 있다.

1) 李純根, 『新羅時代 姓氏取得과 그 意味』, 『韓國史論』6,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0.

이상의 삼국 이전의 성씨는 기원전 2세기, 위씨조선의 성립기부터 낙랑·대방 군현시대를 거쳐 조선 북서부를 중심으로 4세기경까지 탁월한 세력을 과시한 왕·한 양씨를 비롯하여 17개 정도의 성씨가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신구 몇 번에 걸쳐 동쪽으로 이동해 온 중국계 씨족의 관칭(冠稱)이며, 그들이 토착호족이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다.²⁾

그러나 이와같은 설명은 조선 삼국의 왕이 중국으로부터 책봉을 받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성명을 칭한 시기를 우리나라에서 칭성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이전의 칭성은 모두 중국계로 간주하는 것이다. 칭성 자체가 중국의 영향이지만 그 이전에 칭성한 자를 모두 중국계로 간주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없지 않다.

2) 삼국의 성씨

(1) 고구려의 성씨³⁾

『삼국사기』, 『삼국유사』 및 중국사서에 나타난 고구려 성씨로 왕성 고씨(高氏)를 비롯하여 을(乙), 예(禮), 송(松), 목(穆), 우(于), 주(周), 마(馬), 손(孫), 동(董), 예(芮), 연(淵), 명림(明臨), 을지(乙支) 등 약 20여종이 보인다. 고구려 왕족의 성이 고성이라는 것은 413년에 고구려왕인 장수왕이 고련(高麗)을 자칭하여 진(晋)에 사절을 보냈다는 것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그 이래 역대 제왕은 모두 고성을 칭하며 중국과 통하였던 것이다. 국성(國姓) 고가 처음으로 기록에 등장하는 시기는 5세기 초경으로 알려지지만, 4세기 이전으로 소급할 가능성도 있다. 또 하나의 국성인 ‘해(解)’를 칭한 인물들 보면 소수림왕을 제외하고 모두 제5대 모본왕보다 이전의 국왕에 속하고, 또한 멀리 북부여왕까지 소급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5세기 초의 고씨의 등장과 동시에 각종 姓이 중국 사서에 나타난다. 그 중에는 이름의 일부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중국에 간 사절로서 고·마·동·안(安)·예(餘)·예·강(江)의 성씨가 보이고, 장군으로서 손·고·갈(葛)·맹(孟)·을지·온(溫)씨가 등장한다. 또한 권신으로서 유명한 천(泉 : 淵)씨도 보인다.

이들 성은 거의 중국식의 단성이며, 혹은 직접적으로 중국성에서 유래하는 것도 있을 것이며, 이 중에서 고·손·맹은 고조선, 낙랑의 성과 공통되기도 한다. 이것은 고구려가 다름 아닌 그 고도를 흡수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427년의 평양천도는 국가의 성립기만을 한층 굳히고 중국계 집단이 고구려 왕권 아래에

2) 武田幸男, 『朝鮮の姓氏』, 『東アアジアにおける社會と習俗』日本古代史講座 第10卷, 學生社, 1984.

3) 위와 같음.

흡수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때문에 계보나 계승의 문제와는 달리 위의 여러 성을 고구려의 성씨로 간주하고 있다. 고구려는 각 성을 붙인 다수의 유력한 족장집단을 조직하고, 그들은 국제교섭이나 군사활동에 활약하고 있었던 것이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4세기 이전에 속하고, 중국사서에 보이는 위의 성씨와는 전혀 합치되지 않는 각종의 姓氏가 전하는데, 예를 들면 국(克)·중실(仲室)·소실(少室)·위(位)·위(尉)·부정(負鼎)·락(絡)·대실(大室) 등의 사성(賜姓)과 예·송·우·안(安)이 왕비성으로 되어 있다. 북성인 을지, 『일본서기』의 이리(伊梨)·도수류(都須流)·현무(玄武), 고구려중원비(高句麗中原碑)에 다해(多兮) 등의 북성은 중국북성의 차용이라기 보다는 거의가 러어(麗語)를 북성의 한자로 옮긴 것이며 그 때문에 원래 토착적이며 거기에 고유성이 확인된다.

따라서 고구려사회의 기저에는 중국식의 단성보다도 토착적인 북성이 많이 쓰였던 것은 아닐까 추측된다. 굳이 단성히 말하면 중국을 의식한 경우에는 중국식의 단성,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토착적인 북성을 쓰고 있었던 것 같다. 동일인이면서 중국사료에 단성으로 ‘친개소문(泉蓋蘇文)’이라 하면서, 일본사료에 북성으로 ‘이리가수미’라고 하는 것은 그 좋은 예일 것이다.

(2) 백제의 성씨

백제의 성씨로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및 중국사서에 왕성 여(餘, 또는 扶餘)씨를 비롯하여 사(沙), 연(燕), 해(解), 목(木), 힘(勿), 진(眞), 국(國), 백(白) 등 8대 족성과 이외에 장(張), 목(沐), 미(糜), 저(祖), 우(于), 고(高), 양(楊), 회(會), 천(贊), 왕(王), 진(陳), 사마(司馬), 수미(首彌), 고미(古彌), 흑차(黑戩) 등의 성씨가 보인다. 또한 삼국통일 직후 백제계의 것으로 보이는 불상들의 명문에 전씨(全氏), 조씨(趙氏), 정씨(鄭氏) 등의 인명이 나왔고 그것은 출토된 지역이나 양식으로 보아 백제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⁴⁾

『수서』 백제전에는 ‘국중의 대성으로 관족의 사·연·힘·해·정·국·목·묘씨가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 진성(眞姓)은 『수서』에 정(貞)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지만 진묘(眞慕)·진묘(眞牟)·저미·사미 등의 북성으로도 표기되어 있다. 해성(解姓)은 국성 혹은 왕족에 가까운 대족의 성이며, 북성 ‘비리(鼻利)’는 해(解)의 훈일 것이다. 연성(燕姓)은 북성 연비(燕比)에 상당한다는 지적은 옳다. 이 중에서 고구려의 ‘해(解)’ 성과 달리 백제의 해성은 5세기초부터 확인할 수 있다.

사성(沙姓)은 해당 시기(475~538) 이후도 유능한 인물을 배출하며 크게 활약한 씨족이었다. 8대성의 필두를 차지한 이유도 이 이후의 사씨의 세력을 반영한 것일 것이다. 이것은 사(斯)·조(助)·수

4) 武田幸男, 「朝鮮の姓氏」, 『東アシアにおける社會と習俗』 참조.

5) 李純根, 「新羅時代 姓氏取得과 그 意味」, 『韓國史論』6,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0.

(首) 등의 단성으로 표기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 책에 보이는 복성인 사택(沙宅)·사탁의 약칭인 것은 확실하며 목성(木姓)은 목(沐)으로도 쓰였고 복성 목라(木羅)·목도를 단성화한 것이었다. 여러 문헌에 하나의 예도 보이지 않는 험은 도의 잘못된 이름 국성도 해당 시기(538-671)에 한정되어 있었고 국도를 의미하는 주리(州利)·좌루(佐魯)·전리(全羅)·사비 등이 이것에 대응하는 것이었을까.

위의 백제의 성씨는 『수서』의 대성, 대족이 장기간의 변천과정을 전제로 하면서도 사비시대(538-671)에 이르러 성립된 것으로 생각되며 전하는 대성의 수가 8이 아니고 7이라는 점이 의문이다. 또한 좌부와 관련된 위의 성씨 외에 다수의 성씨가 기록에 남아 있는데 고(高)·왕(王)·장(張)·빙(憑)·양(楊)·회(會)·진(陳)·허(許)·단(段)·마(馬) 등은 중국계 인사(人士)의 존재일 가능성이 높으며, 일본계로는 과야(科野)·물부(物部) 백제적인 고이(古爾)·재로(再魯)·흑취(黑醜)·동성(東城)·문휴(汶休)·곡나(谷那)·답채(答載)·억례(億禮) 등의 성씨를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래의 주장은 백제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성씨를 토착이 아닌 외래계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백제 성씨의 특색은 복수의 상호 대응하는 단성과 복성이 있고, 이어서 다종다양한 성이 쓰여지고 있었다. 고구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왕도 오부를 중심으로 하는 유력계급에 머물렀다고 생각되는 점이 중요하다.

(3) 신라의 성씨

신라 성씨는 『북제서(北齊書)』 하청4년(565) 2월 갑인조에 ‘조칙을 내려 신라국왕 김진흥(金眞興)으로써 사지컬·동이교위·낙랑군공·신라왕으로 삼다’라는 중국측 기록에서 처음으로 ‘김진흥’의 성명이 쓰여져 있는 것이 처음으로 알려져 있다. 신라의 국성은 6세기 중엽 중국과의 교류과정에서 비로서 김성을 칭하였다.⁶⁾

그러나 삼국의 성씨의 시작을 왕성이 처음으로 중국 사서에 등장하는 것으로 잡고 여타 인물의 경우나 삼국사기 등에 등장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성이라는 자체가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여타 인물의 경우에도 중국과 관련되거나 동이전 등에 성씨가 확인되는 것은 고려해야 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예를 중국계 인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인 듯하다.

6) 武田幸男, 『朝鮮の姓氏』, 『東アシアにおける社會と習俗』日本古代史講座 第10卷, 學生社, 1984.

3) 남북국시대의 성씨

(1) 발해의 성씨)

고구려가 멸망 한 뒤 그곳에 거주하던 주민을 중심으로 건국된 발해의 성씨에 대해서는 남송(南宋)의 홍호(洪皓)가 지은 『송막기문(松漠紀聞)』에 “그 왕은 지난날 ‘대(大)’로서 성을 삼았고, 유력성씨로는 고(高)·장(張)·양(楊)·두(賈)·오(烏)·이(李)의 불과 몇 종에 지나지 않았다. 부곡이나 노비와 같이 성이 없는 자는 모두 그 주인을 따랐다”는 기록이 있다. 『송막기문』의 기록은 성이 있고 없음을 기준으로 한 신분제의 존재를 시사하는 것이며, 나아가 7세기 말에서 10세기 초엽에 걸쳐 성씨를 가졌던 사람들은 발해사회에서도 비교적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기록에서 평민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이들이 성이 없는 부류이나, 부곡이나 노비와 같이 주인에 예속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발해사와 관련되어 시기상으로 698년 발해건국으로부터 938년까지의 240여년간에 활동한 인물중 성씨를 알 수 있는 사람을 문헌상에서 수합한 결과 15명의 ㅈ을 포함하여 240여명의 발해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이 가진 성씨는 아래의 62개 성씨로서 2명 이상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20여개 성씨에 이른다.

高·公·金·多·達·大·德·馬·慕·冒·木·卯·門·味·朴·旁·
裴·舍·史·薩·尙·釋·孫·成·受·愼·申·辛·失·阿·安·謁·
楊·藤·茹·呂·列·烏·吳·王·衛·劉·聿·隱·李·已·壹·任·
張·正·趙·朱·周·智·陳·晉·蔥·崔·馮·賈·海·洪

발해 성씨들은 종래 발해의 민족적 귀속에 관한 논거의 하나로서 중국학계에서는 가능한 말갈(靺鞨) 성씨나 중국 성씨와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북한학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고구려(高句麗) 성씨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피상적인 선입관에서 나온 것으로서 별다른 근거를 제시한 주장은 아니었다. 결국 종래의 견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고구려나 당시 주변민족의 성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발해는 건국과정부터 고구려유민과 말갈민이 협력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멸망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므로 발해의 성씨를 고구려계와 말갈계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민족의 성씨에 어떠한

7) 임상선, 『발해의 지배세력 연구』, 신서원, 1999.

것이 있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구려와 말갈계를 성씨만으로 분류하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지만 유성자(有姓者) 집단이 차지하는 사회적 지위와 함께 발해사회의 종족적 구성을 감안할 때 말갈계가 아닌 인물을 고구려계로 분류해도 큰 잘못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고구려계인 경우라도 말갈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문화적인 우위로 인하여 성씨를 소유한 인물이 많았고 성씨 자체가 중국적인 소산인 이유로 하여 이들 유성인(有姓人)을 다시 중국계와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그러나 발해전국에 중국계 인물의 참여가 미미한 실정을 감안하면 이러한 접근방법도 발해성씨의 연원을 구명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각 성씨의 연원을 추정해 보면 고구려계 성씨로는 ‘고·이·왕·장·양·마·하·배·조’ 등을 들 수가 있고 ‘실·아·주·오·비·율·공·섭·이·북·모·이·지·샤’씨는 말갈계 성씨)로 분류할 수 있다. 이밖에 ‘박(朴)’씨와 같이 신라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성씨도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러한 성씨를 통하여 양국간의 교섭을 살필 수 있는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통일신라의 성씨)

AD 565년의 김진홍 책봉기사가 한자 성씨를 쓰기 시작한 해한이 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사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경우 그 이전 몇몇 성씨로 보이는 인명이 있다고 하나 적어도 진흥왕 이전의 것은 계보론 따라 소급하여 기술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박(朴), 석(昔) 양성은 김(金) 성과 더불어 혹은 뒤이은 시기 즉 6세기 중엽 및 후반 무렵에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다.

통일과정과 그 이후(분문왕-신문왕)을 보던 김, 박 성 이외에 살(薛), 장(鄭), 손(孫), 최(崔), 전(全), 수(水)의 예가 나타난다. 전씨의 경우는 불상의 명문으로 673년경의 것으로 파악된다. 이 불상은 백제계의 것으로 보이므로 전씨 역시 백제성으로 추정된다. 수씨는 웅주(熊州) 지역의 경흥법사(憬興法師)의 성씨로 기록되어 백제계의 성씨일 것이다. 백제성은 신라에 의해 정복된 후 성씨소유집단으로서의 의미·특히 특권향유계층의 집단이라는 점에서 이를 상실하게 되었을 것이다.

설, 정, 손, 최 이외의 6부성 중 배(裴)씨로는 720년 성덕왕대에 배부(裴賦, 대야찬(신라본기 성덕왕 19년), 이씨로는 경덕왕 22년(763)의 이순(李純, 대내마(신라본기 경덕왕 22년), 이준(李俊, 『삼

8) 阿氏와 木氏는 고려 전기에 귀화한 인물중 女眞系 인물의 성씨에서만 확인되는 사실도 이들 성씨가 말갈계임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朴玉杰, 『高麗時代의 歸化人研究』(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참조).

9) 李紇根, 『新羅時代 姓氏取得과 그 意味』, 『韓國史論』6,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0.

국유사, 궤은 산흥패관조) 등이 뒤이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6부성이 일정한 시점에서가 아니라 시기에 따라 순차적인 과정 속에서 형성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이 6부성의 취득현상이 통일과정 및 통일직후에 나타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박, 석, 김 3성, 신김씨(가야계) 및 6부성 이외의 성씨로서 통일 후-경덕왕대까지 약 100년간의 기타성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일본서기』 지봉 원년조에 보이는 소양신(蘇陽信)이 유일하다. 동서 천 무 7년의 가랑정산(加良井山), 동 8년 2월 감물나(甘勿那), 동 8년 10월 살루생, 동 9년 5월 고나(考那) 등이 있으나 이것은 고유명이거나 성씨라도 겨우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해공왕대에 고(高), 오(姚) 등이 보이고, 애장왕대의 유석(劉碩), 헌덕왕대에 장웅(張雄) 등의 새로운 성들이 보이며 민에왕대의 장승(張升), 장건영(張建榮), 장보고(張保古), 정년(鄭年), 경문왕대의 요극일(姚克一) 등 태공왕 이후 약 100년간에는 약간의 보다 구체적인 변동과 성씨의 다양성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밖에 양(楊), 양(梁), 소(蘇), 임(林), 왕(王), 신(申), 윤(尹), 원(元), 모(毛), 종(宗), 백(白), 해(許), 민(閔), 홍(洪), 강(康) 등이 보이고 이런 현상은 말기로 갈수록 가중됨을 가리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씨의 취득은 왕성 김씨로부터 비롯하여 박, 석, 신김씨, 6부성 등 양식에 따른 구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시간적 순서와 관련되면서 그 사회적 의미와 더불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도 보이는 것처럼 중국문화의 충격과 더불어 중국성에 관한 인식이 생기고 성씨를 사용하기 시작했다해도 갑자기 모든 집단 모든 인물에 적용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석문, 사기, 유사 등의 기록을 보아도 특별히 성씨를 기록하는 경우나 인물은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혹은 명확하지 않는 경우 등은 모두 명(名) 혹은 작호(爵號) 등으로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물론 성씨가 기록된 인물의 경우도 여러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나 성씨가 사용되기 시작한 후의 인물로서 적어도 그 인물이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즉 중국과의 왕래 내지는 중국과 간접적인 접촉이 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성씨를 사용한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들을 몇 유형으로 분류해 보면,

- (1) 중국에 대한 사신의 경우(김춘추 등)
- (2)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인물의 경우
 - ① 나당류학생 및 숙위사자(이동, 최치원 등)
 - ② 불가의 승려로 중국에 유학한 경우
 - ③ 중국에 건너가 살던 일반 거주인(장보고, 정년)

(3) 중국과의 관련이 예상되는 경우

- ① 중국문물(유교 및 한자문화)에 이해가 깊은 인물(박도유, 김유교, 요극일, 왕거인 등)
- ② 기술적으로 중국과 관련이 예상되는 인물(황진지). 성씨는 적어도 나대에 있어서는 사회체제로서의 계급으로까지서는 몰라도 '특권을 향유할 수 있었던 집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양국의 고유성 혹은 중국식 성씨는 통일신라에 들어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통일 후에 이들 성족(氏族)은 신라의 지배하에 편제되면서 성씨의 사용을 하지 못했거나 적어도 정치적로나 사회적인 특권이 주어지는 부분에 한해서는 통제되었음이 분명하다. 혹은 고구려명명지배족인 안승(安勝)과 같이 사성(賜姓)을 하여 중앙으로 편제하여 버리거나 지방관 등에 의해 피지배족으로 전락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역으로 살펴보면 백제인의 성씨가 통일직후 역사의 무대에서 일단 중단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그 당시 성씨소유집단이 적어도 정치적 사회적 특권을 향유할 수 있었던 집단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성씨취득의 일반화에 따라서 이렇듯 통한 특권향유의 현상은 점차 소멸해 갈 것이다. 그러나 성씨취득의 특권향유층으로서의 의미는 적어도 나말까지에 한해서는 의미있다고 볼 수 있다.

4) 고려의 성씨¹⁰⁾

후삼국시대로 접어들면서 지배계층인 호족은 사성·모성·자칭성 등의 수단을 통하여 성씨를 취득하게 되었다. 통일신라의 군현 조직체제와 후삼국시대 호족의 군현 지배기구를 이어받은 태조 왕건은 후삼국 통일 사업을 완수한 다음 전국 군현의 개편작업과 함께 전국 군현별로 각기 토성을 분정(分定)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성씨체계가 비로소 확립되었다. 이를 계기로 성씨가 귀족·관료에서 점차 양민층으로 확대되어갔으며 친민층의 양민화에 따라 성씨를 새로 취득한 계층이 후대에 올수록 늘어갔다.

한성화 그 자체가 중국 성씨제도의 모방인 이상 고려왕조의 전국적 성씨 분정책도 중국의 성족분정, 씨족지·성씨록의 편찬·반포 및 '천하군망표(天下郡望表)'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15세기 초를 기준하여 우리의 성씨가 총망라된 『세종실록』 지리지 소재 성자후 당대(唐代)의 '군망표' 소재 성자와 대비해 보면 전자는 대부분 중국의 유명성자를 모방한 것이며 후자에 없는 것은 박씨 등 16성(朴·沈·河·玉·明·俊·昔·諸·益·森·邦·芳·價·勝·濯·承氏)에 불과하다.

물론, 우리의 성씨가 모두 중국의 것만을 모방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다. 박·석·김씨와 같은 신라의 종성은 본디 신라에서 출자한 것이며 후삼국시대 이래 호족들의 중국식 성으로 되어가는

10) 디지털 한국학(<http://www.koreandb.net>).

과정에서 스스로 성씨를 호칭해 놓고 보니 우연히 중국의 성자와 동일한 것도 많았던 것이다.

이밖에도 성의 분화과정에서 성만으로는 동족을 구별할 수가 없으므로 조상의 출신지 또는 씨족의 거주지를 성 앞에 붙여서 사용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본관이 곧 신분의 표시이기도 하였으므로 주로 지배층에 사용되었다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성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신분질서의 유지와 효과적인 세금 징수나 조역의 필요상 일반주민에게까지도 호적에 본관을 기재하게 되었다.

그래서 호적제도가 정비된 고려시대부터는 성이 없는 천민층도 본관을 호적에 기입했던 것이다. 성의 분화와 같이 본관도 후대에 내려올수록 분관·분적이 늘어 시조의 발상지 외에 봉군지(封君地)·사관지(賜貫地) 또는 그 후손의 일파가 이주한 곳이 새 본관이 되었다.

우리의 본관체계가 최초로 확정된 시기는 고려 초기이며 그때부터 15세기 초까지 본관의 구체적인 모습이 담긴 기본자료는 『세종실록』 지리지 성씨조이다. 성씨체계가 확립된 고려 초기부터 15세기 지리지가 편찬될 때까지 모든 성은 본관별로 구분되어 있었다. 즉, 주·부·군·현·진·촌 및 향·소·부곡·처·장·역·수 등 시조의 출신지나 주민의 거주지별로 각기 본관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조선 초기 신분제도의 재편성과 행정구획의 개편에 따라 현 이상의 군현읍 본관으로 한 것만 남고 진·촌·향·소·부곡 등 일내와 특수지역을 본관으로 한 것은 그 구역의 직촌화와 함께 대부분 소멸되었다.

5) 조선시대의 성씨¹¹⁾

고려초에 확립된 성씨체계는 15세기 초까지 끊임없이 분관·분과 등 성의 분화와 발전이 계속되었다. 조선왕조의 성립과 함께 성씨체계도 다시 정비되었다.

우리 성씨의 수는 문헌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적인 성씨 관계자료인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전체 250여성 가운테 이미 소멸된 망성이 포함되어 있다. 1486년(성종 17)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는 세종 이후에 귀화한 성과 『세종실록』 지리지 소제 성씨(망성 포함)를 모두 수록한 결과 277성이나 포함되어 있다. 영조 때 이의현(李宜顯)이 편찬한 『도곡총설(陶谷叢說)』에는 298성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고종 때 발간한 『증보문헌비고』에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존재했던 고문헌에 있는 것을 거의 망라하였기 때문에 무려 496성이나 수록되었다. 여기에 한성화 이전의 고유명자(固有名字)와 이미 소멸된 역대의 망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후대까지 존속된 성의 숫자는 15세기 지리지 소제 성수대로 대략 250성 내외였다.

성씨가 보급된 뒤에도 무성층으로 남아 있던 공사노비·화척(禾尺), 향·소·부곡민, 역·진민

11) 디지털 한국학(<http://www.koreandb.net>).

등 천민층은 10세기 이래 조선시대까지 개별적인 신분해방과 신분상승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성씨를 획득해 갔지만 그들에게 성씨가 획기적으로 보급된 시기는 조선 후기였다. 조선 전기(15, 16세기)까지만 해도 노비를 비롯한 천민층이 전체 국민 가운데 대략 절반을 차지하였으므로 무성층이 그만큼 많았다. 그렇게 많았던 천민층이 16세기말부터 시대적·사회적 변동에 따라 신분해방과 함께 새로 성을 가지게 된 계층이 격층해 갔다.

특히 1894년 갑오경장을 계기로 종래의 신분·계급이 타파된 것은 성의 대중화를 촉진시켰으며 1909년 새 민지법(民籍法)이 시행되면서부터 누구나가 다 성과 본을 가지게끔 법제화되었다. 무성인이 상당수 있었는데 이때를 기하여 새 성을 갖게 되자 갖가지 회화극이 벌어졌다고 한다.

사례 1

성이 없는 사람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호적서거나 경찰이 마음대로 성을 지어주었다.

사례 2

노비의 경우는 상전의 성을 따랐다.

사례 3

김·이·박씨가 많은 데서 그러한 대성을 모방하여 성을 정하였다. 이 때문에 증진의 대성명문들은 그 수가 더욱 늘어갔다. 가령, 전주에서 출생한 사람은 이씨, 경주지방 출신은 김씨나 최씨 하는 식으로 출신지의 대성이나 분벌을 본떠서 자기 성을 삼은 경우가 많았다.

사례 4.

오늘날의 회성·벽관 가운데 당시 경찰이 호구조사를 할 때나 호적담당 서기가 호적을 기재하면서 한자의 획을 잘못 적은 데서 비롯된 것도 적지 않다.

한편 조선시대 양반사회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대성과 명문들의 본관은 우월시되고 무명의 벽관은 회성·벽성과 함께 천시되는 관념이 만연되어 갔다. 그래서 기성 사족이 된 본관은 그 성씨가 계속 증가해 간 반면, 관인이나 현조를 내지 못한 본관은 그 본관을 바꾸는 추세에 있었다. 이를테면 조선 전기에는 본관 수가 수십이 넘던 성 가운데 조(曹)는 장녕 조씨, 헌(韓)은 청주 한씨, 삼(沈)은 침송 삼씨, 문(文)은 남평 문씨 하는 식으로 본관의 개변이 많았다.

우리의 성씨는 16세기부터 성을 바꾸는 행위는 극히 드문 반면 본관을 개변하는 경우는 많았다. 왜냐하면 성보다는 본관에 따라 성씨의 우열과 가격(家格)에 차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 행정실무를 장악하고 있던 군현 향리의 사족화에 따라 본관의 개변이 자행되었고 왜란·호란 후

모화사상의 영향을 받아 주(朱)씨는 신안(新安), 공씨는 곡부(曲阜), 천씨는 영양(潁陽)으로 바꾸는 예가 있었다.

6) 일제시대의 성씨¹²⁾

국민 모두가 성과 본관을 가지게 된 시기는 신분과 계급제도가 타파된 한말에 와서 단행된 것이며, 그것이 일제의 식민통치과정에서 시행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 하겠다. 우리의 성씨사상 최대의 수난기는 무엇보다 일제 말기의 이른바 창씨개명이라 하겠다.

일제가 내선일체·황국신민화의 일환에서 우리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치도록 강요했던 창씨개명은 성이란 일생토록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관념이 철저한 우리 민족에게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웃지 못할 비극이 연출되었다.

그때 각 씨족 문중에서는 회의를 열어 창씨를 하면서도 우리 민족은 어떻게든 고유의 성이나 본관의 흔적을 남기려고 무척 애를 썼다.

사례 1

이기(李家), 김본(金本), 배정(裴井), 오산(吳山), 장전(張田) 하는 식으로 본성의 흔적을 남기고자 하였다.

사례 2

남양(南陽)·수원(水原)·경산(京山)·광산(光山) 하는 식으로 본관을 그대로 성으로 썼다.

사례 3

시조전설이나 연고지를 상징화하여 성으로 쓴 일도 많았다. 예컨대, 괴평윤씨의 경우 평소(平沼)라 하였는가 하면, 한산이씨는 본관에다 묵은(牧隱 李稿)의 자손임을 강조하여 묵산(牧山)이라 하였고, 청주한씨는 청주의 고호인 서원(西原)을 그대로 성으로 썼다.

이러한 일본식 창씨는 입부혼인(入夫婚媾)·서양자(庶養子) 제도과 함께 1939년만부터 실시되었다가 일제가 패망한 뒤 1946년 10월 23일 미군정의 조선성명복구령이 법령 제122호로 공포되자 창씨개명한 호적부 기재와 이에 배치되는 모든 법령·훈령 및 통칙은 그 창초일부터 무효가 되었다.

7) 현재의 성씨

우리 성씨에 대한 전체조사가 최초로 실시된 시기는 1930년도인데 이때 전국에 250성이 있음이

12) 디지털 한국학(<http://www.koreanlib.net>).

국세조사에서 밝혀졌다. 8·15광복 후 최초의 성씨조사는 1960년도 인구센서스의 부대조사로 실시되었는데 30년 전의 조사보다 8종이 많은 258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장부수립 이후의 조사는 북한지역이 제외된 남한만의 조사라는 데서 1930년도의 조사 결과와는 정확한 비교가 될 수 없다. 남북분단에 따른 대규모의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남북한의 성씨 구성에도 변동이 컸다. 남한지역에만 사는 성씨가 있는가 하면 북한에만 있는 성씨도 많다.

1985년 11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인구센서스를 실시하면서 성씨와 본관을 조사한 결과 1975년도의 247성에 비하여 25성이 새로 추가되어 272성에다 본관은 3, 435개로 나타났다. 이 때 나타난 인구 100명 미만의 희귀성씨 40여 개는 호적 기재 착오로 인한 경우와 고이혼신이 임적하거나 외국인의 귀화 때 생겨나는 등 최근에 만들어졌다. 이 조사에서 나타난 10대 성씨의 본관수를 보면 김씨가 285, 이씨 241, 박씨 128, 최씨 127, 정씨 122, 강씨 33, 조(趙)씨 56, 윤씨 44, 장(張)씨 63, 임(林)씨 60개로 각각 집계된다.¹³⁾

2. 군포의 주요 씨족

2000년 현재 군포시의 가구와 인구는 77,597가구, 262,593명이며 성씨는 228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인물 3 제외)¹⁴⁾ 이 가운데 인구 1명 성씨인 흥(興)씨 외 24개를 포함하여 인구 100명 이내의 소규모 성씨가 100개이다. 그리고 인구 1000명 이내는 용(龍)씨 외 53개가 있고 인구 1,001~2,000명인 성씨가 나(羅)씨 외 16개¹⁵⁾ 있다. 그리고 군포시 성씨 인구상 중간규모인 인구 2,001~3,000명 성씨가 손(孫)씨 외 5개¹⁶⁾, 인구 3,001~4,000명 성씨는 황(黃)씨 외 5개¹⁷⁾, 인구 4,001~5,000명의 성씨는 신(申)씨 외 4개¹⁸⁾, 그리고 인구 5,001~10,000명의 성씨는 장(張)씨 외 3개¹⁹⁾가 있다. 그리고 군포시에서 인구 1만명이 넘는 다수 인구를 점하고 있는 성씨는 5개가 있는데 정(鄭)씨(10,939명), 최(崔)씨(12,319명), 박(朴)씨(20,796명), 이(李)씨(40,389명), 그리고 김(金)씨가 54,748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군포의 주요 씨족의 가구 및 인구자료이다.

13) 이상은 디지털 한국학(<http://www.koreandb.net>).

14) 이하는 통계청 홈(<http://kosis.nso.go.kr>).

15) 민(閔), 구(具), 강(丁), 권(郭), 성(成), 임(任), 주(朱), 전(田), 유(兪), 노(盧), 남(南), 유(劉), 배(裴), 허(許), 심(沈), 조(曹).

16) 백(白), 양(梁), 문(文), 고(高), 전(全).

17) 홍(洪), 권(權), 서(徐), 안(安), 유(柳).

18) 오(吳), 송(宋), 임(林), 한(韓).

19) 강(姜), 윤(尹), 조(趙).

성씨	본관	가구수	인구수
곽(郭)		309	1,100
	원풍	205	743
권(權)		319	1,063
	능성	256	836
갈(葛)		16,218	54,748
	경주	3,186	10,664
	광산	1,454	4,986
	칭풍	198	725
문(文)		709	2,405
	남령	645	2,163
백(柏)		6,153	20,796
	반남	258	937
	죽산(죽주)	114	374
송(宋)		1,268	4,224
	여산	542	1,793
심(沈)		541	1,795
	칭송	481	1,585
안(安)		1,131	3,779
	순흥	875	2,882
양(梁)		681	2,278
	남민	415	1,409
이(李)		11,924	40,389
	전주	5,151	17,396
	취산	302	1,055
임(林)		1,383	4,684
	경매(경상)	414	1,405
쟁(鄭)		3,205	10,939
	동래	638	2,248
주(朱)		360	1,151
	산안	313	993
최(崔)		3,650	12,319
	경주	1,489	5,036
한(韓)		1,449	4,856
	침주	1,365	4,546
홍(洪)		1,019	3,437
	남양(당홍계)	762	2,613
	남양(포홍계)	74	255
참고	군포사	77,597	262,593
	경기도	2,671,580	8,937,752

<자료>

1. 이 자료는 통계청의 2000년 기준 '행정구역(구시군)/성씨·본관별 가구 및 인구' 통계 (<http://kosis.nso.go.kr>)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2. 수록된 성씨와 본관은 보고사에 수록된 것을 중심으로 하고, 그 이외에 각 성씨별 다수 본관을 2-3개 첨가하였다.

1) 현풍 박씨(玄風 郭氏)

박씨의 본관은 현풍, 청주, 선산, 해미, 봉산, 여미 등 6본이 있었으나 청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현풍에서 분적된 것으로서 현재는 현풍과 청주박씨 뿐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풍박씨의 시조는 중국 송나라에서 귀화한 광경(郭鏡)으로 전한다. 현풍박씨 세보에 의하면 그는 본래 관서지방의 홍농인(弘農人)으로 고려 때에 들어와 1138년 과거에 급제하고 문하시중평장사, 금자광록대부 등에 이르러 포산군에 봉해졌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본관을 포산(苞山)으로 하여오다가, 조선시대에 포산이 현풍현(玄豊縣)으로 개칭됨에 따라 관향을 현풍으로 하게 되었다.

현풍 박씨는 시조(始祖) 광경(郭鏡) 이래 고려 말까지 11세 전후에 걸쳐 개성(開城)을 중심으로 경기 일원에 흩어져 살았다. 그러다가 조선 초부터 종파(宗派)인 5세 광기정(郭基正)의 후손들은 중부(中部), 호남(湖南), 서북(西北)지역으로 세거지를 개척하였고, 차손(次孫)인 5세 광한정(郭漢正)의 후손들은 관향지(貫鄉地)인 현풍(玄風)을 중심으로 영남일대에 세거지를 확대함으로써 포산박씨(苞山郭氏)를 크게 기호계(畿湖系)와 영남계(嶺南系)로 나누게 되었다.

『병진대동보(丙辰大同譜)』에 나타난 현풍박씨의 구성을 보면 기호계 45파, 영남계 33파로 되어 있다. 기호계는 주로 경기도 이천, 파주, 시흥 황해도 장연, 전라도 임실의 주천, 정음, 영암, 무안, 충청도 금산, 보은, 청주, 경상도 봉화, 상주, 함천 등지에 세거하였으며 영남계는 경상도 현풍, 고령, 영천, 청도, 창녕, 창원, 남해(서면), 전라도 금산(남일면), 진도(근내면), 원주, 황해도 봉산(초와면), 평안도 용강(다미면) 등지에 세거하였다.

이 중에서 시흥이 오늘날 군포지역이므로 현풍박씨가 군포지역에 거주해온 것으로 보인다. 군포지역의 박씨 세거지는 군포시 부곡동 삼성마을이며 현재 30여호가 살고 있다고 한다.(박남현 증언) 그리고 군포시 부곡동 산 115에 조선 중기 부담인 광황(郭隍)을 비롯한 박씨 분종의 선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후부터 이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마을에는 박씨의 재실인 숭모재(崇慕齋)가 박씨 묘역 아래에 있다.

일제시대인 1920년부터 1927년까지 시흥군 남면장을 한 사람이 광주영(郭柱莢)이고 근대에도 박윤수(郭潤洙)가 1979년부터 1980년까지 면장과 군포읍장을 역임한 것으로 보아 현풍박씨가 이 지역의 세거씨족임을 짐작케 한다.

2) 능성 구씨(綾城 具氏)

시조는 고려 말 검교상장군(檢校上將軍)·벽상삼한삼중대광(壁上三韓三重大夫)을 지낸 구존유(具存裕)로서 그는 신안주씨(新安朱氏) 주진(朱潛)의 사위인데 주잠이 1224년(고종 11) 송(宋)나라의 한림학사(翰林學士)로 있을 때 몽골의 침입을 피하여 자신을 포함한 8하사와 고려로 망명하면서 구존유를 동행하게 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주잠이 능성에 은거하면서 능성주씨로 관직한 것과 같이 구존유도 생활근거지였던 당시의 지명에 따라 본관을 능성구씨로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조로부터 6대 후인 고려 말, 조선 전기에 관사파(判事派: 賢佐), 사람중파(侍郎中派: 英良), 좌정승파(左政丞派: 鴻), 판안동파(判安東派: 成亮), 도원수파(都元帥派: 成老), 낭장파(郎將派: 賢補), 감부파(監務派: 賢器), 참판파(參判派: 成美), 문천군사파(文川郡事派: 妥立) 등의 9파로 갈리는데 그 중 도원수파, 판안동파, 좌정승파 등 3파가 조선시대에 가장 많은 인물을 배출하였으며 자신이 크게 번창하여 이들 3파가 오늘날 구씨 전체인구의 약 80%(도원수파만 40%)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 세조 때 치관(致寬)이 영의정을 지낸 것을 비롯하여 조선시대에 상신(相臣) 2명, 공신 9명, 부마(駙馬) 3명을 배출하였다. 『능성구씨사료집』에 따르면 조선시대에 총 562명의 과거급제자들 있었는데 그 중 진사 144명, 문과 55명, 무과 363명으로 무과출신이 65%나 되어 무관집안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를 파별로 보면 도원수파 359명, 판안동파 72명, 좌정승파 42명으로 역시 이들 3파가 전체의 84%를 차지한다. 무과출신 가운데 영조 때까지 장신급(將臣級)이 9명이나 나왔는데 이는 그때까지의 장신 총수의 12분의 1에 해당한다. 이들은 병사(兵使)·수사(水使)를 지낸 사직(思稷), 훈련대장 등을 지낸 평(宏), 이영대장인 인후(仁焄), 총융사(摠戎使)인 인기(仁熙), 이영대장인 문치(文治), 총융사인 갑(鑑), 훈련대장인 성임(聖任), 훈련대장인 선복(善復) 등인데, 이 중 평·인후·인기는 인조반정(仁祖反正)의 공으로 정사공신(靖社功臣)에 녹훈(錄勳)되었다. 공신으로 중종반정(中宗反正)의 정국공신(靖國功臣)인 현휘(賢暉)·수영(壽永), 성종 때 좌리공신(佐理功臣) 치관·문신(文信) 등이 있다. 이 밖의 인물로는 고려 말 좌시중(左侍中)을 지내다가 고려가 망한 후 조선 태조가 좌정승을 주고 불려도 응하지 않아 좌정승파의 시조가 된 홍(鴻), 중종의 부마 사연(思彦), 인조의 외조부이며 이조판서·좌찬성·승록공신(崇祿功臣)에 오른 사맹(思孟), 시문에 뛰어나고 관학사, 참판, 대사헌을 지낸 봉령(鳳齡) 등이 있다.

군포에는 도마등에 20여호가 세거하고 있다고 한다.

3) 경주 김씨(慶州 金氏)

경주 씨는 신라의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의 후손으로서 부안김씨, 나주김씨, 언양김씨, 삼척김씨, 울산김씨 등으로 분화되었다. 부안김씨는 경순왕의 아홉 아들 가운데 장남인 마의태자 김공일(金公鎰)의 후손으로 전해지며 둘째 아들인 김황(金鎭)의 후손은 나주김씨, 다섯째 김석(金錫)은 의성김씨, 일곱째 아들인 김선(金諤)은 언양김씨, 여덟째 김추(金錡)는 삼척김씨, 아홉째 김덕지(金德執)는 울산김씨가 되었으며 셋째 김명중(金鳴鍾)은 경주김씨의 영분공파(永芬公派), 넷째 김은열(金殷說)은 경주김씨 대안공파(大安公派 혹은 殷說公派)가 되었다. 이 중에서도 넷째 아들 김은열의 후손이 가장 번창하였다고 하였고 한다. 한편 경주김씨는 조선시대까지 총 600여 개의 본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1985년 인구조사에서는 약 270여 개 본관만 남아있다.

군포의 경주김씨는 대안공파의 후손으로 대안공파의 중시조인 김인관(金仁瑄)으로부터 15대손인 김적(金稷)이 지금으로부터 420~430년 전인 16세기 후반 현재의 군포시 용호마을(요품)에 은거하면서부터 세거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군포의 경주김씨는 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산본 개발과 함께 요품이 개발되면서 거주할 수 없게 되자 이웃인 신기(新基) 마을을 비롯해 타지로 이주하였다.

1953년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의 군포시에 해당하는 시흥군 남면 당리에 거주하는 경주김씨는 모두 57호였으며 1999년 무렵에는 35호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산본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신시가지가 조성됨으로써 군포의 토착성씨가 외부로 이주하거나 외부에서 다양한 성씨가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향촌사회질서가 변질되기도 되기도 하였다.

4) 광산 김씨(光山 金氏)²⁰⁾

광산김씨 시조인 김흥광(金興光)에 대해서는 『광산김씨 정유대동보(光山金氏丁酉大同譜)』에는 신라 45대 신무왕(神武王) 셋째 아들로 기록되어 있고 『동국만성보(東國萬姓譜)』와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는 신라 49대 헌강왕(憲康王)의 셋째 아들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 광산김씨 문중에서는 시조 김흥광을 신라 45대 신무왕의 아들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김씨의 유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탈해왕조 9년(서기 65년) 3월조에는 왕이 밤에 금성(金城) 서쪽 시림(始林) 숲 사이에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날이 밝자 호공(狐公)을 보내어 이를 살피게 하였다. 그가 시림에 이르러 보니 금빛으로 된 조그만 꿩이

20) 광산김씨대종회(<http://www.kwangsankim.or.kr>).

나뭇가지에 걸려 있고 흰담이 그 밑에서 울고 있으므로 돌아와 이 사실을 왕에게 아뢰었다. 왕은 사람을 시켜 그 꾀책을 가져오게 한 다음 이를 열어 보니 조그만 사내아이가 그 속에 들어 있는데 용모가 기이하게 뛰어나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군신들에게 이르기를 “이 어찌 하늘이 나에게 아들을 보내준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거두어 길렀다. 그런데 그 아이는 자람에 따라서 아주 총명하고 지력이 뛰어났으므로 이름을 알지(閼智)라 하고 그가 금궤에서 나왔음을 연원하여 성(姓)을 김씨(金氏)라 하였다. 또한 시립을 계림(鷄林)이라 하고 이로써 국호(國號)를 삼았다고 하였다. 그후 알지는 세한(勢漢)을 낳고 세한은 아도(阿道)를 낳고 아도는 수급(首留)을 낳고 수급은 옥보(郁甫)를 낳고 옥보는 구도(仇道)를 낳고 구도는 신라 13대 왕 미추(昧鄒)를 낳았다. 알지의 후손 우징(祐徵)이 신라 제 45대 신무왕(神武王, ?-839)이며 그의 세 번째 왕자가 흥광으로 이가 바로 광산 김씨의 시조라고 한다.

신무왕의 할아버지는 해강대왕(惠康大王)으로 추봉된 원성왕의 아들 예영(禮英)이며 아버지는 성덕대왕(成德大王)으로 봉해진 균정(均貞), 어머니는 헌목태후(憲穆太后)로 봉해진 진교부인(眞橋夫人) 박씨(朴氏)이다. 그가 아버지 균정과 함께 정치세력을 형성하여 부상하게 되는 것은 헌덕왕 때였다. 812년(헌덕왕 4)에 균정은 시중(侍中)에 임명되었으며 김현창(金憲昌)의 난이 일어나자 우징 부자는 왕을 도와 반란군을 평정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 흥덕왕이 죽자 그 사촌종생인 균정과 오촌 조카인 계룡(倅隆 : 희강왕)이 서로 왕위를 다투게 되었다. 이에 김명과 아찬(阿儵) 이창(利弘)·배훤백(裴萱伯) 등은 계룡을 받들고 우징과 조카인 예징(禮徵) 및 김양(金陽)은 균정을 받들어서 한때 궁궐에서 서로 싸워 균정은 전사하고 우징은 김양 등과 더불어 청해진(淸海鎭)으로 도망하여 장보고(張保皋)에게 의탁하였다. 싸움에 이긴 계룡이 즉위하여 희강왕이 되었으나 838년(희강왕 5)에 김명이 이흥 등과 함께 다시 난을 일으켜 스스로 왕위(閔哀王)에 올랐다.

838년(민애왕 1) 청해진에 의탁해 있던 우징 등이 장보고의 군사 5,000을 이끌고 민애왕을 토벌하기 위하여 진격해왔다. 김양·염장(閔長)·장변(張弁)·정년(鄭年)·낙금(駱金)·장건영(張建榮)·이순행(李順行) 등이 우징을 받들고 있었다. 이해 12월 민애왕은 김민주(金敏周) 등을 파견하여 무주(武州 : 지금의 光州)에서 토벌군을 맞아 싸우게 하였으나 패배하고 그 다음해 정원 달발(達伐 : 지금의 大邱지역)에서도 맞붙어 대패하였다. 민애왕은 난중에 월유택(月遊宅)으로 도망갔으나 병사들에게 살해당하고 우징이 왕이 되니 신무왕이다. 능은 제형산(弟見山) 서쪽에 있다.

광산 김씨의 시조리는 김흥광(金興光)은 당시 나라란이 어지러워 장차 난리가 있을 것을 예지하고 경주를 떠나 광산현(光山縣) 서일동(西一洞)(현 담양군 평장동)에 은거하여 광산 김씨의 개조(開祖)가 되었다. 광산 김씨 5개파(문정공파, 문숙공파, 양간공파, 낭장공파, 사은직장공파) 중 양간공파의

후손이 현재 전국의 약 70%로 제일 많으며 그 후손에서 많은 명현들이 배출되었다. 조선 중기 역학의 태두요 성리학의 대가인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과 그의 아들 김집은 유학(儒學)의 죽은 후에 등국18현(東國18賢)에 추앙되어 문묘(文廟 : 공자를 모신 사당)에 배향되는 영예를 누렸다.

문원공 김장생의 증손인 만기(萬基)는 효종4년(1653) 별시(別試) 을과에 합격했으며 그가 속한 양간공파 의정공 허주공(紱, 김장생의 아들)파는 광산김씨 문과합제자 269(265)명중 74명으로서 가장 많은 급제자를 낸 광산김씨의 대표적인 파이다.

1985년 경제기획원 통계조사에 의하면 광산 김씨는 남한에 총 174,912가구로 750,70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집성촌으로는 강원도 회양군 내금강면 일원, 전남 나주군 왕곡면 옥곡리, 보성군 백백면 용산리, 양양군 군사면 모정리, 충남 논산군 일원, 경북 안동군 풍천면 신성동, 전북 고창군 일원,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난산리, 황해도 봉산군 사죽면 대현리 등지이다. 군포 부근의 집성촌은 경기 시흥군 수암면 불왕리에 있다.

군포시 대야미동에 김만기 선생의 묘가 조성된 것은 생전에 숙종으로부터 강원도 43개면의 땅을 비롯하여 배야미땅이 사패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손들은 당시 한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부근에 살지 않았다. 그 후 강원도 일대의 땅은 일제시기 토지 조사사업시 마등기로 잃어버리고, 배야미 땅도 담보로 모두 잃었으나 해방직후 12대 증손인 선일이 문중과 집안사람들에게 당시 돈 2만여원을 모금하여 김만기 선생을 비롯한 묘역 9천여평만을 구입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6년경 이곳 묘역이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정부 보조를 받아 제실을 지었다.

5) 남평 문씨(南平 文氏)

남평 문씨 문중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시조에 대해서 “세상에 전해오는 옛 말에 호남에 남평군이 있고 남평군의 동쪽에 큰못이 있으며 못가에 천길이나 되는 높은 바위가 있었다. 군주가 하루는 못 기슭 그 바위 밑에서 놀이를 하는데 갑자기 바위 뒤에 오색 구름이 감돌더니 문득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군주가 신기하게 여기며 곧바로 사다리를 만들게 영을 내리고 시종으로 하여금 올라가 보게 하니 석함이 있다고 하여 철사로 매어 당겨 내려오게 했다. 함을 열어 보니 함 가운데 어린아이가 있는데 피부가 옥설 같고 용모가 기이하여 마침내 군주가 대려와 양육하였다. 5세에 글과 사상을 자연히 통달하고 또한 무술이 뛰어나며 총명하고 재주가 있어 사물의 이치를 통달하였다. 그래서 문자로서 성을 하고 다성(多省)이라 이름하고 평원으로 자를 삼으니 그 시대 사람들이 칭송하며 말하기를 문군은 밝기가 일월같고 맑기가 성전 같다 하여 호를 삼광이라 하였다. 14세에 대사도가 되고, 18세에 대사마 대장군이 · 삼중대광보국 · 삼한백상공신에 연이어 오르니 남

평개국백을 봉하고 대사대부가 되었다. 시호를 무성(武成)이라 내리었다.”라고 하고 있다.

남평은 백제시대는 비동부리라 하였고 통일신라시대는 현옹이라 고쳐서 무주 영현으로 하였다. 고려 때는 남평 또는 영평이라 개칭하여 나주에 속하게 한 다음 감무를 두었다가 화순 감무로 겸임케 하였고, 조선조 때에는 감무를 따로 두었다가 다시 화순 감무로 겸임케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조 때에는 감무를 따로 두었다가 군 또는 나주의 속면으로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남평 문씨는 시조 무성공으로부터 그 혈맥의 분파를 보면 크게 충선공파, 남제공파, 순평군파로 대별할 수 있는데 보통은 5파로 나뉘어 부른다. 제1파는 충선공의 종파인데 문익집의 손이다. 주로 경남 거창과 함천 일대에 거주하고 그 수는 약 150여 호에 불과하며 현조 모계공 문위가 있는 충혜공파라 한다. 제2파는 충선공 문익집의 자손인데 거주 상황은 전남, 경남, 경북, 충남, 경기 순으로 전국에 분포되어 그 수는 약 35만여 남평분씨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충선공파라 한다. 강성군파라 하여도 잘못은 아니다. 제3파는 문득준의 아우인 문득걸에서 분파 되었으며 주로 경북 영동·영주·봉화 등지에 거주하고 그 수는 약 200여 호에 불과하며 현조 감천군 문가가 있어 감천파라 한다. 제4파는 시간공 문착의 후예로서 주로 제주도 일대와 일본에도 많은 일가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수는 2,000여 호가 넘으며 육지에도 산거하고 있다. 문착의 호가 남제이기에 남제공파라 한다. 제5파는 순평군 문유필의 자손으로 그 수가 약 2,000여호에 달하며 함천·김천·영암·김제·공덕·밀양·평촌·진양·김해 등에 산거하고 순평군파라 한다.

현재 군포에는 남평 문씨가 북쪽동 삼성마을에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10여호 정도가 14세 이상 세거하고 있다고 한다.

6) 여산 송씨(礪山 宋氏)

여산(礪山)은 전라북도 익산군에 속해있는 지명으로 여량(礪良)과 낭산(朗山) 두 현을 합친 이름으로, 1913년 이후에는 그 일부지역이 여산면으로 남아있다.

시조 송유익(宋惟翊)은 고려 때 진사(進士)로 나라에 훈공을 세워 여산군(礪山君)에 봉해졌으며 은청광록대부(銀靑光錄大夫)로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에 추증되었다. 여산송씨의 시조는 중국 경조(京兆) 출신으로 당나라에서 호부상서(戶部尙書)를 지낸 송주은(宋柱殷)의 후손 자영(自英)이다. 그는 슬하에 아들 3형제를 두었는데 장남인 유익(惟翊)은 여산송씨(礪山宋氏)의 시조가 되었고, 둘째 천익(天翊)은 은진송씨(恩津宋氏), 막내 문익(文翊)은 서산송씨(瑞山宋氏)의 시조가 되어 우리나라 모든 송씨의 연원(淵源)을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은진·진천 송씨와 함께 우리나라 송씨의 가장 화려한 인맥을 이룬 여산 송씨는 시조의 아들 숙문

(淑文)이 고려 원종(元宗)때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역임했고 증손 송례(松禮)는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로 원나라 도원수(道元帥) 후돈(忽敦), 부원수(副元帥) 다구(茶丘)와 함께 일본정벌에 참전한 후 충렬왕 때 좌명공신(佐命功臣)으로 삼중대광(三重大匡) 분하시중(門下侍中) 판리사(判典理司)에 올라 여량부원군(驪良府院君)에 봉해져서 명문의 기초를 다졌다. 그의 손자대에 와서 윤(惟 : 개성원윤을 자림)을 파조(派祖)로 하는 원윤공파(元尹公派), 병영(邦英)을 파조로 하는 밀직공파(密直公派), 원비(元美)를 파조로 하는 소윤공파(少尹公派), 인(璘)을 파조로 하는 지신공파(知申公派), 서(瑞)를 파조로 하는 정가공파(正嘉公派) 등 크게 다섯 파로 갈라져서 세계(世系)를 이어왔다.

이 중에서 군포시에 세거해 온 이들은 정가공파이다. 언제부터 군포 지역에 세거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지역의 정가동파 묘역군포시 재궁동 산 11번지에 가장 오래된 인물인 파조 송서(宋瑞)의 증손으로 한성관윤을 지낸 송복산(宋福山)인 것으로 보아 15세기 이후 일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재궁종회(齋宮宗會)'로 불리는 재궁동 일대는 '묵음재(默諫齋)'라는 재실 및 강당이 위치하고 있고 묵음재의 뒤쪽 재궁동 산 11번지에는 송복산을 비롯하여 송숙기(宋叔琪), 송경(宋璟), 송찬(宋瑱), 송세광(宋洗光), 송유(宋瑀), 송유(宋瑜), 송로(宋路), 송복(宋璞), 송준철(宋遵徹) 등의 무덤 10여기가 모여 있다.

한편 이 지역의 이름이 '재궁동'이 된 연유는 송씨 재실이 있는 연유했으며 '송지골'이라는 지명도 송경이 동부승지를 역임한 후 이곳에 거주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여산송씨정가공파재궁종회, 『永慕誌』, (1998), 「재궁종회의 내력」, 34쪽 ~ 35쪽)

현재 여산 송씨는 군포시 재궁동 지역에 약 10여호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송요선(宋堯善, 안양시 거주)은 여산 송씨 관련 고문서를 일부 보관하고 있다.

7) 청송 심씨(靑松 沈氏)

심씨는 문헌에 63으로 나타나 있으나 4본을 제외한 나머지 59본에 대하여는 기록이 없고 조선왕조 5백년 동안 정계를 주름잡은 10대 문벌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청송심씨는 상신(相臣)이 13명이나 되는데 그 중 영의정이 9명이나 되어 전주이씨의 11명에 비해 버금가는 것이다.

청송심씨는 고려 충렬왕 때 문림랑(文林郎)으로 위위시승(衛尉寺丞)을 지낸 심홍수(沈洪守)를 시조로 받들고, 그의 증손 심덕부(沈德符)가 우왕 때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에 이르러 청성부원군(靑城府院君)에 봉해졌다가 청성충의백(靑城忠義伯)에 진봉되어 후손들이 청송을 본관으로 삼게

되었다. 그 후 심덕부는 태조 이성계(李成桂)를 도와 조선 창업에 공을 세우고 청성백(靑城伯)에 봉해졌으며 판문하부사(判門下府使)와 영삼사사(領三司事)를 거쳐 정종 즉위년에 좌의정에 이르렀다.

그의 아우 심원부(沈元符)는 고려 말에 여러 관직을 거쳐 전리판사(典理判事)에 이르렀으나 고려의 국운이 다하자 새 왕조(王朝)의 벼슬을 거부하고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가 절의(節義)를 지켰으며, 후손들도 그의 유훈을 받들어 '선훈불사(先訓不仕)'라 하여 대대로 벼슬을 멀리 하였다.

일찍이 조선 개국(開國)을 시작으로 명문 별족의 지위를 굳혀온 청송심씨는 덕부의 아들 7형제 대(代)에서 가세가 크게 융성하여 가장 화려한 인맥을 이루었다. 세종(世宗)의 장인이면서도 상왕(上王)인 태종(太宗)의 비위에 거슬려 끝내 왕명(王命)으로 죽음을 당했던 온(溫)은 청성군 심덕부의 다섯째 아들이자 병조 판서 박습(朴習)에게 불평한 것이 상왕인 태종의 귀에 들어가 사은사로서 명에 다녀오던 중 의주에서 체포되어 수원에서 사사 당하였다. 이 때 그는 내 자손들은 대대로 박씨와 혼인하지 말라 고 유언하였다. 이후에도 청송심씨는 조선조의 명문별족으로 수많은 인물들을 배출하였다.

현재 군포시의 청송 심씨는 둔대동(대감마을)에 약 30여호가 세거하고 있다고 한다.

8) 순흥 안씨(順興 安氏)

순흥 안씨의 시조 안자미(安子美)는 고려 신종(神宗)때 홍위위 보승별장(興威衛保勝別將)을 지내고 흥령현(興寧縣)에 정착 세거(世居) 하였으며 신희위상호군(神虎衛上護軍)에 추봉(追封)되었으므로 후손들은 순흥(順興)을 본관으로 하여 세계(世系)를 이어왔다. 안자미(安子美)의 세 아들 안영유(安永儒), 안영린(安永麟), 안영화(安永和)등을 파조(派祖)로 한 3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국 주자학의 태두인 안행(安珩)은 안영유의 손자인데 고려 원종때 18세의 나이로 문과에 올라 도철의충전에 이르렀으며 교육발전을 위해 설학전이라는 육영재단을 설치하여 후진을 양성하는 등 유학 진흥에 힘써 우리나라 최초의 주자학자로 일컬어진다. 그의 문하에는 백이정·우탁 등의 석학이 배출되어 이제현·이색 등에 계승되었으며 다시 권근·변계량 등으로 유학의 전통을 면면히 이어 내려왔다. 특히 안행을 제향하는 소수서원은 최초의 사액서원이며 조선시대에 세워진 많은 서원들과 함께 사람의 근거지로 발전되어 왔다.

순흥안씨는 조선 중종 때부터 명종대에 걸쳐 전성기를 누렸는데 중종때 공조판서를 지낸 안침과 좌의정을 역임한 안당, 명종때 호조판서를 지낸 안위와 좌의정에 올랐던 안현 그리고 안정 등이 유명하였다. 안침은 세조때 문과에 급제한 후 여러 청환직(淸宦職)을 거쳐 대사성·대사헌 등을 역임하고

지돈령부사에 이르렀으며 특히 해서에 능하여 서예가로도 명성을 얻었다. 안당은 『상종삼목』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증종때 이과의 옥서를 다스려 징난공신에 책록되었고 대사헌 및 각 조의 판서를 거쳐 좌의정에 이르렀다. 그 후 기묘사화때 조광조 등의 사립들을 구하려다 모함을 받아 파직되었고 신사무옥때 아들 안치경과 함께 사시(賜死)되었다. 호조 판서를 역임한 안위는 『경국대전』을 전수한 석학이며 군략가였다. 안위의 동생 안현은 증종때 문과에 급제하여 한성판윤 이조판서를 거쳐 좌의정에 올라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또한 안침의 손자로서 문장과 글씨에 능하고 그림에도 뛰어난 소질을 지닌 안정은 증종때 현량과에 선발되어 양성 현감 등을 지낸 유능한 인재였다.

근대 인물로는 대한의 독립을 위해 일제에 투쟁한 안창호와 의병군을 이끌고 독립투쟁에 앞장섰으며 이등박분을 적실한 안중근이 유명하였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사였던 안창남과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등이 있다.

현재 군포에는 순흥 안씨가 광정동, 궁안마을 등에 거주하고 있으며 20여 가구 등이 세거하고 있다.

군포에 현전하는 순흥 안씨의 유물로는 순흥안씨 묘표(順興安氏墓表)가 있다. 순흥 안씨 묘표는 산본(山本)역에서 안산(案山)방면으로 도장(悼葬)터널을 지나 궁내(宮內)터널로 우회전, 쓰레기 조각정을 지나 순흥 안씨 묘소 입구 표석에서 좌회전 후 연못을 지나면 좌측 길 옆에 있다. 순흥 안씨는 참의(參議) 안경운(安慶運)의 딸이고 증좌찬성(贈左贊成) 서신수(徐信修)의 부인으로서 자식이 없어 증재(從子) 유영(有寧)을 입양(入養)하였는데 유영(有寧)은 4남 1녀를 낳았고, 이중 3남인 용보(龍輔)가 영의정이 되어 추은(推恩)으로 정경부인에 증직(贈職) 되었다.

현종 15년(1849)에 세워진 이비는 비좌개석(碑座蓋石)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개석과 대석에는 문양이 없이 단조로우나 조선후기 비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비의 앞 면 자경(字樣)은 11.0cm이고 음기(陰記)의 자경은 2.4cm의 해서(楷書)로 서희순(徐熙淳)이 썼고 비문도 지었다. 비의 상태는 양호하며 이곳에는 상석(床石)·향로석(香爐石)·족석(足石)만 있다. 묘소는 본래 수원 광탄면 언창리 금산에 있었는데 천장(遷葬)하면서 비석만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전한다.

9) 남원 양씨(南原 梁氏)

남원양씨는 제주의 세 성씨(고씨, 양씨, 부씨)이 시조 중에 하나인 양율리와 양탕의 후손이며 증시조인 양우경이 757년 공을 세워 남원백에 봉해지고 남원을 본관으로 하게 되었다.

남원양씨는 크게 양능양의 병부공파, 양주운의 용성군파, 양수정의 대방군파로 나누어지며 군포지역의 남원 양씨는 병부공파의 후손이며 김포지역의 양성지를 증시조로하는 문양공파로 다시 이어지고

양성지의 셋째와 넷째 아들의 후손으로 보여진다. 즉 문양공 양성지는 원(璦), 수(琇), 찬(玦), 호(琬)의 네 아들을 두었는데 군포시 당정동 지역의 남원양씨는 넷째 양호(찬성공)의 손자 양운순(황주공)의 후손들이다. 아울러 부곡동 지역의 남원양씨 묘역의 양찬이 바로 양성지 3남인 양찬의 바로 그 묘로 1968년 서울시 목동에 있던 무덤을 도시 개발로 인해 이 곳으로 옮겨온 곳이다.

당정동 지역의 양운순(황주공과 양성지의 증손) 후손들은 현재 이 지역에 10여 대씩 30여호 거주해 오고 있으며 선산은 이 지역이 개발되면서 충청북도 진천으로 옮겼다고 한다. 이 지역에서 활동한 인물로는 군포지역이 시흥시 남면일 때 1947년부터 1960년까지 변장을 역임한 양재호(梁在鎬, 군포 초등학교 2회 졸업)와 역시 군포초등학교 출신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의회 의장을 역임한 양태석(梁兌錫)이 있다. (황주공과 당정총친회의 양태부 증인)

한편 부곡동 산 78번지의 남원양씨 선영은 양성지의 셋째 아들 양찬과 그 후손들의 무덤으로 대개 1968년 서울시 목동 지역이 개발되면서 옮겨온 것들이다.

10) 전주 이씨(全州 李氏)

시조 이한(李翰)은 덕망이 높고 문장이 탁월하여 신라 문성왕때 사공(司空) 벼슬을 지냈으며 그후 대대로 신라시대에 벼슬을 해왔다. 18세손 되는 이안사(李安社)는 대대로 전주에 살아온 호족이었는데 새로 부임한 지주의 탄압을 규탄하자 지주가 군사를 휘둘러 보복하려하여 그를 피해 강원도 삼척으로 피했다가 다시 함경도를 거쳐 원나라 간동으로가 그곳에서 다루까지 벼슬을 지냈고 증손자 되는 이자춘(李子春)이 고려시대에 공을 세워 사복경(司僕卿)에 이르렀다. 이자춘의 아들, 즉 시조의 22세손 이성계(李成桂)에 이르러 어지러운 국정을 바로잡고 배극렴(裴克廉)등 52명의 추대로 왕위에 오르게 됨으로 조선왕조를 창건, 전주이씨의 종시조가 되었다.

전주이씨는 조선 500년을 이끌어온 왕가이므로 가문의 번성기를 따로 기술할 필요가 없다. 전주이씨의 1백여 파중 으뜸가는 명가는 밀성군(密城君. 침=세종의 아들)파로써 6명의 정승과 3대 대제학(大提學)을 배출했으며, 덕천군(德泉君. 후생(厚生)=정종의 아들)파가 부자 대제학등 3명의 대제학과 영의정(領議政) 1명을 내어 밀성군파에 버금간다. 덕천군파 다음으로는 3명의 정승을 배출한 광평대군파(廣平大君派), 정승 2명을 배출한 선성군파(宣城君派), 정승 1명과 술한 문신과 무신을 배출한 효령대군파(孝寧大君派) 등이 빼어나다.

전주이씨는 오리정승(梧里政丞)으로 많은 일화를 남긴 인조때 영의정 이원익(李元翼),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이하응,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李承晩), 칠기(鐵驥) 이범석(李範奭)장군 등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거북들을 배출하였다. 1585년(선조 18) 이수평은 별시문과(別詩文科)에

급제, 1627년에 이조판서가 되었다.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여러차례 사신으로 명나라에 왕래, 당시 명나라에 와있던 이탈리아 신부에게서 『천주실의(天主實義)』, 『중우론(重友論)』을 얻어와 1614년 (광해군 6) 『지봉유설(芝峰類說)』을 간행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천주교와 서양 문물을 소개함으로써 실학발전의 선구자가 되었고 시문에도 능했으며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군포에 세거해온 전주이씨는 조선 성종의 3남인 안양군의 후손으로서 안양군(安陽君)이 연산군의 학정에 대해 강한 이유로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사사되었을 때 서울에 있던 공주 주씨가 유자인 당시 8세 된 종남도정(從南都正) 익수(億壽)와 함께 지금의 군포시 산본동 수리산 아래의 광정동에 은거하면서 이곳을 고향과 선영으로 정하게 되었다.

오늘에는 안양군 묘소만 원지에 남아있고 나머지 전체 선영은 1993년 2월 국가 개발정책에 의하여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상기리 산74번지로 이장하였다.

11) 한산 이씨(韓山 李氏)

한산이씨는 길은 뿌리이면서 시조를 달리하는 두 계통이 있다. 한산이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호장 공개의 시조는 고려 숙종 때 호족으로서 권지호장직(權知戶長職)에 오른 이윤경(李允卿)이다. 이윤경(李允卿)은 한산 지방에 토착 세거(土著世居)해 온 호족(豪族)의 후세로 고려 중엽에 향리의 우두머리인 호정(戶長)을 역임했고 5대에 걸쳐 호장직을 세습하여 오면서 명분의 기틀을 다졌다.

그러나 시조라 할 중시조는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아버지인 이곡(李穀)이다. 이곡은 당대의 대문장가이며 역동(易東) 우탁(禹倬), 포은 정몽주(鄭夢周)와 더불어 경학(經學)의 대가였으며 고려 충숙왕 7년 문과에 급제하고 원나라 제과(制科)에도 급제하여 벼슬이 도침의찬성사(都僉議贊成事)에 이르렀다. 그의 아들 이색이 1362년 홍건적의 난에 왕을 호종하여 공을 세워 한산부원군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본관을 한산으로 하였다.

한산(韓山)은 충청남도 서천군에 속해있는 지명으로 본래 백제의 마산현(馬山縣)인데 신라 때 가림군(嘉林郡)의 영현이 되었고 고려 초에 한산으로 고쳤다. 1175년(명종 5) 감무(監務)를 두었고 홍산(鴻山)을 겸하였으며 후에 지한주사(知韓州事)로 승격되었다가 조선 때 한산군(韓山郡)이 되었으며 1913년 서천군으로 병합하여 지금은 한산면으로 남아있다.

가문을 빛낸 인물로는 고려말 삼은(三隱)의 한 사람인 이색(李穡)을 비롯하여 사육신의 한 사람인 이계, 대문장가 이산해(李山海) 등으로써 이름난 한산이씨는 조선시대 상신 4명, 대제학(大提學) 2명, 청백리(淸白吏) 5명, 공신 12명과 문과 급제자 195명을 배출했다.

군포지역에 한산이씨가 언제부터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거주했는지는 안 수 없으나 고집룡 김수염

의 제상으로 불리웠던 이기조의 무덤이 경기도 장단에서 1672년 이곳 군포시 산천동으로 이장한 것을 보면 이 때를 전후로 이 곳과 관련을 맺은 것 같다.

12) 평택 임씨(平澤 林氏)

임씨는 당나라 문종(文宗 : 826~840) 대에 신라 흥덕왕(興德王) · 회강왕(僖康王) · 민애왕(閔哀王) · 신무왕(神武王) · 분성왕(文聖王) 때 한림학사였던 관급(八及)이 간신들의 참소가 있자 등래 8학사 중 한사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 왔으며 평성의 용주방에 정착한 것에서 비롯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임씨는 관급(八及)을 도시조(都始祖)로 하는 동계혈족(同系血族)이며 대종(大宗)인 평택 임씨에서 분과된 분직종(分籍宗)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임씨는 오랜 역사를 가진 씨족의 하나로 고려시대에서 많은 인물을 배출하였다.

본관은 평택(平澤) · 나주(羅州) · 진천(鎭川) · 옥진(蔚珍) · 예천(醴泉) · 부안(扶安) · 순창(淳昌) · 장흥(長興) · 조양(兆陽) · 은진(恩津) · 선산(善山) · 진주(晉州) · 옥구(沃溝) · 경주(慶州) · 옥야(沃野) · 전주(全州) · 임천(林川) · 임하(臨河) · 길안(吉安) · 밀양(密陽) · 보성(寶城) 등 30여 본이 전해지지만 몇 본이 현존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고려 문종 때 증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를 지낸 임개, 그의 아들로 인종 때 상서호부판사(尙書戶部判事) 유문(有文), 명종 때 증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를 지낸 민비(民庇), 원종 때 무신으로 권세를 떨친 연(衍)과 그의 아들 유무(惟茂), 의종 때 문인으로 강좌 7현(江左七賢)의 한 사람으로 일컫어진 춘(椿), 공민왕 때 대사성을 지낸 박(樸) 등이 유명하다. 조선시대에는 124명의 문과 급제자를 배출했는데, 나주(羅州) 임씨에서 우의정 1명과 많은 현신이 나왔으며 그밖에 평택임씨 · 선산임씨 · 옥진임씨에서도 뛰어난 인물이 나왔다.

이 중에서 평택임씨는 문헌의 실적으로 세계를 상고할 수 없어 고려 말에 세자 전객령 겸 연희궁 부사를 지낸 임세춘(林世春)을 1세조로 하여, 누대에 걸쳐 세거한 평택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世系)를 이어왔다. 세춘의 아들 재(梓)가 예외판서와 보문각 대제학을 지냈고 증손 정(整)이 조선 태종 때 예조판서에 올랐으며 현손 명산(命山)이 이조판서를 역임하여 가문을 빛냈다. 5세손 수창(壽昌)은 부총관, 6세손 규(珪)는 병조판서, 8세손 유명(有名)은 좌승지, 10세손 황(瑩)은 중추부영사에 올랐는데 임경업(林慶業) 장군은 그의 여덟 아들 중 넷째 아들이다.

평택임씨의 대표적인 인물은 조선의 명장 경업(慶業, 1594~1646)이다. 그는 세춘의 12세손이며 어려서부터 활쏘기와 말달리기에 뛰어났으며 무과에 급제 후 소승보권관, 첨지중추부사를 지냈고 1624년(인조 2) 정충신(鄭忠信) 휘하에서 이괄(李适)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진무원종공신

(振武原從功臣) 1등이 되었다. 병자호란 때는 도처에서 작국을 무찔러 영웅적이고 전설적인 용명을 떨쳤다. 1640년 안주목사(安州牧使) 때 청나라의 요청에 따라 주사상장(舟師上將)으로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출병, 명군과 내통하여 청군에 대항하려다가 이 사실이 탐지되어 체포되었으나 금고의(金郊罪)에서 탈출했다. 1643년 명나라에 망명, 명군의 총병(總兵)이 되어 청나라를 공격하다가 포로가 되었다. 1646년 인조의 요청으로 청나라에서 송환되어 모반선에 대한 친견(親覲)을 받던 중 죽음을 당하였다. 1697년(숙종 23) 복관(復官)되어 충주 충렬사(忠烈祠) 등에 배향되었다.

경업의 형 형업(亨業)도 병자호란때 모친상을 당한 관계로 피난을 못가 청나라 군대에 붙잡혔으나 청군이 '효자는 해칠 수 없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효성이 뛰어나 효자 충신의 정문(旌門)이 고향에 세워졌으며 숙종때 지평(持平)에 추증(追贈)되어 명망높은 평택임씨 가문을 더욱 빛냈다. 이 밖에도 평택임씨의 인물로는 계주목사 형수(亨秀), 인조 때의 광주목사(廣州牧使) 휘(鶴), 선조 때 이봉학(李夢鶴)의 난을 평정하여 청난공신(淸難功臣)에 오른 득(得)의, 세조의 충신으로 대사간을 지낸 수경(守謙), 영조 때 사도세자(思悼世子)를 구출하려다가 귀양간 탁재 등이 있다.

1960년 국세조사에서는 72, 663가구에 인구 413, 101명으로 성별순위는 258성 중 제10위였고 1985년 경제기획원 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한에 총 46, 670가구, 194, 550명이 살고 우리나라 전체 성중 제10위였다. 임씨 집성촌으로는 전남 광산군 임곡면 등임리, 충남 부여군 일원, 전남 곡성군 고달면 일원, 경남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가 알려져 있다.

현재 군포에 살고 있는 평택임씨는 전객령공파 부사공파(典客令公派 府使公派)이다. 전객령공은 1세조 세춘(世春)이 고려 충렬왕 때 급제하여 세자 전객령을 지낸 것에서 이름한다. 군포의 평택 임씨는 1세 세춘으로부터 전객령공파 부사공파장인 임병희(林炳喜)에 이르기까지 23대라고 한다. 현재로부터 12대조인 귀현(貴賢)이 경주 혹은 광주 부근에서 군포 느타리골 이사하고 그 묘소가 산본동에 있었으나 도시개발 외중에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로 선산을 이장하였다. 선산에는 귀현의 아들이며 병자호란시 순절하였다는 만화(晩華), 그리고 그 선일(善逸)의 묘소가 있다. 21)

13) 동래 정씨(東萊鄭氏)

동래정씨는 신라의 전신인 사로(斯盧)의 6부 촌장으로 정씨 성을 하사받았던 지백호(智白虎)의 원손(遠孫) 정희문(鄭繪文)을 시조(始祖)로 받들고 고려(高麗) 초에 보윤(甫尹)을 지낸 정지원(鄭之遠)을 일세조(一世祖)로 하며 누대에 걸쳐 정작 세기해 온 동래(東萊)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21) 『林氏先祖寶鑑』, 林氏韓國宗親大宗會, 1999.

동래는 부산직할시와 경남 양산군의 일부 지역을 차지했던 지명으로 본래 장산국인데 신라 때 점령하여 거칠산군(居漆山郡)으로 고치고 경덕왕(景德王) 때 동래군으로 개칭하였다. 고려 현종(顯宗) 때 울주(蔚州)에 편입시켰다가 1547년(명종 2) 부(府)로 승격시키고 1895년(고종 32) 관찰부(觀察府)를 설치하였으며 1903년 군으로 고쳤다. 1910년 한일합방이 되자 부산부에 속하였고 부산부에 속하지 않는 구역과 기장군 일원을 병합하여 동래군을 이루었다. 그 후 대부분이 부산에 편입되고 나머지는 양산군에 편입됨으로써 동래군의 행정구역 명칭은 소멸되었는데 부산직할시에 편입된 대구산은 동래구에 속해있다.

동래정씨는 부산 양정동 화지산(華池山)에 자리잡은 2세(二世) 안일공(安逸公) 정문도(鄭文道) 묘소(墓所)에 대한 명당(明堂)의 전설이 아래와 같이 전해오고 있다. 그가 죽었을 때 밭아들 정목(鄭穆)이 장지(葬地) 분체를 고심하고 있다가 동래부사(東來府使)를 지내던 고익호(高益鎬)가 일러준 화지산에 장례를 치루었다. 그러나 장례를 치른 다음날 이곳에 와 보니 누군가가 무덤을 파헤쳐 놓았다. 기이하게 생각하고 다시 복원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분동을 참을 수 없었던 정목(鄭穆)은 밤을 세워 가면 숨어 지켜보기로 하였다. 밤이 어지간히 깊었을 때 도깨비들이 나타나 또다시 무덤을 파헤치며 하는 말이 “여기가 어딘데 한부로 건드려, 썩어도 금관을 붙어야 할 곳에…”하며 증얼거리는 것이었다. 가난하게 살았던 정목(鄭穆)은 이 사실을 알고 걱정이 되어 한숨을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한 노인이 나타나 “염려 마오, 황금빛 나는 보릿짚으로 관을 싸서 묻으면 도깨비들이 속을 것이오”하고는 사라졌다. 그 노인이 시키는 대로하였더니 과연 그 후부터는 무사하였다고 한다.

정목(鄭穆)은 고려 문종(文宗) 때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를 역임하고 슬하에 아들 정제(鄭濟)·정진(鄭漸)·정택(鄭澤)·정항(鄭沆) 4형제를 두었으며, 정목의 아우 정선조(鄭先詔)는 호장(戶長)을 지냈고 그의 후손들이 동래(東萊)와 양산(梁山) 등지에 산거(散居)하면서 명문(名門)의 기풍을 다져왔다.

군포에는 속달리에 동래정씨 정광보 후손의 종택이 위치하고 있다. 조선시대 속달리는 남양만에 배를 타고 온 지방민들이 과천을 통해 서울로 올라가던 교통의 요지였다. 따라서 외부와의 분철교류가 빈번했다고 보인다. 일제시대 철도가 개설된 후에 속달리에서 서울로 가려면 군포까지 도보로 가서 기차를 이용했고, 수원에서 출발하면 반원까지 도보로 가서 버스를 이용했다고 한다. 종택은 최근 복원을 하여 깨끗하며 매심사(梅心舍)라는 현판이 있다. 매심사라는 현판은 추사의 글씨로 그 후면에 그 내력을 음각해 놓고 있다.²²⁾ 조선후기 실학이 번성한 안산을 인접해서인지 이 집안은 신지식에 일찍 접해 후손들이 대부분 서울에서 학교를 나와 현재 이 동네엔 정씨가 5가구만 거주하고 있다.

22) 군포시 속달리 동래정씨 정준수의 증언이다.

承政院為直赴事今七月二十三日親臨春

塘臺秋列祀儀送命祭講試取時講居者通幼學等

直赴講堂試合下仰照驗施行

須至帖者

右帖下勿尊新學默准此

咸豐二十七年七月二十三日

帖
都承旨

左承旨

右承旨

左副承旨

右副承旨全

同副承旨

注書

注書任

동래정씨가 군포 속달리에 세거한 배경은 동래부원군인 정난중이 액전에서 상경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나라에 공을 세워 이곳을 사패지(賜牌地)로 받아 정착했기 때문이다. 원래 속달리는 현풍곽씨 등이 세거했으나 동래정씨 사패지로 인해 지금의 삼성리로 이주했다고 한다. 조선 후기에 동래정씨는 대부분 노론이었는데 이 집안은 남인계통이었다고 하며 집안의 추수 경작지는 안산시 팔곡동·사사동·대야미·도마교동 등 인근에 넓게 분포하여 큰 세족을 이루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동래정씨 종택이 소유한 고문서 등은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정리 중이라고 하는데 정교선의 『몽유록』, 정조의 어보가 찍힌 『동몽선습』, 『대전회통』, 『남보』 등이 눈에 띈다. 원각사의 비문이 증조부의 글씨였다고도 하며, 시·서·예 등에 많은 걸작을 남기고 있다.

현원 속달리 동래정씨 종택의 뒷산에는 동래정씨 묘역이 있다. 동래정씨 묘역 및 정난중의 신도비 등은 경기도 기념물 제115호로 일명 동래정씨가묘(東萊鄭氏家墓)라고도 한다. 동래정씨 묘역은 약 1,000여 평으로 수리산(修理山) 능선을 따라 묘소가 분산 배치되어 있는데 아래로부터 선대 묘역이 모셔진 역장(逆葬)의 모습이 특색이다.

묘역에는 묘비 6기, 묘갈(墓碣) 1기, 신도비 2기, 장명등(長明燈) 4기, 문인석(文人石) 8기, 망주석(望柱石) 4기, 상석(床石) 4기, 향로석 4기·동자석 4기, 묘소 6기 등이 있다. 정난중의 묘는 부인 완산 이씨(完山李氏)와 쌍분인데, 1486년(성종 17년)과 1489년에 각각 조성하였다. 묘비(墓碑)는 135×44×20cm로 종형이수(鐘型貽首)의 형태를 이루며, 「유명조선국순성적리공신자헌대부정부우참판겸동지경연사동래군증시익혜정공지묘(有明朝鮮國純誠佐理功臣資憲大夫議政府右參贊兼同知經筵事東萊君贈諡翼惠鄭公之墓)」의 명문(銘文)이 있다. 또 양식이 동일한 부인 묘비에는 「정부인완산이씨지묘(貞夫人完山李氏之墓)」라는 명문이 있다. 묘비는 남근(南袞)이 찬(撰)하고 강징(姜徵)이 썼다. 상석은 164×16cm의 장대석 11개를 쌓았으며 장명등은 210cm 높이를 대석 위에 옥개석(玉蓋石)을 얹었다. 문인석은 높이가 각각 210cm와 146cm이다.

정난중의 신도비 총 높이는 214cm이나 비신은 194×80×26cm로 이수는 2마리 용이 정교하게 세겨져 있으며 4면의 당초문(唐草文)과 2단의 안상문(眼象文)을 조각하였다. 비문은 남근이 찬하고 강징이 썼는데 1525년(중종 20)에 조성되었다.

정광보의 묘갈은 2단의 기단 위에 귀부(龜趺)를 놓고 비신과 이수(貽首)를 얹어놓은 형식인데 귀부는 177×140×80cm로 조각이 섬세하다. 비문은 이행(李衍)이 짓고 글씨는 성세창(成世昌)이 썼다.

정광보(鄭光輔)는 정난중의 장남으로 창원도호부사·김례진관병마동첨절제사·침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그의 묘 역시 부인과 쌍분이며 묘표(墓表)는 179×53×18cm의 규모로 1525년에 조성되었다.

진면에는 「통정대부행창위도호부사김해진관병마동찰전제사정공지묘 숙부인전의이씨지묘(通政大夫行昌原都護府使金海鎮管兵馬同僉節制使鄭公之墓 淑夫人全義李氏之墓)」와 새겨져 있다. 장명등은 158cm로 안상문이 조각된 원형의 화상(火窓)을 이루며 문인석과 망주석은 각각 170cm와 163cm의 크기이다.

정광필의 묘는 부인과 쌍분으로 각각 봉분의 높이는 200cm이고 지름은 450cm의 규모이다. 묘비 전면에는 「유명조선국대랑보국승록대부의정부영의정경영경연홍문관에문관춘추관상감사세자사증시문익정공지묘(有明朝鮮國大臣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象監事世子師贈諱文翼鄭公之墓)」와 「정경부인은진충씨지묘(貞敬夫人恩津宋氏之墓)」가 새겨져 있다. 묘비의 크기는 173×50×18cm로 그 옆에는 장명등·상석·망주석·문인석 등을 배열하였다.

정광필의 신도비는 총 높이 417cm로 비신은 213×91×28cm이며 비문은 소재야(蘇世謫)이 짓고 이항(李滉)이 썼는데 1562년(명종 17)에 건립하였다. 정난중 묘 아래 있는 묘 역시 쌍분으로 묘비의 상석이 있다. 묘비는 총 높이 135cm로 비신은 115×46×13cm 규모인데 전면에는 「조선국가산대부동지중추부사봉해군정공지묘 증정부인전주이씨지묘(朝鮮國嘉善大夫同知中樞府使蓬海君鄭公之墓 贈貞夫人全州李氏之墓)」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이와 같이 동래정씨 묘역은 선대를 밑에서부터 안장하는 등 특색한 양식으로 조선시대 묘제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생각된다. 특히 묘비 상단의 문양이 러발선초의 양식을 보여 미술사 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조선조(朝鮮朝)에서 18명의 상신(相臣)을 비롯한 수많은 명신현관(名臣賢官)을 배출해 낸 동래정씨는 전주이씨(全州李氏), 안동김씨(安東金氏)와 더불어 유명을 떨쳤으며 국난이 있을 때마다 충의열사(忠義烈士)가 배출되어 도덕과 학문이 뛰어났던 석학(碩學)들과 함께 명문 동래정씨의 가통(家統)을 더욱 빛나게 하였다.

14) 신안 주씨(新安 朱氏)

시조 주희(朱熹)의 원향(原鄕)이 중국 신안(新安)이어서 신안주씨(新安朱氏)로 내려오던 중, 문공(文公)의 증손 한림학사 주잠(朱潛)이 송나라의 조정이 붕괴 침입으로 화의(和議)에 기울자 이문 개탄하며 1224년에 2남 1녀의 자녀와 문하생 엽공제(葉公濟) 등 칠학사(七學士)를 대동하고 고려로 망명하여 전라도 나주에 정착하였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분산하여 살면서 새겨지에 따라 본관을 능성(陵城), 전주(全州), 압해(押海) 등 여러 갈래였던 것을 조선 고종 때 원사부기록국장(元師府記錄局長)이던 주석면(朱錫冕)이 조정에 발의하여 조선에 거주하는 주지(朱子) 후손들은 문공(文公)의 원향(原鄕)대로 신안(新安)으로 통일해줄 것을 상소하여 윤허가 내림으로써 신안 주씨의 복관(復貫)이 이루어졌다.



삼성사 원경

현재 신안주씨의 분파는 크게 형제의 순서대로 장계(長系), 중계(仲系), 계계(季系)로만 나누고 있다. 군포지역의 신안주씨는 정확하게 계보는 알 수 없지만 1960년 12월부터 1962년 4월까지 시흥시 남면 면장을 역임한 주경식(朱景植)이 있으며 부곡동 삼성마을에 주희의 사당을 짓고(삼성사) 주영호 씨(66세) 한 가구만이 14대째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신안주씨가 군포지역에 상당히 오래 전부터 거주해 온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주위의 군포지역에는 신기마을과 하부곡 지역, 속달동에 몇 가구 더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군포지역의 신안주씨 종회도 예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지고 수원지역의 주씨종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대신한다고 한다.

삼성사(三聖祠)는 주자의 진영(眞影)으로 모신 사우(祠宇)로 군포시 부곡동 삼성마을 동편에 위치하고 있다. 창건은 1882년 이 마을에 거주하던 주씨 문중의 유생 주정홍이 문중과 인근 사림의 도움으로 사우를 짓고 주자진영을 제주(祭酒) 임원회로부터 가져왔다. 그러나 주정홍이 죽자 삼성사도 폐허가 되고 말았다. 그러던 중 1911년 이종만과 이 마을의 인사들이 중수하였다. 이후 삼성사는 이종만과 주낙흥 및 향리 유림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계속해서 운주석전제를 기행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사우 일부가 붕괴되었고 주자의 영정도 불에 탔다. 이에 1952년 봄 문중 대표 주경식과 제장 박석오의 힘으로 복원하였다. 1973년에 이르러 사우가 오래됨에 따라 증건 위원회

를 구성하여 현 사무를 축조하였다. 제일(祭日)은 두 번으로 주자의 생신이신 음력 3월 9일과 주자가 돌아가신 음력 9월 15일이다. 제물(祭物)은 생식으로 육포, 호두, 은행, 밥 이렇게 4가지만 쓴다고 한다.

15) 경주 최씨(慶州 崔氏)

시조 최치원(崔致遠)은 울산 고려촌장 소벌도리의 24세손이며 신라 말기의 대문장기이다. 최치원은 869년(신라 경문왕 9) 12살의 나이로 당나라에 유학을 간지 5년후 17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승무랑 시어사에 이르고 자급어의를 하사 받았으며 제도행영 병마도총 고변의종사관을 역임하고 귀국하여 시독 겸 한림학사 병부시랑 지서서감이 되었으나 외직을 원하여 대신, 천령, 부성 등지의 태수를 역임하고 아손이 되었다. 그후 난세를 비판하여 전국을 유랑하다가 해인사로 들어가 은거하며 수도하다 63세로 생을 마쳤다. 그는 한시문집으로 『계원필경(桂苑筆耕)』(20권) 등의 명저를 남겼다.

경주 최씨는 26파로 나뉘었는데 그중 관가정공파(觀稼亭公派), 광정공파(匡靖公派), 정랑공파(正郎公派), 사성공파(司成公派), 화숙공파(和淑公派), 충렬공파(忠烈公派) 등의 6대파가 주축을 이룬다.

대표적 인물로는 고려 성종 때 문하시중을 역임한 최승로(崔承老), 고려 현종 때 평장사를 지낸 최항(崔沆), 조선 후기 동학을 창시한 최제우(崔濟愚) 및 그의 제자로서 동학의 제2세 교조인 최시형(崔時亨), 한말의 대표적인 위정척사론자인 최익현(崔益鉉) 등이 있으나 조선시대에는 그리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16) 청주 한씨(淸州 韓氏)²³⁾

청주한씨는 기자조선(箕子朝鮮)에서 기원을 찾고 있다. 기자의 이름은 서여(胥餘)·수유(須尤)이며, (殷)나라의 현인으로 주나라의 무왕(武王)이 은나라를 빼앗자 BC 1122년 동쪽으로 도망하여 조선에 들어와 기자조선을 건국하고, 팔조금법(八條禁法)을 가르쳤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의 사신여부는 개론의 여지가 있지만, 기자조선 마지막 왕인 준왕(準王)의 성(姓)이 청주한씨(淸州韓氏)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 후 고조선 준왕의 세 아들 중 우량(友諒)의 후손이라는 한린(韓麟 : 853~916)이 청주 한씨의 시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지금의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에서 탄생하여 향학(鄕學)을 일으키고 청주 방정리에 무농정(務農亭)을 세우고 농업을 권장하여 마침내 무농을 이루었는데, 이때

23) 청주한씨중앙총회(<http://www.chongjuhan.net/>).

왕건(王建)이 고려를 창업하는데 공을 세워 개국공신(開國功臣)이 되었으니 벼슬은 삼중대광 태위(三重大匡 太尉)이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태조가 건원(甄元)을 정벌하여 청주 고을에 당도하자 한란이 군례(軍禮)를 갖추고 이를 맞이하여 창고에 비축한 곡식을 풀어 10만 군사를 배불리 먹이고 참전하여 전공을 세웠다고 한다.

한란의 묘는 오늘날 충북 청원군 남일면 가산리 산18에 있으며, 1987년 충청북도기념물 제72호로 지정되었다. 원래의 묘가 조선 1659년(효종10)에 노봉(盧峯)에 의해 파괴된 것을 후손들이 숙종 16년(1690) 봉분을 복원하였다고 전한다. 묘소에는 고려시대의 묘비(墓碑)와 상석(床石) 등이 현존하고 효종 때의 문인석(文人石)과 용마석(龍馬石)이 보존되어 있어 고려 초기 묘역이 원형대로 남아 있다는 역사적 의의가 지닌다. 묘 바로 아래에는 영조 44년(1768)에 세운 신도비가 있는데 후손 한익모(韓翼森)가 찬하고 한광화(韓光晝)가 글씨를 썼으며 한덕필(韓德弼)이 전채(篆字)한 것이다.

시조인 한란이 청주 방정리에 살았기 때문에 그 후 자손들이 마침내 청주로 본관을 삼으니 혹은 상당(上黨) 또는 서원(西原)이라 함은 청주의 옛 지방이다. 선대로부터 한씨는 단일본이었으나 근세에 이르러서 (1) 예빈윤연(禮賓尹連)을 비조로 하는 안변(安邊) 한씨 (2) 평산백(平山伯) 후지를 비조로 하는 평산(平山) 한씨 (3) 평장사(平章事) 자화(自憲: 浚)를 비조로 하는 면천(沔川; 唐津) 한씨 (4) 시랑(侍郎) 언공(彦恭)을 비조로 하는 장단(長湍) 한씨 (5) 통사랑(通仕郎) 근(璵)을 비조로 하는 당진(唐津) 한씨 (6) 첨사(詹事) 원서를 비조로 하는 한양(漢陽) 한씨 (7) 중찬(中贊) 희유(希俞)를 비조로 하는 가주(嘉州) 한씨, 이상 7파가 본관(本貫)을 달리하게 되었다. 그의 부안(扶安), 양주(陽州), 금계(錦溪), 교하(交河), 신평(新坪) 등 본관을 달리했던 소문중(小門中)도 있었으나 현재는 평장사(平章事) 예(銳)를 비조로 하는 곡산 한씨(谷山) 한씨가 많은 수를 이루고 있으나 청주 한씨와는 본을 달리하는 씨족이다.

청주한씨 문중에서 군포에 거주하는 것은 장절공(襄節公) 한확(韓確, 1403-1456)의 아들인 치의(致義)를 중시조로 하는 장도공파(章悼公派)이다. 한확은 자가 자유(子柔), 호 간이재(簡易齋), 시호 양절(襄節)이다. 누님이 명나라 성조(成祖)의 비(妃)로 뽑혀 여비(麗妃)가 되자 1417년(태종 17) 진헌부사(進獻副使)로 명나라에 가서 광록시소경(光祿寺少卿)이 되었다. 다음해 세종이 즉위하자 고부청사승습사(告訃請誦承襲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오고 1438년(세종 20) 중추원사를 거쳐 1439년 경기도관찰사로 나갔다. 1440년 병조판서·함길도관찰사가 되고 1443년 한성부판사 1445년 중추원지사 겸 병조판서를 거쳐 이조판서가 되었다. 1451년(문종 1) 중추원판사로 사은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오고 1453년(단종 1) 계유정난 때 좌천성으로 수양대군(世祖)을 도와 정난공신(靖難功臣) 1등에 책록되고 서성부원군(西城府院君)에 봉해지고 우의정에 올랐다.

1455년(세조 1) 좌의정으로 좌익공신(佐翼功臣) 1등에 책록되고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에 개봉(改封)된 뒤 사은사로 명나라에 가서 세조의 왕위찬탈을 양위(讓位)라고 설득시켰다. 돌아오는 도중 사하포(沙河浦)에서 격사하였고 1470년(성종 1) 세조의 묘정(廟庭)에 배향되었다.

현재 군포시의 정주 한씨는 도장동에 70~80여호, 당정동에 40~50여호 세기하고 있다고 한다.

17) 남양 홍씨(南陽 洪氏)

남양홍씨는 동성동본이지만 조상을 달리하는 당홍(唐洪)과 토홍(土洪)으로 크게 나뉜다. 당홍은 고구려때 당나라에서 귀화해온 홍천하(洪天河)의 후예이고, 토홍은 고려 고종조 금오위별장(金吾衛別將)을 지낸 홍선행(洪先幸)의 후예로 9대 내지 12대손에서 문화공(文僖公), 정효공(貞孝公), 참의공(參議公), 주부공(主簿公), 대호군공(大護軍公)의 5파로 다시 갈라진다.

토홍 가문의 절정은 조선 중종 때 영의정에 오른 문화공(文僖公) 홍언필(洪彦弼)과 그의 아들 홍섬(洪澂)의 대라 할 수 있다. 홍섬은 1529년 선조대에 분과에 장원하여 영의정을 3번이나 역임하여 명상(名相), 청백리(清白吏)의 칭송을 들었는데, 부자가 영의정을 지낸 드문 기록을 세웠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홍법리 남양홍씨묘역은 홍언필, 홍섬, 우부승지 홍형, 이조·병조판서 홍담, 홍진도의 묘 11기 등 기념물들이 남아있어 1999년 4월 경기도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제4장 군포의 인물

1. 조선시대의 인물

1) 곽 황(郭 隍 : 생몰년도 미상)

곽황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本貫)이 현풍(玄風)이며 부사직 득상(得常)의 아들이고 증병조판서 한방(翰邦)의 조부가 된다. 1556년(명종 11) 별시 을과에 급제하였고 장사랑(將仕郎)을 지내던 중 26세에 요절(夭折)하였고 후에 병조참의에 추증되었다. 자는 경정(景靜)이다.

군포시 부곡동 산 115번지에 있는 곽황의 묘갈(墓碣)은 조선 후기에 세워진 비로 비좌원수(碑座圓首)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대석(臺石)에는 복연(復緣)과 안상문(眼象紋)이 있다. 제액(題額)에는 「곽황지묘(郭隍之墓)」라 해서(楷書)로 썼으며 자경(子徑)은 5.7cm이고 전면의 자경은 2.8cm의 해서이며 찬·서지(撰·書者)의 기록이 없다. 비의 상태는 양호하며 묘소에는 증숙부인 고령박씨(高靈朴氏)와 합장(合葬)하였고 상석(床石)· 향로석(香爐石)· 혼유석(魂遊石)· 족석(足石)· 계제석(階砌石)· 문인석(文人石)이 있다.

이 묘소는 1970년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에서 친장(遷葬)한 것이다.

2) 김동현(金東獻 : 1791~1869)

김동현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자경(子敬)이고 본관은 청풍(淸風)이다. 증조부 치후(致堯)는 관찰사를 지내고 의정부 좌찬성에 추증되었고, 조부 종장(鍾章)은 이조판서를 역임하고 청천군(淸川君)에 봉해졌으며, 아버지 명연(命淵)은 동녕부도정을 지내고 의정부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어머니는 증추부판사(中樞府判事)를 지낸 남홍억(南洪億)의 딸이다.

1830년(순조30)에 토목과 건축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선공감(繕工監)의 감역(監役)에 제수되었으



리항 요감

나 마침 부친상을 당하였으므로 벼슬에 나가지 않았고 1832년에 세자익위사부수(世子翊衛司副率)이 되었으며 이어서 오위사과(五衛司果), 사복시주부, 충훈부도사(忠勳府都事)를 거쳐 외적으로 나가 임실현감·영천군수·광주부판관·담양부사·안주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1850년에 철종이 즉위하자 품계는 봉정대부로 승진하고 공조참의·호조참의·승정원우부승지·오위장(五衛將)·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등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1860년(철종 11)에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이 되니 이후에도 도총부부총관·공조참관·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등을 역임하고 경연특진관(經筵特進官)에 차임되었다. 1862년에 강화부유수(江華府留守)가 되었고 1886년(고종 3)에 병조참판 등을 지내고 공조판서와 지돈녕부·의금부판사까지 승진하였다. 사후에 좌찬성과 우의정에 추증되고 효정(孝貞)의 시호가 내려졌다. 묘는 지금의 군포시 금정동에 있었다.

3) 김만기(金萬基 : 1633 ~ 1687)

김만기는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속종의 장인이며 본관은 광산이다. 자는 영숙(永叔), 호는 서석(瑞石)이며 아버지는 충정공(忠正公) 익겸(益兼)이고 어머니는 증 정경부인 해평윤씨로 참판 지의 딸이다. 형조참판을 지낸 장생(長生)의 증손이고 이조참판을 지낸 반(盤)의 손자이며 생인 익겸(益兼)의 아들이다. 『구운몽』을 지은 김만중(金萬重)이 그의 아우이다. 인경왕후의 아버지인 숙부 익희(益熙)에게서 수학하였으며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이다.

1652년(효종 4) 생진양시에 장원하고 이듬해 별시문과에 을과 3인으로 급제하여 장예원, 승문원 주서, 설서를 역임하고 예조, 병조좌랑과 사헌부지평을 지냈다. 시간원 정인, 홍문관 부수찬, 부교리에 임명되었다. 1657년에 교리로서 글을 올려 『오례의(五禮儀)』의 복상제(服喪制) 등 잘못된 것을 개정하기를 청하였고 1659년 5월에 효종이 죽자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服喪) 문제로 논란이 있을 때 기년설(莛年說)을 주장하여 3년설을 주장하던 남인 윤희도(尹普道)를 공격하였다.

1660년(현종 4) 수찬이 되고 이듬해 응교, 사복시정, 성균관사성, 의정부 사인, 동부승지를 거쳐 1666년(현종 8) 전라도관찰사로 임명되었으나 편모를 떠나 멀리 갈 수 없다고 사양하니 대사간이 되고 곧 좌승지로 옮겼다. 이듬해 예조참의에 승진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그 후 광주부윤에 제수되어 선정을 베풀었다. 1671년(현종 13) 딸이 세자빈이 되었고 이후 예조참판에 승진, 승문원 제조, 도총부 부총관, 판상감 제조를 겸했다가 병조참판으로 옮겼다. 이듬해 대사성이 되고 곧 부제학으로 전보되었다가 양관대제학, 지성균관사, 동지경연사에 동지의금부사를 겸임했다.

1673년 영릉(寧陵)을 옮길 때 산릉도감(山陵都監)의 당상관이 되었으며 1674년 7월에 병조판서로서 다시 자의대비의 복제에 대하여 상소를 올려 3년상을 주장하였다. 그 해 속종이 즉위하자 국구(國

男)로서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에 승진되고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에 봉해졌다. 그리고 총융사(摠戎使)를 겸함으로써 병권을 장악하였고 김수항(金壽恒)의 천거로 대제학이 되었다.

숙종 6년(1680) 경신환국이 일어났을 때 훈원대장으로서 끝까지 급하지 않고 남인과 맞섰으며 강만철(姜萬鐵) 등이 허적의 서자 견(堅)과 종실인 복창군(福昌君)·복선군(福善君)·복평군(福平君) 등이 역모를 꾀한다고 고발하자 이를 다스려 보사공신(保社功臣) 1등에 책록되었다.

경서, 사기 외에도 제가서에도 달통하였으니 저서로 시문(詩文) 16권과 『서석집(瑞石集)』이 있다. 『서석집』은 1701년(숙종 27)에 간행된 활자본이며, 18권 9책으로 1701년(숙종 27)에 손자 춘택(春澤)이 수집·간행하였다. 내용은 시(詩)·서(序)·기(記)·발(跋)·제문(祭文)·잡문(雜文)·잡(箴)·찬(箋)·비답(批答)·교서(敎書)·상량문(上樑文)·애복문(哀服文)·고제문(告祭文)·치제문(致祭文)·책문(策文)·서(書)·계(啓)·소(疏)·시경(諡狀)·지갈(誌謫)·표(表)·부록 등이 실려 있다. 책끝에 아우 만중(萬重)의 발문이 있다. 이 책은 당시 서인과 남인 사이의 격심한 당쟁과 정권투쟁에 관한 내용이 많아 당쟁사를 아는 데 참고자료가 된다.

의정부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문충공(文忠公)이며, 1719년(숙종 46) 현종 묘정에 배향되었고 묘는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산1-12번지에 있다. 대야미 천철역 우측 길로 갈치 마을을 지나 우측에 책실이 있는데 이 책실 뒤에 있다. 1992년 경기도 기념물 제131호로 지정되었다. 묘역 중앙에는 대형묘가 8개의 호석에 둘러 쌓여 있고 그 앞 좌측에는 묘표가, 우측에는 숙종 어필의 묘표가 있으며 그 앞 좌측에는 8각의 방주석과 문인석이 각각 위치해 있다. 1688년(숙종 14)에 세워진 묘표의 비문은 송시열이 짓고 김진규가 글씨를 쓴 것이고 숙종 어필의 묘표는 1699년(숙종 25)에 세운 것이다. 신도비는 묘표와 마찬가지로 비문은 송시열이 짓고 김진규가 글씨를 쓴 것으로 4각의 기단위에 비신은 그 위에다 첩석을 얹었다.

어필비는 1699년(숙종 25)에 세워졌으며 마멸 상태는 양호하고 대석에는 복연·당초문(唐草紋)·동자주(童子柱)가 있고 비의 전면 중앙에 ‘어필(御筆)’이라고 숙종이 전서로 썼는데 글자의 지름은 12.0cm이고 행서의 글자 지름은 11.0cm이며 후면은 아들 김진규(金鎭龜)가 짓고 예서(隸書)로 썼으며 글자 지름은 2.3cm이다. 한편 신도비는 1703년(숙종 29)에 세워졌고 개석은 단조롭고 대석에는 문양이 없다. 제액(題額)에는 ‘광성부원군김공신도비(光城府院君金公神道碑)’라고 아들 김진규(金鎭圭)가 전서로 썼으며 자경(字徑)은 14.0cm이고 음기(陰記)는 해서로 자경은 2.2cm이며 비문은 송시열(宋時烈)이 지었다.

이곳 묘역에는 만기 이외에 그의 아들 진구(鎭龜)와 손자 춘택(春澤)의 묘도 있다.



김만기 모역

4) 김명연(金命淵 : 1753~1830)

김명연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원명이고 본관은 청풍이다. 조부는 관찰사를 지내고 의정부 좌찬성에 추증된 치후(致厚)이고 아버지는 이조판서를 역임하고 청천군(淸川君)에 봉해진 증정(鍾正)이다. 처는 중추부판사(中樞副判事)를 지낸 남홍익(南洪楫)의 딸이다.

1771년(정조 1)에 형인 희연과 함께 사마시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가 동녕부도정에 이르렀다. 죽은 후 의정부 좌찬성에 추증되었는데, 효도와 절의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묘는 군포시 금정동 느티울에 있었다.

5) 김진구(金鎭龜 : 1651~1704)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수보(守甫), 호는 만구외(晩求窩)로 영등령부사(領寧寧府使) 김만기(金萬基)의 아들이며 인경왕후(仁敬王后)의 오빠이다.

1673년(현종 15) 사마양시에 합격하였고 1680년(숙종 6)에 별시 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고 사관(史官)이 되어 『현종실록(顯宗實錄)』 수찬에 참여했다. 이어 정언(正言)·헌납(獻納)·교리(校理)·응교(應教)·검의(檢義) 등을 역임하였다. 좌승지(左承旨)·수원 부원(水原府尹)이 되었으며 1684년(숙종 10)에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다.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남인이 정권을 잡고 서인이 실각하자, 이에 앞서 김석주(金錫胄)와 함께 기혹한 수법으로 남인을 숙청하였다는 탄핵을 받고 제주도에 위리안치되었다.

1694년 갑술환국(甲戌換局)으로 서인이 집권하자 호조참판에 기용된 뒤 도승지(都承旨)·전라 관찰사를 거쳐 1696년에는 강화유수(江華留守)·세자가례부사(世子嘉禮副使) 등을 역임하였다. 1698년(숙종 24)에는 한성부판관(漢城府判官)이 되어 도성수축(都城修築)을 주장하였다. 형조·공조·호조의 판서분 역임한 뒤 1700년에는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우참찬(右參贊)·좌참찬(左參贊)을 거쳐 1702년에는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에 이르렀다. 광운군(光運君)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경헌(景獻)이다.

묘는 경기도 군포시 대야비동에 있으며 신도비명은 도곡(陶谷) 이의현(李宜顯)이 짓고 아우 죽천(竹泉) 진규(鎭圭)가 묘표를 지었다.

6) 김춘택(金春澤 : 1670~1717)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본관은 광산, 자는 백우(伯雨), 호는 북헌(北軒)이다. 아버지는 호조판서인 진규(鎭圭)이고 어머니는 정경부인 한산이씨로 지평 광직(光稷)의 딸이며 할아버지는 숙종의 장인인 만기(萬基)이다.

증조모 윤씨에게서 학업을 익히고 증조부 만중(萬重)으로부터 문장을 배웠다. 어려서부터 재질이 특이하여 김수항(金壽恒)의 탄복을 받기도 하였다.

노론의 중심가문에 속하였으므로 항상 정쟁의 와중에 있었으며 특히 1689년(숙종 16) 기사환국으로 서인(西人)이 제거되고 남인(南人)이 집권하자 그 집안이 크게 화를 입어 그도 여러 번 유배 또는 투옥되었다.

1694년 재물로 궁중에 내통하여 폐비 민씨를 복위하게 하고 정국을 뒤엎으려 한 혐의로 체포되고 심문받았으나 갑술환국으로 남인이 축출되면서 풀려났다. 그 뒤 서인이 다시 노론(老論) 소론(少論)으로 갈라지자 노론에 속하여 환국의 공로자로 칭송받았으나 남구만(南九萬) 등의 소론으로부터는 음모를 이용한 파행적 정치활동을 행하였다고 공격받았다. 1701년 소론의 탄핵을 받아 부안(扶安)에 유배되었으며 회빈 장씨의 소생인 세자를 모해하였다는 혐의를 입어 서울로 잡혀가 심문을 받고 1706년 제주로 옮겨졌다.

1886년(고종 24) 이조판서, 성균관 재주, 광령군(光寧君)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충문공(忠文公)이다. 시계가 뛰어나며 문장이 유창하였고 증조부 김만중의 소설 『구운몽(九雲夢)』과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를 한문(漢文)으로 번역했다. 지서로 『복헌집』 20권 7책과 『만필漫筆』 1책이 있다. 글씨에도 뛰어났다. 그가 지은 『별사미인곡(別思美人曲)』은 작자가 제주도로 귀양가 있을 때 지은 가사인데 그 시대에 한문 숙어가 거의 없는 순한글체로 언어 구사의 평이상을 살린 점은 높이 살 만하다. 글씨로는 『호판김진귀표(戶判金鎭龜表)』가 있다.

묘(墓)는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다.

7) 송 겸(宋謙 : 생몰연대 미상)

송겸(宋謙)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자는 여운(汝溫), 호는 추애(秋厓), 본관은 여산이다. 조부는 덕원부사(德源府使)와 내자시의 정(正)을 지낸 숙가(叔珪)이고 아버지는 김포현령을 역임한 세정(洗精)이다. 1520년(중종 15)에 생원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경상도 관찰사, 한성관윤, 형조판서에 이르렀다. 묘는 군포시 급정동 여산송씨 정가공파 선영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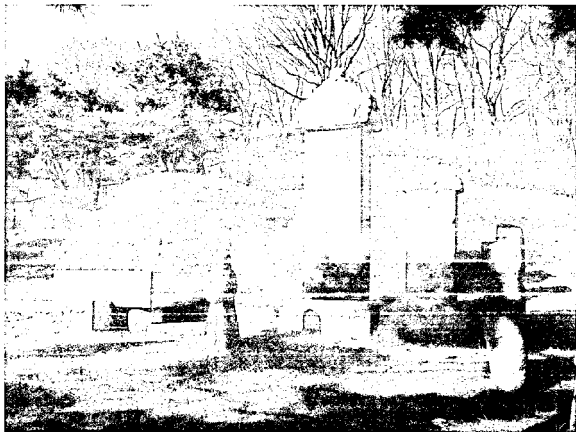
8) 송복산(宋福山 : 1390~1467)

조선 초기 문신으로 자는 향부(享夫), 호는 묵재(默齋), 본관은 여산(嶺山)이다. 고조 분(玟)과 증조 서(瑞)는 모두 고려 왕조에서 시중을 역임하였고 조부 윤번(允蕃)은 병조 참판에 증직되었으며 아버지 전(瑱)은 나주목판사(羅州牧判事)를 지냈다. 어머니는 감찰규정 김의진(金義珍)의 딸이다.

그는 처음 윤사(諱仕)로서 사정(司正)에 임명되고 여러 관직을 거쳐 감찰과 시농소윤(司農小尹)이 되었다. 그 후 네 현(縣)의 수령을 지내고 해주 목사에 전임되었는데 가는 곳마다 선정을 베풀었다. 후에 승진을 거듭하여 품계는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이르고 형조참판·호조참판 등을 거쳐 한성부판사에 올랐다. 1469년 4월 78세의 나이로 죽자, 지금의 군포시 급정동 산11번지에 묘소를 조성하였다.

조선 1482년(성종 13)에 건립한 송복산의 묘갈은 군포시청 뒤 묵재에 위에 흥훈탑의 우측 돌계단으로 올라가면 맨 위에 묘소가 있고 그곳에 있다. 이 비는 비좌하엽(碑座荷葉)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하엽과 비신은 하나의 돌로 되어있는데 하엽은 연꽃잎과 보주(寶珠)의 형상이 있고 대석은 마말이 심해 문양을 알아보기가 어렵다. 비문은 이승소(李承召)가 짓고 전면의 자경(子徑)은 2.5cm의 해서이다. 비의 전면엔 총탄흔적이 다섯 곳이나 있고 후면의 중앙 부분은 마말이 심해 판독이 쉽지 않다.

묘소에는 숙인 함천이씨(淑人 陝川李氏)와 쌍분(雙墳)·상석(床石)·향로석(香爐石)·혼유석(魂遊石)·족석(足石)·계계석(階砌石)·장명등(長明燈)·문인석(文人石)2기·망주석(望柱



송곡산 묘

石)이 있으며 1989년에 세운 비좌하업의 묘갈이 있고 목음재 좌측에는 1989년에 세운 귀부이수의 대리석 신도비가 있는데 강정희(姜正熙)가 짓고 글씨를 썼다.

9) 송숙기(宋叔琪 : 1426~1489)

송숙기(宋叔琪)는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자는 거보(巨寶), 호는 월당(月塘), 본관은 여산이다. 한성부판사 송복산(宋福山)의 첫째아들이다. 세보(世寶)와 부패(符牌) 등을 관장하던 상서원(尙瑞院)의 직장(直長)을 거쳐 1455년(세조 1)에 원종 공신에 올라 사헌부 감찰이 되었다. 성종 2년(1471)에 좌리공신(佐理功臣)에 책훈(冊勳)되었고 한성서윤(漢城庶尹), 장단(長湍)과 풍덕군수(豊德郡守), 덕원부사(德源府使), 사섬시와 내자시의 정(正)을 역임하였다. 죽은 후 이조 참관에 추증되었으며, 묘는 지금의 군포시 급정동 산 11번지에 조성되었다.

조선 성종 20년(1489)에 건립된 송숙기의 묘갈(墓碣)은 군포시청 뒤 목음재 위에 충혼탑의 우측 들계단으로 올라가면 중간 부분에 묘소와 함께 있다. 이 비는 비좌(碑座)하업(荷葉)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하엽과 비신은 하나의 돌로 되어있는데, 하엽은 연꽃잎과 보주(寶珠)의 형상이 있고, 대석에는 복연(覆蓮)과 안상문(眼象紋)이 있다. 제액(題額)에는 '사찰시정승군거묘(司階寺正宋君之墓)'라 전서(篆書)로 썼으며 자경(子徑)은 6.0cm이고 전면의 자경은 1.7이며 우측면의 자경은 6.0cm의 해서로 안취(安塚)이 쓰고 비문도 지었다. 비의 마멸이 심해 일부 관독이 남아한 곳이 있으며 묘소에는 증정부인 용인씨(贈貞夫人 龍仁李氏)와 쌍분(雙墳)·상석(床石)·향로석(香爐石)·혼유석(魂遊石)·족석(足石)·계체석(階砌石)·장명등(長明燈)·문인석(文人石)이 있으며 1989년에 세운 비좌하엽의 묘각이 있는데 강정희(姜正熙)가 글씨를 썼다.

10) 송 천(宋 璜 : 생물연대 미상)

송원(宋璜)은 조선시대 문신으로 처음의 이름은 직(績)이고 호는 과일(果菴), 본관은 여산이다. 한성부판사 송복산(宋福山)의 둘째 아들이다. 단종 때 궁중에 쓰이는 생선·소금·연료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사재감(司宰監)의 주부(主簿)에 천거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단종이 퇴위하자 당시 과천현에 속해 있던 현재의 군포시 금정동에 은거하여 이맹전(李孟傳)과 함께 과천차사(果川處士)로 일컫어졌다. 이어 금오산에 들어가 숨어살며 김종직(金宗直)과 교유하였다. 죽은 후 호조참판에 추증되었다.

11) 안양군 이항(安陽君 李衍: 1480~1504)

안양군은 성종의 3남으로 태어나서 1504년(연산군 10)에 사사되었다. 그의 이름은 항(衍)이며 자는 성의(聖儀), 호는 만송(晩松), 시호는 공화(恭愍)이다.

어머니는 귀인 초계정씨이다. 초계정씨는 그를 비롯하여 봉안군(鳳安君)과 정혜옹주(靜惠翁主) 등 3남매를 두었는데 안양군은 이 중 장남이다. 배위는 면천군부인(沔川郡夫人) 능성구씨로 정국공신(靖國功臣) 판서 능천군 구수영(具壽永)의 딸인데 1480년(성종 11)에 태어나 1556년(명종 11)에 별세하였다.

연산군이 생모인 폐비 윤씨(尹氏)사건의 원인이 성종의 후궁인 정씨와 엄씨(嚴氏)의 참소(讒訴)에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봉안군 봉(寵)을 이에 연루시켰다.

1504년(연산군 10)에 제주에 안치되고 가계는 적몰(籍沒)되었다. 그리고 노비전토사채(奴婢田土私債)는 추쇄(推刷)되고 봉과 함께 사사되었다. 그러나 중종이 즉위하면서 생모인 정씨에게는 삼년제 불이 내려지고 안양군과 봉안군에게는 쌀·종이·정포(正布)·목면 등이 내려짐과 동시에 관리를 파견하여 제사지내하도록 하였다. 1520년(중종 15)에 부인의 상소에 따라 택지(擇地)하여 개장하도록



안양군 묘

교지가 내렸다.

한편 안양군이 사사 당했을 때 상주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의 장인인 구수영이 운장하여 구씨 선산인 경기도 양주군 진관면 군장리 묘좌에 면천군부인 능성 구씨와 쌍립하여 매장하였다. 그러나 이곳이 고종의 능지로 예정되었으므로, 1901년(광무5) 시흥군 남면 광정리(지금의 군포시 산본동) 수리산하의 건좌에 합장하였다.

안양군이 제주도 적소에서 향년 25세로 참화를 당하였을 때 서울에 있던 공주 주씨가 유자인 당시 8세 된 증남도정(從南都正) 억수(億壽)와 함께 지금의 군포시 산본동 수리산하 평정동에 숨어 살아 이곳을 고향과 선영으로 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안양군 묘소만 현지에 남아있고 나머지 전체 선영은 1993년 2월 국가 개발정책에 의하여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상기리 산74번지로 이장하였다.

안양군 묘역의 규모는 약 300여평으로 연지, 사당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묘역에는 상석, 향로석, 묘표가 각 1기씩 세워져 있고, 동자석, 석수, 망주석, 문인석 등의 석조물이 각각 2기씩 있다. 재질은

모두 화강암이다. 후에 이 묘역에 신도비를 세웠는데 비문은 통정대부 거창 신증목이 지은 것은 1976년 이인형이 쓰고 김충현이 전액을 하여 건립하였다. 안양군 묘는 1990년에 경기도 기념물 제122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12) 안우삼(安友參 : 1441~1494)

안우삼은 조선 전기의 문인으로 자는 효백(孝伯)이고 본관은 순흥(順興)이다. 세조때 연안부사(延安府使)를 역임한 안의(安誼)의 아들이다. 할아버지 안송선(安崇善)은 비슬이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서 세종초(世宗初) 때의 유명한 재상(宰相)이다.

음보(蔭補)로 도목과 건축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선공감(繕工監)의 정(正)과 남양부사(南陽府使)를 지냈으며 여러 궁과 고관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을 관장하던 내선사(內膳寺)의 정을 역임하였다.

그 이후 남부녹사(南部錄事)가 되고 종부직장(宗簿直長)·형조정랑·한성서윤(漢城庶尹)을 역임하였다. 내선시정(內膳時正)과 선공감정(繕工監正)은 다 장관이다. 그가 부임한 경기(京畿) 내의 사무가 많은 읍에는 정사(政事)가 선양되고 백성을 사랑하여 크게 명성과 공적이 있었다. 일찍이 의영고랑(義盈庫令)으로 있었을 때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관물(官物)을 출납하다가 모두다 죄를 받아 파면되었지만 안우삼은 홀로 면하였다. 1494년(성종 25) 10월에 이천 임소(任所)에서 타계하였다.

안우삼과 관련된 유물로 묘표(墓表)가 있다. 안우삼 묘표는 산본역에서 안산 방면으로 도장터널을 지나 궁내터널로 후회전 후 쓰레기 조각장을 지나면 순흥 안씨 묘소 입구 표석에서 좌회전 후 언뚝을 지나 우측 산에 있다. 1496년(연산군 2)에 세워진 이 비는 비좌관석(碑座冠石)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관석과 비신은 하나의 돌로 되어 있는데 관석에는 운문(雲紋)이 7개가 있고 후면도 동일하며 측면에는 운문만 있다. 대석에는 복연(覆蓮)과 안상문(眼象紋)이 있는데 마멸이 심해 형태만 남아 있다.

비문은 유순(柳海)이 짓고, 앞 면의 글자 크기는 6.5cm이며 뒷 면의 글자 크기는 2.3cm의 해서(楷書)이다. 비는 후면 일부의 마멸이 심해 관독이 난이한 곳이 있으며 묘소에는 숙인 청주한씨(淑人淸州韓氏)와 쌍분(雙墳)·호석(護石)·상석(床石)·향로석(香爐石)·혼유석(魂遊石)·족석(足石)·계체석(階砌石)·문인석(文人石) 등이 있으며, 1990년에 새운 비좌이수의 대리석 묘표가 있다.

13) 안우하(安友夏 : ?~1544)

안우하는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자는 지촌(智村)이고 본관은 순흥(順興)이다. 세조 때 성주목사(星州牧使)와 연안부사(延安府使)를 역임한 안의(安誼)의 아들이다. 1476년(성종 7)에 진사가 되고 영평군수(永平郡守)등을 역임한 후 연산군이 즉위하자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조정의 실정을 탄탄하며 과천현 수리산에 은거하였다.

1523년(중종 18)에 노인직으로 첨지 중추부사에 이르렀으며 죽은 후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묘는 군포시 산본동에 조성되었다.

14) 안 의(安 誼 : 1423~1467)

조선전기의 문인으로 본관(本貫)이 순흥(順興)이며 자는 지(之)이다. 고려의 명현 안축(安軸)의 후손이다. 고(考)는 안송신(安崇善)인데 문과(文科)에 장원으로 뽑혀 벼슬이 의정부 좌참찬에 이르렀고 『고려사(高麗史)』 수찬(修撰)에 참여했으며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조(祖)는 안순(安純)인데 우찬성(右贊成)으로 시호는 정숙(靖肅)이다. 증조는 안경공(安景公)으로 개국공신이며 흥녕부원군(興寧府院君)에 봉해졌다.

1477년(세종 29)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한 후 음보(蔭補)로 여러 관직을 거쳐 의영고적장(義盈庫直腸)·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을 역임한 후 증훈부경력(忠勳府經歷)·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연안부사(延安府使)를 거쳐 성주목사(星州牧使)를 지내던 중 지병으로 순직하여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안의를 어릴 때부터 학문에 뜻을 독실히 하여 1477년(세종 29)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사헌감찰(司憲監察)로 승진되고 증훈부경력(忠勳府經歷)·사헌지평(司憲持平)을 거쳐 연안부사(延安府使)와 성주목사(星州牧使)로 나아갔다. 1468년(세조 14) 병으로 집에서 타계하였다.

그는 타고난 자질이 빼어나고 효심과 우애가 돈독하여 어버이 섬김을 정성껏 하고 형제간에 대하기를 화목하게 하였으며, 동료에게는 반드시 신의를 가지고 대하니, 사람들이 매우 존경하였다고 한다. 불행히 수름 다 못하고 명성에 맞는 높은 벼슬에 이르지 못하니 사람들이 다 애석하게 여겼다.

안의에 관련된 유물로 묘갈(墓碣)이 있다. 안의 묘갈은 산본역에서 안산 방면으로 도장터널을 지나 궁내터널로 후회전 후 쓰레기 소각장을 지나면 순흥안씨 묘소 입구 표석에서 좌회전 후 언뚝을 지나면 좌측 산에 있다. 1503년(연산군 9)에 세워진 이 비는 비좌이수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이수과 비신은 하나의 돌로 되어 있고 이수 전면에는 용두(龍頭)화 되 두 마리의 이무기가 가운데의 여의주를 마주

올려다보며 농주(弄珠)하고 그 아래에는 운문이 있으며 후면도 동일하고 좌우측면에는 용포리와 운문이 있다. 그리고 대석에는 복연과 안상문의 문양이 있다.

비문은 성현(聖賢)이 짓고 앞 면의 글자 크기는 3.5cm이며 뒷 면의 글자 크기는 2.0cm로 해서(楷書)로 새겼다. 비는 전·후면 모두 마멸이 심해 판독이 난이한 곳이 있으며 묘소는 정부인 파평윤씨(坡平尹氏)와 합장(合葬)되었으며, 호석(護石)·상석(床石)·향로석(香爐石)·혼유석(魂遊石)·족석(足石)·계체석(階砌石)·장명등(長明燈)·문인석(文人石)·소지대(燒紙臺)·양석(羊石) 등이 있으며 1990년에 16대손 안동준(安東濬)이 글씨를 써서 세운 비좌이수의 대리석비가 있다.

15) 양 속(梁 淑 : 1471~1528)

양속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本貫)이 남원(南原)이며 자(字)는 자경(子澄)이고 호는 송은(松隱)으로 동부승지(同副承旨) 권(權)의 아들이다.

연산군 8년(1502) 천거(薦擧)로 빙고별제(氷庫別提)를 거쳐 예빈시주부(禮賓寺主簿)·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장례원(掌隸院)사평(司評)·충익부도사(忠翊府都事)·의영고령(義盈庫令)·군자감정(軍資監正)·한성부판관(漢城府判官)·예빈시첨정(禮賓寺僉正)·사설시정(司贖寺正)·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을 역임하였으며 외직(外職)으로는 함경도사(咸鏡都事)·공주판관(公州判官)·양근군수(陽根郡守)·이천부사(利川府使)·정주목사(定州牧使)를 지냈으며 후에 병조참판에 증직되었다. 20여년 간의 관직생활을 하는 동안 근면하게 공무를 처리한다는 평을 받았다.

군포시 부곡동 산 78번지에 있는 양속 묘갈(墓碣)은 군포에서 안산 방면으로 가는 47번 국도에서 부곡 복합화물 터미널로 좌회전후 복합화물 터미널을 못가 좌측의 지하도를 통과하여 좌측 산 중간에 모친 진천송씨(鎭川宋氏)의 묘소 아래에 있다. 이 비는 비좌원수(碑座圓首)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대석(臺石)에는 복연과 안상문(眼象紋)이 있다. 제액(題額)은 「증판판양공묘갈(贈參判梁公墓碣)」이라고 전서(篆書)로 썼으며 자경은 7.5cm이며 전면의 자경은 5.0cm이고 후면의 자경은 1.8cm의 해서(楷書)로 송인(宋寅)이 쓰고 추기(追記)도 하였으며 비문은 김안국(金安國)이 지었다. 비의 후면 상부는 마멸이 심해 판독이 불가능하고 하부는 일부 판독이 가능하나 우측 부분이 파손되어 시멘트로 보강시켰으며 묘소에는 정부인 파평윤씨(坡平尹氏)와 합장·호석(護石)·상석(床石)·향로석(香爐石)·혼유석(魂遊石)·족석(足石)·계체석(階砌石)·망주석(望柱石)·문인석(文人石)이 있다. 이 묘소는 1968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목동에서 옮겨온 것이다.

16) 양윤의(梁允義 : 1489~1564)

양윤의는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이 남원(南原)이며 자는 중유(仲由)로 정주목사(定州牧使) 숙(淑)의 아들이다.

1552년(중종 17) 과거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이 되었고 이후 도총부도사(都摠府都事)· 상의원원정(尙衣院僉正)· 내설시정(內膳寺僉正)· 훈원도정(訓鍊院都正)· 도총부부총관(都摠府副摠管)을 지냈으며 의직으로는 벽동군수(碧潼郡守)와 정평(定平)· 김해(金海)· 수원(水原)· 안변(安邊)· 인천(仁川)의 부사(府使)를 역임한 후 진라 수사(水使)· 경상도· 평안도의 절도사(節度使)를 지냈다.

1622년(광해군 12)에 군포시 부곡동 산 78번지에 세운 양윤의 묘갈(墓碣)은 군포역에서 안산 방면으로 가는 47번 국도서 부곡 복합화물 터미널로 좌회전 후 복합화물터미널을 벗어 좌측의 지하도를 통과하여 가면 좌측 산 중간에 조부 양찬의 묘소 아래에 있다. 이 비는 비좌원수(碑座圓首)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대석에는 복연(復緣)과 안상문(眼象紋)이 있다. 제액(題額)에는 「동지돈령양공묘갈명(同知敦寧梁公墓碣銘)」이라고 전서(篆書)로 썼으며 글자의 지름은 7.5cm이며 전면의 자경은 5.0cm이고 후면의 자경은 1.8cm의 해서로 오백량(吳百齡)이 쓰고 비문은 오억량(吳億齡)이 지었다.

비의 마멸이 전체적으로 심하고, 후면 하단부를 시멘트로 보강시켜 판독이 불가능한 곳이 있다.

정부인 죽산박씨(竹山朴氏)의 묘소는 좌측 산에 있고 이 묘소에는 정부인 남양홍씨(南陽洪氏)와 합장(合葬)· 호석(護石)· 상석(床石)· 향로석(香爐石)· 혼유석(魂遊石)· 족석(足石)· 계체석(階砌石)· 문인석(文人石)· 망주석(望柱石)이 있다.

17) 양 찬(梁 瓚 : 1443~1496)

양찬은 조선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이 남원(南原)이며 자(字)는 여옥(汝玉)이고 호는 난포(蘭浦)로 남원군(南原君) 성지(誠之)의 셋째 아들이다.

1465년(세조 10) 무과(武科)에 급제하고 1468에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으며 1478년(성종 9)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역임한 후 승정원동부승지(同副承旨)를 거쳐 1496년(연산군 2) 첨지사(僉知事)가 되었다.

군포시 부곡동 산 78번지에 있는 그의 묘표(墓表)는 1968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에서 옮겨온 것으로 군포역에서 안산 방면으로 가는 47번 국도에서 부곡 복합화물 터미널로 좌회전한 후 복합화물

터미널을 못가 좌측의 지하도를 통과하여 가면 좌측 산 중간에 있다. 1497년(연산군 3)에 만든 이 비는 비좌하엽(碑座荷葉)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하엽과 비신은 하나의 돌로 되어 있는데 하엽은 연꽃잎과 보주(寶珠)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대석(臺石)에는 복연(覆蓮)과 안상문(眼象汶)이 있는데 마멸이 심하다. 비의 전면(前面) 자경(字徑)은 3.4cm이고 후면의 자경은 3.0cm의 해서로 썼으며 찬·서자(撰·書者)의 기록이 없다. 비의 상태는 양호하며 숙부인 진천송씨(鎭川宋氏)의 묘소는 우측 산에 있고 이 묘소에는 상석(床石)·향로석(香爐石)·혼유석(魂遊石)·족석(足石)·계계석(階階石)·장명등(長明燈)·문인석(文人石)·양석(羊石)·방주석(望柱石)이 있다.

이 묘소는 1968년 천장(遷葬) 후 이해 가운데 현덕사(顯德祠)와 정강재(正綱齋)를 지었으며 이때 세운 남원양씨세천기념비(南原梁氏世天紀念碑)는 구부이수의 대리석비로 후손 양태석(梁兌錫)이 비문을 짓고 이보림(李普林)이 글씨를 썼다.

18) 이기조(李基詒 : 1595~1653)

이기조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자선(子善), 호는 호암(浩菴), 본관은 한산(韓山)이다. 판서를 지낸 현영(顯英)의 아들이며 박동열(朴東說)의 문인이다.

광해군 7년(1615) 진사로서 알성문과(謁聖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 박사로 정홍명(鄭弘溟)을 천거했다가 정인홍(鄭仁弘) 등 대북파(大北派)의 탄핵에 의하여 파직되어 그의 아버지 현영과 함께 수원 쌍부촌(雙步村)에 은거하였다. 1623년에 인조반정으로 형조좌랑이 되었다가 뒤이어 정언(正言)이 되었다. 이듬해 일어난 이괄(李适)의 난 때에는 한남도원수(漢南都元帥)의 종사관(從事官)으로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웠다. 이후 청요직(淸要職)을 여러차례 역임한 뒤 병조참의·공주목사(公州牧使)·호조참의를 거쳐 1635년(인조 13)에는 경상도 관찰사를 나가 많은 치적을 쌓아 승덕비가 세워졌다.

1636년 안변부사로 있을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평안도찬회사(平安道贊贊制使)로서 적과 싸우기를 원하였으나 감사(監司)의 반대로 좌절되자 죽도(竹島)에 영을 설치하고 백성들을 피난시켜 적의 칼날을 피할 수 있게 하였다. 난이 끝난 후 도승지에 이어 대사간, 이조참의와 참관을 역임하였고 1645년 부제학으로 동지사(冬至使) 겸 정조 성절사(正朝聖節使)로서 청나라에 가서 지나친 세공미 요구를 감축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1646년(인조 24)에 민회빈(愍懷嬪) 강씨의 사사(賜死)를 반대하다가 삼척부사로 좌천되자 사직하였다.

1649년 5월에 효종이 즉위하자 호조판서에 올랐으나 대동법의 시행과 화폐사용 등의 문제로 김육(金堉)과 뜻을 달리하여 대립하였다. 1650년에 효종이 성지(城池)를 수축하기 위하여 '왜정가려(倭



이기조 묘

情可慮)’ 라는 이유로 청나라에 보내는 외교문서에서 남쪽에 성을 쌓고 군사 훈련을 주장하였다. 또 송시열(宋時烈)이 지은 ‘장릉지문(長陵誌文)’에 청나라 연호를 쓰지 않았으므로 청나라가 이를 강화조약의 위반이라 하여 조선 정부를 추궁하였을 때 그 책임으로 이경석(李景奭)·조경(趙經) 등이 청나라 사신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에 이기조는 연대 책임을 주장하여 이들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무사하게 하였으므로 효종으로부터 총애를 받았다. 이어 진주사(陳奏使)의 부사로 청나라에 들어가 이 일을 잘 수습하고 돌아와 우참찬이 되고 이어서 예조판서가 되었으나 증묘 수리에 태만하였다는 김육 등의 탄핵을 받아 함경감사로 좌천되었으나 병으로 관직을 사퇴하였다. 1653년(효종 4)에 공조판서에 임명되어 돌아오던 중 김화에서 병으로 죽었다.

사후 영의정으로 추증되었으며 1698년(숙종 24) 충간(忠簡)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1705년(숙종 31)에 세운 신도비가 경기 군포시 산본동 산1152-11에 있는데 원래 이 무덤과 비는 경기도 정단에 있었으나 1672년에 현재의 곳에 이장하여 부인 신씨와 합장하였다. 이 유적은 현재 경기도 기념물 제121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숙종 31년(1705)에 세워진 신도비는 비좌개석의 형태를 갖추고 있

며 개석에는 조식도 없이 단조롭고 대석에는 문양이 없다. 제액(題額)에는 『증영의정행예조판서시충간이공신비명(贈領議政行禮曹判書諡忠簡李公神碑銘)』이라고 외손(外孫) 신원(申垸)이 전서로 썼으며 자경(子徑)은 9.0cm이고 음기(陰記)는 손자 이명필(李明弼)이 해서로 썼는데 자경은 2.0cm이며 비문은 박세채(李世采)가 지었다.

비의 마멸 상태는 양호하며, 묘소에는 계실 고령신씨(高靈申氏)와 합장·상석·향로석·혼유석·족석·계제석·문인석·동자석·망주석이 있다.

19) 이응희(李應禧 : 1579~1651)

자는 자수(子綽), 호는 옥담(玉潭)이다. 성종의 3남인 안양군(安陽君)의 현손으로서 여흥령 현(縣)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평산신씨이다.

14세 때 부친상을 당하고 2년 후인 1594년(선조 27)에는 조모상까지 당했다. 당시 과천 남면 산내곡에 장래지냈다. 이후 그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업을 이어가며 학문과 예절에 정열을 다 쏟아 원근에서 그 덕망을 청송하였다.

광해군 때에 이이철(李爾瞻)이 인목대비를 폐위하고자 꾀할 때 크게 상심하여 백의항소(白衣抗疏)로 간곡히 만류하는 상소문을 올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과천 수리산 아래에 은거하였다. 조정에서는 그의 학식이 고명함을 알고 중용하려 했으나 재삼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안양군이 연산군 때 원사(冤死)를 당하면서 유언으로 관직에 나아가지 말라고 하여 그 유훈을 따른 것이라 한다.

배위는 경주 김씨로 승정원 도승지 통정대부 형조참의 위(偉)의 딸이다. 김씨는 7남 2녀를 두었는데 7형제가 모두 진사에 급제하여 주위에서는 두(斗)자 향달이라 칠두문장가(七斗文章家)라고 칭송하였다. 그가 58세 때인 1636년(인조 14)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그는 가족을 이끌고 해도(海島)로 피난하여 전전하다 2년 후인 1638년 9월에 어머니가 향년 85세로 별세하였고, 그도 14년 후인 1651년(효종 2) 음력 5월 9일에 향년 73세로 일생을 마쳤다. 2년 후 부인도 별세하여 산내곡, 지금의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산 195번지에 합장하였다. 지난 1993년 국가 개발정책에 의하여 선영지역이 수용되자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상기리로 이장하여 새로운 선영을 정하였다. 이장 때 분묘에서 출토된 지석이 묵서청자(墨書靑瓷) 8관으로 되어 공의 공적이 자세히 기록되었으며 새로운 선영에 다시 매봉(埋封)하였다.

그의 저술은 모두 1,000여 편이었다고 하는데 병자호란 때 방화로 모두 소실되었고, 『옥담유고(玉潭遺稿)』와 『옥담사집(玉潭私集)』이 현재까지 전해진다. 한편 이응희는 류순인(柳純仁), 심부(沈

溥), 류우인(柳友仁), 안홍재(安弘濟), 송규(宋珪), 이원득(李元得), 이경일(李敬一), 한덕급(韓德及), 안중행(安重行) 등과 함께 시계(詩契)인 향로계(享老契)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현재의 군포를 중심으로 거주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20) 정광필(鄭光弼 : 1462~1536)

정광필은 조선 전기 문신으로 자는 사훈(士勛), 호는 수부(守夫)로 본관은 동래(東來)이다. 이조판서 정난종의 아들이다. 1492년(성종 23)에 진사에 오르고 같은 해 식년 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뒤 조지서(造紙署) 사지(司紙)·성균관 전적(典籍)을 역임하고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에 제수되었으며 마침내 홍문관에 들어가서는 수찬(修撰)·교리(郊理)를 역임하였다. 또 삼정무무극(詳定局務劇)으로 있다가 예조 정랑(正郎)으로 옮겼으나 그대로 지제교(知製敎)를 겸하였다.

의빈부경력(儀賓府經歷)·성균관 사예(司藝)로 옮겼다가 사헌부 집의(執義)를 거쳐 예빈사(禮賓寺) 정(正)이 되었고 다시 홍문관으로 들어가 직제학(直提學)이 되었다. 성균관 학정(學正)으로 있을 때 이극균(李克均)의 추천으로 『성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504년(연산군 10) 직제학을 거쳐 이조참의가 되었었는데 임금이 사냥을 너무 자주 행한다고 간하였다가 아산으로 유배되었다. 1506년 중종 반정 후 부제학에 오르고 이후 이조참판, 예조판서, 대제학을 거쳐 1510년에 우참찬으로 전라도 도순찰사가 되어 삼포왜란을 수습하고 병조판서에 올랐다. 1512년에는 함경도 관찰사가 되어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데 공헌하였다. 곧이어 우의정과 좌의정이 되고 1516년에 영의정이 되었다. 1519년에 일어난 기묘사화 때 조광조를 구하려다 영중추부사로 좌천되었고 1527년에 다시 영의정이 되었다.

일찍이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中宗)이 즉위하였음을 알리자 연좌되어 유배된 당한 사람들은 모두 손뼉을 치며 좋아하였다. 이에 정광필은 “이것은 종사(宗社)의 대계(大計)이다. 다만 아직 옛 임금의 사생(死生)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하고는 마침내 고기를 물리치고 먹지 않으니 사람들이 그 지조에 감복하였다. 1515년에 장경왕후가 죽고 중종의 총애를 받던 후궁이 자기의 소생을 끼고 왕비의 자리에 오르려하자 그는 홍문관 동료들을 이끌고 경전(經傳)을 인용하며 극간하여 새로이 왕비를 맞아들이게 하였다. 1519년에 중종이 사정전(思政殿)에 들어 천재(天災)의 원인이 될만한 정치의 잘못을 물었을 때 한충(韓忠)이 그를 비무한 제상이라 탄핵하였다. 이에 신용개(申用溉)는 선비가 대신을 반대하여 배척하는 풍조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한충의 논죄를 주장하였으나 그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의 바른말하는 풍조를 꺾어 억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하여 제상의 넓은 도량을 보였다.

기묘사화(己卯士禍) 때 조광조(趙光祖)를 구하려다가 파직되어 회덕현(懷德縣)에 내려가 있었는데

데 불의에 조정에서 금오랑(金吾郎)이 파견되자 사사(賜死)되는 줄 알고 온 집안이 모두 놀래고 두려워 우는데도 정광필은 변색도 없이 장기를 두면서 치우지 않았다. 금오랑이 전하기를 감형(減刑)되어 김해(金海)로 귀양보낸다 하니 정광필은 “임금의 은혜가 저극합니다.” 하며 머리를 조아렸고 김해로 귀양가는 길에 지은 다음과 같은 시(詩)가 「당직보(堂職譜)」에 전한다.

재방이 산간이 쌓였으나 마침내 용서받았네
 평생 임금 은혜에 보답할 길 없구나.
 열번 높은 고개를 넘는데 두줄기 눈물ियो
 세 번 장강(長江)을 건너면서 풀로 혼이 끊어지네
 아득히 높은 신엔 구름이 먹울 뵈고
 망망한 들판에는 비가 힘아리를 쏘는 듯 하네
 저물게 바닷가 동쪽 성밖에 다다르니 조가집이 쓸쓸한데
 대나무로 문을 삼았구나

1533년(중종 28)에 영상에서 불려나 회덕에 머물러 있었는데 후임 영상 김안로가 장강왕후 국경때 정광필이 총호사(摠護使)를 맡아 농지를 불길한 땅에 잡었다고 부고하여 김해로 유배되었다. 이것은 김안로의 아들 김희(金誼)가 중종의 공주 효혜공주에게 장가들어 부마가 되었는데 이때 호숫목장을 받아서 받을 일고코자 하였는데 정광필이 이를 지지하였으므로 김안로의 원한을 샀기 때문이었다. 1537년에 김안로가 사사(賜死)되자 곧 풀려나 영종추부사가 되었다. 여러 번 권세의 자리에 있었으나 문 앞에서는 잡된 빈객(賓客)이 없었다. 그는 퇴청(退廳)해서는 방에 앉아 서사(書史)를 읽고 재물을 불리는 것을 일삼지 않았으며 음악이나 여색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항상 낙(樂)을 탐하고 덕을 상실하는 것으로 집안의 훈계를 삼았다고 한다.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14번지는 동래 정씨의 옛 기재(基地)였다고 한다. 이곳은 문익공 정광필이 살던 터로 약 400여년간 자자손손(子子孫孫)이 대를 이어 지켜왔던 유서 깊은 곳이다. 어느 날 정광필의 꿈에 선인(仙人)이 나타나 집 앞 은행나무에 열두 개의 서각대(犀角帶)를 걸어 놓고 가더러는 것이다. 그 후 정광필의 손자 정유길(鄭惟吉), 증손 정장연(鄭昌衍), 현손 정태화(鄭太和) 등 열두 명의 상신(相臣)이 배출되어 동래 정씨의 화려한 명맥(名脈)을 이루었다.

중종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회덕(懷德)의 승현서원(崇賢書院), 용궁(龍宮)의 완담향사(浣潭鄕祠)에 제향되었고 시호는 문익(文翼)이며 저서로는 「정문익공유고(鄭文翼公遺稿)」가 있다.

관련유물로는 정광필신도비(鄭光潯神道碑)가 있다. 신도비는 대야미 전천역을 지나 둔대초등학교 앞에서 좌측 길로 올라가 갈치저수지 상류에서 우측으로 가면 성단재(省達臺)가 있는데 이 재산을

지나 올라가면 뉘 위에 보이는 비각 안에 있다. 1562년(명종 17)에 세워진 이 비는 비좌이수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이수와 비신은 하나의 돌로 되어 있고 이수 전면에는 용두화된 두 마리의 이무기가 가운데의 여의주를 마주보며 농주하고 있는데 운문에 감싸여 있고 후면도 동일하며 좌우측면에는 운문과 용포리가 있다. 그리고 대석에는 복연과 안상문·동자주가 있는데 장방형 판석 위에 놓여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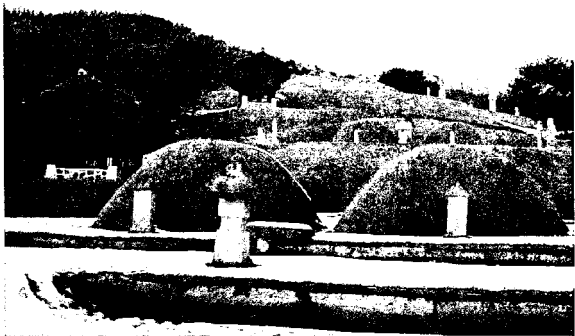
제액(題額)은 「문의공신도비명(文翼公神道碑銘)」이라고 전서(篆書)로 썼는데 자경(字徑)은 8.0cm이고 음기(陰記)는 이황(李滉)이 해서(楷書)로 썼는데 자경은 1.2cm이며 비문(碑文)은 소세양(蘇世讓)이 지었다. 비의 마멸은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관독이 가능하며 묘소에는 정경 부인 은진 송씨(恩津 宋氏)와 쌍년(雙墳)이며, 상석·향로석·혼유석·족석·계제석·장명등·문인석·망주석 그리고 1539년에 세워진 비좌이수의 대리석 묘표와 부인 은진 송씨의 묘표가 별도로 있다.

21) 정난종(鄭蘭宗 : 1433~1489)

조선 전기의 문인으로 글씨에 능한 명신(名臣)이었다. 본관은 동래(東萊)이며 자는 국형(國馨)이고 호는 허백당(虛白堂)으로 진주목사 정사(鄭賜)의 아들이다. 원조(遠祖)는 정목(鄭穆)으로 고려 때 벼슬하여 관직이 좌복야(左僕射)에 이르렀다. 복야가 4명의 아들을 낳으니 제(濟)·점(漸)·택(澤)·항(沆)으로 모두 등계하여 정택은 좌찬선대부(左贊善大夫)에 올랐고 정항은 시중(侍中)에 올라 마침내 일시에 성대한 가문이 되었다.

1456년(세조 2) 생원·진사시·식년(式年) 분과에 급제하여 승문원부 정자를 거쳐 검열·대교·동래문봉례랑·이조과랑 등을 역임하였고 1460년 정자청(鄭自淸)과 함께 서얼 출신의 과거응시를 반대하였다. 1467년 황해도 관찰사로 이시애(李施愛)의 난 평정에 공을 세우고 이듬해 호조참판에 전임되었고 1469년(예종 1) 동지춘추관사로 『세조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470년(성종 1) 동지중추부사로서 사은부사(謝恩副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온 뒤 1471년 순성파리공신에 올라 동래군(東萊君)에 봉해졌고 『예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그 뒤 영안도(永安道) 관찰사·호조참판·영안북도병마절도사·한성부판윤·전라도 관찰사를 지냈다. 성종 14년(1483) 주문부사(奏聞副使)로 재차 명나라에 다녀온 뒤 평안도 병마절도사·우참찬, 이조·공조·호조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이시애의 난이 발발했을 때 황해도 관찰사로 계수되었다. 이것은 황해도의 경계가 관북(關北)과 접해 있어 적의 소굴과 가까우며 통제해야 할 전략적 요충지로 정난종이 아니면 소임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고 하여 왕이 특명(特命)을 내린 것이다.



군포시 속달리 동리 정씨 묘역

그가 북방의 관문(關門)을 지킬 때 풍질(風疾)을 얻어 몹시 위독하여 한 달이 넘도록 군무(軍務)를 보지 못하였다. 막료(幕僚)들이 조정에 이를 보고하고자 하였으나 공이 만류하여 말하기를, “변방을 지키는 장수가 병세가 위급하다 하여 급히 조정에 알리면 왕께서 반드시 놀라 근심하실 것이며, 또 북방의 분권(分權)한 사람들이 모두 이것을 두려워하여 여러 핑계를 만들어 직무를 회피할 것이니 내가 감히 못하는 바이다. 재군(諸君)들이 나의 병세를 보고 있다가 반드시 어찌할 수 없게 된 후에 보고하여도 늦지 않다”고 하였다. 오래지 않아 병세가 쾌차되었는데 이때 북쪽의 오랑캐 집단인 이마거(尼麻居)무리가 공의 병세를 틈타 침입하려 하였다. 공은 염담하여 이를 알아내고 잔병(殘病)을 무릅쓰고 일어나 막료들과 계책을 세우며 말하기를, “병법(兵法)에 먼저 적의 마음을 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 계책을 쓸 때이다”라고 하고 이에 성 밑에서 모여 살던 옛날 오랑캐의 우두머리 수십 인에게 말하기를 “조정에서 절도사(節度使)에게 오진(五鎭)의 병사를 거느리고 이전에 변방을 침입하여 노략질하던 이마거를 토벌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너희들 또한 마땅히 종군(從軍)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날자를 약속하고 이들을 보냈다. 이마거가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여 대군(大軍)

이 장차 이를 것이라고 여겨 도망하여 숨자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해 수확을 놓쳤고 마축들이 많이 폐사하였다. 마침내 여러 해 동안 감히 번방을 침략하지 못함에 막교들은 공의 기지에 감복하여 모두 이것으로 맘미암아 조정에 상계(上啓)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공은 또 만류하여 말하기를, “직책상 당연한 것이거늘 어찌 번거롭게 하리는가?” 하였다.

그는 이른바 훈구파의 중진으로서 성리학에 밝았고 서예에도 일가를 이루어 성임(成任)과 함께 세조·성종대의 최고의 서예가로 인컬어졌다. 그는 초서와 예서를 잘 썼는데 특히 조맹부체(趙孟頫體)에 뛰어났다. 세조 11년(1465)에 『원각경(圓覺經)』을 인쇄하기 위하여 그에게 주자체(鑄字體)를 쓰도록 하였는데 이 활자는 을유재(乙酉字)로 불려진다. 반면 성현(成俔)은 『용재총화』에서 “정난종이 쓴 창덕궁 전문(殿門)들의 액(額)은 자체가 마르지 않다.”, “『원각경』의 자체가 고르지 않다.”고 혹평하기도 하였다. 금석본에도 필적이 많이 남아 있다. 탑골공원의 「원각사비음(圓覺寺碑陰)」, 양주의 「신숙주묘표(申叔舟墓表)」·「윤자운(尹子雲) 신도비와 묘표」, 논산의 「김철산비(金鐵山碑)」가 있으며 금문(金文)은 양양의 「낙산사종명(洛山寺鐘銘)」, 고성(高城)의 「유점사종명(楡岾寺鐘銘)」, 양주의 「봉선사종명(奉先寺鐘銘)」, 덕수궁의 「흥천사종명(興天寺鐘銘)」 등이 있다. 진적(眞蹟)은 보기 드물지만 「관남정찰(觀瀾亭帖)」·「해동명적(海東名蹟)」·「대동서법(大東書法)」 등에 그의 글씨가 조각되어 있다. 1)

정난종과 관련된 유물로는 경기도기념물 제115호로 속달동에 위치한 신도비가 있다. 정난종신도비의 건립 연대는 1525년(중종 20)으로 194×80×26cm이다. 신도비는 대야미 전철역을 지나 둔대초등학교 앞에서 좌측길로 올라가 갈치저수지 상류에서 우측으로 가면 성달재(省達臺)가 있는데 이 재실을 지나 올라가면 첫 번째 보이는 비각 안에 있다. 이 비는 비좌이수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이수와 비신은 하나의 들로 되어 있고, 이수 전면에는 용두(龍頭)화 된 두 마리의 이무기가 가운데의 여의주를 마주보며 농주(弄珠)하고 있는데 운문(雲紋)에 감싸여 있고 후면도 동일하며 좌우측면에는 운문만 있다. 그리고 대석에는 북연(覆蓮)과 안상문이 2단으로 되어있다. 제액(題額)은 「익혜공신도비명(翼愷公神道碑銘)」이라고 전서(篆書)로 썼으며 자경은 8.0cm이고 음기(陰記)는 강장(姜漿)이 해서(楷書)로 썼으며 자경은 1.8cm이며, 비문은 남근(南寢)이 지었다. 비의 머털은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판독이 가능하다. 묘소에는 정부인 완산 이씨(完山 李氏)와 쌍봉(雙墳) 앞에 상석·향로석·혼유석·족석·계석·장명등·문인석 2기·동자석 등이 있다.

1) 참고문헌으로 『成宗實錄』, 『國朝人物考』, 『海東金石苑』권5, 『朝鮮金石總覽』下, 『楸城書畫徵』, 『韓國金石道文』(黃崙永, …志社, 1976), 『韓國古印刷文化史』(金斗鍾, 三星美術文化財團, 1980).

22) 정재륜(鄭載崙 : 1648~1723)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수원(秀遠), 호는 죽헌(竹軒)이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의 아들이며, 좌의정 정치화(鄭致和)에게 입후되었다. 1656년(효종 7) 효종의 다섯째딸 숙정공주(淑靜公主)와 혼인하여 동평위(東平尉)가 되었다. 숙정공주가 일찍 죽고 1681년(숙종 7) 독자 이던 정효선(鄭孝先)도 요절하자 재취할 것을 상소하여 왕의 허락을 받았으나 대간의 반대로 이루지 못하였다. 이 사건 이후로 부마들은 재취할 수 없다는 법규가 정해졌다고 한다. 1670년(현종 11) 사은정사로, 1705년(숙종 31)에는 동지정사로, 1711년(숙종 37)에는 동지 겸 사은정사로 청나라에 세 차례나 다녀왔다. 평소 생활이 검소하여 국왕의 사위인줄 불랐다고도 한다. 저서로 『공사견문록(公私見聞錄)』·『한거만록(閑居漫錄)』 등이 있다. 시호는 익효(翼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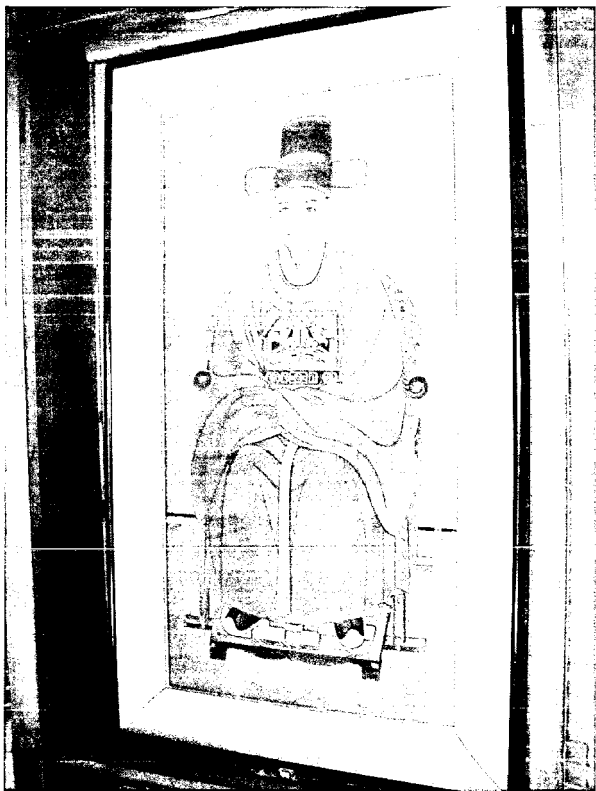
현재 군포의 속달동에 위치한 일명 '구봉타'에는 음력 10월 1일이면 이틀간 풍제가 치러지는 아름다운 마을 숲이 있다. 300여년 이상된 거목들이 우거진 이 숲은 정재륜과 그 부인이었던 숙정공주의 무덤 부근에 조성된 것이다. 이곳은 2002년 산림청 등에서 주최한 '제3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곳이기도 하다.

23) 한치의(韓致義 : 1440~1473)

한치의는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자는 의지(誼之)이며 본관은 청주이다. 좌의정 한확(韓確)의 아들이고 성종의 생모인 인수왕비(仁粹王妃)의 동생이다. 세조 1년(1455) 우보(叅補)로 사정(司正) 겸 상서시록사(尙瑞司錄事)가 되었고 이듬해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세조 5년(1459)에 통례원봉례랑(通禮院奉禮郎)을 거쳐 세조 7년(1461)에는 군기 부정(軍器副正)으로 창덕궁(昌德宮) 증축공사의 낭관(郎官)이 되어 공사(工事)를 설계 감독하기도 하였다. 1464년에는 안동대도호부사가 되었고 1467년에 이시애(李施愛)의 난이 일어났을 때는 선전관·훈연도원도정 등 군사의 요직을 맡았다.

예종 즉위 후에는 경상좌도 병마절도사를 맡았고 성종 1년(1470)에 동지중추부사 한성부좌윤에 올라 성절사(聖節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 호조참판으로서 좌리공신(佐理功臣) 4등에 녹훈되고 청성군(淸城君)에 봉하여졌다가 다음해에 청양군(淸陽君)에 바꾸어 봉하여졌다. 공조참판으로 관직을 옮긴 후 1472년 병조판서에 승진되었으나 병으로 사직하고 이듬해에 34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였다. 시호는 장도(章悼)이다. 부인인 전의이씨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었는데 장남 위(偉)는 자헌대부 청원군(淸原君)으로 부사 안우삼(安友參)의 딸과 혼인하였다.

묘는 경기도 광주군 연주면 서학당동(현재의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조성되었으나 1494년 외조가



한치의 임칭(장도사)

인 성종(成宗)이 승하하고 이곳을 선택하여 선릉(宣陵)으로 삼게 되어 부득이 오늘의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의 광수산(光水山) 기슭으로 옮겼다가 1506년 부인의 죽음과 함께 과천현 수리산 아래 지금의 군포시 산본동 산 170-1번지에 이장, 합장되었다.

이곳은 산본역에서 안산 방면으로 도장터널을 지나 궁내터널로 우회전 후 쓰레기 소각장을 지나 좌측 산이며 묘소에는 정부인 전의이씨(全義李氏)와 합장이고 호석(護石)·상석(床石)·향로석(香爐石)·문인석(文人石)·동자석(童子石)·양석(羊石)이 설치되어 있다. 묘 앞에는 1508년 같은 해에 만든 비좌이수의 형태로 세운 한치의와 전의이씨 묘각이 각각 좌우측에 있고 묘소 입구에 있는 신도비는 1974년에 세운 것이다.

묘각은 중종 3년(1508)에 세워졌으며, 비신과 이수(螭首)가 하나로 되어 있고 이수 전면에는 용머리같은 한 마리의 이무기가 구름에 감싸여 좌측의 여의주를 올려다보며 있는데 후면도 통일하며 측면에는 운문만 있다. 그리고 대석에는 복연(覆蓮)과 안상문(眼象紋)·동자주(童子柱)의 문양이 있다.

한치의 비문은 이자건(李自堅)이 짓고 해서(楷書)로 썼으며 높이 167cm, 폭 70cm, 두께 14cm이고, 전면(前面)과 후면의 글자의 지름은 2.4cm이다. 전의이씨의 비문은 신용개(申用溉)가 짓고 높이 159cm, 폭 55cm, 두께 14cm이다.

24) 홍일동(洪逸童 : 1412~1464)

홍일동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자는 일휴(日休), 호는 마천(癡川), 본관은 남양이다. 세종 24년(1442)에 한학훈도(漢學訓導)로 재직하던 중 친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돈녕부부승으로 승진하였다. 같은해 사헌부 강이관(講筵官)으로서 여러해에 걸친 한어 강습에 전력을 하지 않았다는 탄핵으로 곤장 80대의 형을 받고 파직되었다. 세종말부터 문종 초에 우정언(右正言)을 지내고 1453년(단종 1)에 선공감판관 이듬해에 개천군사(介川郡事)를 역임하고 1454년에 사간원좌원납(司諫阮左獻納)이 되었다. 1455년(세조 1) 주부(主簿)로 재직하던 중 원종공신 2등에 책록되었다. 1457년에 부지승 문원사(副知乘文院事)로서 사은사 압물관(押物官)이 되었는데 사행중에 문과 중시(重試)에 급제하였다. 이에 지평 김개(金瑋)는 홍일동이 사행중에 무단히 귀환하여 중시에 응시하였다. 응시한 뒤에는 이뤄지도 않고 귀임하였으며 급제한 뒤에는 명소(命召)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그대로 명나라에 갔다고 하여 탄핵을 받았으나 용서받았다.

1459년 관승문원사로 재직하던 중 칙서의 내용을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의금부에 하옥되었다가 석방되었다. 1461년 호조참판으로 하성절(賀聖節) 및 천추사(千秋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고

1462년에 인순부윤(仁順府尹)으로 하정사가 되어 재차 명나라에 다녀왔다. 1463년에 행상호군(行上護軍)으로 명송지를 유람시키라는 세조의 명을 받아 선위사(宣慰使)의 직함을 띠고 유람하던 중 홍주(洪州)에서 과음하여 죽었다. 그의 묘는 지금의 군포시 금정동에 있었다. 성품이 호방하고 소탈하였으며 시와 풀피리에 능하여 명성이 있었다. 저서로는 『마천집(緘川集)』이 있다.

2. 근대의 인물

1) 안상호(安尙浩 : 1872~1927)

안상호(安尙浩)는 의사로 호는 해강(海岡)이고 본관은 순흥(順興)이다. 1902년 6월에 일본 동경 자혜의학전문학교(東京慈惠醫學專門學校)를 졸업하고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일본의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1904년에 귀국하여 순종의 진의로 있으면서 지석영(池錫永)이 세운 의학교(醫學校) 교관이 되어 후진을 양성하였다. 이듬해 교관을 그만두고 서울의 종로 3가에 개인 진료소를 차려 진료활동을 벌였으며 한성의사회(漢城醫師會)의 회장을 맡기도 하였다. 그리고 동담한의학교(東檀漢醫學校)에서 서양의학을 강의하였다. 1919년 1월 덕수궁 함녕전에서 고종(경무황제)이 뇌출혈로 쓰러지자 전의였던 안상호가 일본인 모리야스와 고종을 진료하였으나 끝내 승하였다. 이로 인해 고종의 진료에 참가했던 안상호 등은 일본인의 사주로 고종에게 독약을 올렸다는 의혹을 입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설이 고종의 죽음은 일본인에 의한 암살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일본인 지휘하에 있던 한국인 의사들의 행위를 의심할 수도 있다. 다만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시비의 판단을 함부로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아무튼 한국 양의학계의 효시를 연 인물 중의 하나임을 틀림없다.

2) 이범익(李範益 : 1883~?)

이범익은 단양출신으로서 창제명은 충청의 청(淸)과 강원(原)자를 따서 청원원익(淸原範益)

-
- 2) 한국인 의사들이 만든 최초의 학술단체인 의사연구회(醫事研究會)가 1908년 11월 15일에 창립되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가 창립인을 11월 15일로 설정하게 된 것은 의사연구회에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회장 김익남, 부회장 안상호, 총무 유병필, 간사 최국현, 장기무로 임원진을 구성한데서 알 수 있듯이 의사연구회는 주로 관립의학교의 교관들과 졸업생들의 주도하에 만들어졌다. 의사연구회에서는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여 최신 의학에 관한 지식을 교환하는 한편 잡지의 발간 문제도 협의하였으며 1909년 4월에는 임원진의 결의로 의사법의 반포를 정부에 요구하기도 하였다. 한일합방으로 일제에 의해 강점된 1910년에 모든 단계가 강제로 해산됨에 따라 의사연구회 역시 해체되었다. 하지만 일제하에 들어 한국인 의사들이 다시 결집하였다. 그 결과 1915년에는 현재 서울시의사회의 전신인 한성의사회를 창립하였고, 1930년에는 조선의사협회를 발족하여 한국인 의사들의 조직을 계속 이어나갔다.

이다.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어려서 한학을 수학하고 1898년 외국어학교에 입학하였으며 1902년 12월에는 일어보통과를 졸업하였다.

그는 외국어학교를 졸업한 이후 1903년 5월 28일 외국어학교 교관이 되었고, 1904년 2월 보광학교(普光學校) 교사, 1905년 9월 27일 일본 육군성 육군통역(陸軍通譯)이 되어 일본 육군의 통역을 담당하였고 그 공을 인정받아 1908년 2월에 공로금 80원을 하사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명치대학(明治大學) 법학과에 교외생(校外生)으로 입학하였다. 1906년 3월 29일 탁지부 통역관보가 되었고 5월 16일에는 보광학교 교사를 사임하였다. 그리고 10월 23일 돈명익숙(敦明益熟) 강사, 1907년 3월 5일 탁지부 건축소 기사, 6월 26일 농상공부 서기관, 8월 1일 경성박람회 고문, 9월 25일 경성박람회 심사관이 되었고 1908년 1월에 농상공부 비서관, 6월에 내부 서기관 겸 비서관이 되었다. 그가 농상공부 비서관으로 있을 때 농상공부대신이던 매국노 총병준의 비서관으로서 송병준과 함께 일본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앞에서 보았듯이 그는 소위 '한일합방' 이후 구한국의 내부 서기관에서 총독부 관리로 변신하였는데 합방 직후 조선총독부 취조국(取調局) 위원이 되었으며 1912년에는 춘천군수가 되었고 1916년에는 예천군수가 되었다. 그리고 3·1운동 이후인 1921년에는 장헌식(張憲植), 홍승표(洪承均), 이종국(李鍾國), 남궁영(南宮營) 등과 함께 조선총독부 사무관에 임명되었다. 1924년에 황해도 내무부장, 1927년 6월에 경상남도 참여관을 거쳐 1929년 강원도지사, 1935년 충남도지사가 되었고 1937년에는 중추원 참의, 만주국 국무원 촉탁, 만주국 간도성장에 임명되었고 1945년에는 중추원 고문이 되었다.

이처럼 이병익은 구한말 이래 적극적인 친일 행적을 견지하였다. 특히 그는 1932년 강원도지사 시기에 일제의 농촌진흥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도근읍면에 농촌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 각기관과의 연락을 긴밀히 하고 다방면의 지식을 모아 거도일심으로 기사회생의 업을 이루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1942년에는 재만 한인들을 소위 생산력 증진의 노력정신대(勞力挺身隊)로 동원하기 위해 선계국민개로보국운동(鮮系國民皆勞報國運動)을 전만주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전개하기로 한 결의를 협화회(協和會) 상임중앙위원회에서 끌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병익이 언제 군포로 이거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는 군포시 당동, 즉 현재의 군포초등학교 후면의 북쪽(수리산 쪽)에 거주했다고 한다. 본래 그가 살던 집은 시흥군 남면(현재의 군포시) 면장 이던 조중원의 집으로서 그가 조중원에게서 구입했다고 하며 이 집은 한국전쟁 당시 조선노동당 남면당위원회 사무실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3) 조중완(趙重完 : 1879~1942)

조중완의 본관은 양주로서 조선후기 노론의 명문가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조부는 아관파천시 친러파의 한 사람이었던 조병직(趙秉稷)으로서 1897년 만민공동회를 단압하여 개화와 인본들로부터 맹렬한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조중완은 『대한제국관헌이력서』에 따르면 1898년 6월 무관학교에 입학하여 1900년 1월 졸업하여 무관으로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졸업과 동시에 그는 1900년 1월 19일 육군참위(陸軍參尉)로 임용되었다. 친위대, 시위대 등지에서 근무하고, 1905년에는 육군연성학교교관(陸軍研成學校教官)이 되었고 1906년에는 헌병대 구대장이 되었다. 이후 그는 구한국의 무관인 참령으로 근무하던 중 한일합방을 맞아 거주지였던 서울의 계동에서 군포로 이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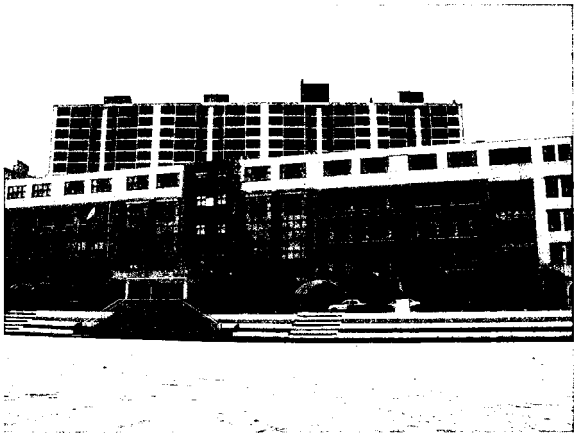
군포에 이거한 이후 그는 1916년 시흥군 남면(현재의 군포시) 면장이 되었고 1921년과 1924년에 경기도평의회원이 되었다. 그리고 1926년 무렵에는 사설 군포우체국장으로서 농촌진흥과 풍속개량을 목적으로 시흥군남면진흥회(始興郡南面振興會)를 조직하였다. 또한 1930년 12월부터 1939년 12월까지 시흥군 남면장을 다시 역임하였다. 이때 그는 농촌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한 농촌개량소조합을 결성하였다. 특히 그의 활동과 관련하여 비교적 잘 알려진 것은 군포공립보통학교(현 군포초등학교)를 설립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군포공립보통학교는 1920년 4월 1일 교실 7개와 11개의 학급에 903명의 학생으로 개교되었다. 이때 조중완은 관계당국과 교섭하여 자신이 학교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였다고 한다.

특히 그는 1921년 경기도평의회원으로서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잡지 『조선』 80호(1921. 10)에 「所期の目的を達するも遠きにあらざるべし」라는 글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3. 현대의 인물

1) 오형탁(吳亨鐸 : ?~1997)

오형탁은 군포시 당정동 345번지에서 태어나 시흥군청과 경기도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방행정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였다. 그는 군포초등학교를 졸업하였으나 어려서부터 가학으로서 한학을 수학하여 한학에 조예가 깊었다고 한다. 이러한 연고로 그는 과천향교의 전교 및 과천 유도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특히 그가 주목받는 것은 그의 삶의 태도가 못사람의 귀감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평생을 근검절약하면서 모은 재산 10억원을 후진 양성을 위해 기탁하여



군포초등학교

1996년에 성오장학재단을 설립하였다. 설립 이후 1997년부터 성오장학재단은 매년 약 5, 500만원 내지 6,500만원을 30명 내외의 학생을 선발하여 대학 입학금과 등록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결과 어렵게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어 지역사회의 큰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노환으로 인하여 1997년 7월 21일에 별세하였다.

2) 윤영춘(尹迎春 : 1907~1981)

윤영춘은 중요 무형문화재 제15호 복청사자놀이음 예능보유자. 1907년 9월에 함경남도 북청군 북청읍 북리 44번지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살다가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1951년 1·4 후퇴 때 월남하여 지금의 군포시 당동에 정착하여 거주하였다.

어렸을 때는 서당에서 한학을 수학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으나 18세 때부터 북청군 북청읍 북리에서 사자탈을 쓰고 사자놀음 하는 법을 배워 최고의 실력자로 성장하였다. 1958년과 1961년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사자춤으로 개인공로상을 받았으며 1965년에는 변영호와 함께 북청예술협회를

조직하였다. 1967년 3월에 중요 무형문화재 복창놀이 사자앞머리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그 후 1981년 6월 21일에는 사단법인 함경북도 복창사자놀이 예술보존회로부터 공로표창을 받았다. 후계자로는 이철균(李哲均), 전철하(全澈河), 동선백(董善白) 등이 있다.

한편 윤영춘 이외에 복창사자놀이 기능보유자는 김수석(金壽石 : 사자 앞채역) · 변영호(邊永鎬 : 약사) · 동성영(董誠英 : 사자 앞채역) · 여재성(呂在性 : 사자뒤채역) · 전주식(全仲植 : 약사) · 전광석(田光石 : 칼춤) · 이근화선(李根花善 : 사당춤)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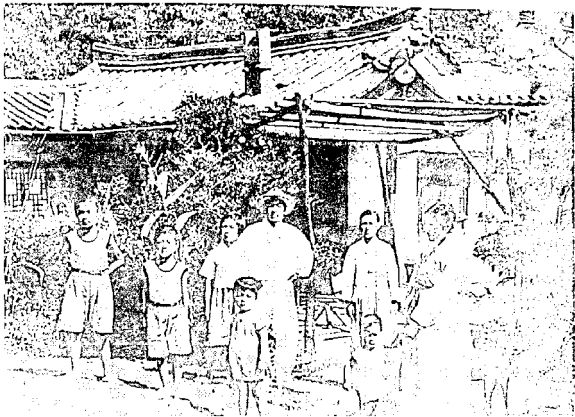
3) 이무영(李無影 : 1908~1960)

이무영은 1908년 충북 음성 출생으로 본명은 감봉이다. 휘봉고보 2학년 때부터 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925년 본격적인 문학 공부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세이조 중학교에 다니다가 일본 작가 가도 다케오의 집에 기숙(寄宿)하며 4년 간 문학 수업을 하였다. 1926년 최초의 장편소설 『의지 없는 영혼』을 발표한다. 1927년 이무영은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 작품들에 심취하는 한편 장편 『폐허』를 간행하고 ‘무영(無影)’이란 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서 귀국한 1929년 이미 두 편의 장편을 썼으므로 작가가 된 줄 알았으나 아무 반응이 없자 비관한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교사, 잡지사 및 신문사 기자 등을 전전하면서 계속 작품을 발표하였다.

1931년 『동아일보』의 한국 최초의 회곡현상모집에 ‘한낮에 꿈꾸는 사람들’이 당선되었고 1933년에 ‘구인회’ 동인으로 참가하였으며, 1934년에는 동아일보사에 학예부 기자로 입사하였다. 1936년 일장기 발소사건으로 『동아일보』가 정간되자 분에게 『조선문학』을 창간하였고 이듬해 첫 번째 창작집 『취향(醉香)』을 간행하였다. 1938년 두 번째 창작집 『무영 단편집』을 간행하였으며 1939년에는 두 편의 장편소설을 간행하는 등 귀국한 지 십 년 만에 이무영은 작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굳힌다.

그러나 이무영은 1939년 언제나 불만스러워하던 도시생활을 청산함과 동시에 신문사 기자직을 그만두고 경기도 군포 근처의 농촌으로 내려가 꿈에 그리던 농촌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농민소설들을 써내기 시작하여 ‘제1과 제1장’(1939), ‘흙의 노래’(1940), 장편소설 『농민』(1954)과 같은 주목할 만한 작품들을 계속해서 발표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국방부 정훈국장, 생명여대 강사, 단국대 교수를 역임하는 한편 펜클럽, 자유문학자협회, 문충 등 문인 단체의 간부로 일하던 중 1960년 4월 21일 갑작스런 뇌일혈로 사망하였다. (이상은 김만수 외 3인, 『문학사전』)

이무영이 1939년에 발표한 대표작인 단편 『제1과 제1장』은 신문기자를 그만두고 귀농(歸農)하는 주인공 김수택이 아버지 김영감의 인간미 넘치는 생활 철학(도둑이 들어 수탉이 도둑을 잡지만 아버지



이무영이 직접 짓고 산 집

는 도둑을 놓아주면서 대신 쌀 현판을 주어 보낸다. 오죽하면 도둑집을 하겠느냐는 것이대에 동조해 가는 과정을 그리는 한편 당시 농민의 참혹한 가난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소설은 지식인이 일방적으로 농민을 계몽한다는 식이 아니라 오히려 지식인이 힘든 노동을 통해 진정한 농민이 되어간다는 내용을 그리고 있으며, 식민지 시대 농민의 비참한 현실이 사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심훈의 『상록수』와 같은 계몽 운동 차원의 농민문학과 뚜렷이 구분된다.

물론 지식인인 아들이 무식하나 순수한 농사꾼 아버지의 삶에 동화되고 만다는 결론이 이후 이무영의 어느 작품에나 똑같은 도식으로 나타난다든지, 주인공이 귀양하게 되는 동기가 모호하고 아버지의 수탈 받는 농민으로서의 자각이 뚜렷하지 않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성적이고 계몽적인 관점을 탈피하여 농민으로서의 삶을 직접 체험한 농민의 눈으로 농촌의 실상을 그려내고 있다는 데서 이 소설의 가치는 두드러진다.

한편 이무영의 딸과 함께 군포초등학교를 다닌 동창(이기형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무영 집은 사는 형편이 괜찮았다고 하며, 이무영의 딸(이자란)은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4) 이재준(李載濬 : 1917~1995)

이재준은 군포시 산본동 343번지에서 부 이규용, 모 양남옥의 사이에서 1917년 7월 30일에 차남으로 출생하였다. 유년시절에는 고향에서 군포초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사회에 진출하여 인천시 교육위원과 대림산업(주) 회장, 대림학원 이사장,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우리 나라의 교육발전과 건설업 발전에 공헌하였다. 이와 같은 공으로 인하여 군포 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군포를 빛낸 인물로서 1997년 10월 7일 군포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하였으며 전 국회의장 이재형의 아우이다. 산본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그의 묘는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무송리에 있다.

5) 이재형(李載瀅 : 1914~1992)

정치가. 호는 운경(雲耕)이다. 1938년 일본 주오대학(中央大學)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귀국하여 일본의 조선농민의 경제적 약탈기관이었던 금융조합 이사와 금융조합연합회 사업부장·고문 등을 지냈다.

1948년 제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자 경기도 시흥에서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었으며, 대한민국 헌법제정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보여주었다. 이어 1950년 제2대 국회의원선거에 시흥에서 당선되었고 1951년 국회 재경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한국전쟁 중인 1952년과 1953년 사이에는 상공부장관을 지냈다. 당시 자유당의 다양한 계파 중에서도 이전의 이범석(李範奭)계와 연관이 있는 족청파(族靑派)로 지목받기도 하였다. 1958년 제4대 민의원에 당선되었고 1960년 국회부의장에 선출되었다. 1960년 국회의원으로 다시 선출되었으며 1967년에는 신민당 전국구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1968년에는 신민당 부총재가 되었다. 그러나 1970년 유진산(柳珍山)과 신민당 당권 경쟁을 벌여 패배하고 잠시 고문직을 맡고 있다가 1971년 박정희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겨룬 대통령선거기간 중 신민당을 탈당, 정계를 떠났다. 그가 다시 정계에 각광을 받고 등장하게 된 것은 1979년 10월 26일 당시 대통령 박정희가 김재규에 의해 시해된 이후 새로이 등장한 전두환 군부세력의 권유로 1980년 국정자문위원회에 취임한 이후의 일이었다.

1981년 집권여당인 민정당의 전국구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1981년에서 1983년까지 대표위원을 지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외교정상화에 노력하여 한일친선협회의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일본정부로부터 탄원수교에 대한 공로로 훈장을 받기도 하였다. 1983년 이후 민정당 상임고문이 되었고 1985년 민정당 전당대회회장이 되었으며, 1985년부터 1988년까지 국회의장을 지냈다. 1988년 노태우 정부 등장 이후부터는 사실상 정계에서 은퇴하게 되었으며 특히 3당 합당 이후에는 정치에서 완전히 물러나

고향인 군포에 은거하였다.

저서에 『의정(議政) 6년』이 있다. 진국훈장 무궁화장과 타이 백상대훈장을 받았다.

6) 한흥리(韓興履 : 1897~1979)³⁾



본관은 청주(淸州), 용익(用翼)의 아들로 독립운동가이며 교육자이다. 후손이며 32년 동안 군포시 이전의 산본리 이장을 역임한 한수교에 의하면 오늘날 수리신역 앞의 산본리 도장동에서 태어나 시흥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안양으로 이사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출신이라는 주장도 있다. 호계동이 안양시 최남단에 위치한 동리로서 그 서쪽이 군포시 당정동 빈세전리 및 금정동 점밭이고 조선 말엽에 구군포사거리와 맑은내(淸川) 사이에 장(군포장)이 설치되었던 곳이므로 오늘날 군포와의 관련이 적지 않다.

한흥리는 10살(1906)까지는 조부로부터 천자문·

소학 등을 배웠고 13살(1909)부터는 호계동 소재 낙영학교(樂榮學校) 2학년에 편입했으나 이듬해 폐교되자 수원군 반월면 4리(현 안산시 4동) 소재 장화의숙(長峯義塾)에 편입하여 맹자·수학·일어 등을 수학하고 이어 1915년에 시흥공업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1918년에 경성고등보통학교(경기고교 전신) 입학한 후 독립운동에 뜻을 두게 되었는데 1919년 그가 2학년 때 일어난 3·1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는 서울 탑골공원에서 만세를 부르고 이어서 기차 통학생의 임무로 독립선언서를 분배받아 시흥·안양·군포역에서 한국의 자주독립의 당연성을 역설하면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다. 그는 왜경에게 욕망방망이로 정강이를 맞고 체포되어 서대문 감옥에 구금되었다.

그 후 서울 수창동에 소재한 경성보인학교(현 보인상고 전신)에 부임하였고 1927년 사학(私學)의 대표격으로 임원하사시찰단에 선발되어 일본을 시찰하였다. 1928년 서울의 매일신보사에 기자로 임사하기도 하였고, 1945년 광복이 되자 안양에 정착하였다. 그 해 11월 국가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장을 세워야 한다는 일념에 따라 안양시 안양동 603에 안양직물공장을 설립하였다.

3) 안양시청 홈페이지 및 『淸州韓氏遺事寶鑑(하권)』, 淸州韓氏中央宗親會, 1998.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공장문을 닫고 5리 밖에 있는 호계동 본가로 가있다가 그 해 12월에 부산으로 피난을 했다. 이듬해 일자리를 찾던 중 부산 시내에 소재한 국제신문사 기자로 취직했다. 1958년에는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체를 육성해야 하며 한 산업체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자를 양성해야 된다는 신념을 갖고 기술학교 설립을 신청, 인가를 받아 공장의 건물을 증·개축하여 소사공과기술학교를 설립하여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3년 후(1961)에는 소사고 등기술학교와 소사고등기술학교 전문부가 각각 증설되었다.

1978년에는 고등교육의 기초인 전문대학에 뜻을 두고 학교법인 한길학원을 설립하여 초대 이사장에 취임한 후 이해 12월에 부천공업전문대학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듬해(1979) 3월 부천공업전문대학 개교식에 참석한 후 이해 5월 8일 83세의 일기로 사망했다.

1990년 8월15일 자주독립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으며 묘는 시흥시 매화동 산 26에 있다.

참 고 문 헌

< 지 명 >

- 『과천군양안』(규장각 17655 - 13, 14).
- 『과천현 신수읍지』, 1699.
- 『여지도서』, 1760.
- 『호구총수』, 1789.
- 경기도, 『지명유래집』, 1987.
- 경기도·명지대, 『군포 산본의 역사와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1990.
- 류지호, 『군포시 지명유래집』, 군포시, 1999.
- 군포시, 『군포시사』(지명유래분야), 1999.
- 군포시, 『군포시의 마을신앙』, 2003.
- 김기빈, 『일제에 빼앗긴 땅이름을 찾아서』, 살림터, 1995.
- 김장호, 『한국명산기』, 평화출판사, 1993.
- 김정호, 『대동여지도』, 1861(성신여대 박물관 소장).
- 김정호, 『대동지리지』, 1864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76).
- 김정호, 『동여도』, 1857.
- 김진규, 『훈몽자회 어휘연구』, 형설출판사, 1993.
- 김형수, 『한국 400 산행기』, 깊은 숲, 2003.
- 내무부, 『지방행정지명사』, 1982.
- 박갑천, 『세계의 지명』, 정음사, 1995.
- 배우리, 『우리 땅이름의 뿌리를 찾아서』1·2, 1994.

- 백문식, 『우리 밭의 뿌리를 찾아서』, 삼광출판사, 1998.
- 새한지도, 『수도권 생활정보지도』, 2003.
- 서광석, 『대 길지에 마련된 두 국립묘지』, 『건설교통저널』, 2003년 12월호
- 수원시, 『수원시사』중, 1997.
- 수원시, 『수원의 옛 지도』, 2000.
- 시흥군, 『시흥군지』상, 1988.
- 신경준, 『여암전서』(산수고), 경인문화사 영인본, 1976.
- 이명규, 『서울 경기지역 지명 및 방언』, 한국문화사, 2000.
- 이승훈, 『문학상징사전』, 고려원, 1995.
- 이영택, 『한국의 지명』, 태평양, 1986.
- 일양지도문화사, 『한국 200명산 전국등산지도』, 1996.
- 장지영 외, 『이두사전』, 정음사, 1983.
- 정약용 저·김종권 번역, 『아연각비』, 일지사, 1979.
- 조선총독부,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1912.
- 조선총독부, 『조선전도부군면동리명칭일람』, 1917.
- 한국행정문화원, 『한국행정구역총람』, 2001 - 2002.
- 한글학회, 『한국땅이름 큰 사전』 상·중·하, 1991.
- 한글학회, 『한국지방총람』(경기편)상·하, 1985.

< 역사·성씨·인물 >

- 『경국대전』
- 『국조인물고』
- 『조선왕조실록』
- 『승정원일기』
- 『대동야승』
- 『만성대동보』
- 『만성보』
- 『성씨대관』

- 『신증동국여지승람』
- 『연려실기술』
- 『용제총화』
- 『한국인명사전』
- 『해동명신목』
- 『동래정씨 대동보』
- 『남평문씨 대동보』
- 『순흥인씨 대동보』
- 『전주이씨 대동보』
- 『청주한씨 대동보』
- 『신안주씨 대동보』
- 『京畿道邑誌』2,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8.
- 『果川縣邑誌』(京畿道), (光武 3 寫).
- 군포시, 『군포시지명유래집』, 1999.
- 『始興郡邑誌』(京畿道), (光武 3, 寫 규장각 K2-4252).
- 京畿道 文化公報摺當官室 編, 『地名由來集』, 京畿道 文化公報摺當官室, 1987.
-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사』, 1988.
-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1995.
- 果川鄉土史編纂委員會 編, 『果川鄉土史』上·下, 果川文化院, 1993.
- 광주군지편찬위원회, 『광주군지』, 1990.
- 軍浦文化院 編, 『軍浦金石文大觀』, 2002.
- 군포시, 『군포시사』, 1999.
- 군포시, 『군포시통계연보』.
- 군포시, 『市政白書 : 1989 ~ 1993』, 1994.
- 金賢淑, 『고구려초기 那部の 분화와 귀족의 성씨-삼국사기 고구려분기 내 출현 人名 분석을 중심으로』, 『경북사학』16, 1993.
- 南豊鉉, 『한국의 이름의 변천』, 『새국어생활』1-1, 국립국어연구원, 1991.
- 대한주택공사, 『果川新都市開發史』, 1984.
- 明知大學校 博物館 編, 『軍浦山本の 歴史와 文化遺蹟』, 明知大學校 出版部, 1990.

- 명지대학교박물관 『산본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1990.
- 모현동지회 『시흥인물고』, 1985.
- 武田幸男, 『朝鮮の姓氏』, 『東あアジアにおける社會と習俗』, 學生社, 1984.
- 박재우 외, 『군포시의 마을신앙』, 군포시, 2002.
- 善生永助, 『朝鮮の姓』, 조선총독부, 1934.
- 孫大俊, 「고대 성씨고」, 『한국의 농경문화』3, 경기대박물관 1991.
- 壽春山人, 「조선성씨 연원고」, 『민족문화논총』1, 민족문화사, 1981.
- 始興郡誌編纂委員會 編, 『始興郡誌』上·下, 1988.
- 시흥군지편찬위원회, 『시흥군지』, 1988.
- 시흥군지편찬위원회, 『始興金石總覽』, 始興郡, 1988.
- 시흥시 편, 『시흥의 사람들』, 시흥시 1999.
- 柳寅春, 「백제성씨고-왕족, 大姓귀족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5,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84.
- 이명규, 『(서울·경기 지역) 지명 및 방언』, 한국문화사, 2000.
- 李樹健, 「한국성씨의 유래와 종류 및 특징」, 『새국어생활』1-1, 국립국어연구원, 1991.
- 李純根, 「新羅時代 姓氏取得과 그 意味」, 『韓國史論』6,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0.
- 이승언, 『시흥의 인물과 행적』, 시흥시, 1995.
- 이용주 외, 『관교-구리, 신갈-반월간 고속도로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 1988.
- 임상선, 『발해의 지배세력 연구』, 신서원, 1999.
- 임상선, 「新羅時代의 서울지역 經營」, 『鄉土서울』61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1.
- 임효재 외, 『한우물』, 1990.
- 任孝宰·朴淳發, 『烏耳島貝塚』, 1988.
- 조선총독부, 『구한국지명명칭일람』, 1912.
- 중앙지도문화사, 『軍浦市都市計劃總括圖』, 1989.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0.
- 漢陽大學校博物館, 『軍浦市 大夜地區 土地區劃整理 事業地區內 試掘·發掘調査報告書』, 2002.
- 화성군사편찬위원회, 『화성군사』, 1990.
- 黃義敦, 「조선성씨의 기원과 발달」, 『민족문화논총』1, 민족문화사, 1981.

찾아보기

(ㄱ)		고한리(古汗里)	50
가야마을	125	곡내(谷內)	97
각곡촌(角谷村)	78	곡내현(谷內峴)	144, 98
각골밭	78	곡란(谷蘭)	97
갈치	151	곡양현(穀壤縣)	25, 27, 42
갈치저수지	150, 231	골안	97
갈티	151	골안고개	144, 98
갈티고개	151, 82	공동지골	118
갈티고	152	공영차고지(公營車庫地)	80
갈티들	152	과주(果州)	27, 42
감투봉 약수터	118	과천군(果川郡)	41
감투봉	117, 152, 54, 56, 79	과천로(果川路)	46
갑술환국(甲戌換局)	218	곽경(郭鏡)	190
갑신골	152	곽기정(郭基正)	190
개나리 마을	97	곽운수(郭潤洙)	190
개매골	153	곽주영(郭柱英)	190
갯다리	79	곽황	213
거랑봉	56	관모봉(冠帽峯)	144, 57, 98
거룡봉(巨龍峯)	125, 167, 56	관모봉(冠帽峯)	54
거북바위	142	관미성(關頭城)	23
건건리(乾乾里)	44	광명사	45
건불산(見佛山)	51, 52, 55	광계골	110
결불산	53	광주목	30
경신환국	216	광천약수터	136
계룡(鷄籠)마을	127	괴곡(槐谷)	110, 119
계룡성약수터	127	괴곡리(槐谷里)	43
고개사거리	136	괴곡약수(槐谷藥水)	119
고갈봉	153, 57	교전말(校前)	81
고랑리골	79	구군포(舊軍浦)	46, 63
고랑치기	80	구군포교(舊軍浦橋)	102, 64
고래실골	80	구황골	153

구봉산(九峰山)	153, 59	금정동	102
구선말(九仙洞)	81	금정리(待井里)	43
구수영(具壽永)	221	금정역(待井驛)	104
구장터(龜場-)	63	금주(柵州)	27, 42
구존유(具存裕)	191	금주단연동맹회(禁酒斷煙同盟會)	36
구주공(舊住公)마을	98	금천현(待川縣)	42
군문리(軍門里)	47	금호교(待虎橋)	105
군보천점(軍堡川店)	46	김공일(金公益)	192
군수리(軍守里)	47	김동현	213
군용산(軍雄山)	47, 64	김만기(金萬基) 선생 묘역	154
군포 2동	78	김만기(金萬基)	215, 217
군포 인터체인지	153	김만중(金萬重)	215, 219
군포(軍浦)	45	김명연	217
군포(軍飽)	45, 48	김병중(金鳴鍾)	192
군포공업보통학교	240	김석주(金錫舟)	218
군포교(軍浦橋)	103	김수항(金壽恒)	216
군포레프츠평원	105, 111	김안도	231
군포보통공업학교(軍浦普通公立學校)	35	김은열(金恩說)	192
군포역(軍浦驛)	64	김인관(金仁冠)	192
군포역	46	김장생(金長生)	194
군포역전시장(軍浦驛前市場)	64	김직(金稷)	192
군포장(軍浦場)	63	김진구(金鎭龜)	217
군포장	46	김점	194
군포장역	46	김춘택(金春澤)	218
군포천(軍浦川)	40, 46, 48, 49, 52, 64	김황(金鎋)	192
군포천교(軍浦川橋)	30	김흥광(金興光)	192, 193
군포초등학교	244		
굴다리	113, 153, 65	(ㄴ)	
궁내(宮內)	137	남궁영(南宮榮)	239
궁내공원(宮內公園)	137	남면	43
궁내동	136	남다골 : 남덕곡(南德谷)	154
궁안	137	남작골	154
금강(金剛)마을	138	내곡(內谷)	167
금과현(待果縣)	43	내금정(內待井)	106
금당(禁堂)터널	118, 82	너른골	127
금리(鎭里)	161	넘말	65
금성산(錦城山)	155, 59, 82	노량바위 약수터	142
금정(待井)	103	노량바위	142
금정(待井)인터체인지	104	노루목	93
금정4호공원	105, 111		

노산(蘆山)	151	당정천(堂井川)	105, 67
노직봉(露積峰)	56	당하리(堂下里)	65
노치(露峙)	151	대감	157
누진골	81	대감천	157
누진봉	59, 82	대굴	84
느진골 고개	82, 155	대암(大岩)	157
느진골	82	대야동	150
느티울 약수	119	대야미(大夜味)	158, 44
느티울	110, 119	대야미동(大夜味洞)	158
느티울골	110, 119	대야미역(大夜味驛)	158
능내 공원(陵內公園)	98	대야미저수지(大夜味貯水池)	158
능내(陵內)터널	128, 156	대야미천(大夜味川)	158
능안 공원	98	대야저하차도(大夜地下車道)	158
능안약수터	98	대천(大川)	49
		대촌(大村)	172
		덕고개	158
(ㄷ)		덕유(德裕)마을	128
다랑구리골	156	덕현(德峴)	158
다산(茶山)마을	119	도기촌(陶器村)	65
당가평(堂街坪)	82	도꼬마치고개	83
당거리들	82	도내동(道內洞)	67
당넘어	65	도당대(都堂臺)	103
당동 약수터	66	도당재(都堂臺)	82
당동 지하차도	66	도죽막고개	83
당동 체육공원	66	도렴말 지하차도	83
당동(堂洞)	65	도렴말(도렴말)	67
당리(堂里)	43, 65	도마교(渡馬橋)	159, 44
당말 지하차도	66, 111	도마교동	159
당말	65	도마다리	159
당말고개	113	도봉골	160
당산봉(堂山峯)	59, 67	도장골	128
당성사(堂成寺)	22	도장공원(道莊公園)	144
당숲	156	도장교(道莊橋)	128
당우골	67	도장굴	119
당적보(黨籍譜)	231	도장굴골	128
당정(堂井)	67	도장동(道莊洞)	119, 128
당정(堂井)지하차도	67, 82	도장터널	119, 128
당정고가교(堂井高架橋)	67	동곶매골	160
당정동(堂井洞)	67	동근포 인터체인지	84
당정리(堂井里)	43	동탑한의학교(東柏漢醫學校)	238

동래(東萊)	204	모란(牡丹)마을	98
동막골	68	모자간산(母子間山)	60, 70
동백(冬柏)마을	98	모자산(茅子山)	60, 70
동사현원(冬斯昡縣)	41	목골	70
동산 공원	111	목련(木蓮)마을	144
동산(洞山)	111, 59	목화(木花)마을	112
동산공원(洞山公園)	59, 105	묘향(妙香)마을	138
동선백(董善白)	242	무궁화(無窮花)마을	112
동작강(銅雀江)	50	부성골	129
동적골	129, 138	부성봉	129, 161, 54, 58
둔대 J. C	161	무작골	84
둔대(屯堡)	48, 160	무지개골	84
둔대교(屯堡橋)	161	묵음재(黙蔭齋)	113, 197, 220
둔대동(屯堡洞)	160, 44	문득결	195
둔전(屯田)	129, 138, 48	문득준	195
둔전공원(屯田公園)	129	문봉(文峰)	56
둔터	160	문위	195
둔근봉	112	문유필	195
뒷방이	161	문익겸	195
		문익점	195
(ㄷ)		문착	195
류순인(柳純仁)	229	문화촌(文化村)	94
류우인(柳友仁)	230	면정당	244

(ㄴ)

(ㄴ)		바가지 우물	70
마배리	68	바담개비골	161
마별교	68	바담고개	161, 54, 58
마포강(麻浦江)	50	박동열(朴東說)	227
마관(馬韓)	41	박습(朴習)	198
만곡원(晩谷院)	155, 82	반월교(半月橋)	161
만남 약수터	129	반월면(半月面)	44
만남의 광장	129	반월육교(半月陸橋)	162
만안교(萬安橋)	30	반월저수지(半月貯水池)	162
맑은 냇	69	반월천(半月川)	163
맑은냇들	69	반월터널	163
매봉개	54, 57	밤바위	120
매화마을	93	밤바위산	120, 60, 84
명학봉(鳴鶴峰)	56	밤배산	120, 60, 84

방아골	130	산본(山本)인터제인저	99
방죽말	71	산본고가교(山本高架橋)	94
백두(白頭)마을	138	산본교(山本橋)	95
백마강(白馬江)	50	산본동(山本洞)	43
백계	41	산본리(山本里)	43, 50, 51
백합(百合)마을	99	산본시장(山本市場)	95
별금경	106	산본역(山本驛)	113, 144
별말	71	산본천(山本川)	106, 139, 95
별새전리	71	산본터널	130
변씨촌(邊氏村)	84	산신당(山神堂)	145
병풍(屏風)바위	138	산신고개	144, 98
보령교	106	산저(山底)	50
보수간골	163	산저리(山底里)	43, 51
복개	163	산호골	86
복포(伏浦)	163	삼성(三姓 : 三星)	86
복해(伏蟹)	163	삼성리	204
봉성리(鳳城里)	43	삼성사(三聖祠)	86, 208
봉안군(鳳安君)	221	삼성약수터	86
부곡(富谷)	84	삼성천(三姓川)	86
부곡교(富谷橋)	85	삼승(三升)	86
부곡동(富谷洞)	84	삼파산(三波山)	117, 152, 56, 79
부곡리(富谷里)	43	상대동(上堡洞)	74
부곡복합화물터미널	85	새골	164
부곡약수터	85	새농골	164
부곡천(富谷川)	85	새전들	71
부림(富林)	27, 42	새터말(새터말골)	86
부안(富安)	27, 42	샘골	164
부처골	164	서강(西江)	50
북군동(北軍洞)	47	서남골	164
북방리(北方里)	161	서석집(瑞石集)	216
(入)		선마위	145
사월치(寺越峙)	50	삼봉골	130
산골	139, 144	천암골(禪庵谷)	145
산갈기 약수터	130	설악(雪嶽)마을	130
산본 1동	93	섬학전	198
산본 2동	97	성달재(省達齋)	231
산본(山本) 약수터	130	성불사(成佛寺) 약수터	130
산본(山本)	50	성오장학계단	241
		성임(成任)	234
		성지골	131

성현(成峴)	234	숫고개	167
세종(世宗)마을	145	슬기봉	125, 167, 56
소벌고가교	94	승지골(承旨-)	113
소월마을	120	시민체육광장(市民體育廣場)	113
속달 2리	43	시흥(始興)	42
속달 3리	43	시흥군(始興郡)	41
속달(遂達)	164	시흥군남면진흥회(始興郡南面振興會)	240
속달1리(遂達一里)	43	시흥로(始興路)	46
속달동(遂達洞)	164	시흥현(始興縣)	42
속달천(遂達川)	165	신기(新基)	86
손봉골	130	신기천(新基川)	87
솔가(率居)마을	139	신단수(神壇樹)	39
솔라백이	86	신민당	244
송겸(宋謙)	219	신시(神市)	39
송규(宋珪)	230	신용개(申用漚)	230
송복산(宋福山)	197, 219, 220	심덕부	198
송숙기(宋叔琪)	220	심부(沈溍)	229
송유익(宋惟翊)	195	심홍부(沈洪孚)	197
송정(松亭)	165	씨리재	50
송관(宋琯)	221	쑤고개	132, 167
수령배미골	165	쑤고개골	87
수리(修理)마을	131	쓰레봉	56
수리골	166		
수리동	125	(○)	
수리사(修理寺)	28, 166	아구동(阿口洞)	71
수리산 산림욕장	131, 140	아구랑	71
수리산(修理山)	22, 40, 52, 131, 140, 145, 145, 166, 206	아사달(阿斯達)	39
수리산역(修理山驛)	120, 132	아술(遂述)	53
수리약수터(修理藥水-)	99	아차성(阿且城)	23
수리재	53	안골	167
수리정(修理亭)	175	안골천	168
수리터널	100	안금정	106
수암봉(秀巖峯)	54, 58	안말	88
수유동(水踰洞)	50	안산	60, 168
쑤고개	132, 167	안산군(安山郡)	41
순산터널	167	안산현(安山縣)	42
순봉	54	안상호(安商浩)	238
송모재(崇慕臺)	190	안순(安純)	224
송현서원(崇賢書院)	231	안송선(安崇善)	223, 224

안양(安養)	49	영당(靈堂)	73
안양군(安陽君)	201, 221, 229	오금공원(五禁公園)	120
안양군묘(安陽君墓)	147	오금동	117
안양베네스트골프클럽	88	오금약수터	120
안양사	28	오금자리	120
안양시	45	오례의(五禮儀)	215
안양천(安養川)	48	오성약수터	146
안영린(安永麟)	198	오형택(吳亨錫)	240
안영유(安永儒)	198	옥담유고(玉潭遺稿)	229
안영화(安永和)	198	옥천 약수터	121
안우삼(安友參)	223, 235	옥천(玉泉)마을	88
안우하	224	요골	88
안익(安益)	224	용사간	88
안익태	199	용재총화	234
안자미(安子美)	198	용호동(龍虎洞)	43, 88
안종근	199	용호마을	88
안중행(安重行)	230	우래산(雨來山)	60, 73, 113
안장남	199	우뢰산(雨雷山)	60, 168
안창호	199	우득(于勒)마을	140
안축(安軸)	224	웃터	74
안璋(安璋)	198	원각강(圓覺經)	234
안홍재(安弘濟)	230	원수물고개	89, 121
앞고래실골	80	원수물골(원습읍골)	121
앞산부리	72	원습읍 고개	89
애자교	72	원구지고개	65, 74, 113
양산(梁山)	204	유곡(柳谷)	168
양성기	200	유진산(柳珍山)	244
양숙	225	윤영춘(尹迎春)	241
양운순	200	율곡(栗谷)마을	122
양운의	226	율목군(栗木郡)	41
양율라	199	율진군(栗津郡)	27, 42
양재철(梁在輅)	36	율지(乙支)마을	146
양지(陽地)공원	133	읍봉(隅峰)	53
양찬	200, 226	응봉(鷹峰)	57
양탕	199	응천약수터	168
엘림(Elim) 복지타운	146	의향시	44
여덟미골	168	이곡(李穀)	201
여사곡평(麗使谷坪)	88	이기조(李基祚) 선생 묘와 신도비	133
여사벌	88	이기조	227
연성(連城)	42	이무영(李無影)	242

이범석(李範奭)	200, 244	장항구현(獐項口縣)	41
이범익(李範益)	239	장헌식(張憲植)	239
이색(李穡)	201	재궁골(齎宮-)	114
이상계(李成桂)	198, 200	재궁동	110
이수광	200	재골	114
이시애(李旆愛)	232, 235	전주 이씨(全州李氏)	147
이영진들	169	전철하(全澈河)	242
이원득(李元得)	230	절골	170
이원익(李元翼)	200	절밭	106, 65
이윤경(李允卿)	201	검배이들	75
이응희(李應禧)	229	김성(古星, 형성 : 彗星)고개	170
이이첨(李爾瞻)	229	정광보(鄭光輔)	206
이지춘(李子春)	200	정광필	230, 231
이재준(李載濬)	244	정난종(鄭蘭宗) 선생 묘역 및 신도비	171
이재형(李載澄)	244	정난종(鄭尙宗)	206, 232
이종국(李鍾國)	239	정목(鄭穆)	204
이철균(李哲均)	242	정문도(鄭文道)	204
이하음	200	정사(鄭賜)	232
이한(李翰)	200	정유길(鄭惟吉)	231
이황(李滉)	232	정자청(鄭自淸)	232
인덕원천	49	정장들	171
인조반정(仁祖反正)	191	정재훈(鄭載勳)	235
임세춘(林世春)	202	정지원(鄭之遠)	203
양범노성(仍伐奴城)	23	정창연(鄭昌衍)	231
양범노현(仍伐奴縣)	25, 41	정치화(鄭致和)	235
(丕)		정태화(鄭太和)	231, 235
작은 봉수골	169	정희문(鄭繪文)	203
작은고개골	133	조곡(鳥谷)	164
작은골	74	조광조(趙光祖)	230
장삼(薑叟)	75	조병직(趙秉稷)	240
장간리(章干里)	43	조선백자도요지	100
장구현(獐口縣)	42	조중완(趙重完)	240
장군바위	75	주공약수터	122
장미마을	147	주몽(朱蒙)마을	147
장송거리	89	주봉(酒峰)	54
장터	90	주자	208
장터골(별)	90	주잠(朱潛)	191
장항(獐項)	93	주희(朱熹)	207
		죽암(竹岩)	157
		죽암천(竹岩川)	172

중앙공원(中央公園)	147	데미산	172
지방마위골	172	모골	90
지봉산(芝峰山)	90	토오골	90
지석영(池錫永)	238	퇴계(溫溪)마을	122
지장골(地藏谷)	55		
집예골	172	(丑)	
		판서골(判書洞)	174
(天)		판곡 2리	44
차돌박이골	90	판곡(八谷)터널	174
채계공(蔡濟恭)	31	판곡1리(八谷一里)	44
천군호(千軍湖)	47	평금정(平金井)	106
천을봉(天乙峰)	55, 59	평송성(坪洞城)	71
청계사천(淸溪寺川)	49	풍령(風嶺)	58, 161
청계산	49	피크닉장 약수터	134
청천(淸川)	69		
청천평(淸川坪)	69	(音)	
초막골	133	학의천(鶴儀川)	49
초막골천	133	한내리(汗乃里)	50
초막동(草幕洞)	133, 43	한덕금(韓德及)	230
최승로(崔承老)	209	한라(漢拏)마을	123
최시형	209	한간(韓間)	209
최익현(崔益鉉)	209	한산주(漢山州)	23
최재우(崔濟愚)	209	한성	41
최치원(崔致遠)	209	한성의사회(漢城醫師會)	238
최행(崔沆)	209	한치의(韓致義)	235
충무(忠武)마을	114	한학(韓學)	210, 235
취락마을	75	한흥리(韓興履)	245
취암봉	53	해당우물(海堂)	90
		해주촌(海州村)	174
(ㅋ)		행갈곡	175
큰 봉수골	172	행강들	175
큰말	76, 172	현자동(峴底洞)	50
		호계교(虎溪橋)	106
(ㄷ)		호금교(虎持橋)	106
태백산(太白山)	39	호교루터	90
태을봉(太乙峰)	52, 53, 54, 55, 58, 147	호암산성(虎岩山城)	24, 25
태을산(太乙山)	51	호현(高峴)	87
		홍곡(虹谷)	84

홍섭(洪述)	211
홍승표(洪承均)	239
홍연필(洪彦弼)	211
홍일동(洪逸童)	237
홍천하(洪天河)	211
화산동(花山洞)	68
활터	175
황동(黃東)	91
황등(黃登)	91
호면내	67, 105
호면내교	76, 107

학술조사 연구원

- 책임연구원: 조병로 (경기대 사학과 교수 /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장)
선임연구원: 임상선 (본 연구소 비상임연구원 / 전 서울역사박물관 전문위원)
김기빈 (토지박물관 지명연구위원 / 한국땅이름협회 부회장)
공동연구원: 조성운 (본 연구소 비상임연구원)
이왕무 (본 연구소 상임연구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수료)
김찬수 (본 연구소 비상임연구원 / 경기대 대학원 박사과정)
보조연구원: 박종국 (본 연구소 조교)
조사보조원: 서정미 (경기대학교 사학과 3학년 재학생)
신광수 (경기대학교 사학과 3학년 재학생)
김은실 (경기대학교 사학과 3학년 재학생)
강이진 (경기대학교 사학과 3학년 재학생)
오은지 (경기대학교 사학과 3학년 재학생)
나한나 (경기대학교 사학과 3학년 재학생)

편집위원

- 조병로 (경기대 사학과 교수 /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장)
임상선 (본 연구소 비상임연구원 / 전 서울역사박물관 전문위원)
김기빈 (토지박물관 지명연구위원 / 한국땅이름협회 부회장)
조성운 (본 연구소 비상임연구원)
이왕무 (본 연구소 상임연구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수료)
김찬수 (본 연구소 비상임연구원 / 경기대 대학원 박사과정)

자문 및 검토 위원

송운석	정준수	한수교
이기형	송요태	김선옥
곽남현	안구준	주영호
삼재극	양태부	김익환
문중혁	임병희	최창규
이운웅	임병택	

항토사료 학술조사용역 보고서 군포시 지명유래 및 씨족역사

발행인 : 2004. 2.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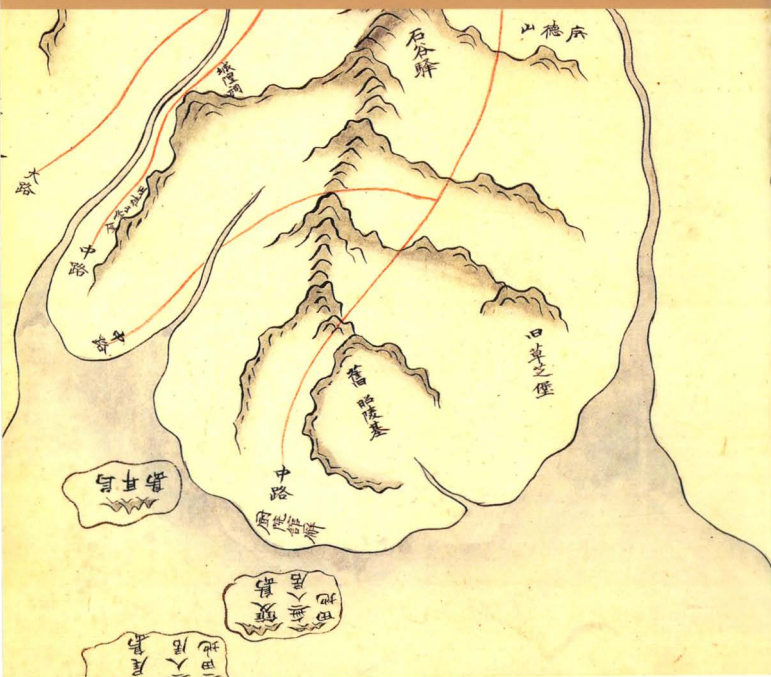
발 행 : 군포시
450-030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44
전화 031)392-3000

편 집 : 경기대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443-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94-6
전화 031)249-9168

협 조 : 군포문화원
435-818 경기도 군포시 당동 871-1
전화 031)397-0195

인 쇄 : 국학자료원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462-1 준재빌딩 4층
전화 442-4623~4, 팩스 442-4625

비매품



山德庆

石谷驛

曰莫之堡

舊曉陵墓

中路

島耳島

雙居島
地居島

田入尾
地居島

大路

中路

大路